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방 이후 우리사회에서 전개된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정 속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도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다. 그동안 국가발전의 지상목표로 추진되어 온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따라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입시위주의 과열된 교육풍토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청소년들의 의식세계에 커다란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주변은 점차 각종 유해업소·시설에 의해 점유되어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여가를 보낼 만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근년에 접어들어 점차 흡포화·연소화되어 가고 있는 소년비행의 양상은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사회환경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입안·제정되어 종래에 산발적·단속적(斷續的)으로 시행되어 오던 다양한 청소년정책들을 통합하고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한 획기적인 정책대안들이 개발되기에 이른 것은, 이제 더 이상 청소년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소년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생활·의식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와 현실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이내 현실적 적합성을 상실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의 각종 공식통계자료와 청소년에 관한 여러 기관의 실태조사의 결과를 수합·정리하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위치와 그 변화양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기본방향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청소년 사회지표의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의 개발은 그 사업의 성격상 개별 연구자의 차원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분석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기존의 실태조사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자, 기관의 수준에서 전개되어 왔으나,

①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방법 등이 조사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조사결과와 일반화에 한계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② 청소년 연령구분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자료간의 상호비교가 불가능하고,

③ 동일한 조사항목에 대한 시계열적인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④ 조사분야가 특정 주제에 편중되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연구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사회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① 조사결과를 한국사회의 전체 청소년들의 실태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조사 대상의 대표성),

② 조사영역·항목선정의 타당성과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관련 정부기관·단체·학계의 광범위한 의견과 제안들을 수렴하여 조사내용을 확정하고(조사내용의 타당성),

③ 일정한 주기를 두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 조사함으로써 시간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청소년 지표사업을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지표의 선정·개발을 위한 선행연구의 정리·분석과, 지표로서 다루어져야 할 조사항목에 대한 1차적인 검증작업의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조사영역으로는 청소년 인구와 가족, 교육, 노동, 여가와 문화활동, 건강과 보건, 소년비행, 사회·국가의식의 7가지를 설정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청소년 지표체계의 구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청소년지표체계의 시안을 확정

하였다.

3.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선행연구

본 연구는 크게 기본 통계자료조사와 설문조사의 두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 통계자료조사는 정부기관에서 발간된 각종 백서·연감류, 국책연구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공포한 청소년관련 통계자료들을 정리·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자료들은 「교육통계연보」(교육부),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인구 및 주택 센서스」(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통계성), 「보건사회통계연보」(보건사회부), 「범죄백서」(법무부) 등이다.

한편 한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 통계자료를 통한 접근방법 이외에 이들 통계자료로는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들의 생활·의식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의 설문조사의 연구결과를 정리·검토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통계조사」(통계청, 1991) : 한국의 사회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공식통계로는 파악되지 않는 주관적 의식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보고서이다. 1979년부터 시작되어 조사항목을 바꾸어가면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1991년에는 고용·노사, 사회, 공안부문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32,500표본가구내의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이다.

②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도종수와 3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 유해환경과 비행의 연관성을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조사표본은 전국의 학생·근로청소년 4,965명으로서, 하위집단별 표본의 수는 국민학생 982명, 중학생 1,592명, 고등학생 1,397명, 근로청소년 994명이다.

③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공부압력을 중심으로」(김준호와 3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청소년들에 대한 공부압력이 그들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고등학생 표본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에 거주하는 2,365명이며, 재수생 표본은 서울에 거주하는 500명이다.

④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김준호외 3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청소년들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의 정도, 피해상황,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의 표본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 3,324명과 고등학생 2,263명이다.

⑤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 한국을 비롯한 세계 10개국(일본,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스웨덴, 호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학교·직장·사회 및 국가에 대한 의식과 인생관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국제비교조사이다. 한국의 조사표본은 만 18~24세의 청소년 1,002명을 지역 비례할당의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2) 청소년 생활·의식조사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광범위하게 활용함과 아울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새롭게 설문지를 개발하여 전국의 학생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을 학생청소년으로 국한시킨 것은 본 연구의 중점적인 연구대상인 10대 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이 학생청소년으로서, 무직청소년, 근로청소년은 인구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그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어서 표본추출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었다.

설문조사의 실시경과를 개관하면, 1991년 7월부터 문항구성작업에 들어가 8월에 조사표본 선정작업을 완료한 뒤 9월 한달 동안 조사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0월부터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통계처리작업에 들어갔다.

설문의 문항구성은 한국 청소년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사에서 간과되어 왔거나, 기존의 조사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나 그 시점이 오래되어 최근의 실태를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을 조사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구·가족 : 가족구성, 가족원 수, 부모님 부양의사, 어머니의 직업, 부모의 양육 방식, 가족관계, 가족의식, 가정생활 만족도 등 (27문항)
- ② 교육 : 현행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 학교시설·환경에 대한 평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요인, 통학방법, 대학교 진학의사, 과외공부 여부, 학교생활 만족도 등 (23문항)

- ③ 노동 : 원하는 직장, 일하는 목적 (2문항)
- ④ 여가·문화 : 각종 문화활동의 경험빈도, 각종 인쇄매체 구독율, 문화시설 보유율, 친구의 수, 한달 평균 용돈, 고민·걱정거리, 여가생활 만족도 등 (33문항)
- ⑤ 건강·보건 : 아침결식빈도, 운동회수, 병원이용빈도, 건강상태 평가 (4문항)
- ⑥ 사회·국가의식 :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각종 사회문제의 심각도 평가,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비행의 원인, 우리나라의 발전수준 평가,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등 (21문항)
- ⑦ 배경변인 : 성별, 재학중인 학교, 학교의 소재지, 학년, 학급성적, 부모의 학력, 종교, 가정의 경제수준, 아버지의 직업 등 (10문항)

조사표본의 선정은 전국의 학생청소년들을 성별, 교급별, 지역별로 층화하여 각 범주별로 실제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할당표집(quota sampling)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본의 선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의 크기를 2,000명 정도로 설정한 뒤 전국을 서울, 직할시, 시군부의 3대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조사지역(단, 직할시와 시군부는 영·호남지역으로 한정함)을 임의로 선정(직할시 : 부산, 대구, 광주, 시군부 : 진주, 함안, 보성, 순천), 권역별 실제 인구비례에 의거하여 조사표본을 학교단위로 할당하였다. 조사대상학교는 「학교연감」에 의거하여 지역별로 2배수로 무작위 추출한 뒤 설문조사 협조의뢰 공문을 발송, 학교장의 양해하에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학교의 수는 총 39개교이다 (서울10, 부산5, 대구5, 광주7, 진주3, 함안3, 보성7, 순천2).

조사대상 학교가 선정된 뒤에는 연구자가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급단위로 설문응답요령을 설명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매당 평균 40분정도였다.

조사실시 후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작업(coding)과 오류검토작업(error checking)을 거친 뒤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전산처리는 우선 각 문항의 항목별 응답빈도를 산출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들을 재조정(recoding)한 뒤 선정된 독립변인별로 교차분석(cross-tabulations), t-test, ANOVA 등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된 조사표본을 실제 모집단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비교

(단위 : 명, %)

· 모집단 : 지역별 · 교급별 학생수(1990)

	서울	직할시	시군부	계
중학교	550,197(12.4)	539,597(12.1)	1,142,536(25.7)	2,232,330(50.2)
인문고	375,928(8.5)	341,003(7.7)	689,960(15.5)	1,406,891(31.7)
실업고	176,174(4.0)	194,317(4.4)	433,530(9.8)	804,021(18.1)
계	1,102,299(24.8)	1,074,917(24.2)	2,266,020(51.0)	4,443,242(10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1990)

· 표본집단

	서울	직할시	시군부	계
중학교	323(15.9)	210(10.3)	494(24.3)	1,025(50.5)
인문고	201(9.9)	201(9.9)	200(9.9)	602(29.7)
실업고	100(4.9)	96(4.7)	205(10.1)	403(19.9)
계	624(30.7)	507(25.0)	899(44.3)	2,030(100.0)

각 문항의 통계처리에서 활용된 독립변인은 주로 성별, 교급별, 지역별 변인의 세가지이며, 이밖에 문항의 성격에 따라 학교계열(인문고, 실업고), 형제순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변인 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가정의 경제수준의 세가지를 종합하여 산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상하는 세 변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 중, 하의 세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상위집단 : ①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며, 직업은 전문직, 관리직, 전문 기술직, 사무직 중의 하나이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 이상인 경우
 ②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일 경우,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관리직이고 경제

수준은 잘사는 편 이상인 경우

중간집단: 상위집단, 하위집단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하위집단: ①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 직업이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업, 무직 중의 하나이고, 경제수준은 약간 못사는 편 이하인 경우

②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직업이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업, 무직중의 하나이고, 경제수준은 중간 이하인 경우

이상의 기준으로 조사표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형화한 결과 상위집단이 22.1%(431명), 중간집단이 54.8%(1,067명), 하위집단이 23.1%(451명)로 나타났다.

한편 본문에서 청소년 생활·의식조사 설문결과 유의도 수준은 $P < 0.05 = *$, $P < 0.01 = **$, $P < 0.001 = ***$ 로 표기하기로 한다.

〈표 2〉 SES 구성문항별 응답결과

(단위:명, %)

① 아버지의 학력

	국 이	졸 하	중학교 졸 업	고등학교 졸 업	대학교 졸 업	대학원 졸 업
사례수	359	414	589	510	120	
비율	17.7	20.4	29.0	25.1	5.9	

②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관리직	전문 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판매 서비스직	농업 어업	무직
사례수	108	290	207	445	110	278	465	63
비율	5.3	14.3	10.2	21.9	5.4	13.7	22.9	3.1

③ 가정의 경제수준

	매우 잘사는편	그런대로 잘사는편	중간정도	중간보다 약간못사는편	중간보다 훨씬못사는편
사례수	26	528	1,125	294	49
비율	1.3	26.0	55.4	14.5	2.4

주: 무응답은 표에서 제외함.

자료: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I. 청소년인구와 가족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속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인구와 가족의 실태를 공식 통계자료와 각종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개관하기로 한다.

본문의 구성은 크게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의식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가족구조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인구의 현황과 동태, 가족의 구성과 해체, 불안정가구의 실태를 정리·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가족관계와 가족의식에 대한 논의는 주로 “청소년 생활·의식조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가족관계에서는 가족관계의 만족도, 부모의 자녀지도방식, 이상적인 부모상을 다루고, 가족의식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관과 부모님 부양에 대한 태도, 가정내의 의사결정방식, 가정생활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I -1. 가족구조

가족은 청소년이 사회성원으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우고 익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사회변화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점차 해체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이 담당하는 사회화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가족의 교육적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사회의 가족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현상파악이 선결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하여 우리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모양상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청소년 인구

1) 청소년인구의 비율

우리나라의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인구의 비율은 1989년 현재 약 13,641천명으로서 전체인구의 32.3%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인구의 남녀간의 비율은 51.6% :

48.6%로서 전체인구의 성비와 비교할 때 남초(男超)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근년에 접어들어 한, 두자녀만, 특히 아들만 낳고 단산하는 소자녀가구가 점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인구의 남초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청소년 인구(1989)

(단위 : 천명, %)

	전		체		청 소		년
	계	남	여	계	남	여	
인구수	42,380	21,359	21,021	13,641	7,033	6,608	
비 율	100.0	50.4	49.6	100.0	51.6	48.4	

자료 : 경제기획원(추계인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인구의 비율은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아직도 구미의 선진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에

〈표 1-2〉 주요국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

(단위 : 만명, %)

		전체인구	0~9세	10~24세	25세 이상
한	국(1988)	4,197	17.5	30.7	51.8
일	본(1988)	12,278	12.0	22.6	65.4
인	도(1987)	78,137	25.6	31.7	42.7
태	국(1988)	5,454	23.3	33.2	43.5
미	국(1987)	24,340	14.7	22.6	62.7
소	련(1987)	28,138	17.5	23.1	59.4
영	국(1987)	5,693	12.6	22.3	65.1
서	독(1986)	6,107	9.6	21.5	68.9
프	랑 스(1988)	5,575	13.6	22.4	64.0
스	웨 덴(1988)	844	11.2	20.0	68.8
호	주(1987)	1,625	14.9	24.5	60.6

자료 : UN, *Statistical Yearbook*

속하고 있다. 1986~88년 기간중 세계 주요국의 통계를 검토해 보면, 1988년 한국의 10~24세 인구비율은 30.7%로서 인도, 태국 등 개발도상국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미국, 일본, 유럽제국들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0~9세까지의 아동인구의 비율은 선진국수준에 근접해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구는 선진국 형으로 계속 감소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인구동태

우리나라의 인구성장율은 인구센서스가 최초로 실시되었던 1966년의 2.34%에서 1970년의 0.97%로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의료시설의 발전 등으로 사망율이 꾸준히 감소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줄어든 것은 출생

〈표 1-3〉 인구동태율

(단위 : 천명당 인구, %)

	조출생율	조사망율	자연증가율	이민율*	연평균인구성장율
1966	31.9	8.6	23.4	—	2.34
1970	29.5	9.8	19.7	—	1.97
1975	24.6	7.3	17.3	1.2	1.67
1980	23.4	6.7	16.7	1.0	1.57
1985	16.4	6.2	10.2	1.0	0.93
1990	16.4	5.8	10.6	0.9	0.97

주 : *1966, 1970년에는 이민율이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음.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주택 총조사」, 추계인구

율의 급격한 저하(1966~1990 기간동안 1/2수준으로 저하)에서 기인하고 있다. 인구 성장율의 감소가 이와 같은 추세로 지속된다면 대략 2020년경부터는 마이너스의 인구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추계).

〈표 1-4〉 인구동태의 국제비교(198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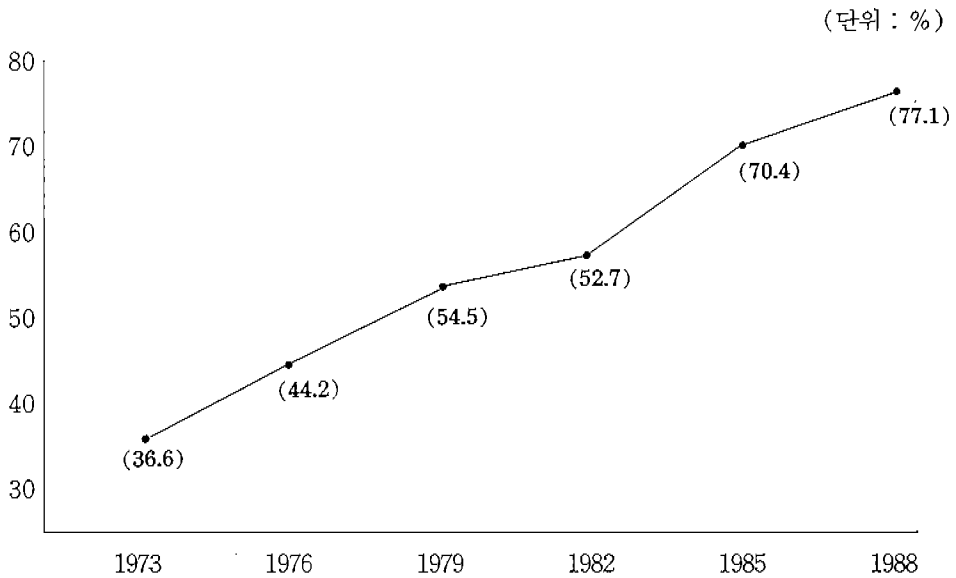
	한 국	싱가폴*	일 본	미 국*	영 국	서 독	프랑스*	스웨덴
조출생율	16.5	20.0	10.1	15.9	13.6	11.0	13.8	13.6
조사망율	5.8	3.2	6.4	8.8	11.5	11.2	9.4	10.8
자연증가율	10.6	14.8	3.7	7.1	2.1	-0.2	4.4	2.8

주 : *자연증가율을 제외한 수치는 1988년의 통계임.

자료 : 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한국사회에서의 급속한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197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이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계획사업의 연도별 실천율을 보면 1973년의 36.6%에서 1988년에는 77.1%로 1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가족계획 실천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출산율의 변화를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1971~1988년 기간 동안 인구 천명당 출산율에 있어서 15~19세는 18명에서 5명으로, 20~24세는 203명에 94명으로 양 집단 모두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여 청소년층이 가족계획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연령별 출산율

	1971	1975	1980	1985	1988
합계출산율(명)	4.5	3.3	2.8	1.7	1.6
15~19세(천명당)	18	14	8	9	5
20~24세(")	203	163	168	119	9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인구 성장율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인구구성의 고연령화현상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 평균연령은 1966년의 23.4세에서 1985년에는 27.7세로, 4.3세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여자가 4.5세, 남자가 4.1세 증가하여 여성인구의 고연령화현상이 더욱 두드졌다.

〈표1-6〉 국민평균연령

(단위 : 세)

	1966	1970	1975	1980	1985
계	23.4	24.0	24.8	26.1	27.7
남	22.6	23.1	23.9	25.2	26.7
여	24.2	24.8	25.7	27.1	28.7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 기대수명에 있어서도 1989년 현재 20~24세의 남자 청소년의 기대수명이 48.6년임에 비해 여자는 56.5년로서 약 7.9년의 격차가 발견된다.

〈표1-7〉 연령별 기대수명

(단위 : 세)

	1970		1979		1989	
	남	여	남	여	남	여
10~14세	54.7	61.1	55.6	63.5	58.2	66.2
15~19세	50.0	56.3	50.9	58.6	53.3	61.4
20~24세	45.4	51.7	46.2	53.9	48.6	56.5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 가족의 구성

1) 가족구성

우리나라 국민들의 초혼연령은 1985년 현재 남자 27.8세, 여자 24.8세로서 1966년에 비해 각각 1.0세, 2.0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연령차이는 같은 기간 동

안 3.9세에서 3.0세로 감소하여 점차 근접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1-8〉 평균 초혼연령

(단위 : 세)

	전 국		시 부		군 부	
	남	여	남	여	남	여
1966	26.7	22.8	27.7	24.0	26.1	22.0
1970	27.1	23.3	27.5	23.8	26.8	22.6
1975	27.4	23.6	27.6	24.2	27.1	22.9
1980	27.3	24.1	27.4	24.3	27.3	23.5
1985	27.8	24.8	27.8	25.0	27.9	24.0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주택총조사」

세대별 가구구성에 있어서는 1960~1985년 기간 동안 3세대가구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1세대 및 2세대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또는 직계가족)가 점차 해체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대신하여 소가족(내지는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 1-9〉 가구구성형태별 비율

(단위 : 천가구, %)

	총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단 독	비혈연
		가 구	가 구	가 구	가 구	가 구	가 구
1960	4,371	7.5	64.0	26.9	1.6	—	—
1965	4,901	5.7	67.7	24.1	2.6	—	—
1970	5,576	6.8	70.0	22.1	1.1	—	—
1975	6,648	6.7	68.9	19.2	0.9	4.2	—
1980	7,969	8.3	68.5	16.5	0.5	4.8	1.5
1985	9,571	9.6	67.0	14.4	0.4	6.9	1.7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주택총조사」

가족구조의 핵가족화현상은 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85년의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 볼 때 1세대 및 2세대가구는 시지역에,

반면에 3세대 및 4세대가구는 군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1-10〉 가구주의 세대구성(1985)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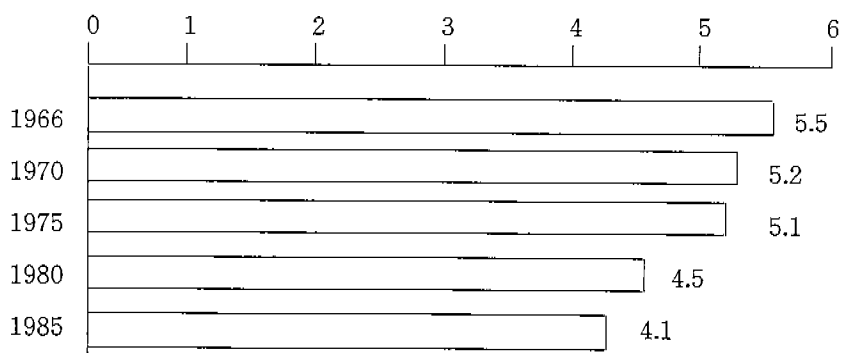
	1세대 가 구	2세대 가 구	3세대 가 구	4세대이상 가 구	단 독 가 구	비혈연 가 구
전 국	9.6	67.0	14.4	0.4	6.9	1.7
시 부	9.4	69.8	11.8	0.2	6.8	2.0
군 부	9.9	61.4	19.6	0.7	7.2	1.1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주택총조사」

핵가족의 증가는 평균 가구원의 수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5년까지는 5명 이상이었던가 이후 5명미만으로 감소하여 1985년에는 4.1명선으로 저하하였다. 이것은 1966년과 비교할 때 약 1.4명이 감소한 것으로서 소자녀가구의 증대, 핵가족제도의 보편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2] 평균가구원수

(단위 : 명)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주택총조사」

이와 같은 가구원 수의 감소경향은 국민들의 희망 자녀수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1982년 15세 이상 인구의 기대자녀수는 2.82명이었던가

1988년에는 2.2명으로 격감하였고, 특히 장래에 가구를 구성할 15~24세 청소년층의 기대자녀수가 전체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 1-11〉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

(단위 : 명)

	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		
	1982	1985	1988	1982	1985	1988
15세이상 전체	2.82	2.48	2.22	2.46	2.00	1.98
15~24세	2.02	1.69	1.61	2.09	1.82	1.8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 가족해체

이혼은 가족해체현상을 야기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의 이혼은 그 절대수치에 있어서 계속 급증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1980~1989년 기간 동안 이혼건수는 무려 18.9%가 증가하였다. 이혼의 사유로는 부부간의 불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83.9%(1989)에 달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 경제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하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다.

〈표 1-12〉 이혼사유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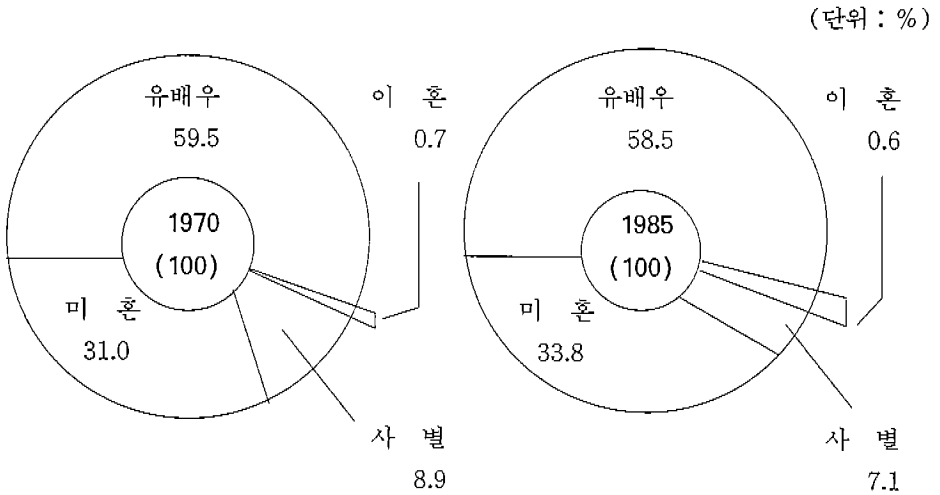
(단위 : 건, %)

	계	부부불화	가족간불화	건강상	경제문제	기 타
1980	23,811	74.4	5.3	3.3	3.6	13.4
1985	39,383	81.2	4.3	1.6	2.9	10.0
1989	45,039	83.9	3.3	1.4	1.9	9.5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동태신고」

1985년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중 이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0.6%로서 1970년의 0.7%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재혼자는 “유배우”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를 근거로 이혼율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1-3] 혼인상태별 구성비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주택 총조사」

3. 불안정가구와 청소년

1) 불안정가구

1985년 우리나라 가구중 불안정가구의 비율은 45.5%로서 전체가구의 1/2에 근접해 있다. 1975년의 불안정가구 비율 31.5%에서 불과 10년 사이에 14%가 증가한 것이다. 불안정가구의 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노인가구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여 32.8% (1985)에 이르는데, 이것은 1975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를 알 수 있다.

〈표 1-13〉 불안정 가구비율

(단위 : 1,000가구, %)

일반가구	불안정가구		불안정 가구 형태별				
	가구수	구성비	노인가구	미성년자가구	편부모 + 미성년자가구	기	타
1975	6,648	209	31.5	17.1	6.7	3.8	3.9
1980	7,969	251	31.5	20.1	4.6	2.7	4.1
1985	9,571	436	45.5	32.8	5.7	2.8	4.1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주택 총조사」

2) 어려운 청소년

부모의 유기, 미혼모의 출산, 가출 등의 요인으로 형성되는 요보호아동(0~18세)은 1990년 현재 약 639천명(추계)으로서 전체 아동인구의 4.7%를 점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생활 수준이 점차 향상되어감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비율은 점차 감소해 갈 것으로

〈표 1-14〉 요보호아동 인구 추계

(단위 : 1,000명, %)

	총인구	아동인구(A)	요보호아동	
			인 구(B)	구성비(B/A)
1990	42,793	13,677	639	4.7
1995	44,870	12,881	527	4.5
2000	46,828	12,251	435	3.6

자료 :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사업지침」(1991)

예상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아동복지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보호아동을 위한 적절한 대책의 하나로서 입양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낮아서 1989년의 통계를 보면 전체 입양아동의 약 69%가 해외로 입양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1-15〉 아동입양 현황

(단위 : 개소, 명)

	입양기관			입양아동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1980	30	26	4	10,329	2,382	7,947
1988	31	27	4	8,787	2,324	6,463
1989	32	28	4	6,063	1,872	4,191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감」

부모의 이혼 또는 부모와의 사별 등의 요인으로 형성된 소년가장세대의 인원은 1990년 현재 세대주 6,696명, 세대원 13,778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로 생계비 보조, 학비감면 등 물질적인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표 1-16〉 소년가장세대 현황

(단위 : 명)

	세대주	세 대 원					
		소계	미취학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1985	4,901	11,125	410	3,356	3,133	1,135	3,091
1990	6,696	13,778	142	3,593	4,009	2,998	3,036

자료 : 보사부

I -2. 가 족 관 계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가정내에서 가족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어떠한 지도와 교육을 받고 있는가,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부모상은 어떤 것인지를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가족관계의 만족도

1) 부모와의 관계

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인 57.9%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불만족의 응답비율(11.6%)을 훨씬 상회하였다.

응답결과를 각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성별, 교급별, 지역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고교생보다는 중학생집단의 만족의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시군부지역의 만족도가 대도시지역을 근소하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특히 교급별 차이가 현저하여 고교생들중 48.4%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 전체 평균치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따라 세변인을 교차하여 얻은 8개의 하위집단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대도시의 중학교 남학생(77.3%)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시군부 고등학교 여학생(45.6%)이었다.

기타의 변인중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SES 상

〈표 1-17〉 가족관계 만족도 - 본인과 아버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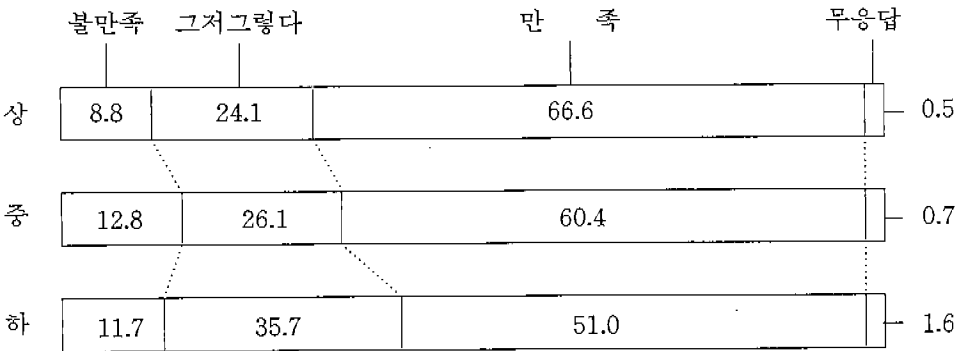
(단위 : %, 명)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11.6	27.3	63.3	3.2	(2030)	
성 별	남	10.8	22.7	62.3	4.1	(1017)	$\chi^2 = 30.00^{***}$
	여	11.1	32.0	53.3	2.3	(1013)	
교 급	중	8.7	22.1	67.0	2.0	(1025)	$\chi^2 = 109.28^{***}$
	고	14.5	32.6	48.4	4.4	(1005)	
지 역	대도시	13.0	26.2	57.1	3.3	(1131)	$\chi^2 = 13.39^{***}$
	시군부	9.9	28.8	58.2	3.1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그림 1-4] 아버지와 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SES별

(단위 : %)



비고 : $\chi^2 = 44.92^{***}$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위집단으로 올라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여 부친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경제수준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어머니와의 관계

전체 청소년들중 현재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77.7%이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여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가정내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더욱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와의 차이는 앞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중학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1-18〉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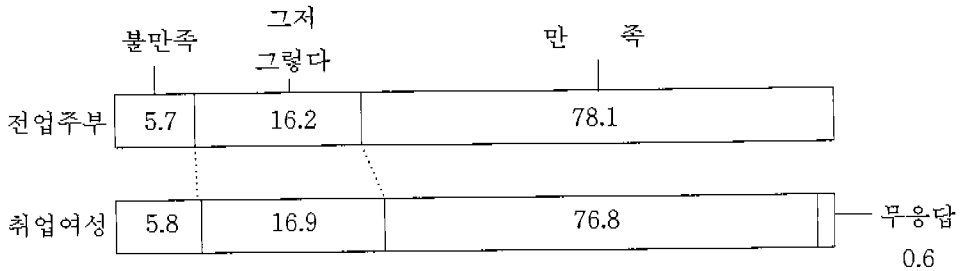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5.7	15.8	77.7	0.8	(2030)	
성 별	남	4.7	12.8	81.5	1.0	(1017)	$\chi^2 = 26.12^{***}$
	여	6.8	18.9	73.8	0.7	(1013)	
교 급	중	5.2	13.5	80.3	1.0	(1025)	$\chi^2 = 30.57^{***}$
	고	6.3	18.2	74.8	0.7	(1005)	
지 역	대도시	5.7	17.2	76.4	0.6	(1131)	$\chi^2 = 5.40$
	시군부	5.7	14.0	79.2	1.1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기타 변인에 있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결과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각 하위집단간에 별다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머니가 집에서 일하는 부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아서 82.9%, 전업주부인 경우가 78.1%, 밖에서 일하는 부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77.0%였으며, 직장여성인 경우가 가장 낮은 76.8%였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점은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와 직장여성인 경우의 만족도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와의 접촉

[그림 1-5] 본인과 어머니와의 관계 — 어머니의 직업별

(단위 : %)



주 : 부업여성은 제외.

비고 : $\chi^2 = 539.8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시간의 길이가 그 관계의 만족도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부의 취업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다음으로는 위의 조사와 대비하기 위해 부모들은 과연 자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1991) 결과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64.8%로서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는 65.5% 여자는 64.1%로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 남자가 여자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의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표 1-19〉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매우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계	0.9	5.8	28.5	33.0	31.8
남	0.8	5.4	28.3	32.6	32.9
여	0.9	6.3	28.7	33.2	30.9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1991)

또한 위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는데, 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낮아지고 그 관계도 점차 소원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부모와의 의견대립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해서 “지난 2, 3년동안 부모님 중 어느 한 분과 의견이 대립되어 충돌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각국의 응답결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20〉 부모와의 의견대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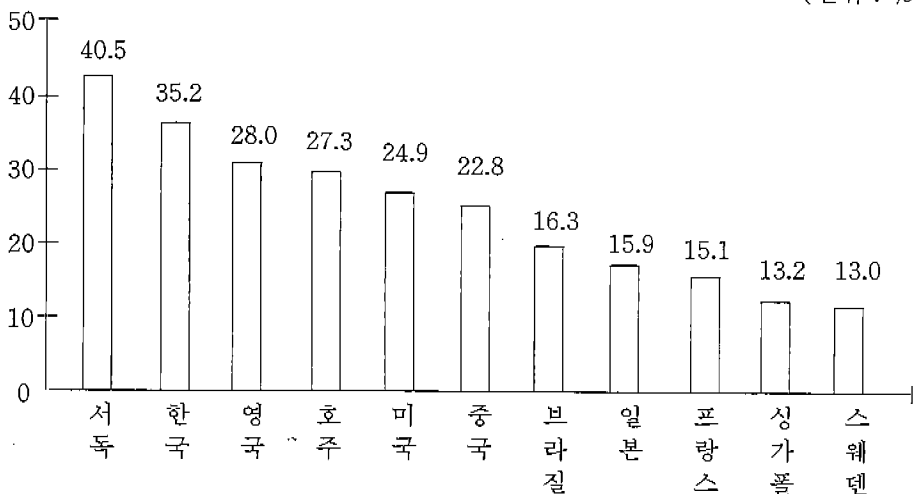
(단위 : %)

		있 다	없 다	무 응 답	(사례수)
계		35.2	63.7	1.1	(985)
성 별	남	39.8	59.4	0.8	(490)
	여	30.7	67.9	1.4	(495)
연 령	18~19	38.8	60.6	0.6	(348)
	20~22	35.6	62.7	1.7	(407)
	23~24	29.1	70.0	0.9	(230)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 378.

〔그림 1-6〕 국가별 부모와의 의견대립 경험

(단위 : %)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165.

먼저 한국의 응답결과를 보면, 부모와의 의견대립으로 충돌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5.2%로서, 여자(30.7%)보다는 남자(39.8%)에게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8~19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응답결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비교대상 11개국가중 서독(40.5%)에 이어서 두번째로서 부모-자녀간의 의견대립이 매우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동양권의 중국(22.8%)을 월등히 앞서고 있고 일본(15.1%), 싱가포르(13.2%)의 배 이상에 달하여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편임을 알 수 있다.

2) 아버지-어머니의 관계

한 가정에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는 전체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님들간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응답결과를 보면 부모님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을 느낀다는 응답이 66.8%에 달하여 불만스럽다는 응답(8.0%)을 월등히 상회하였다.

〈표 1-21〉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명)

		불만	그저 그렇다	만족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8.0	21.6	66.8	3.6	(2030)	
성 별	남	8.0	20.3	67.1	4.6	(1017)	$\chi^2 = 10.50$
	여	8.0	22.9	66.4	2.7	(1013)	
교 급	중	8.0	18.2	71.1	2.6	(1025)	$\chi^2 = 47.19^{***}$
	고	8.1	25.0	62.3	4.7	(1005)	
지 역	대도시	7.0	19.9	69.5	3.6	(1131)	$\chi^2 = 28.54^{***}$
	시군부	9.4	23.7	63.3	3.7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에 있어서는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급별로는 고교생보다는 중학생이, 지역별로는 시군부보다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님들간의 관계를 보다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었다. 세 변인을 교차하여 얻은 8개의 하위집단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대도시의 중학교 남학생(78.1%),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시군부 고등학교 여학생(58.3%)이었다.

[그림 1-7] 아버지-어머니관계에 대한 만족도 : 어머니의 직업별

	불만	그저그렇다	만족	무응답
전업주부	6.7	19.8	72.3	1.3
취업여성	10.3	22.6	60.8	6.2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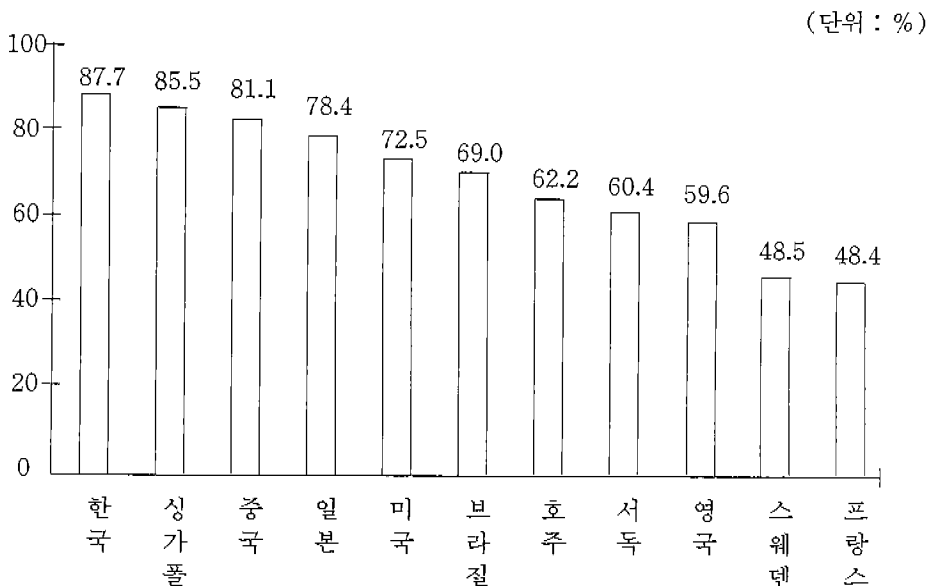
〈표 1-22〉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매우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계	1.9	6.4	33.4	28.8	29.5
남	1.2	4.3	33.0	29.0	32.4
여	2.6	8.4	33.7	28.6	26.7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1991)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질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정내의 중요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7.7%, “아니다”가 11.2%로서 긍정의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11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비교대상 국가들중에서 긍정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싱가포르, 중국, 일본의 순이었으며 북남미와 서유럽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기록하였다. 아버지의 가정내 주도권에 대해서 80% 안팎의 긍정응답율을 보인 국가들이 모두 유교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인 점이 주목된다.

[그림 1-8] “가정내의 주도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다” : 국제비교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1991), p. 158.

3) 형제들간의 관계

본인과 형제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청소년들중 64.8%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각 하위집단별로는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중학생보다는 고교생이 더욱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표 1-23〉 본인과 형제들간의 관계

(단위 : %, 명)

		불만	그저 그렇다	만족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8.1	25.2	64.8	2.0	(2030)	
성별	남	8.5	22.3	66.5	2.8	(1017)	$\chi^2 = 27.05^{***}$
	여	7.7	28.0	63.1	1.2	(1013)	
교급	중	10.8	23.3	63.3	2.5	(1025)	$\chi^2 = 31.90^{***}$
	고	5.3	27.1	66.3	1.4	(1005)	
지역	대도시	8.5	27.3	62.1	2.1	(1131)	$\chi^2 = 10.46$
	시군부	7.5	22.5	68.2	1.8	(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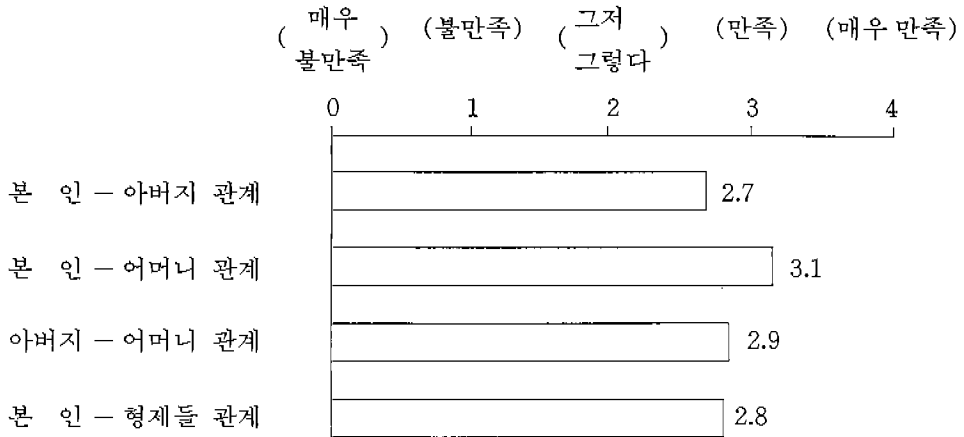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이상의 한국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 선택지로 제시한 응답항목에 대해 만족의 정도에 따라 0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즉, “매우 불만족”=0, “불만족”=1, “그저 그렇다”=2, “만족”=3, “매우 만족”=4) 응답결과를 합산 그 평균치를 구해본 결과는 [그림 1-9]와 같다.

위의 [그림 1-9]에 따르면 본인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유일하게 “만족”의 수준을 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아버지-어머니의 관계(2.9), 본인-형제들 관계(2.8)이며 본인-아버지의 관계가 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자녀의 관계가 다른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만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점인데, 그 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문항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9] 가족구성원들간의 만족도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2. 부모의 자녀지도 방식

1) 자녀지도에 대한 태도

가. 자녀지도의 엄격성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녀지도에 임하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엄격하게 대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먼저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청소년들중 3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그렇다”는 응답율(29.8%)을 상회하였다.

각 하위집단별로는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중학생보다는 고교생이 “그렇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즉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별, 부친의 학력별, 형제유무·순서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위의 두가지 변인에 대해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부친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제유무에 있어서는 형제가 있는 자녀보다는 독자인 경우, 또한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첫번째 자녀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결과를 남자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엄격하게 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외아들이 37.3%로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장남의 33.9%, 차남 이하가 가장 낮은 31.5%였다. 이것은 자녀가 외아들인 경우에는 부모의 관심이 집중되어 가장 엄격하게 지도하고 있으며, 가계계승권자인 장남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비해 차남 이하의 자녀는 비교적 자유롭게 방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4〉 아버지－“자녀에게 엄격하게 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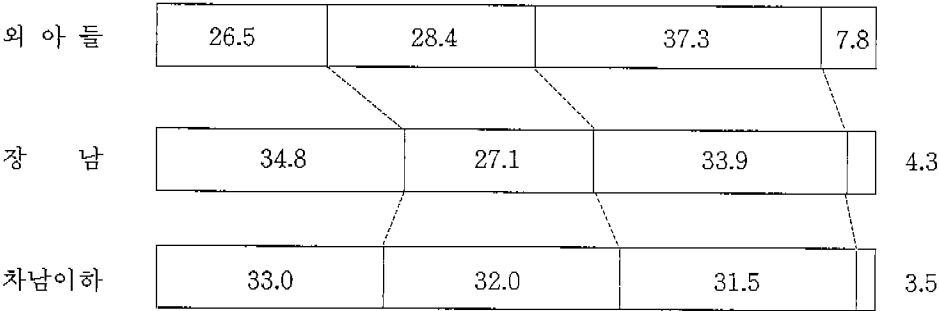
(단위 : %, 명)

		그렇지 않다	중립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38.0	28.9	29.8	3.3	(2030)		
성별	남	33.3	29.2	33.4	4.2	(1017)	$\chi^2 = 32.62^{***}$	
	여	42.6	28.6	26.2	2.5	(1013)		
교급	중	38.4	30.8	28.3	2.4	(1025)	$\chi^2 = 17.31^{***}$	
	고	37.5	27.0	31.4	4.3	(1005)		
지역	대도시	38.5	29.1	28.9	3.4	(1131)	$\chi^2 = 3.67^{***}$	
	시군부	37.2	28.7	31.0	3.2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그림 1-10] 아버지－“자녀에게 엄격하게 대하신다”

(단위 : %,)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다음으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5〉와 같다. 아버지에 대한 응답결과와 동일하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6%로서

가장 다수였고 “그렇다”는 응답은 1/4에도 못미치는 22.2%였다. 앞서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자녀지도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함을 알 수 있다.

각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앞서 문항과 동일하게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하였다. 즉,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대한다는 점은 아버지의 태도와 동일하나, 아버지가 고교생 자녀에게 더욱 엄격하게 대하는 것과는 달리 어머니는 중학생 자녀에게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지도에 대한 주도권을 어머니가 쥐고 있다가 자녀가 점차 장성할수록 그 주도권이 아버지에게로 옮겨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5〉 어머니 - “자녀에게 엄격하게 대하신다”

(단위 : %, 명)

		그렇지 않다	중립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51.6	25.2	22.2	0.9	(2030)		
성별	남	48.3	25.1	25.6	1.1	(1017)	$\chi^2 = 27.56$	
	여	71.9	25.4	18.9	0.8	(1013)		
교급	중	47.7	26.4	24.5	1.3	(1025)	$\chi^2 = 16.10$	
	고	55.6	24.0	19.7	0.6	(1005)		
지역	대도시	53.6	25.6	20.1	0.8	(1131)	$\chi^2 = 9.95$	
	시군부	49.2	24.8	25.0	1.1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기타 변인별 응답결과도 앞서의 문항과 유사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형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독자에게, 차남(녀) 이하보다는 장남(여)에게 보다 엄격하게 대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별로도 자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직업여성보다는 전업주부가 자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직업여성들은 사회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자녀지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방임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11] 어머니 - “자녀에게 엄격하게 대하신다”

(단위 : %)

전업주부	50.3	25.7	23.4	0.5
취업여성	56.7	23.1	20.1	

주 : 부업여성은 제외.

비고 : $\chi^2 = 454.00^{***}$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나. 자녀교육 · 훈련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교육 · 훈련에 있어서 자신있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에 대해서 전체 청소년들중 77.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1-26〉 아버지의 자녀교육 · 훈련에 대한 자신감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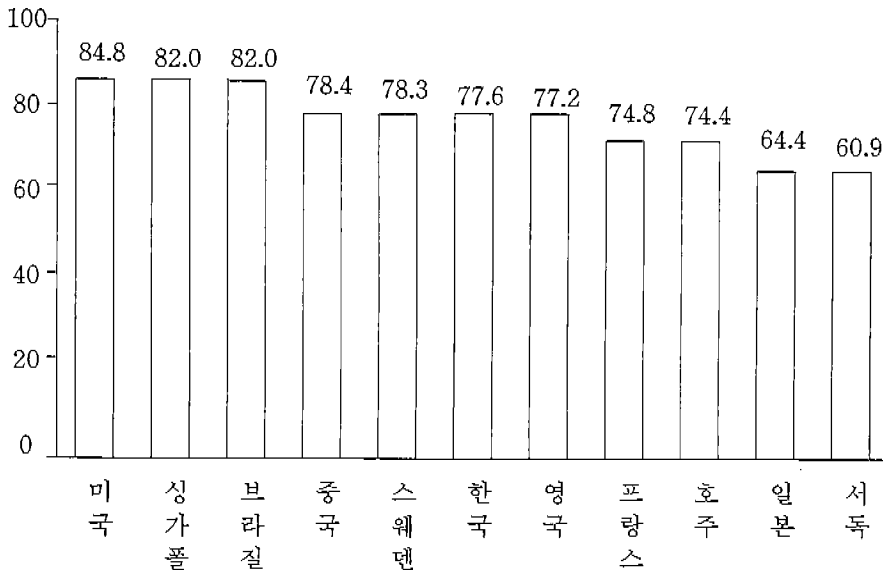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사례수)
계	77.6	19.6	2.7	(840)
남	77.0	19.5	3.5	(405)
여	78.2	19.8	2.1	(435)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1991), p.380.

한편,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응답비율에 있어서 한국은 비교대상 11개국 중 6위로 나타났다. 이것을 앞서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결과와 종합하여 해석해 보면, 한국의 아버지들은 가정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음(87.7%, 1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잦은 의견대립([그림 1-6] 참조 : 35.2%, 2위)으로 자녀교육 · 훈련에 있어서 그다지 자신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2] 국가별 아버지의 자녀교육·훈련에 대한 자신감
(“그렇다”의 응답비율)

(단위 : %)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155.

2) 자녀와의 대화

가. 대화를 위한 노력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와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와의 잦은 대화를 통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을 이해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그결과,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약1/2에 달하는 49.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응답결과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 지역별 차이가 현저하여 고교생보다는 중학생, 시군부보다는 대도시 청소년들의 긍정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중학교 남학생은 65.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긍정율이 가장 높은 반면, 시군부 고등학교 여학생은 43.6%만이 긍정을 나타내어 전체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표 1-27〉 아버지—“자녀와 대화하려고 노력하신다”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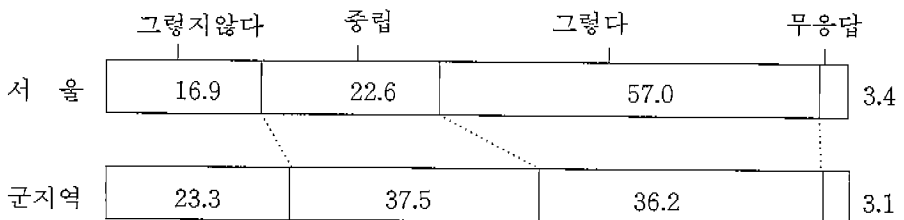
		그렇지 않다	중립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16.2	28.4	49.8	3.5	(2030)		
성별	남	17.8	26.6	51.2	4.4	(1017)	$\chi^2 = 9.55$	
	여	18.7	30.2	48.5	2.6	(1013)		
교급	중	16.7	27.9	52.9	2.4	(1025)	$\chi^2 = 30.33^{***}$	
	고	19.9	29.9	46.5	4.6	(1005)		
지역	대도시	16.6	25.6	54.2	3.5	(1131)	$\chi^2 = 25.95^{***}$	
	시군부	20.4	31.9	44.3	3.4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응답결과의 지역별 차이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을 행정구역상으로 4분하여 긍정응답율을 비교해 본 결과, “서울”이 가장 높은 57.0%, “직할시”가 50.7%, 기타 시지역이 50.4%였으며, 군지역은 과반수에 훨씬 못미치는 36.2%에 불과하여 대체적으로 도시화의 정도가 진전된 지역일수록 아버지가 자녀와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도시지역일수록 부친의 학력수준이 높고 청소년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여, 부친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13] 아버지—“자녀와 대화하려고 노력하신다” : 지역별

(단위 : %)



주 : 직할시, 기타시 제외.

비교 : $\chi^2 = 62.57^{**}$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이밖에도 SES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SES 상위집단으로 올라갈수록 아버지가 자녀와의 대화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와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62.9%에 달하여,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청소년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표 1-17〉, 〈표 1-18〉 참조),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자녀들에게 보다 부드러운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앞서 문항의 응답경향(〈표 1-25〉, 〈표 1-26〉 참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와의 차이는 아버지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여 중학생(교급별), 대도시 청소년(지역별)일수록 긍정적인 응답율이 높았다.

기타변인에 있어서도 지역에서는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상위집단일수록 긍정적인 응답율이 높았다. 한편 모친의 직업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율에서 취업여성(64.7%)과 전업주부(65.7%)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은 취업여성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녀와의 대화빈도를 늘이고자 노력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28〉 어머니 — “자녀와 대화하려고 노력하신다”

(단위 : %, 명)

		그렇지 않다	중립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11.0	25.2	62.9	0.9	(2030)		
성별	남	9.1	24.6	65.2	1.2	(1017)	$\chi^2 = 10.16$	
	여	12.9	25.9	60.6	0.7	(1013)		
교급	중	10.9	24.1	63.6	1.4	(1025)	$\chi^2 = 12.79^*$	
	고	11.0	26.4	62.2	0.5	(1005)		
지역	대도시	9.7	23.3	66.5	0.6	(1131)	$\chi^2 = 13.96^*$	
	시군부	12.6	27.7	58.4	1.3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나. 자녀와의 대화빈도

그러면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와 얼마나 자주 대화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1)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즉, “아버지가 가족들과 가정내의 일들에 대해 자주 대화를 갖는 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1.7%로서, 앞서의 아버지가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율과 거의 일치하였다. 성별로는 “그렇다”라는 응답율에서 남자(46.4%)보다는 여자(56.6%)가 높은 편으로서, 우리나라의 부친들은 아들보다는 딸과 보다 빈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9〉 아버지-“가족들과 자주 대화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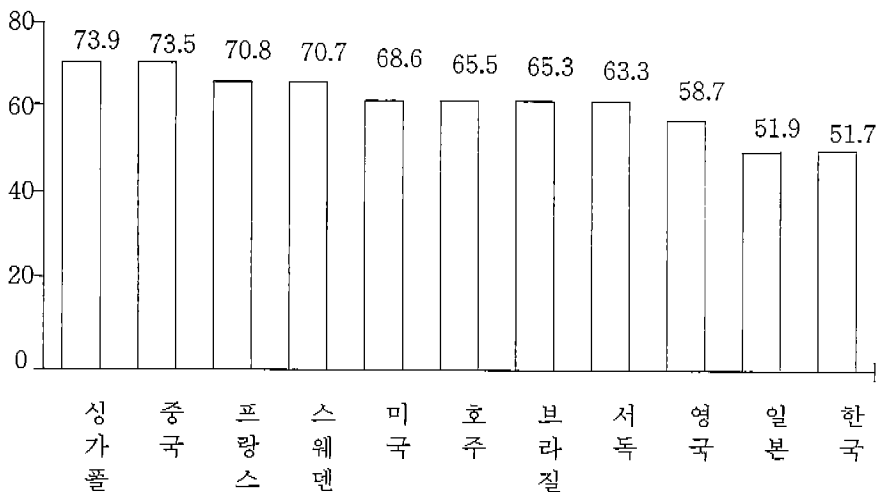
(단위 : %, 명)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사례수)
계	51.7	46.8	1.5	(840)
남	46.4	52.3	1.2	(405)
여	56.6	41.6	1.8	(435)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 383.

[그림 1-14] 아버지-“가족들과 자주 대화를 갖는다” : 국제비교

(단위 : %)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같은 질문에 대한 각국의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11개국중 일본에 이어서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어, 부모-자녀간의 대화의 부재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싱가포르 중국의 긍정적인 응답율이 73%남짓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에서의 부모-자녀간의 대화의 단절은 가부장제적 가족질서의 온존이라는 요인 이외에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해야 할 흥미로운 사회현상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학과공부에 대한 태도

우리사회의 과열된 입시열기를 감안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특히 자녀의 학과공부나 성적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녀의 학과공부나 성적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학과공부·성적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5%로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율(8.3%)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표 1-30〉 아버지-“자녀의 학과공부나 성적에 신경을 쓰신다”

(단위 : %, 명)

		그렇지 않다	중립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8.3	20.5	67.5	3.6	(2030)		
성별	남	8.2	17.7	69.7	4.5	(1017)	$\chi^2 = 18.23^{**}$	
	여	8.5	23.4	65.4	2.7	(1013)		
교급	중	7.4	19.1	70.9	2.6	(1025)	$\chi^2 = 17.87^{**}$	
	고	9.4	22.0	64.1	4.6	(1005)		
지역	대도시	7.8	19.1	69.5	3.6	(1131)	$\chi^2 = 6.12$	
	시군부	9.0	22.4	65.1	3.6	(899)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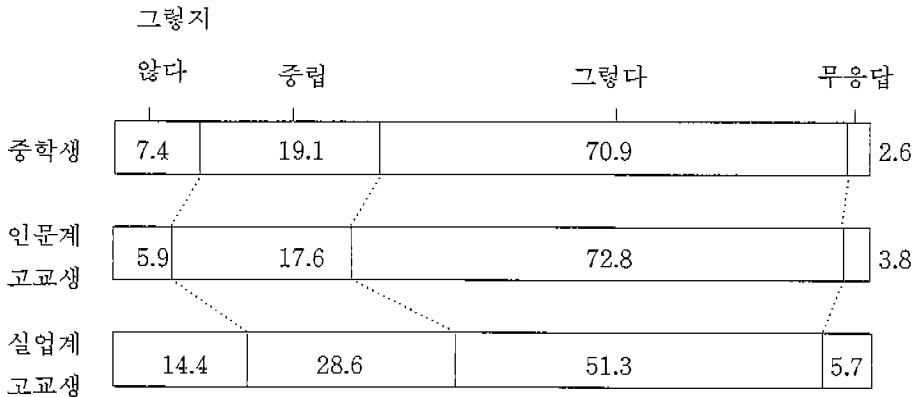
각 하위집단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렇다”는 응답율이 다소 높았으며, 고교

생보다는 중학생들이 자신의 부모가 학과공부나 성적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급별 응답결과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교생을 다시 인문계와 실업계로 세분해서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전체 고교생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업계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기술·기능의 연마를 통한 취업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학과공부나 성적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인문계 학생의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따라 고교생 전체의 평균치를 저하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실업계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율은 51.3%로서 인문계 학생의 72.8%에 크게 못미치고 중학생의 70.9%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중학생의 긍정응답율이 인문계 고교생과 거의 유사하여 상대적으로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은 중학생들에게도 부모들이 학과공부나 성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1-15] 아버지-“자녀의 학과공부나 성적에 신경을 쓰신다” : 교급별

(단위 : %)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비교 : $\chi^2 = 73.75^{***}$

기타 변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상위집단일수록 부모들이 자녀 공부·성적에 대해 관심을 갖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친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자녀 공부·성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은 75.5%로서 중졸 이하 학력자의 60.7%와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또한 장남, 외아들의 학과공부·성적에 대한 관심이 차남 이하의 아들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어머니가 자녀의 학과공부나 성적에 대해 신경을 쓰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5%에 달하는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극소수인 6.1%에 머물렀다.

각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 중학생들중에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의 문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응답결과에서는 중학생의 긍정응답율이 고교생을 상회하고 있으나 고교생을 계열별로 양분할 경우 인문계 고교생의 모친중 자녀의 공부·성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은 83.6%에 달하여 중학생 모친의 관심도(79.5%)를 상회하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아버지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별 격차가 매우 현격하다는 점인데 대도시 지역은 긍정응답이 82.4%인 반면 시군부는 73.5%에 불과하다.

〈표 1-31〉 어머니 - “자녀의 학과공부나 성적에 신경을 쓰신다”

(단위 : %, 명)

		그렇지 않다	중립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6.1	14.4	78.5	1.0	(2030)		
성별	남	5.5	13.8	79.5	1.2	(1017)	$\chi^2 = 4.35$	
	여	6.7	15.0	77.4	0.9	(1013)		
교급	중	5.5	14.0	79.3	1.5	(1025)	$\chi^2 = 16.09^{**}$	
	고	7.1	14.7	77.7	0.6	(1005)		
지역	대도시	5.1	11.8	82.4	0.7	(1131)	$\chi^2 = 25.06^{***}$	
	시군부	7.5	17.6	73.5	1.4	(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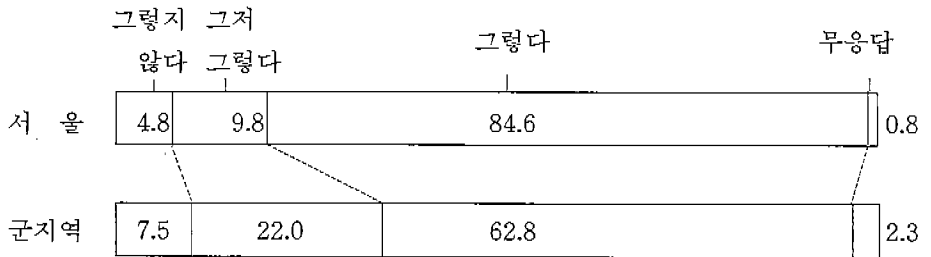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지역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어머니가 학과공부나 성적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응답율이 군지역 68.2%, 시지역 77.5% 직할시 79.6%, 서울 84.6%로서 도시화의 정도가 진전된 지역일수록 점차 높아가고 있다.

기타 변인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ES 상위집단일수록 긍정응답율이 높았으며, 특히 모친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는 자녀의 공부·성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이 거의 88.7%에 달하여 중졸 이하학력의 72.7%와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었다.

[그림 1-16] 어머니 - “자녀의 학과공부나 성적에 신경을 쓰신다” : 지역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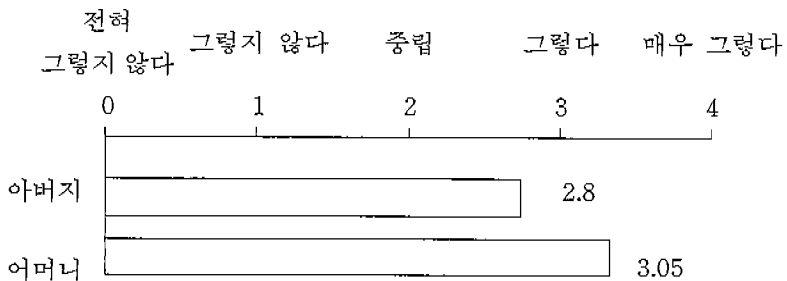
주 : 직할시, 기타시는 제외.

비교 : $\chi^2 = 56.31^{***}$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부모의 자녀들의 학과공부나 성적에 신경을 쓰고 있는 정도와 그 비율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앞서 [그림 1-9]에서의 방식에 따라 응답결과를 수량화해 보면 [그림 1-1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1-17] 부모의 자녀공부 · 성적에 대한 관심도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중립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관심도가 아버지의 그것보다 매우 앞서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과열된 입시경쟁은 상당부분 어머니들의 과도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이 못이룬 사회적 자아의 실현을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사회생활에 관한 지도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예의나 행동에 관한 교육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회화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사회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자녀의 사회생활에 관한 지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갤럽(1991)의 조사연구결과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표 1-32〉 아버지 —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예의나 행동에 대해서 지도해 주신다”

(단위 : %, 명)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사례수)
계	83.1	15.0	1.9	(840)
남	82.7	15.1	2.2	(406)
여	83.4	14.9	1.6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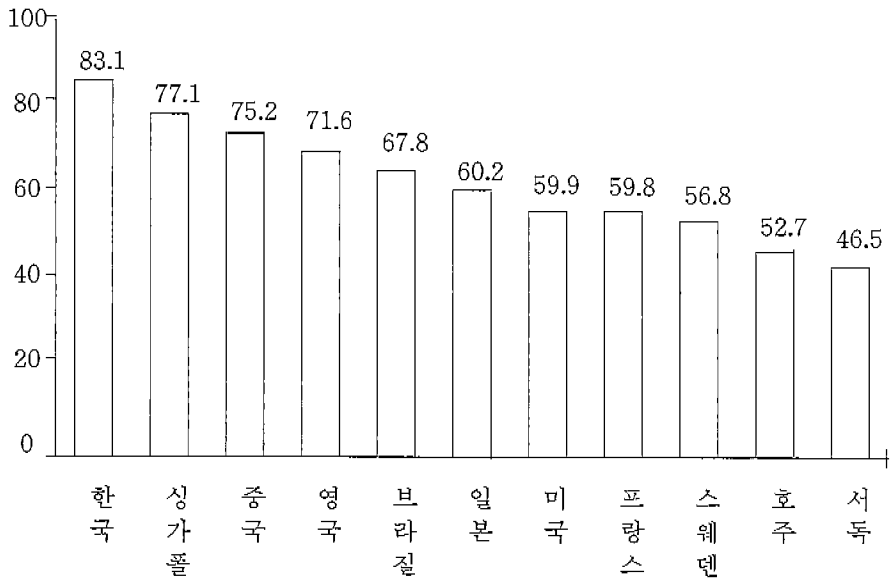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1991), p.381.

자신의 아버지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예의나 행동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청소년중 83.1%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로는 응답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로는 도시화의 정도가 낮은 지역, 즉 읍·면지역의 긍정적인 응답율이 대도시, 중소도시의 그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읍·면 85.8%, 대도시 81.5%).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긍정적인 응답율에 있어서 비교대상 11개국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싱가포르(77.1%), 중국(75.2%)이 2, 3위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동일한 조사에서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빈도가 가장 낮은 편임([그림 1-14])을 감안하면, 우리사회에서 부모-자녀간의 접촉은

자녀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는 형태라기보다는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나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18] 아버지－“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예의나 행동에 대해서 지도해 주신다” : 국제비교
(“그렇다”) (단위 : %)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157.

3. 바람직한 부모상

여기서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부모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바람직한 부친상

가. “일중시형” 대 “가정중시형”

먼저 아버지의 경우 “일중시형”과 “가정중시형”의 두가지 유형중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유형의 아버지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3>과 같다.

응답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정중시형”의 아버지를 선호하였으나(71.2%), “일중시형”의 아버지를 택한 응답도 전체의 1/4에 달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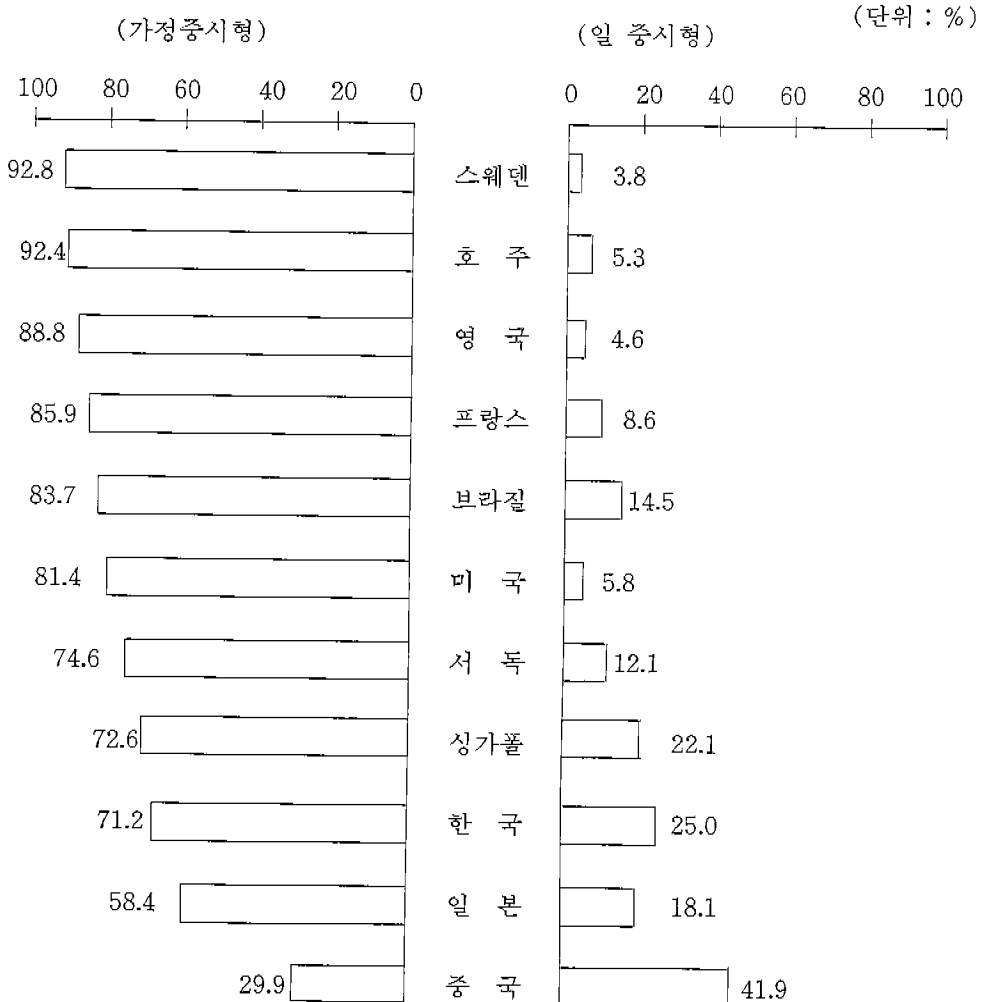
〈표 1-33〉 바람직한 부친상—“일중시형” 대 “가정중시형”

(단위: %, 명)

	“일중시형” 아버지	“가정중시형” 아버지	무응답	(사례수)
계	25.0	71.2	3.9	(1002)
남	24.7	71.9	3.4	(498)
여	25.2	70.4	4.4	(504)

자료: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384.

[그림 1-19] 국가별 바람직한 부친상—“일중시형” 대 “가정중시형”



자료: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74.

질문에 대한 응답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가정중시형”의 아버지를 선호하고 있음에 비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41.9%), 싱가포르(22.1%)의 청소년들중에는 “일중시형”의 아버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 수에 달하였다. 이것은 이들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공통적인 가부장제 국가로서 남성들이 가정에 집착하기 보다는 국가·사회를 위한 활동이 장려되어 왔고, 또한 비교대상국가들 중 비교적 경제발전수준이 낙후된 상태에 있어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근로의식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일중시형” “가정중시형”중 어느쪽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신의 아버지가 “집안일보다는 직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은 12.8%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중 “일중시형”

〈표 1-34〉 아버지－“집안일보다 직장일을 더 중요시하신다.”
(단위 : %, 명)

		그렇지 않다	중립	그렇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56.4	27.3	12.8	3.6	(2030)		
성별	남	57.0	26.6	11.7	4.6	(1017)	$\chi^2 = 12.03^*$	
	여	55.7	27.9	13.8	2.7	(1013)		
교급	중	60.7	25.3	11.4	2.6	(1025)	$\chi^2 = 50.07^{***}$	
	고	51.9	29.4	14.0	4.7	(1005)		
지역	대도시	57.8	26.9	11.8	3.6	(1131)	$\chi^2 = 2.70$	
	시군부	54.6	27.8	13.9	3.7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은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소 무리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25.0%는 일중시형의 아버지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실제적으로 일중시형의 아버지는 그에 못미치고 있음(12.8%)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직장일로 집안일을 다소 소홀히 하는 데 대해서 비교적 포용력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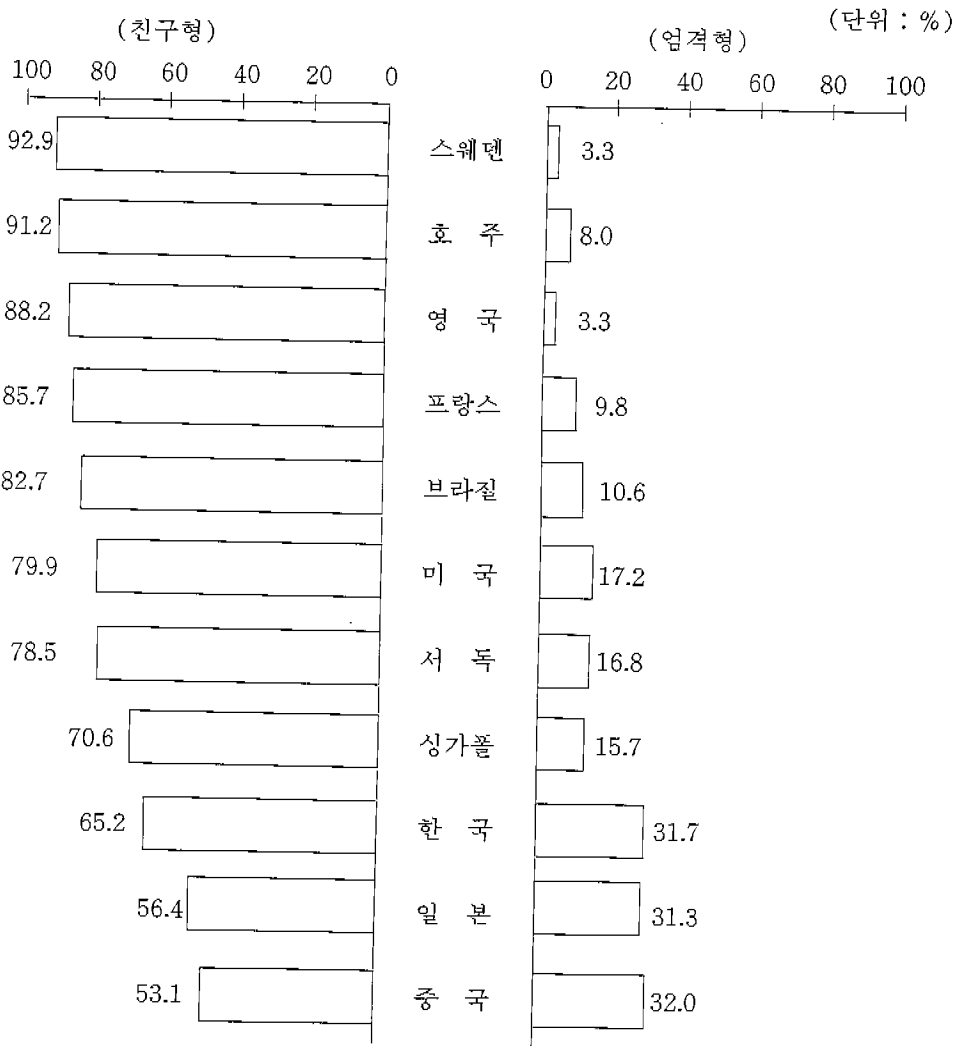
〈표 1-35〉 바람직한 부친상—“엄격형” 대 “친구형”

(단위: %, 명)

	“엄격형”아버지	“친구형”아버지	무응답	(사례수)
계	31.7	65.2	3.1	(1002)
남	36.9	60.4	2.6	(498)
여	26.6	69.8	3.6	(504)

자료: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 385.

[그림 1-20] 국가별 바람직한 부친상—“엄격형” 대 “친구형”



자료: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176.

집안일은 주부가 전담하고 가장은 사회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전통적인 가족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나. “엄격형” 대 “친구형”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아버지를 원하는가 아니면 친구처럼 대해주는 아버지를 원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표 1-35〉)를 보면, 과반수 이상(65.2%)이 “친구형”의 아버지를 원하고 있지만 “엄격형”의 아버지를 선호하는 비율도 31.7%에 달하였다.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엄격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도시화가 낮은 지역일수록 “엄격형”의 아버지를 택한 비율이 높았다(대도시 27.4%, 읍·면 36.0%).

이것은 전통적인 “엄부자모”(嚴父慈母)의 부모상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의연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림 1-20]),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엄격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20%에도 못미치는 반면, 한·중·일의 동양3국에서만 3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 바람직한 모친상

가. “가정중시형” 대 “바깥일중시형”

우리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사일에 전념하는 것을 당연시해왔으나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점차 취업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의 역할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실제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예상과

〈표 1-36〉 바람직한 모친상—“가정중시형” 대 “바깥일중시형”

(단위 : %, 명)

	“바깥일중시형” 어머니	“가정중시형” 어머니	무응답	(사례수)
계	3.3	95.4	1.3	(1002)
남	3.0	95.4	1.6	(498)
여	3.6	95.4	1.0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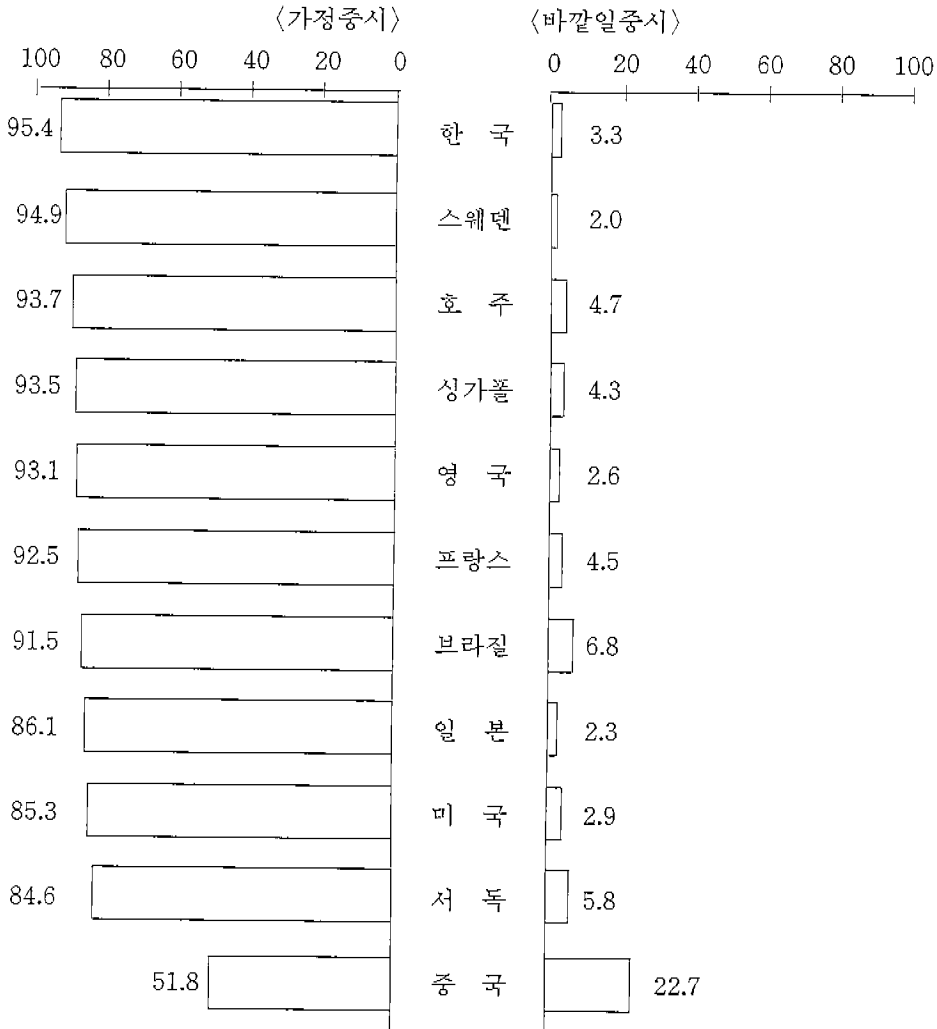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386.

는 상반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즉 “가정중시형” 어머니와 “바깥일중시형” 어머니의 두 유형중에서 어느쪽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95.4%)가 전자를 선택하였고, “바깥일중시형”의 어머니를 선호한 비율은 극소수(3.3%)에 불과했다. 이것은 한국 청소년들중 대다수(70.8%)가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

[그림 1-21] 국가별 바람직한 모친상-“가정중시형” 대 “바깥일중시형”

(단위 : %)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182.

한국 청소년들중 대다수(70.8%)가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 (<표 1-40>참조)을 감안하면, “여성”의 취업과 “주부”의 취업을 다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여성은 취업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가정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11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그림 1-21]), “가정중시형”에 대한 응답비율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중시형”에서는 7위에 머물고 있다.

나. “엄격형” 대 “친구형”
 어머니의 유형으로서 엄격한 어머니와 친구같은 어머니의 두가지를 제시하고 어느쪽을 바람직한 모친상으로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7>과 같다.

응답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경우 “친구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65.2%였음에 비해서 어머니의 경우에는 월등히 높은 78.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엄격형의 어머니를 선호하는 비율이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응답경향은 바람직한

<표 1-37> 바람직한 모친상--“엄격형” 대 “친구형”
 (단위 : %, 명)

	엄격한 어머니	친구같은 어머니	무응답	(사례수)
계	19.8	78.5	1.7	(1002)
남	25.3	73.1	1.6	(498)
여	14.3	83.9	1.8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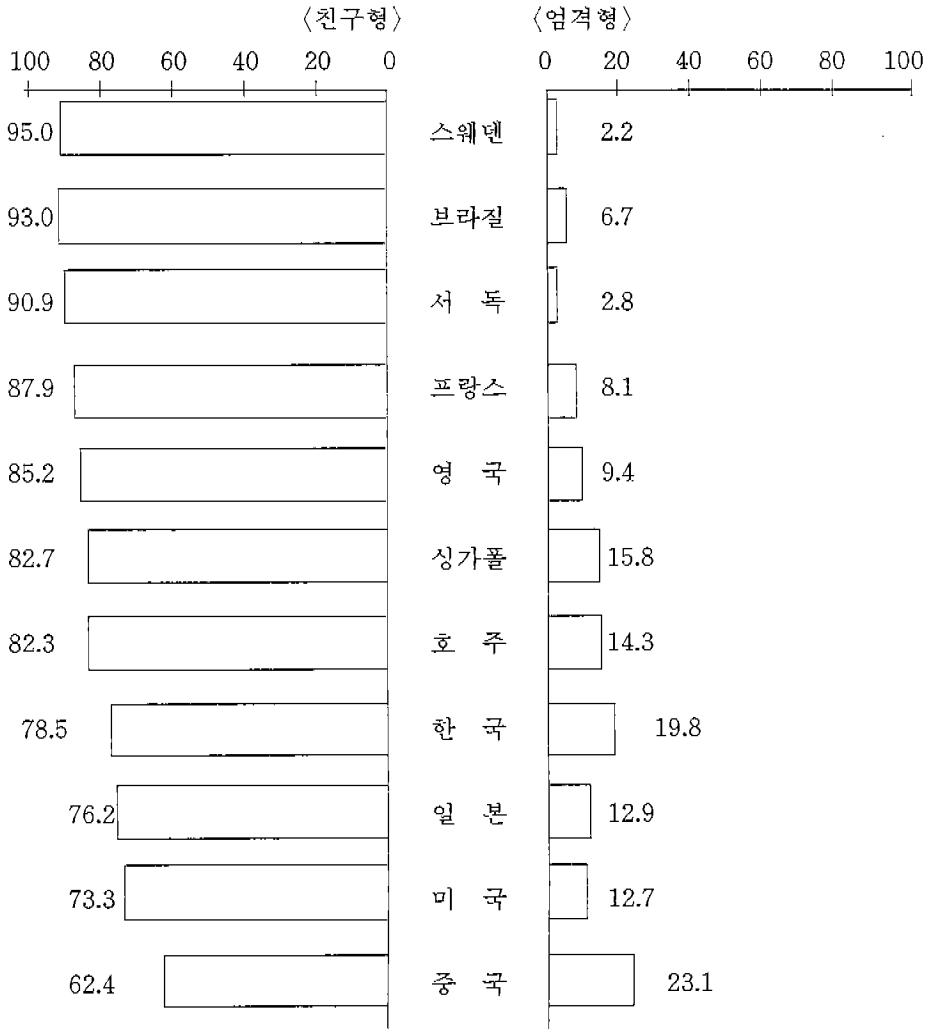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387.

부친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엄격한 부모를, 여자들은 친구같은 부모를 상대적으로 더욱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다른 나라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그림 1-22]), 엄격형을 선호하는 비율에 있어서 유럽지역의 청소년들이 극히 낮은 반면, 아시아제국, 미국, 호주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두드러진다.

[그림 1-22] 국가별 바람직한 모친상—“엄격형” 대 “친구형”

(단위 : %)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185.

I -3. 가 족 의 식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는 점차 해체의 과정을 밟아왔으며, 이에 수반하여 유교윤리에 기초한 전통적인 가족관념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야기되었다. 특히 점차 서구화되어가는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은 기성세대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하여 현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을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전통적인 가족관에 대한 태도

1) “핵가족” 대 “대가족”

우리사회는 가족제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자녀(장남)가 혼인을 한 이후에도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제도(직계가족)를 이상시해왔다.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점차 핵가족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핵가족제도보다는 대가족제도가 바람직하다”는 항목에 대해 긍정의 반응을 나타낸 청소년은 과반수에 크게 못미치는 37.2%로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41.4%)의 입장을 유지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비율은 21.3%였다. 비록 대가족제도에 대한 찬성의 비율이 반대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의 1/3남짓한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가족제도가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간주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의 청소년들이 가장 다수임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이상적인 가족형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 하위집단별로는 성별, 교급별, 지역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여자보다는 남자, 중학생보다는 고교생, 대도시보다는 시군부의 청소년들이 대가족제도를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남녀간의 응답결과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 대가족제도에 대한 찬성비율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두배에 달하였다(남 45.7%, 여 28.7%). 세

변인을 교차해서 얻은 8개의 하위집단중에서는 시군부의 고등학교 남학생이 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56.2%), 대도시 중학교 여학생이 가장 낮았다(20.3%).

〈표 1-38〉 “핵가족제도보다는 대가족제도가 바람직하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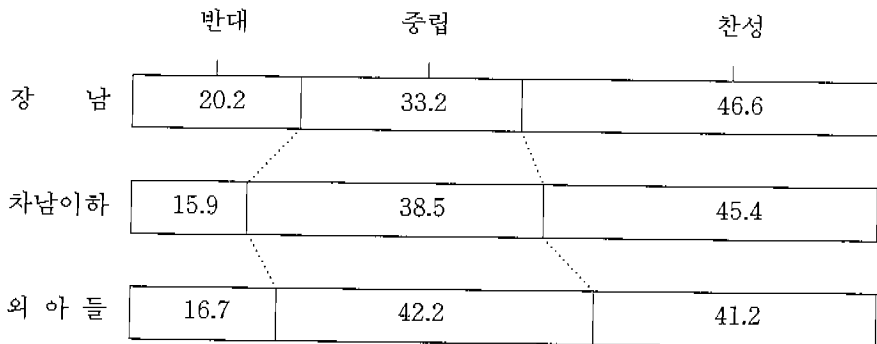
		반대	중립	찬성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21.3	41.4	37.2	0.1	(2030)		
성별	남	17.7	36.6	45.7	0.1	(1017)	$\chi^2 = 70.84^{***}$	
	여	25.0	46.2	28.7	0.1	(1013)		
교급	중	20.7	43.7	35.5	—	(1025)	$\chi^2 = 16.01^{**}$	
	고	21.9	39.0	38.9	0.2	(1005)		
지역	대도시	25.7	42.6	31.6	0.1	(1131)	$\chi^2 = 54.71^{**}$	
	시군부	15.8	39.8	44.3	0.1	(899)		

자료: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기타변인에서는 지역별, SES별, 형제순서별로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도시화의 정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는 하위집단으로 내려

[그림 1-23] “핵가족제도보다는 대가족제도가 바람직하다”: 형제순서별

(단위: %)



주: 여자는 제외.

비고: $\chi^2 = 88.78^{***}$

자료: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갈수록 대가족제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특히 흥미있는 점은 남자의 형제순서별 응답결과([그림 1-23])인데,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앞으로 부모부양의 책임을 지고있는 장남들은 찬성과 반대의 응답율이 세집단중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 대가족제도에 대해서 이중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외아들의 경우에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유보적인 입장이 다수이며, 대가족제도에 대한 찬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남아선호사상

“딸보자 아들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인 68.7%가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고 찬성은 14.7%에 불과하여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가족제도에 대한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 교급별, 지역별 하위집단간에 의미

〈표 1-39〉 “딸보다 아들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단위 : %, 명)

		반대	중립	찬성	무응답	(사례수)	비고
계		68.7	15.9	14.7	0.7	(2030)	
성별	남	46.7	26.8	25.7	0.9	(1017)	$\chi^2 = 655.47^{***}$
	여	90.9	4.8	3.7	0.6	(1013)	
교급	중	70.5	14.7	13.4	1.3	(1025)	$\chi^2 = 27.70^{***}$
	고	66.9	17.0	16.0	0.2	(1005)	
지역	대도시	70.6	16.4	12.5	0.5	(1131)	$\chi^2 = 14.31^*$
	시군부	66.4	15.2	17.4	1.0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 중학생보다는 고교생, 시군부보다는 대도시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도 반대하는 비율이 상당수에 달하여(46.7%) 청소년들 사이에서 남녀평등의식이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기타변인에서는 SES별, 형제순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형제순서별 하위집단의 반응인데, 남자의 경우 아들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찬성율이 외아들(29.4%), 차남 이하(26.0%), 장남(24.0%)의 순서로서, 다른 문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장남들이 남아존중사상에 대해서는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아들이 남아존중사상에 대해서 찬성율이 높은 것은 그 부모세대의 의식, 자녀지도 방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반대	중립	찬성	무응답
장남	49.1	25.8	24.0	1.1
차남이하	46.1	27.2	26.0	0.7
외아들	39.2	30.4	29.4	1.0

SES하위집단은 가족의식에 있어서 일관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어 여성취업에 대한 찬성율이 상위집단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상위집단 77.8%, 하위집단 64.6%). 이것은 하위집단일수록 가계의 보조를 위해 주부의 취업이 더욱 당연시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어긋나는 흥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40〉 “가정주부는 직장을 가져서는 안된다”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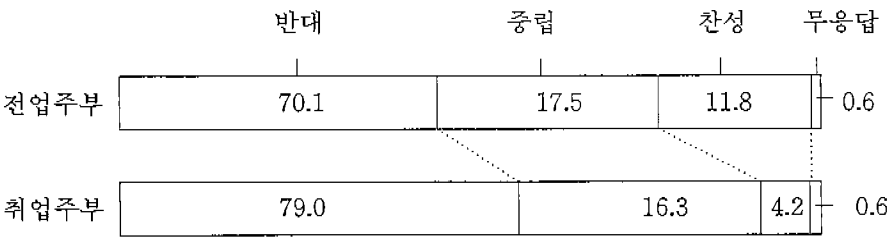
		반대	중립	찬성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70.8	17.7	10.8	0.8	(2030)	
성별	남	54.1	27.8	17.3	0.8	(1017)	$\chi^2 = 470.96^{***}$
	여	87.5	7.5	4.3	0.8	(1013)	
교급	중	71.2	16.6	11.0	1.2	(1025)	$\chi^2 = 14.56^{***}$
	고	70.2	18.8	10.6	0.4	(1005)	
지역	대도시	72.7	17.2	9.6	0.5	(1131)	$\chi^2 = 8.94$
	시군부	68.3	18.4	12.2	1.1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한편 모친의 직업별로는 현재 자신의 어머니가 취업중인 청소년들의 반대율이 어머니가 전업주부, 부업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직장생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5] “가정주부는 직장을 가져서는 안된다”-어머니의 직업별

(단위 : %)



주 : 부업주부는 제외.

비고 : $\chi^2 = 49.38^{**}$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2. 부모님 부양에 대한 태도

1) 부모님의 부양책임

우리사회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은 당연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문항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찬성의 응답율이 전체 청소년의 1/4남짓한 25.2%인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응답율이 44.2%로서 다수를 차지하였다. 각 변인별 응답결과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특히 남녀간의 차이가 현격하여 여자의 과반수 이상(37.6%)이 반대의견을 표명, 남자(30.9%)의 거의 배에 이르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는 고교생, 지역에 있어서는 시군부의 청소년들이 반대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표 1-41〉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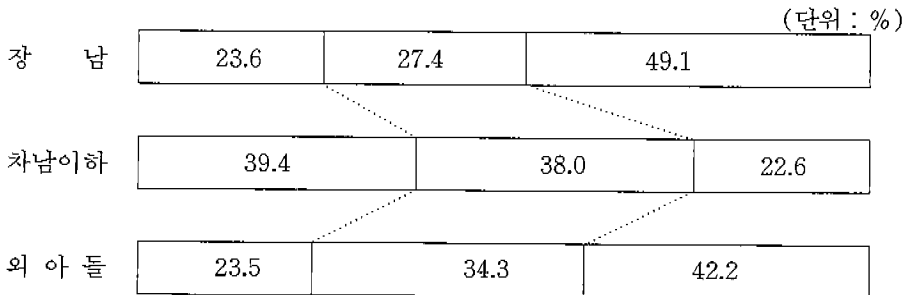
		반대	중립	찬성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44.2	30.4	25.2	0.2	(2030)		
성별	남	30.9	32.9	36.2	—	(1017)	$\chi^2 = 194.08^{***}$	
	여	57.6	27.9	14.1	0.4	(1013)		
교급	중	44.0	29.0	26.7	0.3	(1025)	$\chi^2 = 12.15^{***}$	
	고	44.3	31.9	23.6	0.1	(1005)		
지역	대도시	42.5	33.4	23.8	0.3	(1131)	$\chi^2 = 12.23^*$	
	시군부	46.4	26.7	26.9	0.1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기타 변인에서는 형제순서별, 가족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형제순서에 있어서는 남자에 국한해서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데 대해서 장남, 외아들의 찬성 응답율이 각각 44.1%, 42.2%로서 차남 이하의 찬성 응답율(22.6%)을 훨씬 상회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외아들의 찬성응답이 장남보다 다소 낮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대가족을 선호하는 비율에서도 장남이 외아들

을 앞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림 1-23]참조), 외아들보다는 장남이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6]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 형제순서별



주 : 여자는 제외.

비고 : $\chi^2 = 307.77^{***}$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그러면 부모님을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청소년들은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은 될 수 없지만 참고가 될만한 자료로서 통계청에서 시행한 조사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즉, 사회통계조사의 응답결과를 보면 노부모님의 부양책임에 대해서 15세~19세까지의 청소년들은 과반수 이상(54.7%)이 아들·딸 모두에게 있다고 응답하였고, 장남에게 있다는 응답은 18.3%에 불과하였다. 특히 연령이 내려갈수록 장남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세대간의 가족의식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1-42〉 노부모의 부양책임

(단위 : %)

	장 남	아들모두	딸모두	아들·딸모두	자립	사회 및 기타
계	18.3	13.8	0.4	46.2	15.4	5.9
15~19세	12.0	11.1	0.6	54.7	14.6	7.1
30~39세	15.0	14.2	0.5	45.9	18.4	6.0
50~59세	26.5	17.1	0.2	35.9	15.6	4.7

주 : 20~29세, 40~49세, 60세 이상은 표에서 제외.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1991)

2) 부모님 부양의사

앞으로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어떻게 모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4가지의 선택지를 주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모시고는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37.4%)는 응답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반드시 모시고 살겠다”(30.6%),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21.9%)의 순이었으며,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될 것이다”(9.6%)라는 응답이 가장 소수였다.

〈표 1-43〉 연로한 부모님의 부양의사

(단위 : %, 명)

		반드시 모시겠다	어떻게 될지모름	떨어져 살게될것	아직 생각안함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30.6	37.4	9.6	21.9	0.5	(2030)		
성별	남	43.9	34.4	4.7	16.7	0.3	(1017)	$\chi^2 = 194.48^{***}$	
	여	17.4	40.4	14.4	27.0	0.8	(1013)		
교급	중	31.4	35.2	7.4	25.4	0.6	(1025)	$\chi^2 = 24.58^{***}$	
	고	29.9	39.6	11.7	18.3	0.5	(1005)		
지역	대도시	31.1	35.4	10.9	22.1	0.5	(1131)	$\chi^2 = 8.03$	
	시군부	30.0	39.9	7.9	21.6	0.6	(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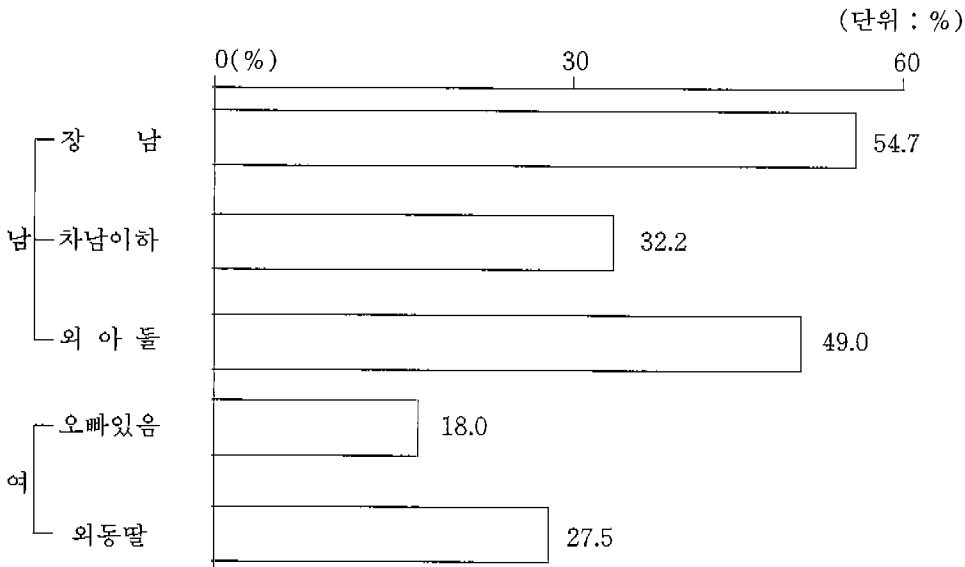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각 변인별로는 성별 응답결과와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직접 모시겠다는 응답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중 · 고교생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응답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형제순서별 하위집단의 “반드시 모시고 살겠다”는 응답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 1-27]과 같다. 사회통념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으로 기대되는 장남, 외아들의 응답율이 다른 집단을 크게 앞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두 집단 모두 50%내외에 머물러 부모님을 반드시 장남(외아들 포함)이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관념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외동딸의 응답율(27.5%)이 차남이하의 남자 응답율(32.2%)을

밀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앞으로 외동딸을 둔 가족의 경우 딸이 결혼한 뒤에는 노부부끼리만 동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27] “반드시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 형제순서별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위의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분석에서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청소년들의 급격한 의식변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복지대책 - 노후연금제, 양로원시설의 확충 등 - 이 시급히 정비·강화되어야 하리라는 점이다. 이것은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후준비방법을 조사한 다음의 통계자료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표 1-44〉 노후 준비방법(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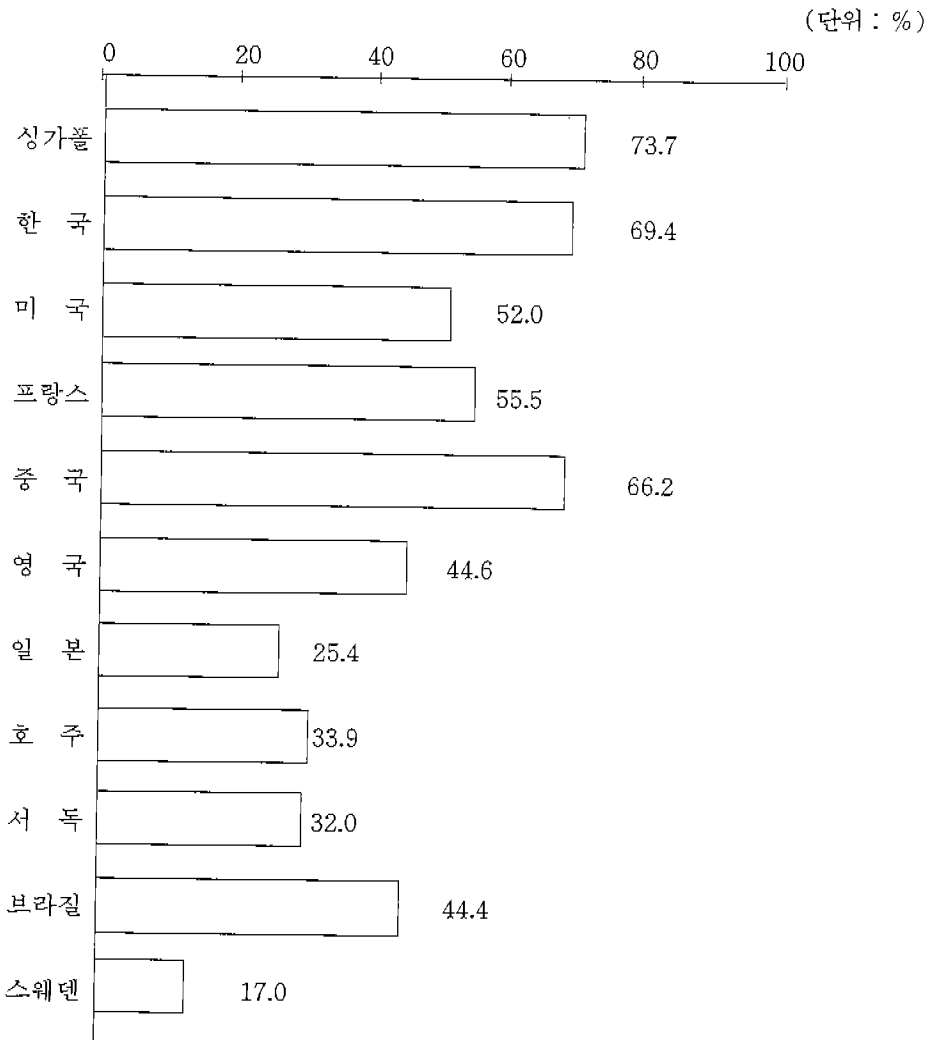
	준비하고 있음				준비없음
	보험	적금	연금·퇴직금	기타	
1983	7.6	14.8	4.3	12.3	61.0
1988	8.6	9.4	11.5	5.6	64.9
1991	11.2	10.4	13.4	4.0	61.0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즉,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구주는 전체중 39.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응답비율은 1983년 이래로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다.

부모님 부양의사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국제비교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된다면 부

[그림 1-28] 국가별 연로한 부모님의 부양의사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163.

념을 어떻게 모시겠냐는 질문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 69.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도내에서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 28.3%, “되도록이면 부모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1.4%, “전적으로 부모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0.3%의 순이었다(무응답 0.6%). 반드시 부모님을 부양하겠다는 응답비율이 앞서 생활·의식조사(30.6%)의 2배 이상(69.4%)인 나타난 점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설문 용어상의 차이 - 꺾림의 “돌봐드리겠다”는 개념은 “모시고 살겠다”(생활·의식조사)는 의미뿐만 아니라 직접 모시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또는 정신적인 원조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 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세계 11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림 1-28])“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돌봐드리겠다”는 응답비율에 있어서 한국은 싱가포르(73.7%)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점차 약화되어가는 추세 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모님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3. 가정내의 의사결정

1) 부모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

가정내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부모님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

〈표 1-45〉 “부모님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단위 : %, 명)

		반대	중립	찬성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55.5	34.5	9.7	0.3	(2030)		
성별	남	46.1	39.8	13.5	0.6	(1017)	$\chi^2 = 90.03^{***}$	
	여	65.0	29.1	5.9		(1013)		
교급	중	56.7	33.1	9.9	0.2	(1025)	$\chi^2 = 3.88$	
	고	54.2	35.9	9.5	0.4	(1005)		
지역	대도시	58.0	34.5	7.3	0.3	(1131)	$\chi^2 = 16.91^{**}$	
	시군부	52.5	34.5	12.7	0.3	(899)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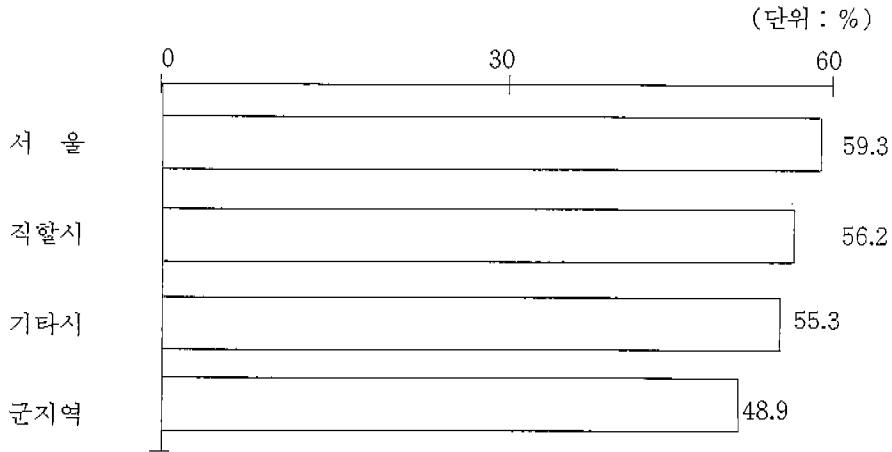
인가는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대응양식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 즉, “부모님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은 설문문항화하여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에 찬성하는 응답비율은 10%에도 못미친 반면(9.7%), 반대하는 응답이 55.5%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대응답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누구의 의견인가 보다는 어느 것이 더욱 타당한 의견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변인별 응답결과와 차이를 검토해 보면, 성별, 지역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 남자보다는 여자, 시군부보다는 대도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반대의 의견이 많았다.

지역별 응답결과와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을 행정구역상으로 4분하여 응답율을 비교해 본 결과, 도시화의 정도가 진전된 지역일수록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점증하였다.

[그림 1-29] “부모님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지역별 반대응답율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0)

2) 부모님과 의견이 대립될 경우

다음으로는 가정내에서 부모-자녀간에 의견이 대립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찬성의 응답이 과반수에 조금 못미치는 49.2%, 반대의 응답은 15.9%로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결혼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의 혼인이 당사자간의 관계로 간주되기 보다는 집안과 집안간의 결합으로 인식되어 본인의 의사 못지 않게 집안 어른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변인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 중학생보다는 고교생의 반대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6〉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

(단위 : %, 명)

		반대	중립	찬성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49.2	34.8	15.9	0.1	(2030)		
성별	남	55.5	28.5	15.6	0.3	(1017)	$\chi^2 = 64.40^{***}$	
	여	42.7	41.1	16.1	—	(1013)		
교급	중	46.3	34.1	19.4	0.2	(1025)	$\chi^2 = 25.95^{***}$	
	고	52.1	35.4	12.4	0.1	(1005)		
지역	대도시	48.0	36.9	15.1	0.1	(1131)	$\chi^2 = 5.25$	
	시군부	50.6	32.1	17.0	0.2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4. 가정생활 만족도

1) 전체적인 만족도

청소년들의 가족의식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과반수에 가까운 49.7%의 청소년들이 만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로서 전반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

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그저그렇다”는 중립적인 입장의 청소년도 30.8%에 달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주요변인별 응답결과를 검토해 보면, 성별, 교급별, 지역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어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중학생, 시군부보다는 대도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세변인을 교차하여 얻은 8개의 하위집단중에서는 대도시 중학교 남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고등학교 여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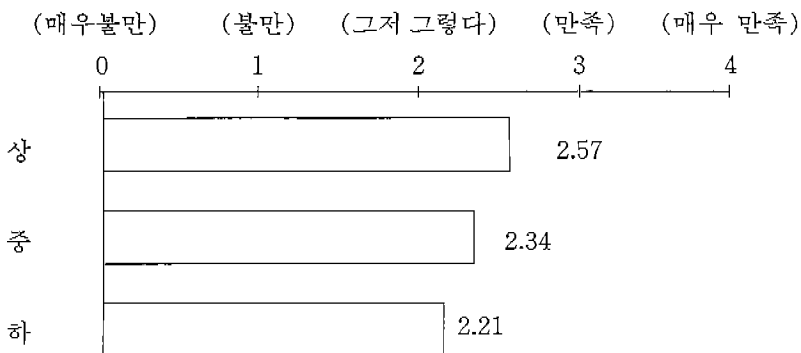
〈표 1-47〉 전체적인 가정생활의 만족도

(단위 : %, 명)

		불만	그저 그렇다	만족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18.6	30.8	49.7	0.9	(2030)		
성별	남	15.8	27.9	55.3	1.0	(1017)	$\chi^2 = 37.52^{***}$	
	여	21.4	33.7	44.1	0.8	(1013)		
교급	중	15.9	28.7	54.1	1.4	(1025)	$\chi^2 = 40.00^{***}$	
	고	21.4	32.9	45.3	0.4	(1005)		
지역	대도시	20.2	29.3	50.0	0.5	(1131)	$\chi^2 = 17.83^{**}$	
	시군부	16.6	32.7	49.4	1.3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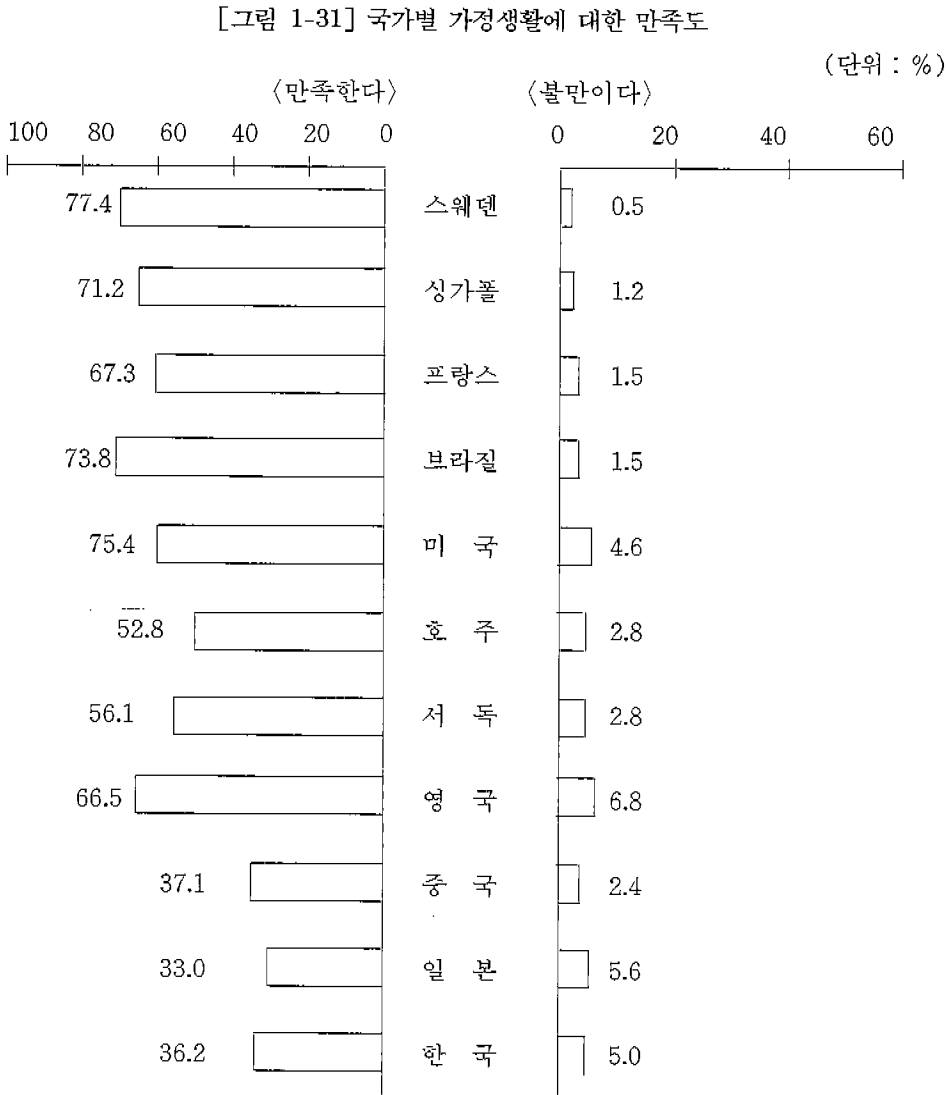
[그림 1-30] 가정생활의 만족도 : SES별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기타 변인에서는 SES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어 상위집단으로 올라갈수록 가정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점증하였다. SES별 하위집단간의 응답결과의 차이를 보다 명확 하게 표현하기 위해 각 선택지별로 점수를 부여(0~4점)하여 그 평균치를 구해본 결 과는 위의 [그림 1-30]과 같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한국갤럽(1991)의 자료를 인 용해 보면, [그림 1-31]과 같다.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 168.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 “불만”의 네가지 선택지중 택일하게 한 결과, 비교대상 11개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만족”의 응답비율에서 최하위권인 10위를 기록하였다.

나. 가정생활의 불만이유

그러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의 어떤 측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앞서 갤럽의 조사결과를 다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8〉 가정생활의 불만이유

(단위 : %)

순위	내	용	빈도
1	부모님 혹은 남편(부인)이 나를 잘 이해하지 않는다		39.5
2	수입이 적다		33.9
3	집안식구들끼리 다투는 일이 있다		30.4
4	어쩐지 불만이다		27.6
5	집주위의 환경이 나쁘다		22.4
6	아픈 사람이 있다		18.9
7	집이 너무 좁다		14.7
8	부모님 혹은 남편(부인)의 직업이 좋지 않다		12.6
9	형제(자매)와 친하지 못하다		11.5
10	부모님 혹은 남편(부인)이 나에게 애정이 부족하다		10.5

주 : 복수응답임.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1991)

앞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 청소년들의 가정생활에서 불만을 느끼는 가장 주된 요인은 부모의 이해부족(이 조사의 표본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6.6%로서 극소수에 불과)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같은 조사에서 부모-자녀간의 대화빈도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11개국중에서 가장 낮은 것([그림 1-14] 참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가정생활의 불만요인으로서 부모의 이해부족을 지적한 비율은 조사대상 11개국 가중에서 한국이 싱가포르(51.3%)에 이어서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p.171).

소 결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32.3%(추계)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따라 인구성장율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앞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청소년이 점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핵가족이 보편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점차 붕괴되어가고 있다.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4.1명(1985)까지 줄어들어 부부와 미혼의 두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이 현대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가족유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혼율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불안정가구의 비율은 점증하는 추세에 있어 불안정가구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청소년(보호아동, 소년가장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더욱 만족을 나타내었고, 전체 청소년의 약 1/3이 부모와의 의견대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버지—어머니의 관계, 형제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부모—자녀의 대화빈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대화빈도가 더욱 많았다. 자녀의 학과공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경을 쓰는 정도에 있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소 앞서고 있었다.

바람직한 부친상으로는 일중시형 보다는 가정중시형의 아버지, 엄격형보다는 친구형의 아버지를 택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상적인 모친상에 있어서도 가정중시형, 친구형의 어머니를 더욱 선호하였다.

가족제도에 있어서는 핵가족보다 대가족에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남아선호사상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반대하였으며, 주부의 직장취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모님의 부양책임은 장남에게만 있지 않고 아들·딸 모두에게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앞으로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반드시 자신이 모시겠다는 응답은 30% 남짓하였다.

부모님간에 의견이 대립될 경우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는 부모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정생활의 만족도에서는 약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정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부모님의 이해부족을 꼽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II. 청소년과 교육

청소년기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어른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가정교육과 사회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학교교육에 관계된 사항을 검토했다. 주로 정부부처나 연구기관에서 발행된 신빙성있는 통계를 수집하여 청소년교육에 관한 자료를 모아서 교육기획, 교육인구, 교육여건, 그리고 교육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리·분석했다. 교육기획에 관해서는 국민의 교육수준과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을 조사했고, 교육인구에 대해서는 입학자수와 취학율, 재학생구성,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에 관해 검토했다.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학교수와 종류, 학급수와 크기, 교직원수와 학위, 그리고 학교시설을 살펴봤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문교예산, 교급별 교육비,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가계지출을 조사했다.

II-1. 교육기획

1. 국민의 교육수준

1) 국민 평균 교육년수

보통 한 사회의 교육기획을 측정하는 데 국민들이 받은 교육년수와 국민의 학력구성을 사용한다. 1985년에 실시한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 의하면(〈표 2-1〉),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평균 교육년수는 8.58년이다. 이 수치는 1970년 조사의 5.74년보다 49.5%나 증가한 것이다. 1970년 이후 15년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받은 평균년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뜻한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보면, 남자들은 6.86년에서 9.66년으로 40.8%가 증가하는 동안, 여자들은 4.72년에서 7.58년으로 60.6%가 증가했다. 이 기간에 여자들의 평균 교육년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음을 보여준다.

1985년 현재 여자들의 평균 교육년수는 7.58년으로 남자들의 9.66년에 비하면 여자들이 교육받은 년수는 남자들의 78.5%밖에 안된다. 1970년에는 여자들의 평균 교육년수가 4.72년으로 6.86년인 남자들의 68.8%밖에 안되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남녀간의 평균 교육년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남녀간의 차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더 커지는데, 교육수준이 더 높아 질수록 또 시간적으로 과거로 갈수록, 여자가 교육받

을 기회는 상당히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

〈표 2-1〉 국민 평균 교육년수

(단위 : 년)

	평	균	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계	5.74	5.33	8.32	7.15	4.83	1.98
1970	남	6.86	5.47	8.81	8.65	6.42	3.06
	여	4.72	5.21	7.48	5.64	3.36	1.09
	계	8.58	6.71	10.96	10.12	8.52	4.55
1985	남	9.66	6.71	11.34	10.93	9.88	6.49
	여	7.58	6.71	10.61	9.28	7.14	3.08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국민의 학력구성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구성을 보면(〈표 2-2〉), 1985년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36.1%나 된다. 1970년의 15.1%보다 상당히 증가했다. 남녀간의 학력차이를 보면, 1985년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자는 전체 여성의 25.4%인데 고졸 이상 남자는 전체 남자의 47.6%이다. 고졸 이상 여자는 남자의 절반이 좀 넘는다(53.4%). 1970년의 경우, 여자중에서 고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7.1%밖에 안 되고, 남자중에서 고졸 이상자는 23.7%가 되었다. 고졸 이상 여자는 남자의 1/3도 못 된다(30.0%). 국민의 학력구성에서 봐도, 1970년에서 1985년까지 여자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구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표 2-3〉), 국민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비율이 일본(1.3배)과 스웨덴(1.4배)은 우리보다 약간 높고, 이스라엘(2.2배)과 미국(3.0배)은 상당히 높다.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등 제삼세계 국가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의 비율이 우리보다 상당히 낮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여자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이 전체 인구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에 비해 58.7%밖에 안되어 남녀간의 차이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데, 일본은 우리와 별로 차이가 없으나(66.4%), 미국(87.0%), 이스라엘(90.5%), 스웨덴(91.6%)은 고등교육에서의 남녀차별이 상당히 적다는 걸 보여준다. 교육수준이

〈표 2-2〉 국민의 학력구성

(단위 : %)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1970	계	73.4	11.5	10.2	4.9
	남	61.2	15.1	15.2	8.5
	여	84.7	8.2	5.5	1.6
1985	계	43.4	20.5	25.9	10.2
	남	31.9	20.5	32.1	15.5
	여	54.1	20.5	20.2	5.2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표 2-3〉 국가별 국민의 학력구성비

(단위 : %)

		25세 이상 인구수		무 학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한	국 (1985)	35,879,995	18,007,744	9.4	13.1	30.1	33.1	49.6	47.4	10.9	6.4
버	마 (1973)	11,118,272	5,559,102	78.3	82.0	12.4	12.9	7.0	4.0	0.2	0.0
이	집 트 (1976)	14,641,740	7,326,340	86.3	92.9	4.7	2.6	5.7	3.1	3.4	1.3
브	라 질 (1980)	48,310,722	24,576,023	32.9	35.2	50.4	48.8	4.9	4.6	5.0	4.1
말	레이지아 (1970)	10,319,324	5,120,906	43.4	51.0	30.0	27.6	8.8	7.1	—	—
멕	시 코 (1980)	24,309,593	12,455,708	34.2	37.1	31.4	30.7	11.8	11.5	5.3	2.7
이	스 라 엘 (1982)	2,003,500	1,302,200	9.7	14.1	30.6	30.2	36.6	34.8	23.1	20.9
일	본 (1980)	73,368,684	38,110,839	0.4	0.6	45.3	47.6	39.7	42.1	14.3	9.5
스	웨 덴 (1979)	4,998,000	2,540,000	41.6	43.6	—	—	7.3	8.1	15.4	14.1
미	국 (1981)	132,899,000	70,390,000	3.3	3.1	64.6	68.6	—	—	32.2	28.0

자료 : 한국의 경우는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85) 자료이며 6세이상 인구 기준임.

다른 나라의 경우는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89)

낮은 이집트(38.2%)와 멕시코(50.9%)는 남녀차별도 심한데, 브라질은 교육수준은 낮지만 고등교육에서의 남녀차별(82.0%)은 우리보다 적다.

2. 기대 교육수준

사람은 누구나 더 좋고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지만, 빈부격차나 도시농촌 등 교육여

건의 차이때문에 모든 청소년이 똑같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받을 교육정도를 다르게 기대하게 되는데, 부모들이 받은 교육수준의 높낮이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표 2-4〉).

〈표 2-4〉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자녀 기대 교육수준

(단위 : %)

		아				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1977	계	7.5	36.2	55.5	0.8	23.7	42.7	33.3	0.3
	국졸이하	13.6	51.0	35.2	0.2	37.6	47.2	14.7	0.5
	중 졸	3.2	30.1	66.1	0.6	13.8	48.9	37.2	0.1
	고 졸	0.9	16.8	81.2	1.1	5.4	38.3	55.8	0.5
	대졸이상	0.1	3.3	92.8	3.8	0.8	11.9	85.0	2.3
1990	계	1.6	12.1	61.9	24.4	3.9	20.4	61.3	14.4
	국졸이하	5.2	32.1	56.6	6.1	12.5	46.4	38.6	2.5
	중 졸	0.4	8.7	74.1	16.8	1.1	20.5	70.1	8.3
	고 졸	0.1	3.1	66.6	30.2	0.3	8.1	74.0	17.6
	대졸이상	0.0	0.5	45.5	54.0	0.1	1.8	62.0	36.1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다른 사람보다 교육을 더 받은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도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보다 1990년엔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아들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과 딸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의 차이도 이 기간에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그 차이는 크다.

1990년 현재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부모가 아들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99.5%나 되는데,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부모들은 62.7%만이 자기 아들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부모가 비록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해도 아들이 대학교에 다닐 것을 기대하는 생각은 1977년의 35.4%에서 상당히 늘어난 셈이다. 특히, 아들이 대학원에 다닐 것을 기대하는 비율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평균 0.8%에서 24.4%로 증가했다.

아들과 딸에 대해 기대하는 교육정도의 차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심한데, 국졸 이하의 부모의 경우 1977년에는 딸이 대학 이상의 교육받기를 기대한 사람은 아들이 그만한 교육받기를 기대한 사람의 42.9%밖에 안되었다. 이 수치가 1990년에는 65.6%로 늘었지만 아직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교적 딸과 아들에 대한 차별이 적은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경우도, 1990년 현재 아들에 대해서는 54.0%가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기대하지만 딸에 대해서는 36.1%만이 그런 기대를 가진다.

II-2. 교육인구

1. 입학자수 및 취학을

1) 입학자수

〈표 2-5〉를 보면,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입학자수는 199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한 반면,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육대학과 대학교, 그리고 각종학교의 입학자수는 1965년 이후 한동안 증가하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국민학교 입학자수는 1970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1980년과 1985년 사이에는 18.1%나 줄었으나, 1985년과 1990년 사이에는 2.6%로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졌다. 이 기간에 국민학교 입학자수가 줄어든 것은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과 민간의 “적게 낳아 잘 기르자”운동의 효과인 것 같다.

중학교 입학자수는 1985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그 후에 급속도로 감소했는데, 공교롭게도 1985년과 1990년 사이의 감소비율이 18.1%로 5년전에 국민학교 입학자수가 줄어든 것과 똑같은 비율이 되었다. 이것은 1980년에 국민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1986년에는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니까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학교 입학자수는 1970년과 1980년 사이에 8.2%나 줄었는데, 중학교 입학자수는 1975년과 1985년 사이에 30.4%나 증가했으니, 이 변화는 산아제한의 효과로는 설명이 안된다.

고등학교 입학자수는 1965년 이후 199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특히 1970년과 1975년 사이에 제일 많은 변화가 일어나 95.7%의 증가를 보여준다. 그 후 증가율은 계속 줄어서 1985년과 1990년 사이엔 0.6%만 증가했다. 아마도 1990년과 1995년 사이엔 입학자수가 줄어들 것으로 짐작된다.

〈표 2-5〉 교급별 입학자수

(단위 : 명)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국민학교	계	979,460	1,019,959	966,982	936,113	767,025	746,707
	여	—	—	—	—	—	—
중 학교	계	300,681	505,834	710,511	818,913	926,617	759,030
	여	—	193,024	304,797	393,129	447,646	366,172
고등학교	계	150,007	219,448	429,468	627,053	759,553	764,085
	여	—	79,956	161,557	267,666	350,866	357,941
전문대학	계	12,277	9,802	24,963	80,620	108,483	130,670
	여	3,629	3,511	7,966	22,728	44,112	60,101
교육대학	계	3,737	5,882	3,435	4,622	3,223	3,220
	여	1,510	3,406	2,179	3,958	2,450	2,365
대 학교	계	27,533	35,653	51,920	115,755	201,934	196,397
	여	7,079	9,523	15,523	29,029	65,730	76,182
각종학교	계	1,052	733	1,336	1,366	5,189	3,923
	여	597	138	466	465	1,517	1,76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교는 입학자수가 1965년에서 1970년까지는 약간 줄었다가, 그후 10년동안에는 엄청나게 증가해서 1980년에는 10년전의 8.2배가 되었다. 1981~1990년의 10년동안에는 증가속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62.1%만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많이 떨어지는 반면, 전문대학교 졸업자는 거의다 취직이 되어, 입학자수가 다시 상당히 증가할 것 같다.

교육대학 입학자수는 변화가 많아서, 1965년에서 5년간은 증가하다가 1975년까지는 감소하더니, 그 후 1980년까지 5년간은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1980년부터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1980년도 이후의 감소는 최근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졸업자들이 취직이 잘 안되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 같다.

대학교 입학자수는 1985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1975년과 1980년 사이엔 2.2배로 늘었다. 그러다가, 1985년과 1990년 사이엔 오히려 2.7%나 감소했는데, 이것은 1981년부터 졸업정원제가 실시되어 입학정원을 초과하여 신입생을 뽑다가 1985년 이후에 졸업정원제가 없어지면서 입학자수가 줄어든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

따라서, 대학교 입학자수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도 일정기간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대학교 입학자수가 줄어드는 기간에도 여학생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이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적어도 교육에서는 아들과 딸의 차별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취학을

취학율이란 그 해에 학교에 갈 나이가 된 사람중에서 몇명이 실제로 학교에 가는가를 재는 수치이다. 학교에 갈 나이는 국민학교가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대학교는 18~21세이다.

〈표 2-6〉를 보면, 1970년 이후 국민학교에 갈 나이가 된 아이들은 남녀 구별없이 모두 학교에 다니고 심지어 나이가 좀 지난 아이들까지 학교에 다녀서 취학률이 100%를 넘는다. 중학교 취학율은 1985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여 100%가 되더니 그후에 줄어들어서 1990년에는 96.9%가 되었다. 이 숫자는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된 아이들중에서 3.1%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학교에 못 간다는 걸 의미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취학율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는데, 특히 1975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무려 54.9%나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 현재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된 청소년중에서 12.4%는 학교에 못다닌다. 여자의 경우는 사정이 더 나빠서 전체 취학연령이 된 사람중에서 15.0%나 학교에 가지 못한다.

〈표 2-6〉 교급별 취학율

(단위 : %)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대 학 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66	96.8	95.5	42.1	31.6	26.8	18.7	—	—
1970	100.7	100.2	51.2	40.6	28.1	21.6	8.8	4.5
1975	107.8	105.3	72.0	63.1	41.0	32.5	9.5	5.4
1980	102.9	103.7	95.1	92.5	63.5	56.2	16.0	8.1
1985	99.9	100.1	100.1	99.6	79.5	75.5	35.6	21.6
1990	102.5	103.2	96.9	97.0	87.6	85.0	38.1	24.3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대학교의 취학율은 19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특히 1980년대 전반기에는 2.2배나 증가했다. 1990년 현재 18살에서 21살까지의 청소년중에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38.1%나 되는데, 이 수치는 1970년의 8.8%에 비교해 4.3배나 된다. 여자의 경우는 대학교 취학율이 1970년의 4.5%에서 1990년의 24.3%로 무려 5.4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자의 대학교 취학율은 남자의 63.8%밖에 안된다.

우리의 학교별 취학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표 6-7〉). 세계은행은 국민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네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3집단에 속한 아르헨티나와 비교해 보면 고등교육의 전체 취학율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여자의 취학율은 우리의 두배에 가깝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자의 고등교육 취학율이 남자보다 더 높는데 우리는 남자의 절반도 안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제4집단에 속한 미국과 프랑스는 여자의 고등교육 취학율이 남자의 61.1%밖에 안되어 교육에서의 남녀차별을 보여준다.

〈표 2-7〉 교급별 취학율 국제비교

(단위 :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한	국 (1988)	104	104	104	89	91	86	36.5	49.0	22.9
방글라데쉬	(1988)	70	76	64	18	24	11	4.9 ⁽⁸⁶⁾	7.5 ⁽⁸⁶⁾	1.9 ⁽⁸⁷⁾
이 집 트	(1987)	90	100	79	69	79	58	20.0	25.5	14.0
말레이시아	(1987)	102	102	102	59	59	59	6.8	7.6	6.1
아르헨티나	(1987)	110	110	110	74	69	78	38.7 ⁽⁸⁶⁾	35.9 ⁽⁸⁶⁾	41.5 ⁽⁸⁶⁾
일	본 (1987)	102	102	102	96	95	97	28.3	35.0	21.4
프 랑 스	(1987)	113	114	113	92	89	96	30.9	29.7	32.0
미	국 (1986)	100	101	100	98	98	99	59.6	55.5	63.7

자료 : 한국의 경우는 경제기획원 인구추정치 자료 및 「교육통계연보」

다른 나라의 경우는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89)

2. 재학생 수

1) 교급 및 시도별 학생수

지난 25년간 (1965-1990) 교급별 학생수의 변화를 보면(〈표 2-8〉, 〈표 2-9〉), 어

면학교는 늘었다가 줄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계속 늘기만 했다. 국민학교는 198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후 5년간은 줄(14.2%)줄었다가 그 다음 5년간은 제자리에 멈춰있다.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는 1985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그후 5년간에 중학교는 18.2%가 줄었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8.5%가 줄었다. 교육대학은 학생수의 변화가 심해서, 1970년까지는 늘었다가 그후 5년간은 줄고, 또 1975년부터 10년간은 늘다가 그후엔 줄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은 낮아진 인구증가율을 반영하는 것 같고, 교육대 학생수가 주는 것은 요즘 사범계 대학출신의 취직난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생수가 주는 것은 요즘 기능공이 부족한 노동시장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특히 공업고등학교 학생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표 2-4〉와 〈표 2-5〉를 보면 1990년 현재 교급별 학생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48.5%, 고등학교는 47.0%, 전문대학은 36.9%, 그리고 대학교는 28.5%이다. 이것은 최근들어 여자도 교육받을 기회가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고등교육에서는 남녀차별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독 실업계 고등학교(52.8%)와 교육대학(64.5%)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다. 실업고에서는 1965년 이후 꾸준히 여자의 비율이 증가했고, 교육대학에서는 1980년까지 여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서 81.9%까지 되더니 그후엔 이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와 각종학교, 특수학교는 1990년까지 계속해서 학생수가 늘었다. 고등학교는 1970년에서 1975년 사이에 제일 많이 늘어 1.9배로 되더니 그후 증가속도가 차츰 줄어들고 있다. 전문대학은 이보다 5년후인 1975에서 1980년 사이에 제일 높은 증가속도를 보여 2.6배로 늘더니 그후엔 증가율이 떨어졌다. 대학교는 다시 5년후인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2.3배로 늘고, 그 다음은 5년간은 조금밖에 늘지 않았다. 전문대학생이 제일 많이 늘어난 때가 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늘어난 때보다 약 5년 후라는 사실은, 그 고등학생들이 성장해서 전문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제일 많이 증가한 때가 전문대학생이 제일 많이 증가한 때보다 약 5년 후라는 사실은 성장하는 청소년의 변화로는 설명이 안되고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나 다른 어떤 요인으로 설명되어야 하겠다.

〈표 2-5〉에 의하면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는 지난 25년동안 계속해서 증가해 왔는데, 특히 1980년과 1985년 사이에는 4.3배로 늘었다. 이 숫자는 그동안 정규학교로서

〈표 2-8〉 교급별 학생수

(단위:명)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65	4,941,345	2,350,900	751,341	267,285	426,531	142,583	254,095	107,705	172,436	34,878
1970	5,749,301	2,754,648	1,318,808	503,002	590,382	218,938	315,367	141,819	275,015	77,119
1975	5,599,074	2,709,133	2,026,823	855,729	1,123,017	428,454	648,149	270,518	474,868	157,936
1980	5,658,002	2,745,382	2,471,997	1,161,351	1,696,792	722,394	932,605	400,316	764,187	322,078
1985	4,856,752	2,357,028	2,782,173	1,342,331	2,152,802	992,231	1,266,840	555,193	885,962	437,038
1990	4,868,520	2,362,050	2,275,751	1,103,222	2,283,806	1,073,179	1,473,155	645,092	810,651	428,087

	전문대학		대학(교)		교육대학		각종학교		특수학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65	23,159	6,800	105,643	23,761	5,920	2,491	3,072	2,008	2,537	984
1970	33,353	8,266	146,414	32,641	12,190	6,619	2,709	480	4,137	1,636
1975	62,866	17,761	208,986	55,439	8,504	4,933	2,993	817	6,523	2,547
1980	165,051	42,724	403,989	90,634	9,425	7,723	4,058	1,209	8,904	3,391
1985	242,117	87,123	931,884	250,088	18,174	13,247	17,475	4,306	14,274	5,547
1990	323,825	119,345	1,040,166	296,129	15,960	10,290	23,947	8,187	19,971	7,743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설립인가는 받지 못했으나 정규학교(중·고·대학과정)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외국어학교, 전수학교 등) 학생수가 많이 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점은 지난 25년동안 특수학교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5년마다의 평균 증가율이 51.5%나 되어 10년마다 2배이상으로 늘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 숫자는 그동안 맹인, 농아, 지체부자유자, 정신박약자 등의 청소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해준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과 아울러 자연파괴와 물, 공기 등의 공해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결과로 추측된다. 그래서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폭넓은 조사와 그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건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의사가 있어야겠다.

학생수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표 2-9〉),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서울과 경기도 방에 전체학생수의 약 1/3정도가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부산과 경남에 약 1/5정도

가 집중되어 있어서 이 네 지역을 합치면 전체학생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전문대학생은 경기지역에 제일 많고(19.3%), 다음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 각각 10% 이상씩 분포되어 있다. 교육대학생은 서울, 부산, 인천지역에 고르게 흩어져 있고 경남까지 합치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표 2-9〉 시·도별 학생수(1990)

(단위:명)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전 국	4,868,520	2,275,751	2,283,806	323,825	15,960	1,040,166	23,947	19,971
서 울	1,141,809	558,327	570,516	34,378	2,374	288,642	3,226	4,851
부 산	457,057	208,676	205,548	39,810	1,708	102,449	392	1,784
대 구	255,071	123,620	116,888	33,865	2,281	65,584	—	1,769
인 천	208,236	81,354	74,149	18,887	2,095	31,728	—	610
광 주	134,493	64,566	93,511	20,938	1,365	54,430	537	966
대 전	120,318	57,343	59,268	17,727	—	51,347	713	841
경 기	656,022	239,680	232,931	62,583	—	111,094	15,555	2,355
강 원	188,114	94,954	92,548	14,288	1,2543	44,863	—	752
충 북	153,273	78,070	74,697	7,434	848	46,086	—	876
충 남	216,850	120,295	111,604	7,900	1,211	36,112	1,622	349
전 북	240,029	129,202	133,158	12,258	915	65,174	638	980
전 남	290,117	144,714	140,350	7,366	—	16,798	—	811
경 북	317,812	155,390	165,363	20,559	—	61,927	1,264	1,466
경 남	433,256	191,087	182,129	21,351	1,655	54,270	—	1,253
제 주	56,033	28,473	31,146	4,481	265	9,662	—	308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대학생은 서울에 27.7%나 몰려있고, 그 다음 경기, 부산, 대구순으로 많고 이 네지역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 각종 학교에 포함되는 공민학교나 기술학교 학생은 경기 지방에 65%나 모여 있고, 다음으로 서울에 13.5%가 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농아와 맹아 등도 서울에 제일 많고(24.3%), 그 다음에 경기, 부산, 대구 등에 많이 모여 있는데 모두 합치면 전체의 53.9%나 된다.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곳에 행정, 경제시설과 함께 교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표 2-10〉을 보면, 고등교육을 받는 전체학생수에서는 가난한 나라와 부자나라가 섞인 10개국중에서 우리가 중간에 드는데, 여학생 비율(30%)에서는 제 9위이다. 우리와 유사한 경제수준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우리보다 가난한 필리핀보다도 고등교육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사는 나라중에서는 일본이 고등교육을 받는 전체학생수에서는 2위이면서도, 여학생비율이 37%밖에 안되어, 아직도 고등교육에서의 남녀차별이 상당히 심한 것을 나타낸다.

고학력시대인 오늘날 국민의 교육기회를 잘 나타내는 지표는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수일 것이고, 인구와 비례해서 나타내면 더 정확한 지표가 될 것이다(〈표 2-11〉).

〈표 2-10〉 교육단계별 학생수 국제비교

(단위 : 명,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한 국 (1990)	4,868,520	2,362,050	(48)	4,559,557	2,176,401	(47)	1,490,809	453,511	(30)
방글라데쉬 (1988)	11,075,476	4,829,714	(44)	3,308,347	1,046,377	(32)	462,265 ⁽⁸⁶⁾	88,889	(19)
필 리 핀 (1988)	9,601,322	4,731,531	(49)	3,494,460	1,702,850	(49)	1,973,182 ⁽⁶⁵⁾	1,074,045	(54)
이 집 트 (1987)	7,034,617	3,008,721	(43)	4,130,812	1,685,449	(41)	790,399	264,301	(33)
브 라 질 (1987)	26,208,051	—	—	3,242,261	—	(—)	1,479,397 ⁽⁸³⁾	740,327	(50)
아르헨티나 (1987)	4,906,907	2,421,237	(49)	1,980,815	1,037,248	(52)	902,882	479,172	(53)
이 스 라 엘 (1987)	705,756	349,709	(50)	279,130	142,650	(51)	118,608 ⁽⁸⁶⁾	54,824	(46)
서 독 (1986)	2,287,622	1,120,236	(49)	6,777,614	3,247,841	(48)	1,579,085	654,207	(41)
일 본 (1987)	10,226,323	4,988,708	(49)	11,456,437	5,634,924	(49)	2,398,201	887,132	(37)
미 국 (1986)	27,117,000	13,127,000	(48)	13,913,000	6,839,000	(49)	12,398,000	6,558,000	(53)

자료 : 한국의 경우는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1).

다른 나라의 경우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89)

〈표 2-11〉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

(단위 : 명)

	인 구 수	고등교육기관 재학자수	인구 만명당 고등교육 기관 재학자수
1966	29,435,571	175,349	59.6
1970	32,240,827	201,436	62.5
1975	35,280,725	318,683	90.3
1980	38,123,775	648,515	170.1
1985	40,805,744	1,451,297	355.7
1990	42,793,000	1,691,429	395.2

주 :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가리킴.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66년에는 인구 1만명당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은 60명이었는데, 24년이 지난 1990년에는 395명으로서 6.6배로 늘었다. 그동안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수도 계속 증가했고, 증가비율도 계속 커져서 1980년대 전반에는 110%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그 후 5년 사이에는 증가 속도가 11.1%로 감소했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표 2-12〉), 우리의 고등교육에서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도 안되는데, 이스라엘은 1/3이 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절반이 넘는다.

대학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에서는 6.0%밖에 안되는데 이스라엘과 프랑스에서는 10%가 넘는다. 일본의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대학원의 비중은 매우 작아서 3.1%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대학생의 36.9%만이 여자인데, 칠레, 말레이시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에서는 전문대학생의 절반이상이 여학생이다.

대학교에서는 캐나다만이 여학생수가 남학생수보다 많고, 칠레, 말레이시아, 이스라엘에서는 여학생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1/4을 조금 넘을 뿐으로, 아주 가난한 방글라데쉬만 빼고 여학생 비율이 제일 낮다. 대학원의 경우 우리는 22.5%로 방글라데쉬의 19.1%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일본은 3.8%로 제일 낮은 비율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선진국이고 우리가 중진국이라고 말하지만,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임을 나타낸다.

〈표 2-12〉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국제비교

(단위 : 명)

	총 계	전 문 대 학		대 학(교)		대 학 원	
		계	여	계	여	계	여
한 국 (1990)	1,450,902	323,825	119,345	1,040,166	296,129	86,911	19,560
방글라데쉬 (1986)	462,265	—	—	434,305	83,556	27,960	5,333
이 집 트 (1986)	592,256	—	—	507,772	182,284	84,484	20,831
인도네시아 (1984)	980,162	232,760	87,437	747,402	228,836	—	—
칠 레 (1987)	224,338	67,583	34,604	149,223	61,879	7,532	3,186
이 스 라 엘 (1986)	105,102	41,602	17,016	45,480	22,555	18,020	8,507
말레이시아 (1987)	105,964	59,037	30,337	43,430	19,360	3,497	1,069
프 랑 스 (1982)	1,179,268	190,283	95,758	843,151	426,480	145,834	57,221
캐 나 다 (1987)	1,160,525	221,586	119,396	843,815	465,999	95,124	41,934
일 본 (1986)	2,409,687	431,662	368,541	1,903,794	486,300	74,271	10,253

자료 : 한국의 경우는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1)

다른 나라의 경우는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90)

2) 계열별 고등학생과 전공별 대학생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와 실업계 학교 학생수의 비율(<표 2-13>)은 1980년까지 30년동안 6 : 4와 5 : 5 사이에서 변해오다가, 그 후 10년동안에는 실업계 학생수의 비율이 45%에서 35%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한편에선 청소년 실업자가 늘어나고, 다른편에선 기능을 가진 노동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생각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비율이 많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1955년에는 실업계 고등학생중에서 농업고등학교가 제일 많고(44.2%), 다음에 공업학교(27.8%), 상업학교(26.0%)의 순서였는데, 1960년에는 이 순서가 거꾸로 바뀌었다. 1965년에는 농업학교 학생수가 공업학교 학생수보다는 많아졌다가 1970년에는 다시 공업학교 학생수보다도 적어졌다. 1970년 이후 실업계 고등학생수에서 차지하는 농고 학생수의 비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반면에 공고와 상고학생수의 비율은 계속 증가했다. 그 결과 1990년 현재 농고학생수의 비율은 5.0%, 공고는 23.7%, 상고는 45.8%로 변했다. 이런 수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반복된 실행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공업화되고 사회구조가 도시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수의 변화를 보면(<표 2-14>), 전문

<표 2-13> 계열별 고등학교 학생수

(단위 : 명)

	일반계	실업계							
		계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양	예술	종합	실업
1955	143,027	113,318	47,281	31,533	29,486	5,018	—	—	—
1960	164,492	98,452	27,225	32,546	36,607	2,074	—	—	—
1965	254,095	172,436	42,853	36,980	67,614	3,162	—	12,458	9,369
1970	315,367	275,015	41,178	68,367	100,636	3,961	1,353	37,296	22,224
1975	648,149	474,868	42,111	123,571	190,208	7,849	1,885	88,924	20,420
1980	932,605	764,187	53,678	200,367	323,316	7,096	5,443	121,121	52,426
1985	1,266,840	855,962	51,842	198,354	380,267	10,030	(7,413)	203,659	41,810
1990	1,473,155	810,651	40,646	191,980	370,889	9,336	(10,009)	181,094	16,706

주 : ()의 숫자는 예술계 학생수로서 일반계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감」

대학의 전체학생수는 계속 증가했지만, 1965년에서 1970년 사이에는 학생수가 느는 전공계열보다 주는 전공계열이 더 많았고, 그후에는 한, 두 전공계열만 학생수가 줄고 그밖에는 늘었다. 이 기간에 특히 어문학계가 제일 많이 줄어 학생수가 1/4도 채 안되게 변했고, 다음으로 이학계와 사회학계가 많이 줄어 1/3도 안되게 변했다. 반면 이 기간에 의약학계는 학생수가 무려 11.3배로 늘었고, 공학계와 농림학계도 1.8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결과 전공계열별 학생수 크기의 순위가 바뀌어 1965년에 1위이던 공학계는 1970년에도 계속 1위이고, 2위이던 사회학계가 6위로 처지고, 3위이던 농림학계가 2위로 올라가고, 8위이던 의약학계가 3위가 되었다.

1970년에서 1975년까지는 예술학계와 사회과학계가 계속해서 학생수가 줄었고, 그밖의 전공에서는 학생수가 늘었다. 이 결과 학생수 순위는 공학계, 의약학계, 농림학계가 각각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1975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해양수산학계만 학생수가 줄었고 다른 계열서는 모두 증가해서 전체 학생수가 2.6배로 늘어났다. 특히 사회과학계는 17.8로 늘고 이학계는 21.1배로 늘었다. 그 결과 학생수가 많은 순서는 여전히 공학계가 1위, 사회과학계가 2위, 이학계가 3위로 되었다.

1985년에는 전공계열별 분류기준이 바뀌어서 그 이전과 비교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그 후 5년 사이에는 사범계만 학생이 조금 줄었고 다른 계열은 모두 늘어서, 학생수가 많은 순서는 5년전과 차이없이 이학계, 사회과학계, 의약학계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지난 25년간 한 계열에서 학생수가 증가하고 감소하거나, 여러 계열사이의 학생수 크기의 순위가 바뀌는데서 어떤 원칙이나 경향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전문대학의 계열별 학생수 조절에 관한 장기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 같다.

대학생수는 1965년 이후 199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계열별로는 인문과학계와 체육학계가 1965년과 1970년 사이에 학생수가 조금 줄었을 뿐 다른 계열은 계속해서 학생수가 늘었다. 1965년에는 사회과학계 학생수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와 어문학계가 많았다. 그 후 5년동안 사범계 학생수가 3배로 늘어서 5년전의 9위에서 4위로 올라갔고, 사회과학계와 공학계는 여전히 1, 2위를 유지했으며, 이공계가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1970년에서 1975년 사이에는 사범계의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서 다시 2.4배로 되어 계열별 학생수에서 3위가 되었고, 공학계가 2위에서 1위, 사회과학계는 1위에서 2위로 위치가 바뀌었다. 1975년과 1980년 사이에는 전체 대학생수가 1.9배로 늘었는데,

〈표 2-14〉 전공계열별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단위 : 명)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계	전문대학	23,159	33,353	62,866	165,051	242,117	323,825
	대 학 교	105,643	136,425	208,986	403,989	931,884	1,040,166
공 통 학 계	전문대학	—	—	—	—	—	—
	대 학 교	—	—	15,782	10,053	—	—
어 문 학 계	전문대학	543	121	—	—	4,799 ¹⁾	10,419
	대 학 교	10,182	11,304	13,838	33,452	150,141	156,164
예 술 학 계	전문대학	2,579	1,244	1,046	5,356	18,708 ²⁾	28,759
	대 학 교	4,848	6,210	10,251	18,642	53,177	69,029
인문과학계	전문대학	704	—	—	—	—	—
	대 학 교	9,045	6,482	6,991	10,757	—	—
사회과학계	전문대학	3,258	1,041	918	16,328	44,165 ³⁾	58,441
	대 학 교	29,037	35,734	37,343	86,197	257,738	286,814
체 육 학 계	전문대학	104	72	112	1,542	—	—
	대 학 교	1,664	1,572	2,370	3,229	—	—
이 학 계	전문대학	2,487	691	737	15,552	128,033 ⁴⁾	174,815
	대 학 교	9,622	13,326	15,339	33,946	336,624	419,891
공 학 계	전문대학	8,860	16,156	37,124	99,028	—	—
	대 학 교	17,647	23,345	44,421	105,352	—	—
의 약 학 계	전문대학	484	5,448	10,738	15,448	31,974 ⁵⁾	37,532
	대 학 교	9,382	12,845	16,813	22,111	39,408	40,430
농 립 학 계	전문대학	3,102	5,816	6,556	7,159	—	—
	대 학 교	8,636	10,618	12,197	23,307	—	—
해 양 수 산 학 계	전문대학	1,038	2,719	5,635	4,577	—	—
	대 학 교	1,194	1,975	2,453	3,532	—	—
사 범 계	전문대학	—	—	—	—	14,438 ⁶⁾	13,859
	대 학 교	4,386	13,003	31,188	53,411	94,796	136,867

주 : 1985년도부터는 전공계열별 분류기준이 바뀜 : 1) 인문계 2) 예·체계 3) 사회계

4) 자연계 5) 의학계 6) 사범계.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감」

특히 어문학계, 공학계, 사회과학계, 이학계 학생수는 2.4배지 2.2배로 늘었다. 그 후 5년동안엔 전체 대학생수가 2.3배로 증가했는데 1985년에 전공계열별 분류기준이 바뀌어서 각 계열별 변화정도는 측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1990년까지 5년동안엔 전체 학생수가 조금 증가했고, 계열별 순위는 5년전과 같이 자연계, 사회계, 어문학계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3) 방송통신학교 및 개방대학

집안이 가난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통신학교와 개방대학이 설치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수도 그동안 많이 변했다(〈표 2-15〉).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5년에 시작되었는데 한 10년 동안엔 학생수가 늘더니 1985년 이후엔 학생수가 줄었다. 1985년에는 정규고등학교 학생수의 2.1%가 되더니, 1990년에는 1.5%가 되었다. 방송통신대학은 1972년에 설립되어 학생수가 198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엔 무려 4.8배로 증가하더니 그 후

〈표 2-15〉 방송통신고교·대학 및 개방대학 학생수

(단위 : 명, 학급)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학급수		방송통신대학 학생수		개방대학 학생수	
	학생수	학급수	계	여	계	여
1972	—	—	11,172	—	—	—
1975	15,855	264	21,464	—	—	—
1980	29,488	561	32,053	—	—	—
1985	44,992	792	153,215	62,684	20,254	2,216
1990	35,212	685	148,650	72,675	51,970	7,867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5년동안엔은 약간 줄어서 1990년 현재 정규대학교 학생수의 14.3%가 되었다.

방송통신대학은 극심한 입시경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규대학에 못 가는 청소년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통신대학생중에서 48.9%가 여학생이라는 사실은 이 대학이

남녀에게 차별없이 봉사한다는 증거가 되겠다.

1985년에는 특별히 직업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개방대학이 설립되어 지난 5년동안 전체학생수가 2.6배로 늘었고, 특히 여학생수는 3.6배로 늘어서 1990년 현재 전체학생수의 15.1%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0년 현재 개방대 학생수는 정규대학생수에 비해 5.0%밖에 안되지만, 통신대학생수와 합치면 정규대학생수의 19.3%가 된다는 것은 정규대학에 못가는 청소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3. 진학 및 졸업자수

1) 진학자수 및 진학율

1965년에서 20년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수는 계속 증가했는데, 1985년에 와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학생수가 다소 줄었으나 고등학교나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수는 계속 증가했다(〈표 2-16〉).

〈표 2-16〉 교급별 진학자수

(단위 : 명)

	국민 학교→중 학교		중 학교→고 등 학교		고 등 학교→고 등 교육	
	계	여	계	여	계	여
1965	335,439	125,583	131,119	46,103	37,378	12,526
1970	528,652	208,669	219,142	79,938	39,073	14,748
1975	714,079	308,301	424,617	167,171	63,055	25,396
1980	837,204	400,760	626,520	271,160	110,817	43,505
1985	932,545	452,163	776,444	363,830	233,737	98,694
1990	761,989	371,203	799,549	385,220	252,831	114,839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진학자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1965년의 평균 35.4%에서 계속 증가해서 1990년의 평균 47.4%가 되었다. 여학생비율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데, 중학교 진학생과 고등학교 진학생간의 차이는 1965년의 2.2%에서 1990년의 0.5%로 많이 줄었으나, 고등학교 진학생과 전문학교 이상 진학생과의 차이는 1965년의 1.7%에서 1990년의 2.8로 오히려 늘어났다.

〈표 2-17〉 시·도별 진학자수(1990)

(단위:명)

	국민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고등교육	
	계	여	계	여	계	여
전 국	761,989	371,203	799,549	385,220	251,831	114,839
서 울	187,305	88,968	195,513	93,257	58,510	27,189
부 산	71,234	34,229	72,427	34,649	22,854	11,815
대 구	41,089	19,382	41,973	19,603	17,170	8,473
인 천	28,272	13,743	26,048	12,479	7,037	3,147
광 주	20,835	9,903	24,025	11,234	13,823	5,523
대 전	19,163	9,198	17,727	8,448	9,479	4,225
경 기	83,551	41,505	78,993	39,201	19,270	8,015
강 원	31,664	15,749	34,008	16,420	11,154	4,957
충 북	25,752	12,643	27,525	13,479	8,710	3,546
충 남	39,587	19,624	43,799	21,507	10,280	4,030
전 북	43,436	21,619	46,575	22,198	15,461	7,560
전 남	43,070	21,363	56,916	27,853	12,447	5,159
경 북	51,739	25,959	56,547	27,205	20,864	9,250
경 남	66,223	32,917	66,758	32,455	22,063	10,114
제 주	9,069	4,405	10,715	5,232	3,709	1,836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표 2-17〉)약 1/4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수를 서울과 경기도와 부산시를 합치면 거의 절반(44.9%)이 되고, 대학진학자는 서울 다음에 부산, 경남, 경북이 많고, 경기도는 그 다음에 위치한다. 이것은 영남사람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급별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을 재어보면(〈표 2-18〉),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은 지난 25년동안 계속해서 증가했으나,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1965년에서 1980년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1985년에는 좀 늘었고, 1990년에는 다시 떨어졌다.

1990년 현재 국민학교 졸업생은 대부분(99.7%) 중학교에 진학하지만, 중학교 졸업

생중에서 4.4%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약 1/3만 (33.1%)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2/3는(66.9%)취직하거나 재수생 또는 실업자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18〉 교급별 진학율 (단위 : %)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고 등 교 육
1965	54.3	69.1	32.3
1970	66.1	70.1	26.9
1975	77.2	74.7	25.8
1980	95.8	84.5	23.7
1985	99.2	90.7	36.4
1990	99.7	95.6	33.1

주 : 1) 진학율 = $\frac{\text{당해년도 졸업자중 진학자}}{\text{졸업자}} \times 100$

2)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학교 포함.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감」

2) 졸업자수 및 졸업율

교급별 졸업자수를 보면(〈표 2-19〉), 국민학교는 1975년과 1980년 사이에서 줄기 시작하고, 중학교는 1985년과 1990년 사이에서 줄기 시작했다. 아직 이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수도 1990년과 1995년 사이에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5〉의 교급별 입학자수와 비교하면, 국민학교 입학자수는 1970년과 1975년 사이부터 계속해서 줄었는데, 국민학교 졸업자수는 5년뒤인 1975년과 1980년 사이부터 줄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과 1985년 사이에는 졸업생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 어긋나는데, 이 통계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된다. 그러나 1985년도 졸업자수가 1980년도 입학자수하고는 비슷하다.

고등교육기관 학생수는 1965년 이래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특히 전문대학생수는 1975년에서 1980년 사이에 3.7배, 대학생수는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2.4배로 늘었다. 고등교육을 받는 여학생비율도 최근 10년동안 전문대는 27.5%에서 52.8%로, 대학교는 31.8%에서 36.9%로 증가했다. 교육대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곳인데 최근 10년동안 그 비율은 74.2%에서 61.5%로 오히려 줄었다.

국민학교의 졸업율(<표 2-20>)은 1970년 이래 계속 증가해서 1990년 현재 98.7%가 되었다. 이것은 1984년에 입학한 사람중에서 1.3%만 졸업을 못했다는 의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졸업율은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약간 떨어졌다가 그 후에 다시 증가

〈표 2-19〉 교급별 졸업자 수

(단위 :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학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65	617,554	267,398	189,726	66,493	115,776	36,529	6,180	2,290	1,665	686	36,180	6,115	725	502
1970	799,969	369,104	312,814	116,244	145,062	51,585	7,838	3,114	4,713	2,421	23,515	6,073	596	174
1975	924,727	442,028	568,648	231,083	263,369	102,058	14,106	4,888	5,841	3,141	33,610	9,763	442	48
1980	874,329	426,085	741,618	335,578	467,388	193,077	51,507	14,142	2,494	1,851	49,735	15,812	426	111
1985	939,727	456,494	855,627	412,654	642,354	289,372	73,973	33,260	2,252	1,898	118,584	42,771	2,079	699
1990	763,694	372,126	835,699	405,645	761,922	354,836	87,131	46,022	4,965	3,055	165,916	61,289	3,182	1,287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감」

해서 1990년 현재 97.6%와 94.1%가 되었다. 이것은 중학생의 2.4%와 고등학생의 5.9%가 졸업을 못했음을 나타낸다.

대학교는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졸업율이 23%나 떨어졌는데, 이것은 이 기간에 졸업정원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졸업정원제가 없어진 1990년에도 약 16.3%의 학생이 졸업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교급별 졸업율

(단위 : %)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대 학 교
1970	87.3*	93.6	93.0	85.9
1975	90.8	92.7	94.8	88.2
1980	94.1	97.0	94.4	88.9
1985	96.8	96.9	92.0	65.9
1990	98.7	97.6	94.1	93.7

주 : 1) * 표시는 1971년도 자료임.

2) 졸업율 = $\frac{\text{졸업자수}}{\text{6년전(3년전, 4년전) 입학자 수}}$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3) 졸업자중 취업자

청소년기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중간과정이라면 직업을 가지는 것은 어른이 되는 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교육기회를 가진 것이 그들의 실제생활에서 특히 직업선택에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현실이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수를 우선 직종별로 살펴보고 다음에 산업별 분포를 보겠다.

1960년대 중반이래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1/4 정도가 취직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사정이 나아져서 약 1/3이 취직되었다(〈표 2-21〉). 1960년대 중반에는 고졸학생들이 농·수산업에 제일 많이 취직하고(26.3%), 다음으로 생산직, 사무직에 많이 취직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시작된 공업중심의 경제발전정책으로 농·수산업이 퇴보하고 농·어촌이 피폐해진 결과 1990년 졸업자중에서 농·수산업에 취업한 고졸학생수가 상당히 줄어서 3.8%밖에 안된다. 1990년 고졸자 중에서 제일 많이 취업한 직업은 사무직인데, 전체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5년의 16.0%에서 35.4%로 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취업한 곳이 생산직으로서, 1975년과 1980년에는 고졸자가 제일 많이 가서 전체취업자의 1/3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5이 조금 넘을 정도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고교졸업자가 전문기술직에 취업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사정이 달라져서 1985년과 1990년에는 고졸자중에서 세번째로 많은 취업자를 냈다.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율은 1965년 이후 15년동안은 55.9%에서 34.6%로 계속 내려가더니 198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서 작년엔 54.0%로 올라갔다(〈표 2-21〉).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율은 물론 고교졸업자보다는 상당히 높았고, 1970년 이후 15년동안은 대졸자 취업율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1985년 이후 전문대 졸업자 취업율이 대졸자 취업율을 앞질러서 작년에는 대졸자의 48.2%보다 상당히 높은 54.0%를 보였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많이 취직하는 곳은 25년전과 변함없이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이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문직이 77.1%에서 49.6%로 준 반면, 사무직은 8.2%에서 17.9%로 늘었다. 전문대 졸업자들이 세번째로 많이 취직하는 곳도 서비스직으로 1970년의 6위에서 그 후 꾸준히 올라가서 1985년부터 3위가 되었다. 그러나 전체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8.8%밖에 안된다. 최근에 생산직에는 6.6%밖에 취업하지 않았지만 전체취업율이 제일 낮았던 1980년에는

31.4%가 취업해서 둘째로 많은 전문대 졸업자가 취직한 곳이었다.

1960년대 중반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는 사람은 1/3밖에 안되다가 그후 20년동안은 58%정도의 취업율을 유지해 왔다(〈표 2-21〉). 그러나 1985년에는 대졸자 취업율이 아주 떨어져서 40.9%가 되었다가 작년에는 다소 나아져서 48.2%가 되었다. 요즘, 들어가기에 매우 힘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절반은 취직이 안된다는 얘기가 된다.

대학졸업자들이 제일 많이 취직하는 직종은 지난 25년동안 변함없이 전문기술직이었는데, 전체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의 48.4%에서 1980년에는 53.0%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39.8%로 줄었다. 그 다음으로 대졸자들이 많이 가는 곳도 지난 25년동안 변함없이 사무직인데, 1960년대는 전체취업자의 약 1/5이 취직하던니 1975년에는 약 1/8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다시 약 1/4로 늘었다.

1990년에 대졸자들이 세번째로 많이 취직한 직종은 행정직이지만, 1975년과 1980년에는 생산노무직이 3위를 차지했었다. 전문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분포를 비교하면, 둘다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에 제일 많이 취직하지만, 그 다음으로 대졸자는 행정직에 그리고 전문대졸자는 서비스직에 많이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를 여기에 비교하면, 사무직과 전문기술직에 제일 많이 취직하는 현상은 같으나, 그 다음으로 생산직에 많이 취직하는 것은 다르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들의 취업을 산업별로 살펴보면(〈표 2-22〉), 1960년대 고졸자들이 농·수산업에 제일 많이 취직하고,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많이 취직했는데,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들은 서비스업에 제일 많이 취직하고, 다음으로 제조업과 농·수산업에 많이 취직했다. 1970년대에는 고졸자들은 제조업, 서비스업, 농·수산업 순으로 많이 취직했고, 전문대 졸업자는 1960년대와 다름이 없었고, 대졸자들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많이 가는건 여전했으나 그 다음으로 금융·부동산업에 많이 취직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고졸자들이 여전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찾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금융·부동산업이 그 뒤를 따랐다.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1, 2위는 변함없었으나, 3위는 건설업이 차지하게 되었다. 대졸자들의 취업분포는 그전과 마찬가지로였다. 1990년에 와서는 고졸자들과 대졸자들의 취업분포는 변화없고, 전문대 졸업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은 1, 2위는 여전했으나 3위가 다른 학교 졸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금융·부동산업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요새 학교졸업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고졸자들에겐 제조업이 1위, 서비스업이 2위인데 전문대와 대학졸업자들에게는 서비스업이 1위, 제

〈표 2-21〉 졸업자의 직종별 취업자수

(단위 : 명)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졸업자	고등학교	115,776	145,062	263,369	467,388	642,354	761,922
	전문대학	6,180	7,838	14,106	51,507	73,927	87,131
	대학교	36,180	23,515	33,610	49,735	118,584	165,916
취업자 계	고등학교	28,869	39,963	76,805	128,103	170,404	257,905
	전문대학	3,452	4,323	6,375	17,836	29,556	47,094
	대학교	12,564	13,743	19,635	28,349	48,552	79,975
전문기술인 및 관련 직	고등학교	—	48	498	9,878	24,999	34,988
	전문대학	2,663	2,038	2,579	6,840	16,141	23,336
	대학교	6,087	5,736	9,941	15,035	21,311	31,862
행정직 및 관련 직	고등학교	—	—	1,445	7,149	4,626	6,608
	전문대학	18	241	449	1,083	1,477	1,940
	대학교	991	708	1,142	1,107	3,298	5,440
사무직 및 관련 직	고등학교	4,611	14,081	22,746	36,945	48,172	91,369
	전문대학	284	650	571	1,624	4,328	8,434
	대학교	2,658	2,916	2,412	5,435	9,866	20,488
판매직	고등학교	1,843	3,719	4,818	10,044	15,023	20,366
	전문대학	80	84	81	343	1,179	2,218
	대학교	669	622	299	436	2,066	4,330
서비스직	고등학교	747	1,796	7,466	12,281	16,546	23,606
	전문대학	72	159	433	1,305	2,382	4,138
	대학교	665	1,064	1,221	1,135	3,858	4,248
농·림 수산업직	고등학교	7,590	4,955	8,720	9,341	13,368	9,805
	전문대학	88	430	140	688	797	762
	대학교	560	283	260	242	895	810
생산직 및 노무자	고등학교	5,766	13,362	28,506	38,846	41,450	58,878
	전문대학	52	635	1,828	5,599	1,512	3,119
	대학교	466	301	2,237	2,192	1,429	2,761
분류 불능직	고등학교	4,369	1,603	1,717	2,944	5,029	9,488
	전문대학	206	67	256	260	1,317	2,572
	대학교	468	280	255	657	2,462	5,824
군인	고등학교	1,430	219	374	675	1,191	2,787
	전문대학	—	19	38	92	423	575
	대학교	—	1,833	1,868	2,110	3,367	4,212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2-22〉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 명)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졸업자	고등학교	115,776	145,062	263,369	467,388	642,354	761,922
	전문대학	6,180	7,838	14,106	51,507	73,927	87,131
	대학(교)	36,180	23,515	33,610	49,735	118,584	165,916
취업자	고등학교	28,869	39,963	76,805	128,103	107,221	257,905
	전문대학	3,452	4,323	6,375	17,836	29,556	47,094
	대학(교)	12,546	13,743	19,635	28,349	48,552	79,975
농·림 수산업	고등학교	9,230	5,410	9,385	10,210	4,576	10,327
	전문대학	137	470	687	804	798	1,048
	대학(교)	917	327	658	434	1,036	1,019
광업	고등학교	166	434	1,400	3,255	441	649
	전문대학	29	46	210	341	233	271
	대학(교)	155	76	629	426	472	693
제조업	고등학교	5,361	12,409	25,286	49,284	32,632	103,693
	전문대학	439	860	1,008	4,892	5,561	10,746
	대학(교)	2,382	1,919	2,901	4,249	8,172	22,079
전기·가스 및수도사업	고등학교	159	2,075	3,797	3,059	2,096	9,931
	전문대학	25	204	236	727	1,034	1,362
	대학(교)	78	284	370	427	1,590	2,092
건설업	고등학교	1,152	2,077	3,730	7,109	4,800	15,351
	전문대학	75	276	344	1,596	2,380	3,288
	대학(교)	278	579	433	1,411	3,721	4,136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고등학교	1,366	2,866	2,513	6,330	10,105	16,108
	전문대학	77	63	41	325	1,435	2,589
	대학(교)	695	342	153	82	1,113	2,933
운수·창고 및통신업	고등학교	544	1,587	3,265	6,214	4,886	10,187
	전문대학	18	88	168	944	1,629	1,749
	대학(교)	499	301	372	713	1,853	2,918
금융·보험 ·부동산 및용역업	고등학교	1,228	3,846	8,481	15,189	19,475	35,949
	전문대학	89	108	285	692	2,235	3,369
	대학(교)	633	937	1,511	2,092	5,599	10,844
사회및개인 서비스업	고등학교	3,845	6,142	16,534	22,655	23,761	37,421
	전문대학	2,342	2,131	3,021	7,131	10,530	16,764
	대학(교)	2,957	8,323	11,236	15,965	17,900	24,593
분류 불능산업	고등학교	5,818	2,162	2,412	4,780	4,449	18,289
	전문대학	221	77	323	385	3,721	5,908
	대학(교)	3,970	655	1,372	1,740	7,105	8,668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조업이 2위이나, 3위는 모두 금융·부동산업이다.

서로 다른 수준의 교육기회를 가진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 사회에 나갈 때는 대개 서로 다른 직종을 가지게 되고 같은 직종에 취업하더라도 임금수준이 다르게 된다(〈표 2-23〉). 중학졸업생과 고교졸업생 사이에 임금의 차이가 제일 많았던 1975년에는 중졸이 고졸의 절반밖에 못 받았고, 고졸과 초대졸 사이에 차이가 제일 많았던 1980년에는 고졸이 초대졸의 2/3정도 받았다. 그러나 1989년에는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서 고졸은 중졸보다 약 1/4정도 더 받고, 초대졸은 고졸보다 약 1/7정도 더 받았다. 그러나 고졸과 대졸 사이의 차이는 크게 좁혀지지 않아 1985년에 대졸이 고졸의 2.3배 받다가 1989년에 1.9배 받게 되었다. 최근에 고졸과 초대졸의 취업율이 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봉급에서 대졸과 큰 차이가 나는 동안엔 무리해서라도 대학에 가려는 청소년의 숫자가 크게 줄지 않을 것 같다. 〈표 2-18〉의 고등교육 진학율과 〈표 2-21〉의 고졸 취업율을 합쳐보면,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는 1990년에도 진학도 못하고 취업도 못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33.1%나 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표 2-23〉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단위 : 원, %)

	중 졸	고 졸	초 대 졸	대 졸
1973	19,655(60.0)	32,583(100.0)	—(—)	60,647(186.1)
1975	32,019(52.2)	55,982(100.0)	76,248(136.2)	120,021(214.4)
1980	124,435(68.8)	180,919(100.0)	254,762(146.3)	413,318(228.5)
1985	226,272(74.7)	303,049(100.0)	393,450(129.8)	686,490(226.5)
1989	404,910(83.1)	487,013(100.0)	580,133(113.0)	930,396(191.0)

주 : ()안의 수치는 고졸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임.

자료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II-3. 교육여건

1. 학교수

1) 교급별 학교수

지난 4반세기 동안 국민학교수는 23.6%나 증가했는데 그동안 증가한 인구비율 52

%의 절반도 채 못 된다(〈표 2-24〉). 이것으로 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증가한 것을 추측할 수 있고, 특히 1985년까지는 국민학교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그후엔 약간 줄어들어 학교당 학생수는 더욱 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지난 25년간 2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고등학교수가 좀 더 늘었다.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수는 그동안 약 59%만 늘었는데, 전문대학교수가 특별히 많이 늘어서 1990년에는 1965년의 2.4배가 되었다. 1990년의 국민학교수를 100으로 잡으면, 중·고등학교수는 66이 되고, 대학교수는 4가 된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현재 국민학교는 거의가 국·공립이고 1.2%만 사립이지만, 중학교는 28.5%, 고등학교는 50.5%가 사립학교다.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은 사립학교의 비중이 아주 커서 80.2%를 차지한다. 전체

〈표 2-24〉 교급별 학교수

(단위 : 개교)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국민 학교	계	5,125	5,961	6,367	6,479	6,519	6,335
	사립	75	88	83	77	75	76
중 학 교	계	1,208	1,608	1,967	2,103	2,371	2,474
	사립	513	608	719	746	730	706
고등학교	계	701	889	1,152	1,353	1,602	1,683
	사립	226	418	567	690	812	850
	일반계	389	408	673	748	967	1,096
전문대학	계	48	65	101	128	120	117
	사립	36	39	65	92	103	101
대학(교)	계	70	71	72	85	100	107
	사립	56	56	57	65	78	83
교육대학	국립	13	16	16	11	11	11
각종학교 (대학)	계	31	16	14	12	24	23
	사립	20	16	14	12	24	23
특수학교	계	20	32	49	57	86	104
	사립	17	26	38	42	63	72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2-25〉 계열별 고등학교수

(단위 : 개교)

	계	일반계	실업계							실업
			계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양	예술	종합	
1965	703	389	314	114	42	100	11	2	18	27
1970	889	408	481	123	59	154	10	2	77	56
1975	1,152	673	479	69	72	182	9	3	121	23
1980	1,851	748	1,103	75	197	432	8	5	307	79
1985	1,602	967	635	61	102	227	9	—	204	32
1990	1,683	1,096	587	55	104	208	9	—	195	16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2-26〉 시·도별 학교수(1990)

(단위 : 개교)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특수학교
전 국	6,335	2,474	1,683	117	11	107	104
서울	463	327	239	15	1	34	17
부산	221	131	102	12	1	10	7
대구	118	74	56	7	1	4	8
인천	103	55	44	5	1	2	5
광주	83	52	53	7	1	5	5
대전	79	47	40	5	—	6	3
경기	684	271	203	18	—	13	14
강원	499	162	111	6	1	5	5
충북	337	109	67	3	1	4	7
충남	565	181	101	5	1	3	2
전북	555	191	125	7	1	5	7
전남	821	265	143	5	—	4	7
경북	890	290	202	10	—	7	9
경남	802	280	170	10	1	4	6
제주	115	39	27	2	1	1	2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고등학교에서 실업계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34.9%가 된다. 농아·맹아 등이 다니는 특수학교수는 지난 4반세기 동안 5.2배로 증가했는데, 대부분(69.2%)이 사립학교이다.

고등학교를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표 2-25〉), 지난 25년중에서 1980년만 빼고는 실업계학교가 일반계학교보다 숫자가 작았다. 1965년에는 일반계 고교대 실업계 비율은 55 : 45이다가, 1980년엔 40 : 60이더니 1990년엔 65 : 35로 되었다. 1965년엔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농업고교가 제일 많아 36.3%를 차지하더니 작년엔 9.4%로 작아졌다. 그 대신 1970년부터는 상업고교가 제일 많아져서 1990년엔 35.4%를 차지하게 되었다. 1975년부터 종합고교가 2위를 차지해서 1990년에는 전체 실업계고교 중에서 33.2%나 되었다. 공업고교는 25년간 계속해서 3위로 1990년에는 실업고의 17.7%를 차지하게 되었다.

2) 시·도별 학교수

각급학교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표 2-26〉), 서울에는 국민학교의 7.3%, 중학교의 13.2%, 고등학교의 14.2%, 그리고 대학교의 31.8%가 있다. 서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5%라는 걸 생각하면 서울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당 학생수는 다른 지방보다 많으리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는 인구비율보다 더 많은 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생수별 학교수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를 구별해 보면(〈표 2-27, 28, 29〉), 1965년에는 한 국민학교에 400내지 800명이 다니는 학교수가 제일 많았는데(29.3%), 4반세기가 지난 작년에는 학생수가 150명도 안되는 학교수가 제일 많은 것(44.6%)으로 나타났으니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빠른속도로 상업화, 도시화 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농촌학교의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한편 이런 현상은 그동안 인구가 증가한 비율보다 학교수가 증가한 비율이 적어서 학교당 평균 학생수는 늘었을 것이라는 짐작하고는 틀리는데, 한 학교에 2,000 내지 4,000명이 다니는 큰 학교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2.7배) 설명될 수가 있겠다.

중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300내지 600명이 다니는 크기의 학교수가 제일 많은데, 이

〈표 2-27〉 학생수별 학교수 (1)－국민학교

(단위 : 개교)

	계	150명 이 하	151~ 400	401~ 800	801~ 2,000	2,001~ 4,000	4,001~ 6,000	6,001명 이 상
1965	5,953	827	1,311	1,743	1,618	313	96	45
1970	6,910	967	1,557	2,152	1,680	382	121	51
1975	7,195	1,097	1,957	2,166	1,366	443	124	42
1980	7,345	1,462	2,449	1,710	927	499	244	54
1985	7,591	2,327	2,582	1,024	876	703	78	1
1990	7,631	3,400	1,854	583	865	855	73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2-28〉 학생수별 학교수 (2)－중학교

(단위 : 개교)

	계	300명이하	301~600	601~900	901~1200	1201~1500	1501명이상
1965	1,235	295	486	177	117	109	51
1970	1,640	301	467	347	170	119	236
1975	1,982	130	445	482	339	182	404
1980	—	—	—	—	—	—	—
1985	2,415	161	525	487	334	206	702
1990	2,519	469	673	312	234	275	556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2-29〉 학생수별 학교수 (3)－고등학교

(단위 : 개교)

	계	300명이하	301~600	601~900	901~1200	1201~1500	1501명이상
1965	701	250	189	92	74	50	46
1970	889	318	221	108	81	79	82
1975	1,152	197	280	193	117	129	236
1980	1,353	98	278	227	154	169	427
1985	1,602	71	259	268	180	235	589
1990	1,683	87	234	236	199	234	693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학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9.4%에서 26.7%로 줄었다. 한 학교에 1,500명이상이 다니는 큰 학교가 1965년의 51개에서 작년의 556개로 늘어서 전체 중학교의 22.1%를 차지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는 변화가 더 심해서 25년전에는 학생수가 300명도 못되는 학교수가 제일 많아서 35.7%나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학교는 5.2%밖에 안된다. 그 대신 학생수가 1,500명 이상 되는 큰 학교가 그동안 15배로 늘어서 전체 학교수의 41.2%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민학교는 학생수가 아주 작은 학교와 아주 많은 학교수가 늘고, 중·고등학교는 대형화된 학교수가 늘어난 현상은, 모두 공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큰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겠다.

유치원과 국민학교에 관해서 학교당 학생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표 2-30〉), 한국이 768로 제일 크다. 유럽 부자나라들은 150명 미만이고, 아르헨티나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도 200내지 300명 정도이다. 부자나라에서는 일본,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집트가 학교당 학생수가 제일 커서 400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학교당 학생수는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2-30〉 학교당 학생수(취학전 및 초등 교육) 국제비교 (단위 : 명)

			학 교 수	학 생 수	학교당 학생수
한	국	(1990)	6,335	4,868,520	768.5
방	글	(1988)	44,205	11,075,476	250.5
이	집	(1987)	15,041	7,034,617	467.7
브	라	(1987)	196,792	26,208,051	133.2
아	르	(1987)	21,025	4,906,907	233.4
말	레	(1987)	6,691	2,274,453	339.9
프	랑	(1987)	46,384	4,151,664	89.5
서	독	(1986)	15,954	2,287,622	143.4
이	태	(1987)	26,643	3,370,709	126.5
일	본	(1987)	24,933	10,226,323	410.2

자료 : 한국의 경우는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다른 나라의 경우는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89)

2. 학급수

1) 교급별 학급수

지난 4반세기 동안 각급학교의 학급수는 계속 증가해서(〈표 2-31〉) 국민학교는 1.6배, 중·고등학교는 4.5배, 고등교육기관은 4.1배가 되었다.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좀 더 늘어서 5.8배가 되었고, 고등교육기관중 대학교가 좀 더 늘어서 4.5배가 되었다. 이 기간에 특수학교 학급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9.6배가 되었다.

〈표 2-31〉 교급별 학급(과)수

(단위 : 학급, 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학교 (대 학)	특수학교
1965	75,603	12,383	7,473	307	172	886	46	184
1970	92,596	21,253	10,510	216	289	1,120	32	300
1975	98,684	31,441	19,167	458	206	1,427	41	540
1980	109,855	37,741	28,392	961	234	2,575	34	708
1985	108,753	45,082	37,808	1,076	381	3,126	70	1,038
1990	117,538	45,310	43,233	1,264	345	4,009	109	1,762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 학생수별 학급수

1965년부터 1990년까지 변화없이 국민학교에서는 한 학급에 31명에서 60명 짜리 학급수가 제일 많았다(〈표 2-32〉). 그러나 그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학급 크기는 1980년까지는 61명 내지 70명 짜리였는데 그 후엔 30명 이하인 학급으로 변했다. 한 학급에 71명 이상인 큰 학급수도 상당히 줄었다. 이것으로 그동안 국민학교 학급크기는 상당히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는 61명에서 70명 짜리 학급수가 1965년후 20년간 계속해서 제1위였는데, 그 비중은 1965년의 56.1%에서 1985년의 67.5%로 늘었다(〈표 2-33〉). 이동안 51명에서 60명 짜리 학급수가 2위였다. 1990년에는 51명에서 60명 짜리 학급이 1위가 되었고 2위는 학생수가 41명에서 50명 짜리가 차지했다. 이것으로 중학교 학급크기도 그동안 약간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2-32〉 학생수별 학급수 (1)－국민학교

(단위 : 학급)

	계	30명이하	31~60	61~70	71~80	81~90	91명이상
1965	75,603	750	25,153	20,110	18,152	9,466	1,972
1970	92,596	1,267	40,242	24,551	17,404	8,754	378
1975	98,684	3,058	58,052	17,515	13,202	6,625	232
1980	109,855	8,864	63,727	29,369	6,728	994	173
1985	108,753	20,631	83,455	4,428	216	23	—
1990	117,538	25,912	88,980	2,409	228	9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2-33〉 학생수별 학급수 (2)－중학교

(단위 : 학급)

	계	30명이하	31~40	41~50	51~60	61~70	71명이상
1965	12,374	100	222	787	3,347	6,936	982
1970	21,253	39	148	723	6,952	11,709	1,682
1975	31,441	59	214	1,010	5,376	22,250	2,532
1980	37,741	58	208	954	5,789	27,646	3,086
1985	45,082	204	300	2,459	11,378	30,430	311
1990	45,310	1,116	2,501	11,420	30,133	140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2-34〉 학생수별 학급수 (3)－고등학교

(단위 : 학급)

	계	30명이하	31~40	41~50	51~60	61~70	71명이상
1965	7,473	251	397	1,071	2,814	2,609	331
1970	10,150	283	335	811	3,740	4,606	375
1975	19,167	87	503	1,009	9,200	8,293	75
1980	12,944	12	75	473	7,711	4,623	50
1985	37,808	186	631	2,337	29,185	5,439	29
1990	43,587	449	888	5,350	35,579	967	—

주 : 1980년 자료는 실업계만 나타냄.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고등학교는 51명에서 60명 짜리 학급수가 제일 많아서 1965년에는 전체의 37.7%를 차지하던데, 1990년엔 82.3%를 차지하게 되었다(〈표 2-34〉).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급수가 많은 학급크기는 1965년에는 한반에 61명이상 70명이하인 학급이다가, 1990년에 41명이상 50명이하인 학급으로 바뀌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급크기가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3) 학급당 학생수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지난 25년간 변해온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표 2-35〉인데, 국민학교는 학급 크기가 65.4명에서 41.3명으로 37%나 작아졌고, 중학교는 60.7명에서 50.2명으로 17%가 작아졌다. 고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1965년의 54.1명에서 1990년의 51.8명으로 4%가 작아졌다. 반면에 고등교육기관은 코스당 학생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1965년의 75.4명에서 1990년의 256.1명으로 3.4배 증가하고, 대학교는 119.2명에서 259.4명으로 2.2배 늘었다. 고등교육기관의 코스당 학생수가 이렇게는 것은 그동안 학생수는 상당히 늘었는데 교실이나 교수의 수가 그만큼 늘지 못한 결과인 것 같다.

〈표 2-35〉 교급별 학급(과)당 학생수¹⁾

(단위:명)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1965	65.4	60.7	54.1	75.4	4.4	119.2	66.8	13.8
1970	62.1	62.1	56.2	155.0	42.2	130.7	84.7	13.8
1975	56.7	64.5	57.6	137.3	41.3	146.5	73.0	12.1
1980	51.5	65.5	59.8	247.1	40.3	156.9	119.4	12.6
1985	44.7	61.7	55.9	225.0	47.7	298.1	249.6	13.8
1990	41.4	50.2	51.8	256.1	46.2	259.4	219.6	11.3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4) 2부제 수업학교 및 학급수

국민학교에서 학생수에 비해 교실이 모자랄 때는 2부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지난 4반세기 동안 그런 학교나 학급수가 늘었다 줄었다 했다(〈표 2-36〉). 1965년 후 10년

동안에는 2부제 수업 학급수가 약 9%로 줄더니, 그 후 5년동안에는 다시 8.4배로 늘었다. 1980년부터 5년동안엔 다시 줄어서 약 절반이 되더니, 그 후 5년동안엔 다시 1.5배로 늘어서 1965년의 14,262학급이 1990년엔 7,969학급이 되었다.

과거에는 국민학교 상급반도 2부제 수업을 하더니 최근엔 거의 없어지고 주로 저학년이 2부제 수업을 한다. 1980년까지는 2학년이 2부제 수업을 제일 많이 하더니 그후엔 1학년이 제일 많이 한다.

〈표 2-36〉 국민학교 2부제 이상 수업 학교수 및 학급수

(단위 : 개교, 학급)

	학교수	학 급 수						
		총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965	—	14,262	3,886	5,174	3,450	1,457	133	35
1970	2,688	7,557	2,211	3,244	1,535	367	62	22
1975	297	1,287	407	581	241	43	4	—
1980	941	10,753	2,852	4,347	2,464	820	179	44
1985	794	5,272	2,376	2,028	695	162	10	1
1990	1,060	7,969	3,696	3,211	1,012	16	—	—

주 : 분교수 포함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불이 되었는데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급이 약 8,000개나 된다니 의무교육인 국민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시급한 것 같다.

3. 교직원수

1) 교급별 교원수

지난 4반세기 동안 국민학교 교사수는 1.7배로 늘었고, 중·고등학교는 5.5배,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은 6.2배로 늘었다(〈표 2-37〉).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교사수가 더 많이 늘어서 6.6배로 되었고, 고등교육기관 중에서는 전문대학 교원수가 제일 많이 늘어서 8.3배로 되었다. 특수학교는 교원수가 무려 11.8배로 늘었다. 이기간에 늘어난 학급수

와 비교하면(〈표 2-31〉), 국민학교는 학급이 는 만큼 선생이 늘었고, 중·고등학교는 학급수(4.5배)보다 교사수가 좀 더 늘었고, 고등교육기관은 학급이 는 수(4.1배)보다 교원수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

1965년에는 중·고등학교 교사수가 국민학교 교사수의 약 42%밖에 안되었는데,

〈표 2-37〉 교급별 교원수

(단위 : 명)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학교 (대 학)	특수학교
1965	79,164	19,067	14,108	890	305	5,305	301	234
1970	101,095	31,207	19,854	1,637	660	7,779	194	394
1975	108,126	46,917	35,755	2,748	791	10,080	200	662
1980	119,064	54,858	50,948	5,488	564	14,458	152	887
1985	126,785	69,553	69,546	6,406	623	26,047	407	1,565
1990	136,800	89,719	92,683	7,382	694	33,340	504	2,757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0년엔 1.3배가 되었다. 대학교 교원수는 1965년에는 국민학교 교원수의 약 8.6%였는데 작년에는 30.6%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차별이 많이 줄었다. 특히 여자에게도 교육받을 기회가 넓어져서 고등교육기관의 여학생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가 늘어나면서 학교교원 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다(〈표 2-38〉).

1965년에는 국민학교에서 여교사 비율이 25.5%밖에 안되어 남자교사와 여자교사 비가 3 : 1이었는데, 지금은 여교사 비율이 2배로 는 50%가 되어 남녀 비도 1 : 1이되었다. 중학교에서는 남녀교사의 비율이 1965년의 5.2 : 1에서 1990년엔 1.2 : 1로 변했는데, 그동안 여교사 비율이 거의 3배로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아직도 여교원 비율이 상당히 낮다. 전문대학에서는 남녀교원 비율이 2.8 : 1이고, 대학교에서는 4.6 : 1이다. 특수학교는 교육성격상 모성애 같은 부드러움이 요구되는 곳이라 1960년대에도 여교원 비율이 제일 높아서 남녀 비가 2.2 : 1이었는데 지금은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남녀교원 비가 1 : 1인 되었다.

〈표 2-38〉 교급별 여교원 비율

(단위: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각종학교 (대학)	특수학교
1965	25.5	16.1	11.9	10.4	9.1	33.6	31.6
1970	29.1	18.6	12.1	18.2	11.9	13.4	35.3
1975	33.7	25.1	14.2	19.7	14.0	10.0	42.0
1980	36.8	32.8	17.2	16.7	15.3	16.4	45.4
1985	43.1	38.5	19.6	23.6	16.2	16.5	47.8
1990	50.0	46.1	22.9	26.4	17.9	23.2	49.7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여교원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표 2-39〉),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모두 아주 가난한 이디오피아와 방글라데쉬만 빼고는 일본이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다. 이것은 이 두나라에는 적어도 고등교육에서는 아직도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표시인 것 같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수를 중등교육을 맡은 교사수에 비교하면 한국은 23.0%밖에 안되는데, 미국의 67.3%와 일본의 39.4%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르헨티나의 26.7%보다도 낮다.

〈표 2-39〉 교육단계별 교원수 및 여교원 비율 국제비교

(단위: 명,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한국 (1990)	136,800	68,604	(50)	182,402	62,947	(3.5)	41,920	8,034	(19)
이디오피아 (1987)	58,400	14,000	(24)	18,580	2,010	(11)	1,395	106	(8)
방글라데쉬 (1988)	191,507 ⁸⁷⁾	15,568	(8)	112,700 ⁸⁵⁾	9,575	(9)	17,410 ⁸⁵⁾	3,194	(18)
칠레 (1987)	68,905	51,409	(75)	41,657	23,151	(56)	15,131 ⁸⁴⁾	3,350	(22)
필리핀 (1988)	301,530	—	(—)	102,611	—	(—)	49,679 ⁸³⁾	—	(—)
아르헨티나 (1987)	252,259	230,235	(91)	262,306	175,000	(67)	69,985 ⁸⁵⁾	33,101	(47)
말레이시아 (1987)	102,356	54,597	(53)	58,499	28,695	(49)	8,213 ⁸⁵⁾	1,801	(22)
일본 (1986)	448,977 ⁸⁷⁾	253,840 ⁸⁾	(57)	632,432	178,391	(28)	248,989	36,286	(15)
서독 (1986)	131,351	104,069	(79)	349,939	155,401	(44)	183,528 ⁸⁴⁾	38,368	(21)
미국 (1985)	1,371,000	—	(—)	1,042,000	—	(—)	701,000	—	(—)

자료: 한국의 경우는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0)

다른 나라의 경우는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89)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미국의 70만이나 일본의 25만 보다 훨씬 적은 4만으로 필리핀의 5만보다도 더 작은 숫자다. 한국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수를 늘리는 일이 시급히 요청된다.

2) 출신학교별 교원수

학교교사가 되는데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원양성소를 다니거나, 교원자격 검정고시를 보는 등 여러가지 길이 있다(〈표 2-40, 41〉). 학교교사의 숫자는 1969년에서 1990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 1970년에서 5년간에 중·고등학교선생이 제일 많이 증가해서 중학교교사는 1.5배, 고교교사는 1.8배로 되었다. 국민학교의 경우 1969년에는 사범대학출신이 제일 많아서 43.4%나 차지했는데, 1975년부터는 교육대학 졸업자가 제일 많게 되어 34.4%를 차지했다. 교육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늘어서 1990년에는 국민학교 교사의 58.8%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사범대학출신이 많아서 19.7%를 차지했다(〈표 2-40〉).

〈표 2-40〉 출신학교별 교원수 (1)－국민학교

(단위 : 명)

계		교육대학 졸업자	사범대학 졸업자	양성소 수료자	자격고시 합격자	기 타
1969	96,358	14,857	41,856	10,465	8,791	20,389
1970	101,095	19,628	39,116	14,574	8,685	19,092
1975	108,126	37,225	34,258	16,612	8,809	11,222
1980	119,064	52,553	30,614	17,504	8,416	9,977
1985	126,785	62,903	29,787	13,522	6,962	13,611
1990	136,800	80,479	26,882	12,575	5,242	11,622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중학교 교사는 1969년에 국립사대 출신이 제일 많아 약 1/5을 차지했고, 1970년엔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이 제일 많게 되어 전체 중학교교사의 46.5%를 차지했다(〈표 2-41〉). 그 후 15년동안 중학교교사중에서 교직과정 졸업자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립사대 출신이 많다가 1990년에 와서는 국립사대 출신이 다시 제일 많게 되어 45.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교직과정 출신자가 많아 34.0%가 된다.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0여년동안 교직과정 졸업자가 제일 많아서 절반 이상을 차지

했다(〈표 2-41〉). 그 다음으로 국립사대 졸업자가 많아 1990년엔 27.7%가 되었고, 사립대학 졸업자는 13.5%로 3위를 차지했다.

〈표 2-41〉 출신학교별 교원수 (2)－중·고등학교

(단위 : 명)

		1969	1970	1975	1980	1985	1990
계	중 학교	27,437	31,207	46,917	54,858	69,553	89,719
	고등학교	18,186	19,854	35,755	50,948	69,546	92,683
국립사대	중 학교	5,725	6,137	7,315	1,125	20,792	40,555
	졸업자 고등학교	3,943	4,147	7,214	8,859	14,566	25,628
사립대학	중 학교	2,034	2,762	5,187	9,063	11,903	14,135
	졸업자 고등학교	594	1,129	1,344	3,995	7,231	12,498
교직원	중 학교	1,241	14,508	25,486	25,840	31,134	30,528
	졸업자 고등학교	9,571	9,926	22,490	27,287	40,012	47,827
양성소	중 학교	1,620	2,392	4,023	3,919	2,850	2,027
	수료자 고등학교	377	849	1,164	1,858	1,207	1,042
자격검정	중 학교	1,936	2,028	2,917	2,875	2,127	1,753
	고시합격자 고등학교	1,229	1,561	3,046	5,294	4,567	4,405
기타	중 학교	3,714	3,380	1,989	1,933	747	721
	고등학교	2,472	2,245	1,513	3,655	1,963	1,283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3) 전공과 학위별 교원수

고등교육기관 교원들은 여러가지 다른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데, 시대에 따라 사회적 필요가 변하므로 각 분야별 숫자가 달라졌다(〈표 2-42〉).

1975년까지는 의약학계 교원수가 제일 많았는데, 그후엔 공학계 교원수가 제일 많게 되어 의약학 전공자는 사회과학 전공자에 이어 3위가 되었다. 1990년 현재 공학 전공자는 고등교육 교원의 17.7%이고, 사회과학 전공자는 16.0%, 그리고 의약학 전공자는 14.0%이다.

고등교육을 맡은 교원은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별로 구별하기도 한다(〈표 2-43〉). 4반세기 전에는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중 학사가 제일 많아 약 절

반을 차지했고, 석사는 1/4이 좀 넘었다. 그 후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늘어나서 1975년부터는 고등교육을 맡은 교원중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제일 많아서 1985년에는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0년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원이 41.4%나 되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 40.7%가 되었다.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및 대학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970년까지는 학사학위를 가진 교원이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일 많았으나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1975년부터, 전문대와 교육대에서는 1980년부터 석사학위를 가진 교원이 제일 많게 되었다.

1990년 현재 전문대학과 교육대학에서는 1985년 이후 그 비율은 줄었지만 아직도 석사교원이 제일 많아 각각 67.8%와 59.8%를 차지한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1990년에 박사교원 비율이 48.5%가 되어 석사교원의 34.0%보다 더 많게 되었다.

〈표 2-42〉 전공학계별 교원수(고등교육기관)

(단위 : 명)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어 문 학 계	748	1,200	1,658	2,254	4,058	4,012
예 술 학 계	362	552	878	1,367	2,079	2,574
인 문 과 학 계	761	860	917	1,289	2,529	2,903
사 회 과 학 계	1,104	1,505	1,935	2,904	5,500	6,717
이 학 계	978	1,147	1,455	2,172	3,714	4,610
가 정 학 계	—	259	409	595	1,043	1,136
공 학 계	817	1,392	2,087	4,464	5,753	7,402
의 약 학 계	1,158	1,569	2,107	2,682	4,344	5,875
농 립 학 계	471	855	992	1,194	1,658	2,017
체 육 학 계	—	341	452	638	996	1,093
수 산 해 양 학 계	134	179	266	240	309	385
사 법 계	268	397	597	798	1,912	3,196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2-43〉 학위별 교원수

(단위 : 명,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고등교육기관계	6,801(100)	10,435(100)	13,981(100)	20,990(100)	33,895(100)	41,920(100)
전 문 대 학	890(100)	1,637(100)	2,748(100)	5,488(100)	6,406(100)	7,382(100)
총계 교 육 대 학	305(100)	660(100)	791(100)	564(100)	623(100)	694(100)
대 학 (교) ·						
대 학 원	5,305(100)	7,944(100)	10,242(100)	14,696(100)	26,459(100)	33,340(100)
고등교육기관계	771(11.3)	1,480(14.2)	2,887(20.6)	4,950(23.7)	9,416(27.8)	17,344(41.4)
전 문 대 학	12(1.3)	18(1.1)	58(2.1)	77(1.4)	201(3.1)	872(11.8)
박사 교 육 대 학	1(0.3)	6(0.9)	6(0.8)	12(2.1)	59(9.5)	188(27.1)
대 학 (교) ·						
대 학 원	727(13.0)	1,440(18.1)	2,807(27.4)	4,835(32.9)	9,097(34.4)	16,155(48.5)
고등교육기관계	1,893(27.8)	3,408(32.7)	5,105(36.5)	9,515(45.5)	17,114(50.5)	17,079(40.7)
전 문 대 학	154(17.3)	269(16.4)	651(23.7)	2,738(49.9)	4,430(69.2)	5,003(67.8)
석사 교 육 대 학	68(22.3)	135(20.5)	244(30.8)	263(46.6)	446(71.6)	415(59.8)
대 학 (교) ·						
대 학 원	1,614(30.0)	2,932(36.9)	4,092(40.0)	6,431(43.8)	11,946(45.1)	11,328(34.0)
고등교육기관계	3,390(49.8)	4,687(44.9)	5,016(35.9)	5,129(24.5)	6,239(18.4)	6,491(15.5)
전 문 대 학	613(68.9)	1,151(70.3)	1,629(59.3)	1,998(36.4)	802(12.5)	572(12.1)
학사 교 육 대 학	190(62.3)	423(64.1)	382(48.3)	190(33.7)	103(16.5)	85(12.2)
대 학 (교) ·						
대 학 원	2,429(46.7)	3,037(38.2)	2,961(28.9)	2,912(19.8)	5,296(20.0)	5,808(17.4)
고등교육기관계	747(11.0)	861(8.3)	973(7.0)	1,018(4.9)	1,126(3.3)	1,006(2.4)
전 문 대 학	111(12.5)	199(12.2)	410(14.9)	674(12.3)	973(14.5)	935(15.4)
기타 교 육 대 학	46(15.1)	96(14.5)	159(20.1)	99(17.6)	15(2.4)	6(0.9)
대 학 (교) ·						
대 학 원	535(10.4)	536(6.7)	382(3.7)	230(1.6)	127(0.5)	49(0.1)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4) 교직원 1인당 학생수

지난 4반세기 동안 학생수와 교직원수가 다 증가했지만 그 증가속도는 서로 달라서 교직원 한사람이 맡은 학생수가 변했다(〈표 2-44〉). 국민학교는 학생수가 느는 속도보다 교사수가 더 빠르게 늘어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965년의 62.4명에서 계속 줄어

서 1990년에는 35.5명이 되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1980년까지는 교사수의 증가속도가 학생수의 증가속도를 따르지 못하다가 그후엔 교원숫자가 더 빨리 증가하였다. 그래서 중학교는 1980년의 교원 1인당 학생수 45.1명에서 1990년의 25.3명으로 줄었고, 고등학교는 33.3명에서 24.6명으로 줄었다.

대학교는 1985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여 35.8이 되더니, 1990년에 와서야 31.1로 줄었다. 전문교육을 시키는 대학교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중·고등학교보다 더 많다는 것은 경쟁이 심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학기술자 등 전문인력이 더 필요한 만큼 빨리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반면에 정규대학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지만 아직 정규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각종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계속 증가해서 25년전의 10.2명에서 47.5명으로 늘었다. 아마도 늘어난 학생수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교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정규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농아·맹아·정신박약아 등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을 담당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교원 한사람이 맡는 학생수가 그동안 별로 줄지 않았는데, 특수아동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자면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수를 많이 늘려야 할 것 같다.

〈표 2-44〉 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1965	62.4	39.4	30.2	19.9	10.2	10.8
1970	56.9	42.3	29.7	18.8	14.0	10.5
1975	51.8	43.2	31.4	20.7	15.0	9.9
1980	47.5	45.1	33.3	27.9	26.7	10.0
1985	38.3	40.0	31.0	35.8	42.9	9.1
1990	35.5	25.3	24.6	31.1	47.5	7.2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교원수가 상당히 모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45〉).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경우는 교원당 학생수가 10개국중에서 제일 높고, 중등교육의 경우도 방글라데쉬와 말레이시아만 우리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교사는 1인당 일본의 1.6배, 이태리의 2.5배가 되는 학생을

말고 심지어 브라질의 1.5배를 맞는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맡은 학생수는 일본의 1.4배, 이태리의 2.6배가 된다.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우리나라 교원은 일본과 서독보다 각각 3.4배, 3.9배의 학생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건 몰라도 교육만은 어느나라에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학생수에 비해 교원수가 너무 모자란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표 2-45〉 교육단계별 교원당 학생수 국제비교

(단위:명)

	(연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 국	(1990)	35.9	25.0	33.3
방글라데쉬	(1988)	59.4	27.7 ⁽⁸⁶⁾	26.6 ⁽⁸⁶⁾
이집트	(1987)	29.9	18.0 ⁽⁸⁷⁾	26.8 ⁽⁸⁵⁾
브라질	(1987)	24.0	14.5	12.1
아르헨티나	(1987)	19.5	7.6	12.9 ⁽⁸⁶⁾
말레이시아	(1987)	22.2	25.5	10.6 ⁽⁸⁶⁾
프랑스	(1987)	20.5	17.0 ⁽⁸⁴⁾	20.0 ⁽⁸³⁾
서독	(1986)	17.4	13.6 ⁽⁸³⁾	8.6
이태리	(1984)	14.1	9.8	22.1 ⁽⁸⁶⁾
일본	(1986)	22.8 ⁽⁸⁷⁾	17.8	9.7

자료: 한국의 경우는 교육부, 「교육통계연보」(1990)

다른 나라의 경우는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89)

학교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관리 등 사무직원의 역할도 중요하다(〈표 2-46〉). 지난 25년간 각급학교의 사무직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학생수를 보면, 국민학교의 경우는 그 숫자가 계속 줄어서 1965년의 655.5명이 1990년의 195.3명이 되었다. 그러나 그밖의 학교에선 사정이 다르다.

중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한 사람이 시중드는 학생수가 1985년까지는 계속늘어서 1965년의 1.5배가 되더니 그 후에야 줄기 시작해서 5년후엔 205명이 되었으나 아직도 25년전보다 18%가 더 많은 셈이다.

고등학교에선 사무직원의 부담이 계속 늘어서 1990년엔 한사람당 학생을 177명이나 담당하게 되었다. 고등교육기관에선 사무직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초·중·고 보다는 훨씬 적지만, 1985년까지는 사정이 계속 악화돼 왔다. 1990년에 와서도 전문대학과 각종대학은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교육대학과 대학교는 좀 나아졌다. 특수학교는 사무직원이 모자라는 현상이 1990년에 와서 많이 나아졌다.

〈표 2-46〉 교급별 사무직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1965	655.5	174.3	110.4	50.9	26.2	21.2	17.0	39.0
1970	600.7	167.0	118.4	46.1	35.9	17.7	15.7	37.3
1975	478.8	171.5	131.4	38.6	16.8	18.4	25.2	35.5
1980	377.8	191.7	134.8	47.4	28.0	26.0	24.3	32.4
1985	258.3	264.8	172.8	59.9	42.0	46.9	41.0	43.0
1990	195.3	205.0	177.1	76.9	28.5	37.7	58.6	23.1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4. 학교시설

1) 학생 1인당 학교교지와 건물면적

각급학교가 가진 땅은 운동장으로도 쓰이고 학교건물을 짓는 토대도 되어 매우 중요한 교육여건이 된다(〈표 2-47〉). 학교땅을 학생수와 비교해보면, 국민학교는 학생 1인이 사용하는 땅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다른 학교는 오히려 줄었다. 중·고등학교는 1985년까지 학생 한사람이 사용하는 학교땅의 넓이가 계속 줄다가 1990년에 와서야 약간 늘었다. 교육대학은 최근에 와서 약간 늘었으나 전문대학과 대학교는 지난 20여년동안 계속해서 학생 1인당 사용가능한 땅이 줄어들어서 대학의 경우는 1965년의 135.6㎡에서 1990년에는 그 44.3%인 60.1㎡로 줄었다.

특수학교는 사정이 더욱 나빠져서 1990년엔 25년전의 15.9%밖에 안되는 것으로 줄었다. 지난 4반세기동안 학생수는 많이 늘었는데 학교땅이 상대적으로 적게 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현상이 일어나서 땅값이 크게 상승한 때문인 것 같다. 고등교육기관

중에서는 교육대학이 사정이 비교적 나은 편이고, 전문대학의 학교땅이 학생수에 비해 상당히 좁은 편이다. 고등교육기관은 평균 학생 1인당 53㎡의 교지를 가져서 평균 19㎡인 초·중·고등학교의 2.8배 정도의 땅을 가진 셈이다.

〈표 2-47〉 교급별 학생 1인당 기본 교지면적 (단위: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특수학교
1965	15.7	205.	—	49.4	133.0	135.6	355.4
1970	12.8	20.2	25.1	133.3	78.2	177.1	35.5
1975	14.7	13.9	25.1	55.7	142.8	101.0	62.4
1980	15.7	13.5	21.3	44.4	99.9	91.1	58.2
1985	19.3	13.3	19.1	43.0	55.3	58.1	48.6
1990	20.1	16.8	20.1	34.4	65.3	60.1	56.5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교실, 도서관, 체육관 등 학교건물의 넓이를 학생수에 비교해보면(〈표 2-48〉), 학교 부지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학생 1인당 학교 건물면적은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증가해서 국민학교는 25년전의 2.5배로, 중학교는 1.6배로 되었다. 그밖의 학교는 한동안은 건물면적이 줄다가 그후엔 늘거나, 아니면 한동안은 늘다가 그후엔 줄었다. 고등학교는 계속 줄다가 1985년부터 늘기 시작했고, 전문대학은 1975년까지 늘다가 그후엔 계속 줄었다. 대학교와 특수학교는 각각 1985년과 1980년까지 사정이 나빠지다가 그후엔 좋아졌다.

〈표 2-48〉 교급별 학생 1인당 학교건물 면적 (단위: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특수학교
1965	1.3	2.2	4.0	7.7	12.5	15.2	11.3
1970	1.5	2.2	3.7	10.4	8.9	14.3	7.7
1975	2.0	2.2	3.4	10.5	22.5	12.3	9.1
1980	2.1	2.0	2.6	8.0	17.6	11.5	6.4
1985	2.9	2.6	4.0	6.9	11.9	8.3	10.6
1990	3.3	3.6	4.4	6.3	18.5	9.8	13.7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이 제일 많은 교육대학은 1975년에 사정이 제일 좋더니 그후 악화 되었다가 작년엔 좀 나아졌다. 대학교의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국민학교의 3배, 고등학교의 2.2배가 된다.

2) 각급학교의 도서관과 장서수

도서관은 매우 중요한 학교시설의 일부인데 <표 2-49>를 보면, 도서관의 절대수가 줄어든 경우도 있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해서 문달는 학교도 생겼으니 거기에 따라 도서관수가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1980년 이후, 또 전문대학은 1985년 이후에 도서관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교육의 장래를 위해 크게 염려되는 일인 것 같다.

<표 2-49> 교급별 도서관수

(단위 : 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1975	47	50	128	—	—	—
1980	95	76	140	104	11	122
1985	49	36	196	126	11	131
1990	46	27	210	117	11	138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특히 1990년 현재 중학교수는 2,474개인데(<표 2-24>) 도서관수가 27개라니 평균 92개 학교에 도서관이 한개 있다는 얘기가 된다. 고등학교도 도서관수가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1975년의 9개 학교당 도서관 1개가 1990년의 8개 학교당 도서관 하나도 조금 밖에 나아진게 없다. 적어도 한 학교에 도서관 하나씩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면 중학교 도서관은 지금의 92배, 고등학교 도서관은 지금의 8배로 늘려야 하므로,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를 보면(<표 2-50>),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20년전보다 상당히 나아졌다. 도서관수는 줄었는데 좌석당 학생수도 따라서 줄었다는 통계는 도서관이 대형화 되었거나 아니면 좌석당 공간을 줄여서 한 도서관에 더 많은 좌석을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좌석당 학생수가 1980년까지는 계속 늘다가 그후에 다소

줄어들었고, 대학의 경우엔 1975년 이후 계속 줄었지만 아직도 1970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 2-50〉 교급별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

(단위 : 명)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당 학생수	좌석당 학생수	도서관당 학생수	좌석당 학생수	도서관당 학생수	좌석당 학생수	도서관당 학생수	좌석당 학생수
1970	254	78.2	627	61.3	469	10.4	—	6.1
1975	451	51.2	806	33.5	762	13.2	153	9.7
1980	1,380	75.6	942	28.1	886	15.4	126	7.8
1985	2,784	22.9	1,354	25.1	1,209	11.9	187	6.0
1990	2,901	30.2	1,916	17.0	1,572	11.6	270	6.4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2-51〉 교급별 도서관당, 학생당 장서수

(단위 : 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당 장서수	학생당 장서수	도서관당 장서수	학생당 장서수	도서관당 장서수	학생당 장서수	도서관당 장서수	학생당 장서수
1970	12,100	0.5	1,400	0.7	4,400	—	—	25.6
1975	10,200	0.8	2,600	1.0	4,400	0.3	41,400	21.3
1980	2,000	0.5	3,600	1.4	4,300	2.3	82,800	17.0
1985	3,700	1.8	4,000	2.0	4,800	2.7	95,200	13.9
1990	3,700	2.2	3,200	2.7	3,700	2.6	102,100	18.5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다음에는 각급학교 도서관이 가진 책의 숫자를 살펴보면(〈표 2-51〉), 국민학교의 경우는 도서관당 장서수가 1990년 현재 1970년의 31%밖에 안된다. 중·고등학교는 1985년 이후 도서관당 장서수가 오히려 줄고 학생당 장서수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은 계속해서 증가한 사실을 생각할 때, 정부의 교육투자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 대학의 경우 도서관당 장서수는 계속 늘었는데 학생

당 장서수는 거꾸로 계속 줄다가 작년에 와서야 조금 늘었다.

II-4. 교육재정

1. 문교예산

문교예산을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에 비교해보면(〈표 2-52〉), 문교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에 비해 약 1.5배로 늘어서 작년에 22.3%가 되었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1.6배로 늘어서 3.6%가 되었다.

〈표 2-52〉 국민총생산(GNP)과 정부예산 대 문교예산의 비율

(단위 : 100만원, 경상가, %)

	국민총생산(A)	정부예산(B)	(B/A)	문교예산(C)	(C/A)	(C/B)
1955	114,550	28,144	(24.6)	2,663	(2.3)	(9.4)
1960	244,900	41,995	(17.1)	6,381	(2.6)	(15.2)
1965	805,700	94,652	(11.7)	15,331	(1.9)	(16.2)
1970	2,684,000	446,273	(16.7)	78,476	(2.9)	(17.6)
1975	9,729,900	1,586,931	(16.2)	227,926	(2.3)	(14.4)
1980	34,321,600	5,804,061	(16.9)	1,099,159	(3.2)	(18.9)
1985	71,262,000	12,532,362	(17.6)	2,492,308	(3.5)	(20.3)
1990	138,767,000	22,689,400	(16.4)	5,062,431	(3.6)	(22.3)

자료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이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한 토대중의 하나가 높은 교육수준이라고 알려졌는데,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문교예산의 비중은 그동안 그리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 같다.

각급학교 운영 등에 드는 공교육비를 정부, 가계, 학교재단중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를 살펴보면(〈표 2-53〉), 국고의 부담은 큰 변화가 없고 재단부담은 많이 줄어든 반면, 학부형 부담은 상당히 늘었다. 특히 사립학교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등학교는 50%, 대학교는 77%나 되는데(〈표 2-24〉),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보조가 6.6%밖에 안되니 너무 적은 것 같다. 사립학교 재정에서 재단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이후 점점 줄어서 1985년에는 그 1/3도 안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사립학교 재정의 76.7%를 학부형이 부담하게 되었다.

〈표 2-53〉 총 공교육비의 재원별 구성비

(단위 : %)

	총 계			국·공립			사 립		
	국고	학부형	재단법인	국고	학부형	재단법인	국고	학부형	재단법인
1967	48.7	34.8	5.3	77.5	22.5	—	3.0	54.5	13.6
1970	49.2	41.8	8.2	70.7	29.3	—	5.5	67.4	25.0
1975	47.0	48.1	4.5	69.1	30.9	—	3.4	82.0	13.3
1980	51.5	42.1	5.0	77.6	22.4	—	5.0	77.2	13.8
1985	48.7	44.9	3.1	74.7	25.3	—	6.6	76.7	8.0
1990	—	38.9	—	81.2	18.8	—	—	73.6	—

주 : 1990년도 사립의 국고 및 재단법인의 재원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우리정부가 국민총생산에서 공교육비로 쓰는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표 2-54〉), 일본, 영국 등 부자나라보다 작은 건 물론이고 이집트, 말레이시아와 같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의 경우보다도 더 작다. 터어키, 아르헨티나, 칠레보다는 크나 제일 가난한 이디오피아와 같은 수준이다. 반면에 정부예산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제일 높다.

2. 교급별 교육비

1990년 현재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공교육비는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표 2-55〉). 국·공립의 경우, 국민학교 교육비는 대학 교육비의 열배이상이고, 사립학교는 대학 교육비가 국민학교 교육비의 37배나 된다.

1967년에서 1990년까지 공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국·공립학교에선 150배, 사립학교에선 182배로 늘었다. 국·공립학교 중에서 중·고등·대학교가 모두 200배 이

〈표 2-54〉 국민총생산 (GNP)과 정부 예산 대 공교육비 비율 국제비교

(단위 : %)

			GNP대 공교육비	정부예산대 공교육비	공교육비중 경상비	GNP대 경상비
한	국	(1987)	4.2	26.6	86.4	3.7
이	디	(1986)	4.2	9.9	84.9	3.5
이	집	(1987)	5.5	—	94.1	5.2
터	어	(1987)	1.7	—	83.1	1.4
칠	레	(1987)	3.6	15.3 ⁽⁸⁵⁾	96.1	3.5
아	로	(1987)	1.9	8.9	87.3	1.7
말	레	(1987)	7.0	—	87.5	6.1
서	독	(1986)	4.4	9.2	90.2	4.0
일	본	(1986)	5.0	17.7	—	4.8
영	국	(1986)	5.0	11.3 ⁽⁸⁴⁾	96.1	4.8

자료 :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89).

상으로 늘었는데, 특히 고등학교는 284배로 늘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전문대학과 대학교가 각각 264배, 242배로 공교육비가 늘어났다.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공·사립학교가 똑같이 공교육비가 4.2배로 늘었는데, 국·공립학교 중에서는 중학교가 4.6배, 사립학교중에서는 대학교가 5.2배로 늘었다.

학교에서 쓰는 비용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살펴보면(〈표 2-56〉), 모든 학교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제일 크고 시설비가 제일 비중이 낮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1990년 현재 약 81%의 비용이 교사월급 등 인건비로 쓰이고, 대학교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4%가 인건비로 쓰인다. 중학교의 경우 1967년의 45.9%에서 약 1.8배로 는 셈이고, 대학교는 39%에서 약 1.4배로 늘었다. 운영비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상대적 비중이 커져서 국민학교의 8.9%에서 대학교의 33.1%로 늘어난다. 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표 2-49〉,〈표 2-50〉에서 본 것처럼 학교도서관 시설이 매우 빈약한 것 같다.

공교육비가 초·중·고등교육의 어디에 더 많이 쓰이는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표 2-57〉), 우리나라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치중하는데, 서독에서는 중등교육에 비용을 많이 들이고 미국과 일본은 세분야에 대체로 고르게 비용을 들이는 것 같다. 반

면에 이집트, 칠레 등 가난한 나라에선 초등교육에 치중하는 것 같다.

고등교육의 경우 우리는 공교육비의 9.5%만 쓰는데, 이것은 10나라 중에서 제일 작은 수치다. 미국은 우리의 4.1배, 서독과 일본은 2.2배의 비율을 고등교육에 쓰고 있다. 우리도 국민총생산 규모에서 중진국이 되었으니 공교육 비용의 씹씹이에서 선진국 형태에 따라 고등교육에 두는 상대적 비중을 더 높여야 될 것 같다.

〈표 2-55〉 교급별 공교육비

(단위 : 100만원, 경상가)

		1967	1970	1975	1980	1985	1990
총계	국·공립	36,394	97,377	258,548	1,291,368	2,846,719	5,460,486
	사립	16,865	48,087	136,282	726,687	1,753,231	3,063,788
국민학교	국·공립	25,011	65,518	145,832	658,361	1,542,046	2,718,231
	사립	472	1,173	2,643	12,349	22,670	38,979
중학교	국·공립	4,896	16,088	46,622	260,151	591,645	1,201,594
	사립	3,777	16,204	34,810	128,398	242,576	389,397
고등학교	국·공립	3,189	8,373	38,346	204,906	373,512	906,466
	사립	5,520	10,473	43,871	218,739	482,548	891,194
전문대학	국·공립	401	1,080	4,073	20,029	30,391	49,769
	사립	1,126	2,285	9,506	87,022	176,778	298,369
대학교	국·공립	2,508	4,996	19,913	137,421	298,736	536,297
	사립	5,961	17,952	45,452	280,184	828,658	1,445,849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학교에는 드는 비용 등 공교육비 외에도 학원비나 참고서비 등 사교육비도 상당히 드는게 현실이다(〈표 2-58〉).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비중이 낮아진다. 그래서 1977년에 국민학교에서는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의 절반이 조금 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절반이 좀 못되고, 대학교의 경우는 약 1/3이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에 와서는 초·중·고와 전문대학에서는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보다 더 많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의 68.3%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민학교의 경우 이제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의 1.4배가 넘게 되었다.

〈표 2-56〉 교급별 공교육비의 기능별 구성비

(단위 : %)

		1967	1970	1975	1980	1985	1990
국민학교	인건비	60.5	61.9	66.9	77.6	73.3	81.6
	운영비	16.2	14.6	24.3	10.2	10.0	8.9
	시설비	23.3	23.5	8.8	12.2	16.7	9.5
중학교	인건비	45.9	57.8	62.4	64.8	69.6	80.3
	운영비	27.0	18.2	26.0	23.1	12.8	11.8
	시설비	27.1	24.0	11.6	12.1	17.6	7.4
고등학교	인건비	57.9	62.7	55.8	60.9	73.2	80.9
	운영비	28.4	24.0	28.3	25.2	18.9	13.1
	시설비	13.7	13.0	15.9	13.9	7.9	6.1
대학교	인건비	39.0	35.1	49.1	31.2	44.1	53.4
	운영비	36.5	31.2	33.9	40.2	30.6	33.1
	시설비	24.5	32.7	17.0	28.6	25.3	13.6

주 : 1) 공교육비구성항목중 실험실습비와 학도호국단비(학생 자율적 경비)는 모두 운영비로 분류하였음.

2) 교비 및 육(기)성회비는 지출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분류하였음.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2-57〉 공교육비중 경상비의 교육단계별 배분비

(단위 :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타교육
한	국	(1987)	43.8	41.4	9.5	4.4
이	디	(1987)	52.8	27.6	13.3	6.3
이	집	(1982)	67.3	—	32.7	—
터	어	(1987)	55.8	31.1	25.3 ⁸⁶⁾	13.1
칠	레	(1987)	59.0	18.2	21.6	1.2
아	르	(1987)	5.2	43.6	43.5	7.6
달	레	(1987)	37.9	37.7	14.9	9.5
서	독	(1986)	17.7	49.0	21.0	12.3
미	국	(1985)	36.7	23.9	39.4	—
일	본	(1986)	30.4	32.5	21.7	15.4

주 : 초등에는 취학전 교육이 포함되어며 기타에는 분배되지 않은 비용이 포함됨.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2-58〉 교급별 공·사 교육비의 비율

(단위 : 100만원, 경상가, %)

		1977	1982	1985	1990
국민학교	공교육비(A)	319,228	1,190,260	1,546,717	2,757,210
	사교육비(B)	183,589	708,203	1,577,998	3,959,080
	(B/A)	(57.5)	(59.5)	(102.0)	(143.6)
중학교	공교육비(A)	177,301	542,742	834,220	1,590,991
	사교육비(B)	87,317	425,096	975,855	1,669,759
	(B/A)	(49.2)	(78.3)	(117.0)	(104.0)
고등학교	공교육비(A)	196,844	649,681	856,060	1,797,660
	사교육비(B)	88,054	423,213	1,051,704	1,788,410
	(B/A)	(44.7)	(65.1)	(122.9)	(122.9)
전문대학	공교육비(A)	28,025	188,512	207,169	348,138
	사교육비(B)	10,317	104,227	194,585	408,066
	(B/A)	(36.8)	(55.3)	(92.9)	(117.2)
대학(교)	공교육비(A)	122,511	880,411	1,155,783	2,030,275
	사교육비(B)	40,725	479,206	822,251	1,386,932
	(B/A)	(33.2)	(54.4)	(71.1)	(68.3)

주 : 대학(교)는 교육대학을 포함한 규모임.

자료 : 1) 공은배·강태중·한유경, 「교육투자 규모와 수익률」 (한국교육개발원, 1985).

2) 1990년은 공은배·천세영, 「한국의 교육비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1990).

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난 23년간 많이 오른 물가를 생각하더라도 교육비가 참 많이 오른 것 같다(〈표 2-59〉). 국민학생 한사람이 쓰는 공교육비는 1977년에서 1990년 사이에 8.6배로 늘었고, 지난 10년간에도 4.8배로 늘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좀 덜해서 지난 23년간 평균 51배로 늘었고, 최근 10년간에도 평균 4.9배로 늘었다. 고등교육의 경우는 제일 적게 늘어서 각각 36배와 2배가 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중학생 1인당 비용이 고교생보다 더 늘었지만, 최근 10년동안엔 고교생 비용이 조금 더 늘었다.

고등교육의 경우는 교육대학생 비용이 제일 많이 늘었고, 전문대학생 비용이 적게 늘었다. 1967년에는 중·고등학생 1인당 평균비용이 국민학생의 3.1배였고, 고등교육 받는 학생은 국민학생의 11.7배였다. 1990년에는 중·고등학생이 국민학생의 1.3배, 고등교육기관 학생이 국교생의 3.5배가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국민학생에게 쓰는 공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대학생에게 쓰는 비용이 적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57>에서 본 것처럼 초등교육에 더 치중하는 한국 교육정책의 결과인 것 같다.

<표 2-59> 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단위 : 100만원, 경상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1967	4.7	9.5	19.7	53.0	44.2	68.3
1970	11.6	24.5	31.9	118.7	108.4	156.7
1975	26.5	40.2	73.2	218.0	442.3	312.8
1980	118.5	157.2	149.7	708.0	1,114.0	1,036.3
1985	318.5	299.8	397.6	855.4	1,562.1	1,209.6
1990	566.3	699.1	787.1	1,075.1	3,015.6	1,905.6

주 : 국민학교는 국립제외.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급학교 학생 한사람에게 쓰는 경상교육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표 2-60>),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난다. 초등교육의 경우 서독의 28.4%밖에 안되고 일본과 비교해도 36.1%가 된다. 중등교육의 경우는 더 큰 차이가 나서 한국의 중·고 평균 542.4 달러는 프랑스의 22.1%밖에 안되고 일본의 37.2%가 된다. 고등교육의 경우는 영국의 23.7%, 일본의 80.9%가 된다. 가난한 나라와 비교하면, 초등교육에선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2배가 좀 넘고, 중등교육에선 아르헨티나 보다 좀 더 많고, 고등교육에선 칠레보다 좀 더 많다.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한사람에게 배당되는 도서예산액을 보면(<표 2-61>),

〈표 2-60〉 학생 1인당 경상교육비 국제비교

(단위 : U.S.\$)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			국	(1987)	479	448(중)	1,484
방	글	라	쉬	(1984)	10.1	601(고)	85.3
칠			레	(1984)	225.5	18.8	1,066.0
아	르	헨	티	(1984)	227.4	216.9	754.3
맥		시	코	(1983)	69.5	446.9	930.2
뉴	질	렌	드	(1981)	1,184.2	89.7	3,410.4
영			국	(1982)	1,296.5	1,068.8	6,259.4
일			본	(1982)	1,326.4	1,936.7	1,832.5
프		랑	스	(1982)	1,443.5	1,456.9	3,154.0
서			독	(1983)	1,689.4	2,375.1	2,624.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표 2-61〉 학생 1인당 도서 예산액(고등교육기관)

(단위 : 원, 경상가)

연도	1967	1970	1975	1980	1985	1990
예 산 액	1,145	1,756	3,043	8,107	13,447	19,164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지난 23년간 약 17배로 증가했지만, 1980년까지는 오히려 줄었다. 1990년의 19,164 원으로는 대학생이 볼만한 일반교양서적 3~4권밖에 살 수가 없다.

4. 가계지출중 교육비의 비율

1968년 이후 각 가정의 연간 소비지출과 교육비가 상당히 늘었다(〈표 2-62〉). 도시 가구의 경우 그동안 교육비가 32.4배로 늘고 소비지출은 33.7배로 늘어서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8.7%에서 8.4%로 조금만 달라졌다. 그러나 농촌가구의 경우는 소비지출은 57.5배로 증가하고 교육비 지출은 88.6배가 되는 바람에 교육비와 소비지출의 비는 6.8%에서 10.5%로 많이 늘었다. 이것은 1960년대엔 농촌가구의 소

비지출이 도시가구의 58.6%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같아졌고, 농가의 교육비는 도시가구의 45.5%밖에 안되다가 지금은 오히려 1.2배가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농촌가구의 교육비가 도시가구보다 더 많은 것은 농촌학생들이 도시학교로 유학가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이런 현상은 교육시설이 도시에 집중된 결과인 것 같다.

〈표 2-62〉 연평균 가계지출중 교육비의 비율

(단위 : 원, 경상가, %)

	도시가구			농가		
	연간소비지출	연간교육비	(교육비비율)	연간소비지출	연간교육비	(교육비비율)
1986	244,320	21,372	(8.7)	143,104	9,732	(6.8)
1970	311,880	23,772	(7.6)	207,766	14,185	(6.8)
1975	700,200	50,880	(7.3)	616,280	40,629	(6.6)
1980	2,166,373	135,288	(6.2)	2,133,323	211,805	(9.9)
1985	3,804,301	296,232	(7.8)	4,690,854	568,261	(12.1)
1990	8,227,944	691,692	(8.4)	8,227,213	862,435	(10.5)

주 : 교육지출율 = $\frac{\text{교육비지출}}{\text{소비지출}}$

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조사」;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소 결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교육기회를 보면, 전체국민의 평균 교육연수는 8.6년인데, 남자는 9.7년이고 여자는 7.6년으로 여자는 남자의 78.5%밖에 안된다. 남녀간 교육기회의 차이는 고등교육에서 더 커지는데 남자는 대졸 이상자가 15.5%인데 여자는 5.2%밖에 안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10.9%인데 일본의 14.3%나 미국의 32.2%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일수록 자식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더 크며 아들과 딸에 대한 차이가 적은 반면, 교육을 적게 받은 부모일수록 자식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낮고 또 아들 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학생수의 변화를 보면, 국민학교 입학자수가 1975년 이후 많이 줄었고, 중학생은

1985년 이후에 줄기 시작했다. 농아·맹아·지체부자유자 등을 가르치는 특수학교 학생수는 196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

여학생은 초·중·고등학교에선 남학생과 숫자가 비슷한데 실업계 고등학교와 교육대학에선 오히려 여학생이 더 많고, 대학교에선 여학생 비율이 아직도 상당히 낮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축에 들어 동양국가들이 아직도 남녀차별이 심한 것 같다.

지역적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에 전체 초·중·고학생의 약 1/3이 모여 있고, 대학생은 서울에 28%가 집중되어 있다.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은 약 65 : 35인데 기능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을 생각할 때 실업계의 비율이 더 높아야겠다. 근로청소년을 위한 방송통신대와 개방대가 늘어나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수가 정규 대학생수의 19.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학교들이 고교졸업자들의 대학진학율이 33%밖에 안되는 요즘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 같다.

각급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실태를 보면, 고졸의 약 1/3이 취직하는데 사무직을 제일 많이 얻고(35.4%) 생산직에도 약 1/5이 취직하는데, 최근엔 전문·기술직에 취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고교졸업생 중에서 진학도(33.1%) 못하고, 취직도(33.8%) 못한 사람이 졸업생의 33.1%나 된다는 사실은 큰 걱정거리다.

요즘 대학졸업생의 절반도 안되는 48%만 취직이 되는데, 서비스업종에 제일 많이 취직하고, 다음으로 제조업에 많이 취직한다. 전체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서 중학교는 28.5%, 고등학교는 50.5%, 그리고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은 80.2%가 된다. 최근 학교규모는 농촌의 국민학교가 학생수 150인 이하의 소규모로 많이(44.6%)변한 것 외엔 대규모화되는 경향이 있어 중·고등학교는 1,500명 이상의 학교가 각각 22%, 41%로 늘어서 학교당 평균 학생수는 타국에 비해 아주 많은 편이다. 학급규모는 소규모화하는 경향이 있어 한반에 30명도 안되는 국민학교 학급수가 많이 늘었고(22%),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조금씩 줄어서 50내지 52명이 되었다. 반면에 전문대학과 대학교는 코스당 학생수가 상당히 늘어서 평균이 250명을 넘게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아직 하루에 2부제 이상의 수업을 하는 국민학교 학급이 약 8,000개나 된다니 놀라운 일이다. 교원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자에게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면서 커졌다. 국민학교는 남

녀교사의 비율이 1 : 1이 되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1 : 2대 1이 되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선 아직도 남녀교수 비율이 2.8 : 1이고, 대학교는 더 심해서 4.6 : 1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과 한국의 여교원 비율이 제일 낮은 축에 든다.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도 한국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서 국민학교는 일본의 1.6배, 이태리의 2.5배가 되고, 중·고등학교는 일본의 1.4배, 이태리의 2.6배,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일본의 3.4배, 서독의 3.9배가 된다. 최근에 대학원 교육이 확장되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서 교원들의 학위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박사학위 가진 교원이 41.4%, 석사학위 가진 교원이 40.7%로 늘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도 1960년 이래 많이 줄어서 국민학교는 35.5명, 중·고등학교는 약 25명이 되었는데, 대학교는 오히려 20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학교의 교육시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편인데, 학생 1인당 기본교지는 중·고등학교에서는 1960년대의 80% 수준으로 줄어들고, 대학은 44% 수준으로 떨어져 사정이 더 나빠졌다. 도서관 숫자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현재 중학교 92개에 도서관 1개 꼴이 되었다. 또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중·고등학교가 30% 증가했으나 대학교는 36%나 감소했다. 대학교 도서관의 학생당 장서수는 1970년의 25.6권에서 현재 18.5권으로 줄었다. 청소년교육을 제대로 하자면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을 보면, 문교예산이 국민총생산의 3.6%에 불과하고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보조가 총비용의 6.6%밖에 안된다. 각급학교의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도 학교경비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투자되기 때문인 것 같다. 국민학교는 정상비의 9.5%, 중학교는 7.4%, 고등학교는 6.1%, 대학은 좀 낮다고 하지만 13.6%밖에 안된다.

한국의 공교육비중에서 고등교육에 쓰이는 비율이 9.5%밖에 안되어, 21.7%인 일본의 2.2분의 1, 39.4%인 미국의 4.1분의 1이 된다.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급 과학기술의 발달이 요구되는 요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가 상당히 늘어나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학생 한사람에게 쓰는 공교육비는 다른나라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국민학생에게 쓰는 479달러는 일본의 36%, 중학생에 쓰는 542달러는 일본의 37%, 고등학생에게 쓰는 1,484달러는 영국의 24%에 해당된다. 가계지출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도시가구의 경우 지난 25년동안 별차이 없이 8.7%이고, 농촌가구의 경우는 6.8%에서 10.5%로 늘어났다.

Ⅲ. 청소년과 노동

여기서는 근로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구조, 노동환경, 근로의식에 관한 중요한 통계자료를 모아서 정리하고 분석했다. 고용구조에 관해서는 경제활동인구, 취업경향, 고용실태, 그리고 실업자를 조사하고,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산업재해에 관해서 조사했다. 근로의식에 관해서는 전직희망, 구직여부, 직업선택, 그리고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Ⅲ-1. 고용구조

1.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된 인구중 경제활동하는 사람의 비율은 1984년의 56%에서 계속 증가해서 1990년에는 60%가 되었다(〈표 3-1〉). 이 중에서 임금을 받는 일을 1주일에 한시간도 못한 실업자는 1984년의 56만 8천명 또는 3.8%에서 1990년의 45만 천명 또는 2.4%로 줄었다.

〈표 3-1〉 경제활동인구

(단위 : 1,000명, %)

연	계	경 제 활 동 인 구				비경제 활동인구	18시간 경 제 미 만 활 동 취 업 율 실 업 율			
		소	계	취	실		취	참	가	울
		계	취	업	자	업	자	참	가	울
1984	26,861	14,997	14,429	568	11,865	91	56	96.2	3.8	
1985	27,553	15,592	14,970	622	11,961	112	57	96.0	4.0	
1986	28,225	16,116	15,505	611	12,109	145	57	96.2	3.8	
1987	28,955	16,873	16,354	519	12,082	197	58	96.9	3.1	
1988	29,602	17,305	16,870	435	12,298	169	58	97.5	2.5	
1989	30,217	17,971	17,511	460	12,246	213	59	97.4	2.6	
1990	30,801	18,487	18,036	451	12,314	197	60	97.6	2.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15세~24세인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4년에 17.5%이다가 1990년에는 14.2%로 줄었다(〈표 3-2〉). 1984년에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7.3%가 여자였는데 청소년중에서는 53.6%로, 여자는 어른보다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더 높다. 1990년에는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아져서 어른까지 합쳐서는 40.4%가 되고 청소년은 62.2%가 되었다. 1990년 현재 20~24세 연령계급이 전체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의 75.9%를 차지하여 15~19세 연령계급은 약

〈표 3-2〉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단위 : 1,000명)

	15세이상 전 체	청 소 년		
		계	15~19세	20~24세
1984	14,997(5,658)	2,630 (1,410)	729 (400)	1,901 (1,010)
1985	15,592(5,975)	2,581 (1,428)	713 (399)	1,868 (1,029)
1986	16,116(6,296)	1,996 (1,495)	698 (395)	1,927 (1,100)
1987	16,873(6,735)	2,620 (1,540)	744 (428)	1,876 (1,112)
1988	17,305(6,891)	2,500 (1,518)	652 (395)	1,848 (1,123)
1989	17,971(7,254)	2,558 (1,564)	663 (393)	1,895 (1,171)
1990	18,487(7,474)	2,630 (1,635)	634 (389)	1,996 (1,246)

주 : ()안의 수치는 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3정도밖에 안된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여자가 더 많아 1984년에는 전체의 69.6%이다가 1990년에는 68.4%로 약간 변했다(〈표 3-3〉). 비경제활동 인구중에서 집안일 때문에 취업못하는 사람이 약 절반 정도되고, 학교 다니느라고 취업못하는 사람이 약 1/3정도 된다. 1984년과 비교하면, 1990년에는 가사로 인해 취업못한 사람의 비율이 약 3% 줄고, 그 대

〈표 3-3〉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1,000명)

	총 수			가 사		통 학		연소·연로		심신장애		기 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84	11,865	3,607	8,258	411	5,805	2,214	1,524	597	822	145	42	240	65
1985	11,961	3,678	8,283	393	5,715	2,280	1,645	563	783	142	42	299	98
1986	12,109	3,795	8,314	411	5,658	2,358	1,716	543	749	129	47	355	145
1987	12,082	3,838	8,244	465	5,557	2,349	1,752	496	721	121	46	406	169
1988	12,298	3,880	8,417	462	5,647	2,439	1,842	497	730	103	45	379	154
1989	12,246	3,898	8,348	451	5,517	2,459	1,912	477	695	102	51	409	173
1990	12,314	3,891	8,423	487	5,632	2,440	1,917	491	689	114	55	359	131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신 통학때문에 취업못하는 사람이 약 4% 늘었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전체를 청소년인구와 비교하면(〈표 3-4〉), 참가율은 전체의 60.0%에 비해 청소년은 상당히 낮은 34.7%이다. 반면에 실업률도 전체의 2.4%에 비해 청소년은 상당히 높은 7.0%이다. 특히 15~19세의 경우는 실업률이 9.1%나 된다.

비경제활동 인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사로 인한 미취업이 제일 많은데, 청소년의 경우는 통학으로 인한 미취업이 제일 많다. 그중에서도 15~19세 연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때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이기 때문이다.

〈표 3-4〉 경제활동인구(1990)

(단위 : 천명, %)

		15세 이상	청 소 년		
		전 체	계	15~19세	20~24세
계		30,801	7,559	4,376	3,183
소 계		18,487	2,600	634	1,966
경 제	(참가율)	(60.0)	(34.7)	(14.5)	(62.7)
활 동	취업자	18,036	2,446	576	1,870
인 구	실업자	451	183	58	125
	(실업율)	(2.4)	(7.0)	(9.1)	(6.3)
소 계		12,314	4,929	3,742	1,187
비경제	가 사	6,120	506	76	430
활 동	통 학	4,357	4,237	3,580	657
인 구	연소·연로	1,180			
	기 타	658	186	86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 취업경향

1960년 중반이후 최근까지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이 바뀌었다(〈표 3-5〉). 농·어업 종사자는 상당히 줄었고, 그대신 광공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는 늘었는데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1965년에는 농·어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약 59%

를 차지했는데, 1989년에는 약 20%밖에 안 되었다. 반면에 서비스업 종사자는 31%에서 52%로 늘었다. 이것은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반복적인 실행으로 경제구조가 산업화된 결과이다.

〈표 3-5〉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 타
1965	100.0	58.5	10.4	(9.4)	31.2
1970	100.0	50.4	14.3	(13.2)	35.3
1975	100.0	45.7	19.1	18.6)	35.2
1980	100.0	34.0	22.5	(21.6)	43.5
1985	100.0	24.9	24.4	(23.4)	50.6
1989	100.0	19.5	28.2	(27.6)	52.3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번에는 취업자를 직업별로 구분하면(〈표 3-6〉), 1965년에는 농·수산업에 제일 많은 사람이 모였었는데 1989년엔 생산·운수직에 제일 많이 취업했다. 그동안 판매직은 전체 취업자의 12%에서 15%로 성장해서 이제는 농·어업에 이어 셋째로 많은 일꾼을 가지게 되었고, 사무직은 4%에서 12%로 커져서 4위가 되었다.

전체 취업자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65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35% 이다가 1989년엔 41%로 여자의 비율이 늘었다. 직업별로 보면, 1965년엔 판매직의 여자근로자 비율이 제일 높아서 46%였는데, 최근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61%가 여자여서 여자비율이 제일 높아졌다. 그 다음으로 판매직의 47%, 농·어업의 45% 순이다.

1984년에 청소년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6.6%, 광공업취업자 중에서는 30.1%를 차지했다. 광공업에 취업한 청소년은 전체청소년 취업자의 43.9%에 해당되었다(〈표 3-7〉). 1990년에는 청소년취업자 비율이 13.6%로 떨어지고, 광공업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3%로 떨어졌다. 작년에는 전체 청소년 중에서 서비스업에 취업한 사람이 55.6%로 제일 많았으나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중에서는 13.9%밖에 안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청소년이 취업한 산업이 광공업으로 전체청소년 취업자의 40.9%가 되었다.

〈표 3-6〉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 %)					
연도	계	전문·기술	사무·	종사자	서비스직	농림·수산업	생산·운수장비
		행정·관리직	관 력 직		종 사 자	종 사 자	운전사. 단순 노 무 자
1965	100.0	2.9	4.1	12.0	6.4	58.4	16.3
1970	100.0	4.8	6.0	12.4	6.4	50.2	20.2
1975	100.0	3.6	6.4	13.0	7.1	45.8	24.1
1980	100.0	5.3	9.3	14.5	7.9	34.0	29.0
1985	100.0	7.3	11.5	15.5	10.8	24.6	30.3
1989	100.0	8.3	12.4	14.7	10.7	19.3	34.5
여성취업자비율							
1965	35.0	18.0	10.0	46.2	45.7	38.4	19.8
1970	36.5	18.4	13.4	42.6	56.7	42.3	23.3
1975	36.4	20.9	20.9	40.7	56.9	41.3	25.3
1980	38.2	25.4	32.7	43.7	58.1	43.8	27.6
1985	39.0	29.1	34.5	46.3	61.2	43.7	27.5
1989	40.7	34.4	38.9	47.2	61.3	45.3	31.0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3-7〉 산업별 취업자

		(단위 : 1,000명)		
연도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984	14,429 (2,399)	3,914 (317)	3,491 (1,052)	7,024 (1,030)
1985	14,970 (2,322)	3,733 (263)	3,659 (1,009)	7,578 (1,050)
1986	15,505 (2,389)	3,662 (231)	4,013 (1,081)	7,830 (1,077)
1987	16,354 (2,420)	3,580 (177)	4,602 (1,151)	8,172 (1,092)
1988	16,870 (2,321)	3,484 (135)	4,807 (1,120)	8,580 (1,066)
1989	17,511 (2,385)	3,418 (112)	4,933 (1,084)	9,161 (1,189)
1990	18,036 (2,446)	3,292 (84)	4,928 (1,001)	9,816 (1,361)

주 : ()속은 청소년(15~24세) 취업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지난 6년동안 전체 취업자중에서 광공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서 27.3%로 늘었고, 서비스업자의 비율은 48.7%에서 54.4%로 증가했다. 반면에 농림어업에 취업한 사람은 27.1%에서 18.2%로 줄었다.

1984년에는 전체취업자 중에서 국졸 이하의 학력자가 제일 많아 39.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고졸학력자가 29.6%를 차지했다(<표 3-8>). 전체 취업자중 여자의 비율이 38.4%였으나 국졸 이하의 학력으로 취업한 사람중 52.0%가 여자였다. 전체 여자취업자 중에서는 국졸 이하와 중졸취업자가 각각 53.7%와 20.0%였다.

1990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졸자가 제일 많아 37.5%나 되었고, 국졸 이하자는 29.3%로 줄었다. 그러나 국졸 이하의 학력으로 취업한 사람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6.4%로 늘었고, 중학졸업한 사람중에서도 여자가 41.8%가 되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0.7%로 약간 늘었다.

〈표 3-8〉 교육정도별 취업자

(단위 : 1,000명)

	계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1984	14,429 (5,535)	5,712 (2,971)	3,086 (1,105)	4,274 (1,231)	1,357 (228)
1985	14,970 (5,833)	5,650 (3,012)	3,165 (1,157)	4,620 (1,379)	1,535 (287)
1986	15,505 (6,165)	5,525 (3,000)	3,262 (1,259)	5,056 (1,574)	1,662 (332)
1987	16,354 (6,613)	5,516 (3,053)	3,458 (1,385)	5,546 (1,791)	1,834 (384)
1988	16,870 (6,771)	5,345 (2,971)	3,498 (1,410)	5,964 (1,948)	2,064 (442)
1989	17,511 (7,121)	5,309 (3,005)	3,527 (1,456)	6,383 (2,121)	2,292 (539)
1990	18,036 (7,341)	5,288 (2,983)	3,520 (1,470)	6,766 (2,282)	2,462 (606)

주 : ()속은 여자 취업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0년에는 전체 여자취업자의 40.6%가 국졸 이하로서 1984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31.1%나 되었다. 전체취업자 중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9.4%에서 13.7%로 늘었고, 여자취업자 중에서도 4.1%에서 8.3%로 많이 늘었다. 이것은 그동안 취업자의 학력이 많이 높아졌다는 걸 나타낸다.

1984년 이후 청소년 취업경향을 보면(<표 3-9>), 청소년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6.6%에서 13.6%로 비율이 조금 줄었고 여자가 전체 청소년 취업자의 54.9%에서

63.2%로 비율이 많이 늘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청소년 취업자 가운데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여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일자리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청소년중에서도 20~24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2.7%에서 76.5%로 다소 증가해서 15~29세에 비해 약 3배 정도가 된다.

〈표 3-9〉 청소년 취업자

(단위 : 1,000명)

	15세이상 전 체	청소년		
		계	15~19세	20~24세
1984	14,429 (5,535)	2,399 (1,317)	645 (363)	1,745 (954)
1985	14,970 (5,833)	2,322 (1,322)	634 (359)	1,688 (963)
1986	15,505 (6,165)	2,389 (1,398)	631 (363)	1,758 (1,035)
1987	16,354 (6,613)	2,420 (1,447)	679 (393)	1,741 (1,054)
1988	16,870 (6,771)	2,322 (1,435)	598 (367)	1,724 (1,068)
1989	17,511 (7,121)	2,385 (1,479)	611 (362)	1,774 (1,117)
1990	18,036 (7,341)	2,446 (1,545)	576 (355)	1,870 (1,190)

주 : ()속은 여자취업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3. 고용실태

1) 산업별 취업자

여러 산업중 취업자가 제일 많았던 곳은(〈표 3-10〉) 1983년에는 농·림·어업이었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이었는데, 1990년에는 순서가 바뀌어 제조업에 제일 많이 취업하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과 농·림·어업이 뒤따랐다. 이것은 그동안 농·림·어업에 취업한 사람이 전체취업자의 33.3%에서 18.3%로 비율이 떨어지고, 반면에 제조업 취업자 비율은 21.1%에서 26.9%로 늘어난 결과다.

청소년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달라서 1983년에는 제조업에 제일 많이 취업해서 그 비율이 38.2%나 되었고, 농·림·어업에는 23.3%가 취직해서 2위를 차지했다. 1990년에 와서도 제조업이 여전히 제1위로 청소년 취업자의 40.8%를 고용했고, 2위는 도·소매업으로 바뀌어 22.3%의 청소년이 종사했다. 청소년이 제일 많이 취업한 제조업

에서 전체 취업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3년의 29.1%에서 1990년의 20.6%로 많이 줄었고, 그 대신 도·소매업에서는 12.7%에서 13.9%로, 또 서비스업에서는 15.5%에서 16.5%로 약간씩 늘었다. 전체 청소년 취업자중에서 15~19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3.5%인데, 금융·용역업에서는 30.4%를 차지해서 이 산업이 나이 어린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표 3-10〉 산업별 취업자 : 청소년 연령층별(1990, 1983)

(단위 : 1,000명)

	전체근로자	청소년근로자		
	계	계	15~19세	20~24세
총 수	18,036(13,736)	2,446(2,201)	576(605)	1,870(1,596)
농림·림·어업	3,292(4,575)	84(512)	20(176)	64(336)
광 업	81(99)	4(12)	0(2)	4(10)
제조업	4,847(2,893)	997(841)	249(267)	748(574)
전기·가스·수도업	71(67)	7(12)	1(2)	6(10)
건설업	1,339(860)	113(84)	28(18)	85(66)
도소매·음식·숙박업	3,920(2,608)	546(330)	125(68)	421(262)
운수·창고·통신업	922(657)	70(77)	12(13)	58(64)
금융·보험·용역업	935(409)	191(88)	58(16)	133(72)
사회·개인·서비스업	2,630(1,571)	435(243)	83(42)	352(201)

주 : 1) ()속은 1983년 통계.

2) 1983년의 15~19세 통계에는 14세도 포함되었음.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 통계조사 보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다시 남녀별로 구분해보면 (〈표 3-11〉), 1983년에는 전체적인 남녀비는 66 : 34대였고, 남녀 다같이 농·어업에 제일 많이 종사했는데 거기서 남녀 비율은 6 : 4정도였다.

두번째로 많은 노동자가 모인 곳은 남자는 제조업, 여자는 도·소매업이었는데, 제조업에서의 남녀비는 7 : 3이고, 도·소매업에서는 54 : 46이었다. 그래서 당시 여자의 비율이 제일 높았던 산업은 도·소매업이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곳은 없었다. 1990년에는 전체적인 남녀비는 6 : 4였고, 남자는 제조업에 제일 많이 종사하여 전체의 26.2%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도·소매업에 많이 취업하여 17.3%가 되었

다. 여자는 도·소매업에 제일 많이 종사하여 전체의 28.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종사자가 27.9%나 되었다. 제조업에서의 남녀비를 보면 58:42이고, 도·소매업에서는 47:53으로 여자가 더 많게 되었다.

〈표 3-11〉 산업별 취업자: 청소년 성별 (1990, 1983)

(단위: 1,000명)

	전체근로자		청소년근로자(15~24세)	
	계 (1983)	여	계	여
총 수	18,036(13,736)	7,341(4,668)	2,446(2,201)	1,545(1,133)
농림·림·어업	3,292(4,575)	1,499(1,858)	84(512)	17(159)
광업	81(99)	8(5)	4(12)	2(1)
제조업	4,847(2,893)	2,050(886)	997(841)	591(478)
전기·가스·수도업	71(67)	9(5)	7(12)	4(3)
건설업	1,339(860)	135(53)	113(84)	38(15)
도소매·음식·숙박업	3,920(2,608)	2,075(1,208)	546(330)	361(201)
운수·창고·통신업	922(657)	80(54)	70(77)	40(34)
금융·보험·용역업	935(409)	356(123)	191(88)	151(68)
사회·개인·서비스업	2,630(1,571)	1,130(474)	435(243)	330(175)

주: 1) ()속은 1983년 통계.

2) 1983년의 청소년근로자에는 14세도 포함되었음.

자료: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3년에 전체청소년 근로자의 남녀비는 49:51이었고, 제일 많이 취업한 제조업에서는 43:57였다. 상대적으로 여자가 제일 많이 취업한 산업은 금융업과 서비스업으로 여자비율이 70%를 넘었다. 1990년엔 제조업에서의 남녀비는 43:57로 약간 변했고, 금융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여자비율이 각각 79%와 76%로 더욱 여성화되었다. 청소년 근로자들은 1983년과 마찬가지로 1990년에는 제조업, 도·소매업에 제일 많이 취업하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에 많이 취직했다.

2) 취업경로별 취업자

어떤 산업체에 어떤 경로를 거쳐 취업했는가를 살펴보면(〈표 3-12〉), 1983년에는

자기가 직접 경영하든가 아니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서 약 52%나 되었고, 친구나 학교에서 일자리를 알선받는 사람이 둘째로 많아서 약 27%가 되었다. 그런데 1990년에는 학교나 친구가 알선했던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서 약 51%가 되고, 자기자신이나 가족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22%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취직시험을 거쳐서 취업한 사람이 많은데, 1983년의 12%에서 1989년의 10%로 줄었다. 그래서 요즘은 취직시험을 쳐서 취직하는 사람이 학교나 친구의 소개로 취직하는 사람의 1/5밖에 안되는 것 같다.

〈표 3-12〉 취업경로별 산업별 취업자 : 전체근로자 (1989, 1983)

(단위 : 1,000명)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총 수	5,404(13,736)	289(4,575)	1,948(2,992)	3,167(6,171)
취직시험	533(1,689)	4(7)	194(507)	336(1,175)
학교, 친구알선	2,766(3,699)	82(239)	1,203(1,631)	1,480(1,828)
사업체직접방문	415(718)	27(89)	169(274)	219(355)
광고·구인정보	353(85)	6(1)	198(47)	149(38)
공·사직업소개소	71(71)	1(2)	12(14)	58(55)
자기·가족사업	1,181(7,125)	159(4,163)	158(461)	864(2,501)
기타	85(349)	10(74)	14(56)	61(219)

주 : 1) 취업경로에는 근무기간이 3년미만인자를 대상으로 조사.

2) ()속은 1983년 통계.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산업별로 보면, 1983년에는 농·어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에 종사하는 이가 제일 많았고, 광공업은 학교나 친구의 알선으로 취직하는 사람이 많았다. 1989년에 와서는, 세 산업분야 모두 친구나 학교 알선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서비스업과 농어업은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둘째로 많은데, 광공업만은 광고나 구인정보로 취업하는 사람이 둘째로 많다. 그리고 취직시험이 세 산업분야 모두에서 셋째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취업경로이다.

청소년들의 취업경로를 보면(〈표 3-13〉), 전체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친구나 학교의

알선으로 취직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 1983년에는 약 47%가 되더니, 1989년에는 약 59%로 늘어났다. 전체 청소년의 취업은 1983년에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28%로 둘째로 많았는데, 광공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취직시험이 각각 15%와 22%로 둘째로 많은 취업을 시켰다. 1989년에는 광공업에서는 광고와 구인정보가 둘째로 많이 이용되었고, 서비스업에서는 1983년과 마찬가지로 취직시험이 둘째로 많이 이용되었다.

〈표 3-13〉 취업경로별 산업별 취업자 : 청소년근로자(15~24세) (1989, 1983)

(단위 : 1,000명)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총 수	1,470(2,200)	109(513)	622(853)	736(835)
취직시험	197(309)	2(—)	71(124)	125(184)
학교, 친구 알선	863(1,027)	13(27)	407(591)	443(409)
사업체 직접방문	82(137)	3(12)	43(78)	37(52)
광고·구인정보	121(30)	3(—)	78(18)	39(12)
공·사 직업소개소	15(27)	—(—)	4(6)	9(21)
자기·가족사업	178(620)	85(467)	19(21)	74(132)
기 타	14(50)	3(10)	2(15)	9(26)

주 : 1) ()속은 1983년 통계.

2) 1983년은 14~24세 통계.

3) 취업경로는 근속기간이 3년미만인자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취업경로를 직업별로 살펴보면(〈표 3-14〉), 산업별 구분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1990년엔 생산·운수직만이 전체취업자의 경우와 같이 학교나 친구의 알선이 제일 많이 이용되었고, 판매나 농·어업, 서비스직은 자기나 가족의 사업에 제일 많이 종사하고, 전문·행정직은 취직시험이 취업하는 데 제일 많이 이용되었다. 사업체 직접방문이 생산·운수직과 농·어업직에서는 세번째로 많은 사람에게 이용되었다.

청소년의 경우는(〈표 3-15〉), 1989년에 학교나 친구 알선이 단연 제일 유용한 취업경로가 되었는데, 전문·행정직과 생산·운수직이 제일 많이 이용해서 각각 63%와 66%의 취업실적을 냈다. 생산·운수직에서만 사업체 직접방문이 둘째로 많이 이용되어서 10%의 취업률을 냈다.

〈표 3-14〉 취업경로 및 직업별 취업자 : 전체근로자 (1989, 1983)

(단위 : 1,000명)

	계	전문·행정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생산·운수·장비 단순노무직
총 수	5,404(13,736)	1,155(2,196)	902(2,022)	793(1,149)	265(4,545)	2,290(3,824)
취직시험	533(1,689)	351(1,131)	49(66)	21(82)	3(2)	109(407)
학교, 친구알선	2,766(3,699)	594(645)	295(280)	371(392)	67(223)	1,439(2,159)
사업체직접방문	415(718)	38(69)	38(31)	43(53)	20(86)	217(480)
광고·구인정보	353(85)	48(21)	40(12)	39(5)	6(0)	221(46)
공·사직업소개소	71(71)	7(5)	5(3)	40(38)	1(2)	18(603)
자기·가족사업	1,181(7,125)	90(214)	464(1,591)	270(557)	158(4,160)	198(603)
기 타	85(349)	27(109)	11(39)	9(22)	10(72)	28(106)

주 : 1) 취업경로는 근속기간이 3년미만 자를 대상으로 조사.

2) ()속은 1983년 통계.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표 3-15〉 취업경로 및 직업별 취업자 : 청소년근로자(15~24세.)(1989, 1983)

(단위 : 1,000명)

	계	전문·행정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생산·운수 단순노무직
총 수	1,469(2,200)	542(477)	169(181)	97(155)	105(508)	557(839)
취직시험	197(309)	139(210)	15(12)	5(9)	2(—)	37(78)
학교, 친구알선	863(1,027)	341(216)	93(80)	54(75)	10(24)	366(601)
사업체직접방문	82(137)	15(18)	6(5)	6(14)	2(7)	53(94)
광고·구인정보	121(30)	25(9)	14(4)	7(1)	3(—)	70(16)
공·사직업소개소	15(27)	3(2)	1(1)	6(18)	—(—)	5(6)
자기·가족사업	178(620)	14(15)	39(75)	18(35)	85(466)	23(29)
기 타	14(50)	5(17)	1(3)	1(4)	3(10)	3(15)

주 : 1) 취업경로는 근속기간이 3년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조사.

2) ()속은 1983년 통계.

3) 1983년은 14~24세 통계.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보면(〈표 3-16〉), 1983년에는 임금근로자가 48%로 반도 안되었는데, 1989년에는 54%로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제일 높은 직업은 농·림·어업으로 1983년엔 그 직종의 92%, 1989년엔 94%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판매직인데, 1983년엔 80%, 그리고 1989년엔 76%가 비임금근로자였다. 이 두직종의 비임금근로자는 1983년엔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58%와 22%를 각각 차지했고, 1989년엔 49%와 26%를 각각 차지했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제일 높은 직종은 생산·운수직과 전문·행정직인데 1983년엔 각각 49%와 64%를 차지하더니, 1989년엔 86%와 89%를 각각 차지했다. 이 두 직종은 제일 많이 자본주의화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3-16〉 종사상의 지위 및 직업별 취업자 : 전체근로자 (1989, 1983)

(단위 : 1,000명)

	계	전문·행정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생산·운수·장비 단순노무직
총 수	17,101(13,736)	3,090(2,196)	2,723(2,022)	1,743(1,149)	4,125(4,545)	5,419(3,824)
계	7,887(7,196)	342(220)	2,061(1,612)	812(564)	3,889(4,188)	782(612)
고용주	555(353)	138(83)	136(78)	131(74)	14(20)	137(99)
자영자	4,613(4,376)	158(118)	1,364(1,185)	461(351)	2,123(2,289)	507(432)
무급가족종사자	2,719(2,467)	46(19)	562(349)	220(140)	1,753(1,878)	138(81)
계	9,214(6,541)	2,748(1,978)	662(410)	931(585)	236(357)	4,638(3,212)
상시고	7,702(4,692)	2,722(1,901)	616(301)	693(354)	59(45)	3,612(2,092)
일고	1,512(1,849)	26(76)	46(109)	238(231)	176(311)	1,026(1,120)

주 : ()속은 1983년 통계.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비임금근로자중에서는 자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데 1983년에 61%, 1989년엔 58%를 차지했다. 여러 직업중에서 자영자가 제일 많은 직종은 농·림·어업과 판매직으로 1989년 현재 그 직종 취업자의 46%와 30%가 자영업자였다. 임금근로자는 대부분 상시고용인인데, 1983년의 72%에서 1989년엔 84%로 증가했다. 1989년엔 전체 일시고용인의 2/3정도가 생산·운수직에 종사하고, 농·림·어업에서는 임금

근로자 비율이 6%밖에 안되는데 그중에서 일시고용인이 3/4을 차지했다.

청소년 취업자를 종사상의 지위별로 구분해 보면(〈표 3-17〉),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인데 1983년엔 71%이다가 1989년에 84%로 늘었다. 비임금 청소년근로자는 대부분 봉급을 안받고 가족사업에 종사하였는데 1983년엔 81%, 1989년엔 78%를 차지했다. 무급 가족사업종사자의 대부분은 농·림·어업에 종사했는데 1983년엔 83%, 1989년엔 68%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판매직에 1983년엔 10%, 1989년엔 15%가 종사했다. 1989년 현재 임금을 받는 청소년근로자는 대부분(94%)이 고용인인데, 전문·행정직과 생산·운수직에 각각 43%씩 종사했다.

〈표 3-17〉 종사상의 지위 및 직업별 취업자 : 청소년 (15~24세) (1989, 1983)

(단위 : 1,000명)

	계	전문·행정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생산·운수·장비 단순노무직
총 수	2,028(2,200)	720(517)	218(181)	117(155)	200(508)	773(893)
계	323(631)	20(16)	60(76)	26(36)	188(472)	28(31)
고용주	6(7)	2(1)	1(1)	1(2)	0(0)	1(2)
자영자	64(114)	10(10)	20(27)	9(12)	14(52)	10(14)
무급가족종사자	253(509)	7(4)	39(49)	16(21)	173(420)	17(15)
계	1,705(1,570)	700(500)	159(105)	90(120)	13(35)	744(808)
상시고	1,609(1,184)	688(463)	153(71)	78(63)	5(5)	684(582)
일고	96(385)	11(38)	6(33)	12(57)	8(31)	59(226)

주 : 1) ()속은 1983년 통계.

2) 1983년은 14~24세 통계.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청소년근로자를 다시 연령층별로 구분해서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면(〈표 3-18〉), 1990년엔 청소년 취업자의 91%가 임금근로자로 1년전의 84%에서 많이 증가했다. 15~19세 연령층은 94%가 임금근로자다. 임금근로자의 94%가 상시고용인이고 6%만 일시고용인이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66%에 달한다.

청소년 취업자를 남녀별로 구분하면(〈표 3-19〉), 1983년도엔 전체청소년 취업자의 51%가 여자였고 임금근로자의 60%가 여자였다. 1990년엔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아져서 전체 청소년 취업자의 63%와 임금 청소년 근로자의 65%가 여자였다. 그리고 여

자 임금노동자의 96%가 상시고용인이었다. 이것은 우리경제의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발달된 기계 덕분에 값싼 단순노동력이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표 3-1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청소년 연령층별 (1990, 1983)

(단위 : 1,000명)

	전체근로자	청소년근로자		
	계	계	15~19세	20~24세
총 수	18,036(13,736)	2,446(2,201)	576(605)	1,870(1,596)
계	7,171(7,196)	211(631)	34(182)	177(449)
고용주	1,163(353)	11(7)	0(1)	11(6)
자영자	3,937(4,376)	61(114)	5(8)	56(106)
무급가족종사자	2,071(2,467)	139(509)	29(173)	110(336)
계	10,865(6,541)	2,236(1,570)	542(423)	1,694(1,147)
상시고	9,034(4,692)	2,106(1,184)	510(296)	1,596(888)
일고	1,831(1,849)	130(385)	32(126)	98(259)

주 : 1) ()속은 1983년 통계.

2) 1983년의 청소년근로자에는 14세도 포함되었음.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1990)

〈표 3-19〉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청소년 남녀별(1990, 1983)

(단위 : 1,000명)

	전체근로자	청소년근로자(15~24세)		
	계(1983)	여(1983)	계 (1983)*	여(1983)*
총 수	18,036(13,736)	7,341(4,666)	2,446(2,201)	1,545(1,133)
계	7,171(7,196)	3,183(2,851)	201(32)	98(236)
고용주	1,163(353)	199(45)	11(6)	6(2)
자영자	3,937(4,376)	1,181(920)	61(115)	35(41)
무급가족종사자	2,071(2,467)	1,803(1,885)	139(509)	57(193)
계	10,865(6,541)	4,159(1,815)	2,236(1,570)	1,448(898)
상시고	9,034(4,692)	3,213(1,150)	2,106(1,184)	1,387(727)
일고	1,831(1,849)	946(665)	130(385)	61(170)

주 : 1) ()속은 1983년 통계.

2) 1983년의 청소년근로자에는 14세도 포함되었음.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1990)

4) 교육정도별 취업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천 7백만명을 교육정도별로 구분해 보면(〈표 3-20〉), 1983년에는 중졸 이하가 64%, 고졸이 26%, 대졸이 10%였으나, 1989년에는 중졸 이하가 53%, 고졸이 36%, 초대졸이 4%, 그리고 대졸이 8%가 되었다.

이번에는 학력과 산업을 섞어서 구분하면, 1983년에는 농·어업에 취업한 사람의 90%와 광공업의 56%, 그리고 서비스업의 48%가 중학교졸업 이하의 교육밖에 못받은 사람이었다. 1989년에 와서는 근로자의 평균학력이 높아져서 농·어업에서는 역시 중졸 이하가 제일 많았으나 그 비율은 87%로 줄었고, 광공업에서는 고졸학력을 가진 자가 제일 많아 47%가 되고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는 41%로 줄었고, 서비스업 종사자 중에서는 중졸 이하와 고졸이 다같이 41%씩 되었다.

학력을 기준으로 보면,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고졸 학력자는 서비스업에 60%정도, 그리고 광공업에 30%정도가 종사했다. 전문대 졸업자는 70%정도가 서비스업에 그리고 28%정도가 광공업에 종사하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75%)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1/4정도가(24%)광공업에 종사한다.

〈표 3-20〉 교육정도 및 산업별 취업자 : 전체근로자 (1989, 1983)

(단위 : 1,000명)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총 수	17,101(13,736)	4,174(4,575)	4,369(2,992)	8,588(6,171)
중졸이하	8,971(8,748)	3,633(4,111)	1,784(1,669)	3,555(2,967)
고졸	6,078(3,585)	494(414)	2,073(1,013)	3,511(2,158)
초, 전문대졸	695	25	193	477
대졸이상	1,357(1,404)	22(49)	320(309)	1,015(1,045)

주 : ()속은 1983년 통계.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교육정도와 산업별 구분을 청소년근로자에게 적용하면(〈표 3-21〉), 약 2백만명에서 1983년에는 52%가 중졸 이하, 42%가 고졸, 그리고 5%가 대졸이었으나, 1989년에는 중졸 이하는 23%로 줄었고, 고졸이 66%로 늘고, 초대졸 7%와 대졸이 4%였다. 전에는 중졸 이하가 청소년근로자의 중심세력이었지만 이제 고졸이 중심세력이 된 셈이다.

1983에는 농·어업 종사자의 70%, 광공업의 61%가 중졸 이하의 학력자였고, 서비스업의 57%가 고졸자였다. 그러나 1989년에는 농·어업의 54%, 광공업의 65%, 그리고 서비스업의 68%는 고졸자가 되었다. 그래서 요즘엔 청소년중 중졸 이하의 학력자는 절반 이상이 광공업에서 일하고, 고졸자의 약 반수가 서비스업에서 그리고 43%가 광공업에서 일한다. 전문대의 73%와 대졸자의 81%는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표 3-21〉 교육정도 및 산업별 취업자 : 청소년근로자 (15~24세)(1989, 1983)

(단위 : 1,000명)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총 수	2,028(2,200)	206(513)	873(852)	949(836)
중졸이하	471(1,151)	88(359)	254(521)	129(270)
고 졸	1,330(929)	112(144)	569(309)	649(476)
초·전문대졸	140	5	33	102
대졸이상	87(120)	1(9)	16(23)	70(89)

주 : 1) ()속은 1983년 통계.

2) 1983년은 14세도 포함되었음.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취업자를 교육정도와 직업을 기준으로 구분하면(〈표 3-22〉), 1983년에는 전문·행정직은 고졸과 대졸이 약 반반이고, 판매직의 절반이상, 서비스직의 약 2/3, 농·어업의 90%, 그리고 생산·운수직의 약 2/3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1989년에 와서는 판매직의 절반 이하, 서비스직의 절반 이상, 농·어업의 거의 전부, 그리고 생산·운수직의 반이상이 아직은 중졸 이하의 학력자였지만, 고졸자의 비중이 커져서 전문·행정직과 판매직의 절반 가까이, 서비스직의 1/3, 그리고 생산·운수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문대졸의 절반 이상과 대졸자의 3/4은 전문·행정직에 종사했다.

〈표 3-22〉 교육정도 및 직업별 취업자 : 전체근로자 (1989, 1983)

(단위 : 1,000명)

	계	전문·행정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생산·운수 단순노무직
총 수	17,101(13,736)	3,090(2,196)	2,723(2,022)	1,743(1,149)	4,125(4,545)	5,419(3,824)
중졸이하	8,971(8,748)	196(193)	1,269(1,146)	1,048(752)	3,602(4,096)	2,856(2,560)
고졸	6,078(3,585)	1,479(1,039)	1,182(689)	599(327)	480(404)	2,340(1,125)
초·전문대졸	695	391	103	50	24	127
대졸이상	1,357(1,404)	1,024(965)	169(187)	47(69)	20(45)	97(139)

주 : ()속은 1983년 통계.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청소년의 경우 (〈표 3-23〉), 1983년엔 전체 근로자 2백 2십만명중에서 중졸 이하가 절반이 넘는 52%였고 고졸이 42%였는데,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는 절반 이상인 52%가 생산·노무직에 근무했고, 고졸자의 대부분은 전문·행정직(42%)과 생산·노무직(25%)에 종사했다. 1989년에는 학력이 높아져서 고졸이 3/2정도(66%) 되고 중졸이하는 1/4도 안되게 되었다. 중졸 이하는 대개(61%)생산직에, 고졸은 대개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문·행정직(40%)과 생산·노무직(35%)에 근무했다.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근로자는 5%에서 11%로 증가했고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70%이상)이 전문·행정직에 종사했다.

〈표 3-23〉 교육정도 및 직업별 취업자 : 청소년근로자(15~24세) (1989, 1983)

(단위 : 1,000명)

	계	전문·행정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생산·운수 단순노무직
총 수	2,028(2,200)	720(518)	219(181)	117(155)	200(507)	773(839)
중졸이하	471(1,151)	23(40)	36(68)	38(87)	85(358)	288(598)
고졸	1,330(929)	530(393)	161(105)	67(61)	109(141)	462(229)
초·전문대졸	140	95	14	9	5	17
대졸이상	87(120)	72(84)	8(9)	2(7)	1(8)	4(12)

주 : 1). ()속은 1983년 통계.

2). 1983년은 14세도 포함되었음.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5) 취업시간별 및 지역별 취업자

일반적으로 1주일에 45시간 이상 일하는 직업은 안정된 직업이고,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직업은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하는데, 전체 근로자 중에서 약 11%인 1백 88만명이 주당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이다(〈표 3-24〉). 청소년근로자 중에서는 약 7%에 해당하는 15만명 정도가 불안정한 취업자이다. 특히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36%가 여기에 속한다.

〈표 3-24〉 취업시간 및 산업별 취업자 수(1989)

(단위 : 1,000명)

	전체근로자				청소년 근로자(15~24세)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및 기타서비스업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기타서비스업
전 체	17,101	4,174	4,369	8,558	2,028	206	872	949
1~17시간	78	27	8	42	9	0	1	7
18~26	790	557	49	184	66	39	6	32
27~35	1,016	627	93	295	71	36	7	29
36~44	3,224	1,283	477	1,464	342	50	97	183
45~53	4,353	878	1,498	1,976	669	38	325	305
54시간이상	7,544	790	2,212	4,542	859	32	429	398
일시휴직자	97	11	31	55	10	-	5	5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취업자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표 3-25〉), 남녀 다같이 서울에 제일 많아서 남자의 24%와 여자의 21%가 모여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남자의 14%와 여자의 12%를 수용하고 있다. 청소년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도에 제일 많아서 각각 28%와 13%가 취업하고 있다.

4. 실업자

1) 교육정도별

1984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실업자의 주축을 이루어 총실업자의 46%나 되었고,

〈표 3-25〉 지역별 취업자(1989)

(단위 : 1,000명)

	전체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계(여)	소계(여)	15~19세(여)	20~24세(여)
전 국	17,101(6,411)	2,028(1,214)	396(237)	1,632(977)
서 울	3,917(1,345)	564(365)	93(58)	471(307)
부 산	1,406(513)	211(134)	47(30)	164(104)
대 구	843(331)	129(82)	30(19)	99(63)
인 천	610(195)	82(50)	13(8)	69(42)
광 주	404(149)	49(31)	9(6)	40(25)
대 전	422(156)	50(32)	11(7)	39(25)
경 기	2,248(791)	268(166)	54(31)	232(135)
강 원	696(266)	67(36)	15(8)	52(28)
충 북	582(229)	61(36)	12(11)	49(29)
충 남	941(406)	75(39)	19(11)	56(28)
전 북	869(360)	76(46)	17(11)	59(35)
전 남	1,167(498)	94(45)	22(11)	72(34)
경 북	1,283(526)	109(60)	22(12)	87(48)
경 남	1,491(546)	153(80)	27(16)	126(64)
제 주	222(99)	22(12)	4(2)	18(10)

주 : ()속은 여자 취업자.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1990)

〈표 3-26〉 교육정도별 실업자

(단위 : 1,000명)

	총 수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1984	568(124)	94(18)	130(20)	262(67)	82(19)
1985	622(141)	87(17)	134(21)	291(72)	109(32)
1986	611(131)	84(14)	117(16)	286(69)	124(31)
1987	519(122)	57(12)	100(17)	251(61)	111(32)
1988	435(120)	37(9)	77(18)	220(60)	101(33)
1989	460(134)	41(13)	74(21)	230(70)	116(31)
1990	451(133)	35(9)	64(16)	238(74)	114(34)

주 : ()속은 여자 취업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그 다음에 중졸 실업자가 23%, 대졸 실업자가 14%였다(〈표 3-26〉). 그런데 1990년에는 고졸 실업자 비율이 53%로 늘고, 대졸자 비율이 25%로 늘었다. 실업자중에서 대학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동안 늘어서 1986년부터는 고졸에 이어 둘째가 되었다. 여자근로자는 1984년에 실업자의 22%이더니 1990년엔 30%로 늘었다.

교육정도별 실업자의 실업이유로 보면(〈표 3-27〉), 전체적으로는 31%가 취업기회가 없어서, 그 다음으로 26%가 보수가 낮거나 작업환경이 나빠서 취직못했다고 조사되었다. 고졸, 전문대졸, 대졸 근로자는 취업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각각 32%, 40%, 34%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보수나 작업환경이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는 자격 또는 학력이 맞지 않아서 취직 못한 경우가 제일 많아서 25%나 되고, 다음으로 취업기회가 없다는 이유를 든 사람이 25%나 되었다.

〈표 3-27〉 실업이유별 교육정도별 실업자(1989)

(단위 : 1,000명)

	계	중졸이하	고 졸	초 ·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 체	474	118	256	43	56
취업기회 없음	146	30	81	17	19
취업정보 부족	27	7	15	2	2
자격(학력)이 맞지않아	86	32	45	4	5
남녀차별	4	0	1	0	2
보수 · 작업환경이 좋지않아	122	27	67	13	16
사업여건이 맞지않아	59	15	31	4	9
기 타	30	6	16	3	6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2) 청소년 실업자

전체 실업자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4년과 1990년에 차이없이 41%가 된다(〈표 3-28〉). 이것은 1990년 전체 취업자중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의 비율 14%를 생각하면, 청소년의 실업율이 전체 평균보다 많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청소년 실업자

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조금 못되는 49%이고, 20~24세 연령층이 2/3가 조금 더 되는 68%이다.

〈표 3-28〉 청소년 실업자

(단위 : 1,000명)

	전체실업자	청소년 실업자		
		계	15~19세	20~24세
1984	568(124)	232(93)	76(37)	156(56)
1985	622(141)	259(105)	79(40)	180(65)
1986	611(131)	235(97)	66(32)	169(65)
1987	519(122)	200(93)	65(35)	135(58)
1988	435(120)	179(84)	54(28)	125(56)
1989	460(134)	175(85)	53(31)	122(54)
1990	451(133)	183(90)	58(34)	125(56)

주 : ()속은 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전체 실업자수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계속 줄다가 다음해에 약간 늘었다가 1990년에는 다시 줄었는데, 청소년 실업자는 1989년까지는 줄다가 작년에는 약간늘었다. 〈표 3-29〉을 보면, 청소년 실업자의 2/3이상이 고졸학력자이고, 전체 고졸실업자의 55%가 청소년이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실업자의 1/3이 청소년이고,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실업자의 1/4이 청소년이다.

〈표 3-29〉 교육정도별 실업자 (1989, 1983)

(단위 : 1,000명)

	전체실업자	청소년 실업자		
		계	15~19세	20~24세
총 수	474(558)	205(247)	48(82)	157(165)
중졸이하	118(247)	30(97)	12(44)	18(53)
고졸	256(238)	140(124)	35(37)	105(87)
초, 전문대졸	43	21	0	21
대졸이상	56(72)	13(25)	0(1)	13(24)

주 : 1. ()속은 1983년 통계.

2. 1983년의 청소년근로자에는 14세도 포함되었음.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1990)

실업자를 구직경로별로 구분해 보면(〈표 3-30〉), 전체 근로자의 취업경로중 친구나 학교의 알선은 1983년엔 2위, 1989년엔 1위였는데, 실업자 비율은 모두 1위였고, 광고·구인정보는 1989년 취업경로중 5위였는데 실업자 비율은 2위가 되었다. 청소년근로자는 취업경로중 학교나 친구의 알선이 제일 많았고, 또 실업자의 비율도 제일 많다. 그러나 광고·구인정보를 통한 취업은 1989년엔 4위였는데, 실업자의 비율은 2위이다. 여기서 광고나 구인정보를 통해서 취직한 사람들이 다른 취업경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실업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0〉 구직경로별 실업자 (1989, 1983)

(단위 : 1,000명)

	전체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계	15~19세	20~24세
총 수	474(558)	205(247)	48(82)	157(165)
취직시험	73(60)	38(34)	6(8)	32(26)
학교, 친구알선	208(329)	99(162)	24(60)	75(102)
사업체직접방문	36(60)	13(21)	4(7)	9(14)
광고·구인정보	101(34)	50(21)	13(5)	37(16)
공·사직업소개소	7(6)	2(2)	1(1)	1(1)
자영업	47(62)	3(4)	0(0)	3(4)
기 타	2(5)	0(2)	0(1)	0(1)

주 : 1) ()속은 1983년 통계.

2) 1983년의 청소년근로자에는 14세도 포함되었음.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1990)

실업자의 실업동기를 보면(〈표 3-31〉), 전체 실업자나 청소년 실업자 모두 보수가 적거나 장래성이 없거나 작업환경이 나빠서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제일 많다.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보면(〈표 3-32〉), 어른이나 청소년 구별없이 가족 및 친지의 보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청소년은 95%가 여기에 해당되고, 전체노동자의 80%가 여기에 해당되고 16%가 벌어놓은 소득으로 산다고 했다.

〈표 3-31〉 실업자의 실업동기 (1989, 1983)

(단위 : 1,000명)

	전체실업자	청소년 실업자		
		계	15~19세	20~24세
총 수	474(245)	205(65)	48(82)	157(165)
폐업해고	15(47)	3(7)	0(1)	3(6)
보수(수입)가 적어서	29(43)	10(17)	2(4)	8(13)
임시적(장래성없는)일	27(33)	10(10)	2(2)	8(8)
작업시간 환경이 좋지않아	28(21)	9(10)	3(3)	6(7)
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12(25)	1(2)	0(0)	1(2)
사업부진	20(40)	2(2)	0(0)	2(2)
기 타	88(76)	19(17)	2(2)	17(15)

주 : 1) ()속은 1983년 통계.

2) 1983년의 청소년 실업자 통계에서는 14세도 포함되었음.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표 3-32〉 실업자의 생계유지수단 (1989)

(단위 : 1,000명)

	전체실업자	청소년 실업자		
		계	15~19세	20~24세
총 수	474	205	48	157
가족 및 친지보조	378	195	46	149
벌어놓은 소득	75	6	1	5
빚을 얻어서	3	0	—	0
영세인 보조	2	1	1	0
재산소득	10	1	0	1
연 금	1	—	—	—
기 타	4	1	0	1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Ⅲ-2. 노동환경

1. 임 금

1980년대의 9년동안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3배로 증가했는데, 14세에서 24세 이르는 청소년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간 더 높은 3.2배로 증가했다(〈표 3-33〉). 그러나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정도이고, 특히 나이 어린 14~17세 연령계급은 평균임금의 절반도 안된다. 20~24세의 청소년은 평균임금의 58.4~64.3%, 18~19세는 평균임금의 45.5~51.7% 그리고 14~17세는 38.5~43.8%밖에 안된다.

〈표 3-33〉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단위 : 1,000원, %)

	1980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전체근로자	173	271	295	314	345	379	447	525
평 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17세	70	104	115	121	135	152	192	230
	(40.6)	(38.5)	(39.1)	(38.7)	(39.0)	(40.2)	(43.0)	(43.8)
18~19세	83	125	136	143	158	184	224	271
	(48.0)	(46.1)	(46.2)	(45.5)	(45.8)	(48.5)	(50.1)	(51.7)
20~24세	107	162	178	186	202	228	279	337
	(61.8)	(59.7)	(60.2)	(59.1)	(58.4)	(60.3)	(62.4)	(64.3)

주 : ()안의 수치는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임.

자료 :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

임금은 나이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표 3-34〉). 1972년 이후 1985년까지 여자취업자의 임금이 남자의 절반도 안되다가 1989년에 와서야 절반을 약간 넘는 53%가 되었다. 남녀간에 임금에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성차별에 있겠지만, 기술수준의 차이라든가 직종의 차이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

다. 특히 한 직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기간이 임금에 영향있는데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상당히 짧아 요즘 남자는 평균 근속기간이 4년반이 되는데 여자는 2년반밖에 안된다. 아무리 여러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여자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남자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아직도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표 3-34〉 성별 임금 및 근속연수

(단위 : 원, %)

	월 평 균 임 금				근속연수			
	남 (A)	여 (B)	B/A (%)		남 (A)	여 (B)	B/A (%)	
1972	23,819	29,319	13,225	45.1	2.5	3.0	1.7	56.7
1975	46,654	60,319	25,465	42.2	2.4	3.0	1.6	53.3
1980	173,150	222,956	95,692	42.9	2.8	3.4	2.0	58.8
1985	314,213	386,346	180,319	46.7	3.6	4.3	2.2	51.2
1989	524,638	622,295	328,763	52.8	4.0	4.7	2.6	55.3

자료 :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

1975년 이후 직종별 임금수준의 변화를 보면(〈표 3-35〉), 평균 명목임금이 11배 이상 올랐는데, 전문·행정·사무직 등 비교적 고임금 직종은 평균보다 적게 올랐고, 판매, 서비스, 생산직 등 저임금직종은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임금이 제일 높은 행정관리직이 7배 오른 데 비해 임금이 제일 낮은 농·수산업직이 16배 이상 올랐다. 그 결과 1975년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이던 것이 1989년에는 3배정도로 차이가 줄었다. 저임금 직종중에서도 판매, 서비스업은 평균임금에 비교한 상대적 임금수준이 떨어진 반면, 농·수산과 생산직은 상대적 임금이 올라갔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현실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의 상대적 임금이 좀 더 올라가야 할 것 같다.

임금을 결정하는 데 학력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학력에 따라 기술수준과 직종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다(〈표 3-36〉). 1975년에서 1989년 사이에 대졸 이상의 임금이 약 8배로 증가할 동안 중졸 이하의 임금은 약 13배로 증가했다. 그래서 1975년에는 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의 약 4배에 가까운 고임금을 받다가 1989년에는 약 2배가 조금 넘는 정도만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학력차이가 임금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안엔 대학입시의 높은 경쟁은 늦추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표 3-35〉 직종별 임금수준

(단위 : 원)

	평 균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 림 수산업	생산직
1975	46,654	92,400	159,399	74,679	42,964	36,052	30,332	34,820
1980	173,150	321,530	517,432	211,678	116,815	131,381	144,426	130,848
1985	314,213	552,851	804,328	362,590	322,270	235,025	337,550	236,365
1989	524,638	788,510	1,120,098	566,940	441,648	378,626	500,686	433,405
〈평균임금=100으로 했을때〉								
1975	100.0	198.1	341.7	160.1	92.1	77.3	65.0	74.6
1980	100.0	185.7	298.8	122.3	67.5	75.9	83.4	75.6
1985	100.0	175.9	256.0	115.4	102.6	74.8	107.4	75.2
1989	100.0	150.3	213.5	108.1	84.2	72.2	95.4	82.6

자료 :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

〈표 3-36〉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단위 : 원)

	중졸이하	고 졸	초 대 졸	대졸이상
1975	32,019	55,982	76,248	120,021
1980	124,435	180,919	264,762	413,318
1985	226,272	303,049	393,450	686,490
1989	404,910	487,013	580,133	930,396

자료 :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

2. 근로시간과 노조조직율

1970년 이후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5%가 줄어서 49시간이 좀 넘게 되었다(〈표 3-37〉). 그러나 법으로 정한 주당 44시간보다는 11%나 긴 시간이다. 1970년에는 운수·통신업의 근무시간이 제일 길고 광업이 제일 짧았는데, 그동안 광업의 근무시간의 18%나 줄었고, 금융·용역업이 8%, 운수·통신업이 7% 그리

고 제조업이 5% 정도 줄었다. 그 결과 1989년엔 광업과 금융·용역업의 주당 근무시간이 제일 짧고 제조업과 운수·통신업의 근무시간이 제일 길게 되었다.

〈표 3-37〉 주당 평균 근로시간 (1989)

(단위 : 시간)

	1970	1975	1980	1985	1989
평 균	51.6	50.0	51.6	51.9	49.2
광 업	46.3	43.1	42.0	41.4	37.9
제 조 업	53.4	50.0	53.1	53.8	50.7
전기·가스·수도사업	48.9	47.4	48.6	50.0	48.1
건 설 업	47.3	48.9	50.4	49.0	46.6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48.6	49.3	50.5	50.0	48.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3.9	51.0	50.4	53.2	50.3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	48.5	48.6	45.4	45.8	44.6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0.2	48.2	47.2	46.6	45.0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경제발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제조업의 주당 근로시간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표 3-38〉), 1989년 현재 선진국중에서도 좀 긴 편인 일본보다 22%나 길고, 제일 짧은 호주보다는 34%나 긴 편이다. 1980년 이후 서독은 우리처럼 주당 근로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일본과 호주는 큰 변화가 없는데, 미국과 스웨덴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다.

〈표 3-38〉 주당 평균 근로시간(제조업) 국제비교

(단위 : 시간)

	한 국	싱가폴	일 본	미 국	호 주	프랑스	서 독	스웨덴
1980	53.1	48.6	41.2	39.7	37.4	40.6	41.6	37.6
1985	53.8	47.0	41.5	40.5	36.9	38.6	40.7	38.3
1989	50.7	—	41.4	41.0	37.7	38.7	39.9	38.5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89)

직장에서 노동조합 결성여부는 임금결정과 노동환경 개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1965년 이후 전체 근로자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수를 살펴보면(〈표 3-39〉), 조직대상자와 조합원수가 둘 다 많이 증가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은 변화가 많았는데, 1965년과 1970년 사이엔 좀 줄었고, 그 후 5년간은 좀 늘다가 1985년까지 10년간은 다시 많이 줄었다. 그 후 4년간은 다시 많이 늘었다.

노동조합 조직율은 특히 정치생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1975년 이후 10년간은 유신말기와 5공초기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정치적인 격동기였다. 1985년 이후 4년엔 제6공화국 정부의 시작과 민주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시기였다. 특히 1985년 이후 등록된 노동조합수도 상당히 증가했는데도 아직도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수는 1/4도 채 안 되는 상태다.

〈표 3-39〉 노조조직률 및 노조등록수

(단위 : 1,000명, %, 개수)

	조직대상자 ¹⁾ (1,000명)	조합원수 (1,000명)	노동조합 조직률 (1985=100)	노조등록수		
				본조합수 ²⁾	지부수 ³⁾	분회수 ³⁾
1965	1,347	302	22.2 (141.4)	16	362	2,255
1970	2,363	473	20.0 (127.4)	17	419	3,063
1975	3,258	750	23.0 (146.5)	17	488	3,585
1980	4,728	948	20.1 (128.0)	16	2,618	—
1985	6,397	1,004	15.7 (100.0)	16	2,534	—
1989	8,269	1,932	23.4 (149.0)	17	7,882	—

주 : 1) 비농가의 상용고와 임시고의 합계임.

2) 항만노조와 운수노조가 통합개편됨 (1980).

3) 지부 및 분회가 기업단위 노조로 통·폐합됨(1980).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3. 산업재해

경제구조가 고도로 산업화되면서 자연히 복잡하고 위험한 기계와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산업재해가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율이 세

제에서 제일 높다고 할 정도로 산업재해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산업재해 보험제도가 생겨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다 (〈표 3-40〉).

1965년 이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증가해서 1989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2/3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체수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비율은 1980년과 1985년 사이에는 오히려 줄었다.

〈표 3-40〉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비율

(단위 : 1,000명, %, 개소)

	근로자수*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직 용 근로자율	산재보험적용 사 업 체 수
1965	1,872	161	8.6	289
1970	2,933	779	26.6	5,583
1975	4,025	1,836	45.6	21,369
1980	5,660	3,753	66.3	63,100
1985	7,577	4,495	59.3	66,803
1989	9,812	6,688	68.2	118,894

주 : *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농가 피용자수임.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보건사회부, 「보사통계연보」

1965년 이후 1989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표 3-41〉), 총재해자 수는 14배 이상으로 늘고 사망자수는 12배로 늘었는데, 특히 신체장애자 수는 무려 164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1989년 한 해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천 7백명이 넘고 신체장애자는 2만 5천명을 넘었다. 이 수자는 하루 평균 4.7명이 사망하고, 70명이 신체장애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요즘 마찬가지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사고와 함께 산업재해가 신체장애자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산업재해를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표 3-42〉), 1965에는 광업이 재해가 제일 많아 전체 재해자수의 54%나 차지했다. 1970년 이후는 제조업이 재해가 제일 많은 산업이 되어 1989년에는 총재해자수의 57%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조업에서 1965년에서 1989년까지 무려 24배로 재해자수가 증가한 때문이다. 1980년부터 두번

째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건설업으로 총재해자의 23%를 차지했는데, 1970년 이후 약 8배로 재해자수가 증가한 결과다. 재해자수는 1985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1989년에 와서는 다소 줄었다.

〈표 3-41〉 연도별 산업재해자 수

	적용 사업장수 (개소)	적용 근로자수 (명)	재해 건수 (건)	재해자수(명)				재해 발생율
				총계	사망	신체장애자	부상	
1965	289	161,150	—	9,470	144	155	9,171	5.9
1970	5,588	779,053	35,389	37,752	639	1,198	35,915	4.9
1975	21,369	1,836,209	79,819	80,570	1,006	6,490	73,074	4.4
1980	63,100	3,752,975	112,111	113,375	1,273	14,873	97,229	3.0
1985	66,803	4,495,185	140,218	141,809	1,718	19,824	120,267	3.2
1989	118,894	6,687,821	128,138	134,127	1,724	25,536	106,867	1.92

주 : 재해발생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자료 : 한국노총, 「사업보고」(1990)

〈표 3-42〉 업종별 산업재해자 수

(단위 : 명)

	재해자 총 계	광 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
1965	9,470	5,140	3,208	—	50	1,072	—
1970	37,752	8,262	17,005	4,109	186	8,053	137
1975	80,570	7,703	49,432	9,502	327	13,189	417
1980	113,375	8,999	67,025	21,457	401	14,453	1,040
1985	141,809	10,546	80,171	33,691	246	13,371	3,784
1989	134,127	8,796	75,820	30,845	240	12,066	6,360

자료 : 한국노총, 「사업보고」(1990)

산업재해 발생을 산업체 규모별로 조사해보면 (<표 3-43>), 50인 미만의 사업체의 재해발생 비율이 제일 높아서 전체 재해의 1/3이 약간 넘고, 1,000인 이상의 대사업체가 총재해자수의 거의 1/4을 차지한다.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업은 총계와 마찬가지로 50인 미만의 소사업체에서 재해가 제일 많이 생겨서 각각 41%, 31%, 45%씩 차지했다. 그러나 광업에서는 1,000인 이상의 큰 사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수가 제일 많아 35%를 차지하고, 운수·통신업에서는 100~199인과 50~99인이 종사하는 중간 크기의 사업체에서 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여 각각 20%와 23%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업은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광업은 1,000인 이상이 종사하는 대사업체, 그리고 운수·통신업은 50~199인의 중간사업체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표 3-43〉 산업체 규모별 재해발생 비율 (1989)

(단위 : 명, %)

	총 계	광 업	제조업	건설업	전 기 가 스 수도업	운 수 보 관 통신업	기 타
총 계	134,127 (100.0)	8,796 (6.6)	75,820 (56.5)	30,845 (23.0)	240 (0.2)	12,066 (9.0)	6,360 (4.7)
50인미만	45,679 (34.1)	1,268	31,150	9,426	107	1,931	1,797
50~99	16,970 (12.7)	699	9,238	3,453	39	2,438	1,103
100~199	15,757 (11.7)	1,277	7,178	3,440	21	2,780	1,061
200~299	7,324 (5.5)	643	3,520	1,575	2	1,210	374
300~499	7,980 (5.9)	996	3,166	2,025	15	1,203	575
500~999	7,693 (5.7)	741	3,474	1,789	19	1,283	387
1000인이상	32,724 (24.4)	3,172	18,094	9,137	37	1,221	1,063

자료 : 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재해때문에 사망한 사람수를 비교해 보면(〈표 3-44〉), 각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달라진다. 광업은 총재해자수에서는 6.6%만 차지하더니 사망자수에서는 18%를 차지하여 광업에서의 재해는 사망자 발생빈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제조업은 총재해자 비율 56.5%에서 사망자 비율은 30.7%로 떨어지니 여기서는 사망보다는 중·경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 운수·통신업도 총재해자 비율보다 사망자 비율이 1.8배로 증가했다.

〈표 3-44〉 산업체 규모별 사망재해자 비율 (1989)

(단위 : %)

	총 계	광 업	제조업	건설업	전 기 가 스 수도업	운 수 보 관 통신업	기타
총 계	1,724 (100.0)	311 (18.0)	529 (30.7)	461 (26.7)	5 (0.3)	274 (15.9)	144 (8.4)
50인 미만	488 (28.3)	54	166	176	—	60	32
50~99	260 (15.1)	31	80	45	—	64	40
100~199	213 (12.3)	27	61	36	1	69	19
200~299	114 (6.6)	16	38	27	1	23	9
300~499	113 (6.6)	33	11	25	—	19	25
500~999	109 (6.3)	16	45	28	1	16	3
1000인이상	427 (24.8)	134	128	124	2	23	16

자료 : 한국노총, 「사업보고」 (1990)

재해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표 3-45〉), 25세에서 34세에 이르는 나이가 재해율이 제일 높아서 약 36%를 차지하고, 24세 이하인 청소년도 21%이상을 차지한다.

직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청소년 재해율이 제일 높아 약 31%나 되고, 전기·운수업이 약 25%를 차지한다. 청소년근로자의 41%나 취업하는 광공업의 재해자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밖에 안되므로 청소년 재해율이 어른보다 더 높은건 아니지만, 이 산업에서만도 1989년 한해에 2만 9천명, 23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다른 산업까지 모두 합치면 1989년 1년동안 28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재해를 당하였다. 그중에서 사망한 청소년도 전체 재해 사망자의 11%에 해당하는 189명이 되었다(〈표 3-46〉). 제조업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약 16%가 청소년이었다. 이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 같다.

〈표 3-45〉 근로자 연령별 재해발생 비율 (1989)

(단위 : 명, %)

	총 계	광 업	제조업	건설업	전 기 가 스 수도업	운 수 보 관 통신업	기타
총 계	134,127 (100.0)	8,796 (6.6)	75,820 (56.5)	30,845 (23.0)	240 (0.2)	12,066 (9.0)	6,360 (4.7)
20세 미만	10,460 (7.8)	32	9,308	642	15	215	248
20~24세	17,990 (13.4)	293	13,787	2,065	44	1,005	796
25~29세	25,446 (19.0)	1,115	16,861	3,957	68	2,201	1,244
30~34세	22,623 (16.9)	1,633	12,445	4,938	43	2,492	1,072
35~39세	15,880 (11.8)	1,393	7,599	4,245	26	1,923	694
40~44세	12,907 (9.6)	1,373	5,606	3,799	18	1,532	579
45~49세	12,379 (9.2)	1,396	4,866	4,183	13	1,297	624
50세 이상	16,442 (12.3)	1,561	5,348	7,016	13	1,401	1,103

자료 : 한국노총, 「사업보고」(1990)

〈표 3-46〉 근로자 연령별 사망 재해자수(1989)

(단위 : 명, %)

	총 계	광 업	제조업	건설업	전 기 가 스 수도업	운 수 보 관 통신업	기타
총 계	1,724 (100.0)	311 (18.0)	529 (30.7)	461 (26.7)	5 (0.3)	274 (15.9)	144 (8.4)
20세 미만	41 (2.4)	2	31	3	—	1	4
20~24세	148 (8.6)	11	51	38	—	30	18
25~29세	281 (16.3)	29	109	47	3	62	31
30~34세	242 (14.0)	31	71	65	—	48	27
35~39세	207 (12.0)	65	48	55	—	27	12
40~44세	196 (11.4)	34	64	51	1	36	10
45~49세	228 (13.2)	67	58	68	—	22	13
50세 이상	381 (22.1)	72	97	134	12	48	29

자료 : 한국노총, 「사업보고」(1990)

Ⅲ-3. 근로의식

1. 전직의사 여부

전체 취업자중에서 현재의 일터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약 84%가 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이 약 11%가 된다(〈표 3-47〉). 여자의 경우 직장을 옮기

고 싶은 사람이 약 9%가 되어 남자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것 같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취업자 중에서 전직 희망자가 제일 많아 약 13%나 되고, 그 다음이 중졸 이하로 약 10%, 그리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적어서 약 7%밖에 안 된다. 또 직장을 옮기고 싶은 이유 중에서는 장래성이 없다는 것(34%)과 소득이 적다는 것(32%)이 제일 중요시되는데, 대체로 장래성을 제일 중요시하지만 여자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취업자들은 소득이 적은 이유를 제일 중요시하는데, 여자(남자의 53%)와 저학력 취업자들의 임금이(중졸은 대졸의 44%)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 고학력 근로자들 중에 전직 희망자가 적다는 것은 대개 장래성 있고 임금수준이 높은 직종에 종사한다는 걸 나타내고, 장래성을 제일 중요시하는 건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최저생활비는 확보된 상태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 같다.

〈표 3-47〉 전직의사 여부, 전직희망 이유, 교육정도별 취업자 (1989)

(단위 : 1,000명)

계	중졸이하	고	졸	초·전문대졸	대졸이상
총 수	17,101(6,411)	8,971(4,181)	6,078(1,809)	695(170)	1,357(250)
계속 그대로 일하고싶음	14,420(5,412)	7,465(3,509)	5,102(1,526)	604(149)	1,249(228)
추가취업희망	241(100)	153(75)	68(21)	8(2)	13(3)
기 타	578(327)	420(249)	129(67)	15(7)	14(4)
전직희망	1,862(572)	934(349)	779(195)	69(13)	80(15)
— 소득이 적어서	601(223)	344(156)	225(61)	15(4)	18(3)
— 임시적·장래성없어서	634(152)	315(88)	276(56)	22(3)	20(4)
— 적성·지식·기능이안맞아	145(46)	36(12)	83(27)	10(2)	16(5)
— 작업시간이너무많아서	99(36)	48(22)	42(13)	4(1)	5(0)
— 작업환경이좋지않아	154(47)	90(31)	56(14)	5(0)	4(1)
— 비인격적대우및개인가정사정	83(36)	42(19)	33(15)	5(2)	3(1)
— 기 타	147(32)	60(21)	63(9)	9(1)	15(1)

주 : ()속은 여자 취업자.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전직의사 여부를 산업별로 살펴보면(〈표 3-48〉),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

래성이 없다는 것을 전직희망의 제일 중요한 이유로 들었는데, 농·어업과 광공업 취업자들은 소득이 적은 것을 제일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농·수산업과 생산직이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도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

〈표 3-48〉 전직의사 여부, 전직희망 이유, 산업별 취업자 : 전체근로자 (1989)

(단위 : 1,000명)

	계	농 립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및 기타서비스업
			계	제조업	
총 수	17,101(6,411)	4,174(1,944)	4,369(1,441)	4,305(1,437)	8,558(3,026)
계속그대로일하고싶음	14,420(5,412)	3,475(1,653)	3,748(1,214)	3,696(1,210)	7,197(2,545)
추가취업희망	241(100)	111(50)	39(16)	39(16)	91(34)
기 타	578(327)	250(134)	102(64)	101(64)	226(128)
전직 희망	1,862(572)	337(106)	481(146)	469(146)	1,044(320)
소득이 적어서	601(223)	149(53)	168(63)	166(62)	285(108)
임시적·장래성없어서	634(152)	113(29)	102(26)	100(26)	419(98)
적성·지식·기능이안맞아	145(46)	31(8)	49(15)	48(15)	65(23)
작업시간이 너무많아서	99(36)	8(3)	31(9)	31(9)	60(23)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154(47)	11(5)	62(18)	57(18)	81(24)
비인격적대우및개인가정사정	83(36)	14(5)	21(7)	20(7)	48(24)
기 타	147(32)	11(4)	48(8)	46(8)	87(20)

주 : ()속은 여자 통계.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청소년은 현재의 일자리에 그대로 있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76%가 되고 일자리를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20%가 넘는다(〈표 3-49〉). 전체 근로자중 전직희망자 11%와 비교하면 거의 두배 가까이 된다. 청소년들의 전직희망 사유를 보면 장래성이 없어서가 42%나 되고 소득이 적어서는 26%이다. 여자 청소년 근로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적은 14%가 전직을 희망하고, 그 이유로는 32%가 장래성이 없는 것, 28%가 소득이 적은 것을 지적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46%)가 직장 옮기기를 원했고, 서비스업에서는 19%, 그리고 광공업에서는 16%가 전직을 희망했다. 농·어

업과 서비스업의 청소년근로자들은 전직희망 이유로 절반 이상(51%)이 장래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광공업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것(32%)을, 장래성 없는 것(26%) 보다 더 많이 지적했다.

〈표 3-49〉 전직의사 여부, 전직희망 이유, 산업별 취업자 : 청소년근로자 (15~24세)(1989)
(단위 : 1,000명)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및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	
총 수	2,028(1,214)	206(66)	872(516)	869(516)	949(632)
계속그대로일하고싶음	1,550(1,004)	98(37)	711(437)	708(436)	742(530)
추가취업희망	20(11)	6(3)	5(3)	5(3)	9(5)
기 타	47(31)	8(4)	21(15)	21(15)	20(13)
전직 희망	411(168)	95(23)	137(62)	137(62)	179(82)
— 소득이 적어서	105(47)	24(5)	44(21)	44(21)	36(20)
— 임시적·장래성없어서	173(54)	48(12)	35(12)	35(12)	91(30)
— 적성·지식·기능이안맞아	60(29)	17(5)	23(11)	23(11)	21(13)
— 작업시간이 너무많아서	18(9)	0(0)	8(4)	8(4)	9(6)
—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28(13)	1(0)	17(8)	17(8)	9(5)
— 비인격적대우및개인가정사정	18(11)	4(1)	6(4)	6(4)	7(5)
— 기 타	11(5)	1(—)	4(2)	4(2)	5(3)

주 : ()속은 여자 통계.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근속기간이 3년이 안되는 사람들이 최근 3년동안에 몇번이나 직장을 옮겼는지를 조사해 보니(〈표 3-50〉), 절반이 조금 넘는(51%) 사람들은 한번도 전직하지 않았고, 조사대상자의 28%가 1회, 11%가 2회, 그리고 9%가 3회이상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농·어업에서는 32%만 1회 이상 전직해서 전직율이 제일 낮았고, 다른 직종에서는 약 절반이 1회 이상 전직했다. 3회 이상 전직한 사람의 비율이 제일 높은 직종은 서비스업으로 약 11%가 해당되었다. 여자는 남자보다 전직율이 낮아서 1회 이상 전직한 사람이 34%밖에 안되고, 3회 이상 전직한 사람도 전체 평균인 9%보다 낮은 7%밖에 안되었다. 또 1회 이상 전직한 사람 전체의 30%가 여자였다.

전직회수를 직업별로 조사하니(〈표 3-51〉), 농·어업에서는 2/3에 가까운 72%가 한 번도 전직한 일이 없었고, 생산·운수직에서는 전직한 적이 없는 사람이 절반도 못되는

〈표 3-50〉 전직회수 및 산업별 취업자 (1989)

(단위 : 1,000명)

	계	농 립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및 기타서비스업
			계	제조업	
총 수	5,403(2,322)	289(120)	1,947(832)	1,930(831)	3,166(1,369)
1 회	1,540(454)	45(14)	598(179)	590(179)	897(261)
2 회	605(181)	22(5)	242(67)	240(67)	340(108)
3회이상	496(156)	26(15)	138(39)	136(39)	332(102)
없었음	2,762(1,531)	196(86)	969(547)	964(546)	1,597(898)

주 : 1) ()속은 여자 통계.

2) 근속기간이 3년미만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전직회수를 조사.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42%밖에 안되었다. 그다음으로 전직한 사람이 많은 직종은 서비스직으로 48%만이 한번도 전직 안했다. 지난 3년동안 3회 이상 전직한 사람의 비율이 제일 높은 직업은 생산·운수직으로 13%가 넘었고, 제일 낮은 직업은 전문·행정직으로 3%도 안되었다.

여자는 대체로 남자보다 전직율이 낮는데 서비스직에서는 평균인 34%보다 높은(45%) 전직율을 보였고, 3회 이상 전직한 취업자의 비율도 서비스직이 14%로 제일 높았다.

〈표 3-51〉 전직회수 및 직업별 취업자 (1989)

(단위 : 1,000명)

	계	전문·행정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 수산업	생산·운수 관련직
총 수	5,403(2,232)	1,153(592)	900(409)	792(495)	264(112)	2,291(713)
1 회	1,540(454)	298(114)	276(79)	220(98)	39(13)	706(150)
2 회	605(181)	98(43)	82(21)	94(52)	18(5)	311(59)
3회이상	496(156)	30(12)	42(12)	99(71)	18(10)	307(51)
없었음	2,762(1,531)	727(423)	500(297)	379(274)	189(84)	967(453)

주 : 1) ()속은 여자 통계.

2) * 근속기간이 3년미만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전직회수를 조사.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2. 구직여부

추가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희망하는 취업형태와 구직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표 3-52〉),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약 2/3이상(68%)이 임금근로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약 1/3이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가 되기를 원했다. 임금근로직을 원한 사람의 거의 전부(94%)가 종일 일하는 일자리를 원했다. 한편 추가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절반이 약간 넘게(54%)임금근로직을 원했고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46%)이 비임금 근로직을 원했다. 임금근로직을 추가로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2/3에 가깝게(62%) 틈틈이 하는 일자리를 원했다.

〈표 3-52〉 희망 취업상태 및 구직여부, 추가 및 전직희망 취업자 : 전체 (1989)

(단위 : 1,000명)

	전체	전직희망					추가취업희망				
		계	임금근로			비임금	계	임금근로			비임금
			소계	주로	틈틈이			소계	주로	틈틈이	
총 수	2,104 (672)	1,862 (572)	1,271 (403)	1,200 (343)	71 (59)	591 (178)	241 (100)	131 (70)	50 (22)	81 (48)	110 (30)
구해보았음	746 (212)	673 (182)	510 (143)	491 (127)	19 (16)	163 (39)	73 (30)	42 (21)	20 (9)	23 (12)	31 (9)
구해보지않았음	1,357 (460)	1,189 (390)	761 (259)	710 (216)	52 (43)	428 (131)	168 (70)	89 (49)	30 (13)	59 (35)	79 (21)
- 적당한일거리가 없을것같아서	446 (174)	370 (138)	274 (104)	248 (82)	26 (23)	96 (33)	76 (36)	48 (27)	14 (6)	34 (21)	28 (9)
- 자격·능력이 부족하여서	397 (128)	363 (114)	194 (61)	184 (52)	11 (9)	169 (53)	33 (14)	14 (8)	8 (4)	6 (4)	19 (6)
- 시간이 없어서	231 (78)	209 (71)	162 (57)	155 (50)	7 (7)	47 (15)	21 (7)	14 (6)	4 (1)	10 (4)	8 (1)
- 서둘러 구할 필요 없어서	240 (65)	206 (53)	117 (33)	111 (28)	7 (5)	89 (20)	34 (11)	12 (7)	3 (1)	8 (5)	22 (4)
- 기 타	44 (15)	40 (14)	13 (5)	12 (4)	1 (1)	27 (9)	4 (1)	1 (1)	1 (0)	1 (0)	2 (0)

주 : ()속은 여자 취업자.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추가직업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중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구해본 사람은 1/3이 좀 넘는 35%밖에 안된다. 나머지 2/3가 좀 못되는 사람들은 아예 일자리를 구해보지도 않았는데, 그이유는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라고 말한 사람이 1/3(33%)이나 되고 “자격,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한 사람도 29%나 되었다.

여자는 실제로 새 일자리를 구해본 사람이 남자보다 약간 적은 31%가 되고, 전직희망자(36%)보다 추가취업 희망자가(30%)실제로 새 일자리 구해본 사람이 더 적다. 새 일자리 찾아보지 않은 이유는 추가취업 희망자가(45%) 전직희망자(31%)보다 더 많이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다.

추가취업이나 전직을 원하는 청소년취업자는 전체 근로자의 경우보다 조금

〈표 3-53〉 희망 취업상태 및 구직여부, 추가 및 전직희망 취업자 : 청소년 (15~24세) (1989)
(단위 : 1,000명)

	전체	전직희망					추가취업희망				
		계	임금근로			비임금 근로	계	임금근로			비임금 근로
			소계	주로	틈틈이			소계	주로	틈틈이	
총 수	431 (179)	411 (168)	372 (153)	364 (148)	8 (5)	39 (15)	20 (11)	16 (9)	9 (4)	7 (5)	4 (2)
구해보았음	179 (72)	171 (69)	161 (65)	159 (63)	2 (1)	11 (4)	7 (4)	7 (4)	4 (2)	3 (2)	1 (1)
구해보지않았음	252 (107)	239 (99)	211 (89)	205 (85)	6 (4)	29 (12)	13 (7)	10 (5)	5 (2)	4 (3)	3 (2)
— 적당한일거리가 없을것같아서	76 (32)	70 (30)	64 (27)	62 (27)	3 (1)	5 (1)	6 (4)	5 (3)	3 (1)	2 (1)	1 (0)
— 자격·능력이 부족하여서	56 (19)	54 (18)	42 (14)	42 (14)	0 (0)	11 (5)	2 (1)	1 (0)	1 (0)	0 (0)	1 (1)
— 시간이 없어서	60 (29)	57 (27)	54 (26)	54 (25)	0 (0)	2 (1)	2 (1)	2 (1)	1 (0)	1 (1)	0 (0)
— 서둘러 구할 필요가 없어서	54 (23)	52 (21)	45 (19)	42 (17)	2 (1)	7 (3)	2 (1)	1 (1)	1 (0)	0 (0)	0 (0)
— 기 타	7 (3)	7 (3)	5 (2)	5 (2)	— (—)	2 (1)	— (—)	— (—)	— (—)	— (—)	— (—)

주 : ()속은 여자 통계.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더 많은 42%가 실제로 새 일자리를 구해봤는데, 여자는 조금 적은 40%가 새 일자리를 구해봤다고 한다(〈표 3-53〉). 새 일자리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구해보지 않은 청소년의 30%는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4%는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또 22%는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새 일자리를 찾지 않았다고 한다. 전체 근로자의 경우보다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새 일자리를 찾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아예 새 직업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의 91%는 임금근로직을 원하고, 단지 9%만이 비임금근로직을 원했다. 임금근로직을 원한 사람의 거의 전부인 98%가 매일·종일하는 일자리를 원하고 틈틈이 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은 어른의 6%보다 아주 작은 2%뿐이었다. 현재의 일을 계속하면서 추가로 일을 하나 더 하고 싶은 사람의 80%는 임금근로직을 원했고 그중에서 56%가 매일·종일하는 일을 원하고, 나머지 40%는 틈틈이 하는 일을 원했다. 전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절반이 넘는 청소년이 매일·종일하는 일자리를 추가로 원하다는 것은 하루에 두가지 직장에 다니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현재의 일자리가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표 3-54〉 비구직 이유 및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 인구 (1989)
(단위 : 1,000명)

	계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기타
총 수	1,693(1,319)	1,064(875)	282(200)	347(244)
중졸이하	809(671)	523(454)	114(92)	171(125)
고 졸	606(507)	381(334)	108(82)	117(91)
초·전문대졸	198(82)	113(50)	45(17)	40(14)
대졸이상	81(59)	48(37)	14(8)	20(13)

주 : ()속은 여자 인구.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비경제활동 인구중에서 일자리를 찾지못한 사람을 교육정도별로 구분해 보면(〈표 3-54〉), 학력이 낮을수록 일자리를 찾는 데 더 소극적이어서 중졸 이하의 사람은 실제로 일거리를 찾다가 못찾은 경우(14%)보다 아예 일거리가 없을 거라고 단정한 사람의 경

우(65%)가 훨씬 더 많고, 고졸은 두 경우의 비가 63%대 18%이고, 전문대이상 졸업자는 58%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데 비해 21%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봤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소극적이어서 실제로 일거리를 찾다가 못찾은 사람의 비율이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경우도 18%밖에 안되었다. 전체의 17%가 실제로 일거리를 찾아보았는데, 여자는 12%만이 일거리를 찾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거리를 못찾은 청소년 비경제활동 인구의 약 54%가 일거리가 없을거라고 단정하고 아예 취직을 포기했고, 21%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끝내 일거리를 찾지 못했다(<표 3-55>). 이것은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와 비교할 때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중에서도 나이가 더 많은 20~24세 연령층이 좀 더 적극적이어서 일거리를 찾아 나섰던 사람이 23%가 되고, 여자는 청소년의 경우도 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5〉 비구직 이유별 청소년 비경제활동 인구 (1989)

(단위 : 1,000명)

	계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기타
총 수	1,693(1,319)	1,064(875)	282(200)	347(244)
청소년 계	453(264)	245(151)	95(50)	115(62)
15~19세	177(94)	92(52)	31(14)	55(28)
20~24세	276(170)	153(99)	64(36)	60(34)

주 : ()속은 여자 인구.

자료 : 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

3. 직업선택 요인

취업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면(<표 3-84>), 1980년에는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수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으로 안정성(27%), 발전성(14%)을 생각했다. 그러나 3년뒤인 1983년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제일 많았고(39%), 그 다음에 수입(23%)과 발전성(20%)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5년후인 1988년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

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져서 43%나 되고, 그 다음에 수입(25%)과 발전성(15%)을 지적하는 순서는 변함없었다.

이것을 교육정도별로 구분해 보면, 학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안정성을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고졸이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제일 높고(평균 43.6%), 국졸 이하가 제일 낮았다(평균 40.0%). 1983년에 국졸 이하의 수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둘째로 많았고(31%), 중졸 이상 사람들은 발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람들이 둘째로 많았다. 1988년에는 고졸까지는 수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람이 두번째로 많았는데, 대졸 이상의 근로자는 일하는 보람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람이 두번째로 많았다.

〈표 3-56〉 직업선택요인

(단위 : %)

			계	명	예	안정성	수	입	보	람	발전성	기	타
1980	전	국	100.0	4.6	26.7	48.4	6.6	13.7	-				
계			100.0	4.1	39.3	23.0	14.0	19.6	-				
국 졸 이 하			100.0	4.3	37.6	30.6	12.2	15.3	-				
1983	중	졸	100.0	3.8	39.6	19.6	15.9	21.1	-				
고			100.0	3.6	41.7	16.4	14.2	24.1	-				
대 졸 이 상			100.0	5.5	39.5	12.5	17.6	24.9	-				
계			100.0	4.3	43.1	25.0	12.8	14.5	0.3				
국 졸 이 하			100.0	3.9	42.3	37.7	7.2	8.6	0.3				
1988	중	졸	100.0	5.0	41.3	22.4	14.8	16.2	0.2				
고			100.0	3.7	45.5	18.5	14.5	17.6	0.3				
대 졸 이 상			100.0	6.3	42.4	10.7	21.2	19.1	0.2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4. 근로여건 만족도

근로자들이 근로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보면〈표 3-57〉, 1988년에 5가지 항목에 대해 만족한다는 사람은 최저 임금의 14.6%에서 최고 직무의 28.5%인데

반해, 근로여건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사람은 최저 직무의 21.9%에서 최고 장래성의 47.4%로, 만족의 정도보다 불만의 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82년에서 85년 사이엔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올라가다가 그후에 많이 떨어졌다. 1982년에서 1988년 사이에 변한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도를 항목별로 보면, 직무에 대해서는 28%가 높아지고, 작업환경은 48%, 장래성은 38%, 그리고 임금은 5%가 높아졌다. 1988년 현재 제일 불만이 높은 항목은 장래성으로 조사자의 47%가 불만이라 말하고, 다음으로 임금(47%), 근로시간(42%)순으로 불만도가 높다.

〈표 3-57〉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직	무	작업환경	장래성	임	금	근로시간
1982	만	족	33.1	31.7	17.2	19.1		
	보	통	49.8	46.5	48.5	36.3		
	불	만	17.1	21.8	34.3	44.6		
1985	만	족	34.3	33.2	18.2			
	보	통	47.6	46.5	48.0			
	불	만	18.1	20.3	33.8			
1988	만	족	28.5	20.7	10.3	14.6	16.9	
	보	통	49.5	47.1	42.3	38.7	41.5	
	불	만	21.9	32.2	47.4	46.7	41.6	

주 : 1982년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1980년 통계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소 결

1990년 현재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1,840여만명중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260여만명으로 14.2%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여자는 40.4%인데,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62.2%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1주일에 1시간도 돈버는 일을 하지 못한 실업자가 2.4%인데, 그중 청소년은 7 %이다.

1965년에서 1989년까지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는 농·어업 종사자가 제일 많이 줄

어 19.5%가 되고,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일 많이 늘어 52.3%가 되었다. 직업별로는 생산·운수직이 제일 많이 늘어 34.5%가 되었다. 1990년 현재 청소년 취업자는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에 제일 많이 종사하여(약 56%) 전체 취업자의 14%를 구성하고, 직업별로는 제조업에 제일 많이 종사하여(약 41%),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약 21%를 구성했다.

전체 취업자를 교육정도별로 구분하면, 고졸이 제일 많아 약 38%이며 국졸 이하는 29%인데, 여자는 국졸 이하가 제일 많아 약 41%이며 고졸이 31%이다. 청소년 취업자를 다시 연령층별로 구분하면, 20~24세의 근로자가 3/4이 넘는 76%를 차지하고, 청소년이 종사하는 여러 직업중에서 금융·용역업이 제일 여성화 되어서 전체 취업자의 79%가 여자다.

취업경로를 보면, 친구나 학교의 알선이 제일 많아서 전체 취업자의 51%가 이용했고, 취직시험은 10%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59%가 친구나 학교의 알선을 이용하고 취직시험은 13%가 이용했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직이 54%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84%가 상시고용인이고, 전문·행정이 임금근로자 비율이 제일 높아 89%나 된다.

청소년 근로자는, 91%가 임금근로자이고 이들의 94%가 상시고용인이다. 청소년 취업자의 학력을 보면, 고졸이 66%로 제일 많고 이들의 절반이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중졸이하가 23%인데 이들의 절반 이상이 광공업에 종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전체 취업자의 24%, 경기도에 13%가 모였는데, 청소년 취업자는 28%가 서울에, 13%가 경기도에 모였다.

전체 실업자를 교육정도별로 구분하면, 고졸이 53%, 대졸이 25%, 그리고 여자가 30%를 차지한다. 전체 취업자의 14%밖에 안되는 청소년근로자가 전체 실업자의 41%를 구성하고, 여자는 이중 49%가 된다. 청소년 실업자의 2/3이상이 고졸자이고, 이들이 전체 고졸 실업자의 55%를 구성한다. 실업자 중에서 친구나 학교의 알선으로 취업한 사람이 제일 많고, 광고나 구인정보로 취업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다. 실업동기를 보면, “보수가 적어서”라는 이유가 제일 많고, “장래성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그 다음이다.

근로청소년의 임금수준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4~17세는 44%, 18~19세는 51%, 20~24세는 64%밖에 안되어, 일반적으로 성인근로자의 약 절반수준에 해당한다. 단 여자의 임금은 남자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55.3%) 형편이고, 행정·

관리직의 임금수준이 제일 높아 평균임금의 2배가 넘고 생산직의 임금이 제일 낮아 평균임금의 83%밖에 안되어,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3배에 가깝다. 또 학력별 임금차이도 심해서 중졸 이하는 대졸 이상 근로자임금의 44%밖에 안된다.

전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970년의 51.6시간에서 1989년의 49.2시간으로 줄었다. 금융·용역업의 근로시간이 제일 짧은 44.6시간이며 제조·운수업이 제일 긴 50.7시간이다. 제조업의 근로시간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근로시간이 제일 길어 일본의 41.4시간보다 22% 더 길고 호주의 37.7시간보다는 34%가 더 긴 셈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 1965년부터 1987년에 이르는 동안 총재해자수는 14배 이상으로 늘었고,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2배, 그리고 신체장애자수는 무려 164배로 증가했다. 1989년 한 해만 보더라도 사망자가 1,724명이나 발생해서 하루 평균 4.7명이 일하다 사망했으며, 신체장애자는 2만 5천명이 발생해서 하루에 70명 꼴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재해자가 제일 많이 발생해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사망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광업재해자는 전체의 7%밖에 안되는데 사망자 비율은 18%나 된다. 산업재해자를 나이별로 구분하면, 25~34세 집단이 전체의 36%를 차지해 제일 많고, 24세 이하의 청소년도 21%를 차지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도 청소년 재해자가 31%나 되고, 전기·운수업에서는 25%나 되었다. 1989년 한 해에 28,450명의 청소년이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그중에서 189명은 사망했다. 근로자 전체의 안전과 동시에 청소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전체 취업자 중 현재의 일터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약 84%이며,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이 약 11%이다. 전직의사를 가진 취업자를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제일 많아 13%인데 그들의 전직 이유중 “장래성이 없다”가 1/3이 넘고 (34%), “소득수준이 낮다”가 1/3이 못된다(32%).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 산업종사자 중에 전직 희망자가 제일 많아 12%나 되고 그 이유로는 “장래성이 없다”가 제일 많다(40%).

청소년근로자의 1/5이 직장을 옮기기를 원하고, 그 이유로는 “장래성이 없다”가 제일 많고(42%), 그 다음이 “임금이 적다”(26%)이다. 여자 청소년 근로자들은 전직 희망자가 14%이고, 그 이유로는 “장래성이 없다”가 1/3이 좀 못되고(32%), “임금이 적다”가 28%이다. 특히 농·어업직의 청소년들은 절반 가까이(46%)나 전직을 희

망했다.

실제로 전직한 회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속년수가 3년 미만인 취업자들 중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전직하지 않은 사람은 51% 밖에 안되고, 조사대상자 전체의 28%가 1회, 11%가 2회, 그리고 3회나 전직한 사람은 9%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전직 회수가 적었다. 직업별로는 생산·운수직이 전직율이 높아 지난 3년간 1회이상 전직한 사람이 58%나 되었다.

전직을 희망하거나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직을 하였나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1/3이상(35%)이 실제로 구직을 했고, 전직·추가취업자의 2/3이상(68%)이 새직업으로 임금근로직을 원했다. 약 2/3가 좀 안되는(65%) 비구직자의 이유를 보면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약 1/3(33%)이었고,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비율이 29%였다. 여자는 실제로 구직한 사람의 수가 남자보다 조금 적은 31%였다. 청소년의 42%가 실제로 구직을 하고 여자 청소년 근로자도 40%나 실제로 구직을 해서 전체 근로자에 비해 청소년근로자는 남녀가 다 구직활동에서 더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중에서 구직활동을 안한 근로자들의 이유를 보면,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1/3이 좀 못되고(30%), 새 일자리를 찾으려 다닐 시간이 없어서인 사람이 약 1/4(24%)이 되었다.

요즘 근로자들이 직업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정성이고(43%), 그 다음이 수입(25%)이고, 세번째가 발전성(15%)이라고 한다. 학력별로는 고졸 근로자가 안정성을 제일 중요시 하고, 국졸 이하는 수입을, 그리고 대졸자는 발전성을 제일 중요시했다.

IV. 청소년의 여가 · 문화활동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서는 즐거움이 생기므로 원래 일과 놀이는 하나였으나, 요즘엔 일은 남을 위한 것이 되고 일을 하지 않는 여가에 놀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가에 문화적인 놀이를 하기 위한 일을 하거나,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휴식으로서 여가를 즐기게 되었다. 또 한편,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서 살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므로 청소년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가에 문화활동을 하는 기회가 소중하다.

그러나 현실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시험준비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여가시간도 없고, 할만한 문화놀이도 드물다. 이 문제해결에 밑받침이 될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으로 문화예술의 환경, 문화활동에 참가여부, 여가생활, 대중매체 이용, 친구관계와 고민거리 등을 조사하려고 한다.

IV-1. 문화예술 환경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재,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본다.

1. 공공 문화예술 시설

1) 문화재

우리 조상의 숨결이 담겨있는 문화적 유산들이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로 구분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구분된다.〈표 4-1〉을 보면, 1989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천여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유형문화재는 국보급 250여개와 보물급이 천여개가 있고 판소리나 무당굿 등 전통예술의 특기자를 지칭하는 무형문화재는 92명이다. 사적, 명승지 등 기념물은 600여개이며, 중요민속 자료는 200여개가 있다.

〈표 4-2〉에 따르면 시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모두 2,200여개인데, 유형문화재가 약 1,300개, 무형문화재가 70개, 기념물은 약 700개, 그리고 민속자료는 약 200개이

다. 이런 문화재들은 청소년들이 역사공부를 하기 위한 좋은 자료도 되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표 4-1〉 국가지정 문화재 수

(단위 : 건)

총 계	유형문화재			기 념 물				중요무형 문 화 재	중요민속 자 료
	국 보	보 물	사 적	사적 및 명 승	명 승	천 연 기념물			
1987	2,067	240	938	317	6	7	257	83	219
1988	2,169	247	1,002	327	6	7	271	90	221
1989	2,188	251	1,013	328	6	7	272	92	221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표 4-2〉 시 · 도 지정문화재 수

(단위 : 건)

	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1986	2,143	1,264	55	656	168
1987	2,235	1,298	70	681	186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통계자료집」

2) 박물관

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박물관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이 있고, 또 대학박물관이 있다(〈표 4-3〉 참조).

〈표 4-3〉 박물관 수

(단위 : 개소)

	계	국 립	공 립	사 립	대 학	기 타
1987	164	14	24	53	64	9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통계자료집」(1989)

1987년 현재 박물관 총수는 164개소인데, 그중 나라에서 세우고 관리하는 곳이 14,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곳이 24, 개인이나 재단이 관리하는 곳이 53, 대학에서 관리하는 곳이 64개소이다. 박물관을 다시 전문분야별로 구분하면, 종합박물관이 13, 문예박물관이 20, 역사박물관이 41, 과학박물관이 26개소가 있다(대학박물관은 제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통계자료집」1989. p.51)

3) 지방문화원과 마을문고

대체로 문화·예술시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의 문화·예술시설이 빈약한데, 지방문화원과 마을문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표 4-4〉). 지방문화원은 그동안 많이 늘어서 1981년의 103개소에서 1987년에는 154개소로 되었고, 마을문고의 수자는 오히려 줄었지만 장서수는 6년동안 70%나 늘어서 770만권에 달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들에게도 마을문고는 쉽게 책을 구해 볼 수 있는 장소이므로 마을문고를 확장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표 4-4〉 지역문화시설(문화원·마을문고)수

(단위 : 개소, 권)

	지방문화원수	마 을 문 고	
		문고수	장서수
1981	103	34,389	4,571,212
1982	119	35,025	6,353,322
1983	123	33,202	7,299,543
1984	130	33,202	7,299,543
1985	142	33,202(8,498)	7,299,543
1986	142	33,202(8,498)	7,299,543
1987	154	33,202(8,498)	7,735,162

주 : 1) 1983~86년도분 통계는 1984년 5월 전국실태조사 결과임.

2) ()안은 500권이상 장서를 보유한 문고수임.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통계자료집」(1989).

4) 도서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장소중의 하나가 공공도서관이다. 1970년 이후 도서관수는 약 3배로 늘어 작년에는 574개로 되었고, 그동안 도서관 좌석수는 무려 8.7배로 늘어서 약 15만석으로 되었다(〈표 4-5〉). 인구 만명당 좌석수도 5.3석에서 34.6석으로 크게 증가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쉬워졌다. 도서관의 장서는 지난 20년동안 4.8배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도서관 장서가 약 1,300만권으로 되었다. 인구 만명당 장서수는 1970년의 800여권에서 1990년에는 3,000권으로 증가했다. 도서관 이용자수는 1989년 현재 연인원 약 2,800만명으로서, 인구 만명당 6,600명이 도서관을 이용한 셈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열람자 현황을 보면, 총이용자 200만명 중에서 청소년층인 대학생이 약 절반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1/4이 넘는 52만명, 그리고 어린이가 만 7천명이었다(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1, p.825).

〈표 4-5〉 공공도서관 보급율

(단위 : 개소, 명, 권)

연도	도서관수	좌 석 수		장 서 수		이 용 자 수	
		계	인구만명당	계	인구만명당	계	인구만명당
1970	194	17,129	5.3	2,676	830	4,386	1,360
1975	259	30,830	8.7	2,682	760	8,753	2,481
1980	277	39,146	10.3	4,265	1,119	10,836	2,842
1985	388	83,782	20.5	9,040	2,215	15,981	3,916
1989	449	119,034	28.1	13,074	3,085	28,178	6,649
1990	574	148,175	34.6	12,937	3,023	...	...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5) 체육시설

1989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체육시설은 917개소인데, 1개소당 평균 면적은 27,638㎡로 한변이 약 166m인 정사각형 모양의 운동장 크기가 된다. (〈표 4-6〉) 이 중에는 체육공원이 가장 많은 398개소에 달하고, 운동장이 180개소, 체육관이 133개소

이다. 이런 시설들을 보통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거나 모자라는 시설을 확장하여 청소년의 여가활용에 큰 도움이 되어야겠다.

〈표 4-6〉 공공체육시설의 수 및 면적

(단위 : 개소, m²)

구 분	개소	면적(m ²)	구 분	개소	면적(m ²)	구 분	개소	면적(m ²)
총 계	917	25,344,095						
운동장	180	9,030,592	수영장	40	416,746	로울러	9	36,503
-육상경기장	102	7,378,561	-실내수영장	20	202,185	스케이트장		
-축구장	31	672,983	-실외수영장	20	214,561	실내로라장	5	23,930
-력비장	1	9,520	사격장	13	490,546	실외로라장	4	12,573
-하키장	1	103,916	국궁장	34	202,928	조정장	2	1,189,967
-간이운동장	45	865,612				요트장	3	262,698
			양궁장	6	79,032	씨름장	4	3,291
야구장	19	605,920	승마장	7	130,862	체육공원	389	11,161,530
싸이클장	6	227,029	골프연습장	1	4,500			
테니스장	70	264,006	빙상장	1	13,976			
체육관	133	1,223,969	-실내빙상장	1	13,976			
-일반체육관	109	1,143,269	-실외빙상장	-	-			
-전문체육관	24	80,700						

자료 : 체육청소년부, 「체육청소년통계연보」 (1990)

6) 도시공원

큰 건물들이 뻥뻥히 들어차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위치한 공원은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한다(〈표 4-7〉). 1985년 이후 도시에 공원을 많이 지어서 2,500여개에서 4,000여개로 늘어 났으나, 인구 증가로 1인당 면적은 거의 늘지 않았다. 도시 근처의 강이나 산을 이용한 자연공원이 174개소, 주거지역에 자리잡은 근린공원이 911개소, 어린이들의 놀이터인 어린이 공원이 2,907소개로 제일 많고, 묘지를 다듬어서 공원으로 만든 곳은 27개소이다.

〈표 4-7〉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m²)

	계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개소	1인당면적	개소	1인당면적	개소	1인당면적	개소	1인당면적	개소	1인당면적
1985	2,558	21.4	173	15.6	547	5.1	1,816	0.1	22	0.6
1986	3,304	22.8	168	15.3	805	6.1	2,305	0.2	26	0.7
1987	3,732	23.1	174	15.3	872	6.4	2,659	0.2	27	0.7
1988	3,732	22.4	174	15.3	872	6.2	2,659	0.2	27	0.7
1989	4,019	21.8	174	14.8	911	6.1	2,907	0.2	27	0.7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2. 개인소유 문화기구·시설

1) 가정소유 문화기구

문화생활의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인 기구의 소유상태를 보면 〈표 4-8〉과 같다. 1970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서 이런 기구를 소유하는 가구도 많이 증가했다. 1985년 현재 TV는 거의 집집마다 하나씩 소유한 셈이고(99.1%), 전화는 두집에 한대 꼴이고(48.7%), 냉장고도 약 3집중 2집이 가진 셈이고(71.1%), 세탁기는 4집중 1집이 가진 셈이(26%) 되었다.

그러나 전축은(1975) 7집에 한대, 피아노나 올건은(1985) 16집에 한대 꼴이었다. 물론, 문화기구 소유에서 대체로 도시와 농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TV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전화에서는 약 1.7대 1이고, 냉장고는 1.4대 1이며, 세탁기는 3대 1, 전축은 2.7대 1 그리고 피아노는 6대 1로 큰 차이가 난다.

지난 20년동안 이런 내구재 생산과 소유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피아노 소유가구는 6배, 전화는 10배, TV는 15배, 세탁기는 26배, 그리고 냉장고는 32배로 늘어났다.

2) 청소년 소유 문화기구·시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TV같은 문화기구를 소유한 기구가 상당히 늘어났지만 대개의 경우 부모들이 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이다. 이번에는 청소년

들이 개인용으로 소유하는 문화기구나 시설을 조사하기 위해, 독방, TV, 오디오, 컴퓨터, 전자오락기구, 카메라 등의 소유여부를 물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절반이 넘게 (56.7%) 자기 혼자 쓰는 방을 가지고 있는데 남녀간이나, 중·고등학생사이나, 대도시

〈표 4-8〉 문화시설 소유가구 비율

(단위 : %)

		연 도	전 국	시 부	군 부
전 축		1970	9.8	18.7	3.5
		1975	13.1	19.1	7.0
		1980	-	-	-
		1985	-	-	-
T V		1970	6.4	14.5	0.8
		1975	30.2	44.4	15.7
		1980	86.7	90.9	83.2
		1985	99.1	99.5	93.8
전 화		1970	4.8	8.9	1.8
		1975	9.6	13.5	5.5
		1980	24.1	30.3	16.7
		1985	48.7	56.3	33.9
냉 장 고		1970	2.2	4.6	0.4
		1975	6.5	11.7	1.3
		1980	37.8	51.5	19.1
		1985	71.1	78.7	56.1
세 탁 기		1970	-	-	-
		1975	1.0	1.9	0.1
		1980	10.4	16.1	2.5
		1985	26.0	33.7	11.0
피아노 및 율겐		1970	1.0	2.4	0.2
		1975	1.6	2.9	0.2
		1980	3.8	6.0	0.6
		1985	6.0	8.4	1.4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와 시군부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표 4-9〉). 중·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기방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활수준이 나아졌고, 또 청소년들의 자의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카세트라디오는 청소년들이 음악을 듣거나 영어회화를 공부할 때에 많이 이용하는데, 중·고등학생의 거의 3/4이(73.5%) 이 물건을 자기것으로 소유하고 있다(〈표 4-10〉). 남녀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대도시 학생이 작은 도시와 농촌 학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중·고등학생간의 차이는 용돈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소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 같다.

카메라는 청소년의 1/3도 안되는(31.6%) 소수의 사람만이 소유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 물건을 갖지 못하고 있다(〈표 4-11〉). 여기서도 남녀간에는 차이가 없고, 대도시 청소년이 농촌 청소년보다 더 많이 카메라를 가졌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카메라를 가졌다.

TV 보급율은 99%에 이르렀고, 어른과 아이 가릴 것 없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 보는데에 쓰고 있는게 현실이다(〈표 4-12〉). TV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거나 나쁜가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TV교육방송이 생긴후에는 TV가 학생들에게 필수품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개인용으로 TV를 소유한 학생은 1/4이 조금 넘는(27.4%) 정도이다.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TV를 더 많이 가졌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가졌고, 대도시와 시군부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카메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학생간의 차이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입시 준비에 바빠서 카메라나 TV를 사용할 시간이 더 적기 때문인것 같고, 카세트라디오는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더 많이 가진 것 같다.

음악감상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소중한 문화기구가 되는 오디오는 (〈표 4-13〉)조사대상 학생의 1/5도(19.4%) 안되는 소유의 사람들만 가졌다. 대도시와 시군부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는데, 남녀간이나 중·고등학생 사이엔 별로 차이가 없다.

최근에 청소년 여가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전자오락인데, 이 기구를 개인용으로 가진 학생은 전체의 1/6밖에 안된다(〈표 4-14〉). 이 기구를 가진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 비율의 두배가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의 거의 두배 그리고 대도시 청소년은 시골 청소년의 2.5배나 된다. 남녀간의 차이는 오락프로그램이 주로 남자용인 싸움을 내용으로 삼고 있고, 도시와 농촌차이는 경제적인 것이고, 중·고생의 차이는 입시준비에 따르는 여가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표 4-9〉 독방의 소유여부

(단위 : %)

		갖고있다	없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56.7	42.7	0.6	(2030)	
성별	남	58.3	41.1	0.6	(1017)	$\chi^2 = 2.62$
	여	55.0	44.3	0.7	(1013)	
교급	중	55.9	43.3	0.8	(1025)	$\chi^2 = 1.02$
	고	57.4	42.1	0.5	(1005)	
지역	대도시	57.6	41.6	0.9	(1131)	$\chi^2 = 3.24$
	시군부	55.5	44.2	0.3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표 4-10〉 카세트라디오 소유여부

(단위 : %)

		갖고있다	없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73.5	26.0	0.4	(2030)	
성별	남	72.9	26.7	0.4	(1017)	$\chi^2 = 0.00$
	여	74.2	25.3	0.5	(1013)	
교급	중	69.1	30.4	0.5	(1025)	$\chi^2 = 21.34^{***}$
	고	78.1	21.5	0.4	(1005)	
지역	대도시	81.4	17.9	0.6	(1131)	$\chi^2 = 87.68^{***}$
	시군부	63.6	36.2	0.2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요즘 우리생활이 전반적으로 컴퓨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컴퓨터 과목이 생겼다. 컴퓨터를 개인용으로 가진 학생은 (〈표 4-15〉) 전체의 약 1/6에(16.6%) 불과하다. 남자가 여자의 2.5배, 중학생이 고등학생의 1.4배 그리고 대도시 학생은 시군부학생의 3.6배나 컴퓨터를 소유했다. 위에서 살펴본 문화기구의 소유현황을 요약하면, 남자, 중학생, 대도시 청소년들이, 여자, 고등학생, 시군부 청소년보다 더 많은 문화기구를 가졌다. 값이 비싼 물건일수록 가진 사람의 비율이 작아지고, 농사에 대도

시와 시군부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겼다.

〈표 4-11〉 카메라 소유여부

(단위 : %)

		갖고있다	없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31.6	67.3	1.1	(2030)	
성별	남	31.8	67.2	1.1	(1017)	$\chi^2 = 0.04$
	여	31.5	67.4	1.1	(1013)	
교급	중	34.6	64.4	1.0	(1025)	$\chi^2 = 8.74^*$
	고	28.6	70.2	1.2	(1005)	
지역	대도시	38.4	60.6	1.1	(1131)	$\chi^2 = 52.10^{***}$
	시군부	23.1	75.8	1.1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표 4-12〉 TV소유여부

(단위 : %)

		갖고있다	없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27.4	71.9	0.7	(2030)	
성별	남	30.1	69.2	0.7	(1017)	$\chi^2 = 7.50^*$
	여	24.8	74.5	0.7	(1013)	
교급	중	30.2	69.0	0.8	(1025)	$\chi^2 = 8.60^*$
	고	24.6	74.8	0.6	(1005)	
지역	대도시	28.4	70.7	0.9	(1131)	$\chi^2 = 2.85$
	시군부	26.3	73.3	0.4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표 4-13〉 오디오 소유여부

(단위 : %)

		갖고있다	없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19.4	80.0	0.6	(2030)	
성별	남	20.5	79.1	0.5	(1017)	$\chi^2 = 2.14$
	여	18.4	80.8	0.8	(1013)	
교급	중	18.9	80.5	0.6	(1025)	$\chi^2 = 0.42$
	고	19.9	79.4	0.7	(1005)	
지역	대도시	24.8	74.5	0.7	(1131)	$\chi^2 = 46.89^{***}$
	시군부	12.7	86.8	0.6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표 4-14〉 전자오락기구 소유여부

(단위 : %)

		갖고있다	없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17.1	82.2	0.7	(2030)	
성별	남	22.6	76.9	0.5	(1017)	$\chi^2 = 43.91^{***}$
	여	11.5	87.5	1.0	(1013)	
교급	중	21.9	77.5	0.7	(1025)	$\chi^2 = 33.11^{***}$
	고	12.2	87.0	0.8	(1005)	
지역	대도시	23.3	75.9	0.8	(1131)	$\chi^2 = 72.48^{***}$
	시군부	9.2	90.1	0.7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표 4-15〉 컴퓨터 소유여부

(단위 : %)

		갖고있다	없다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16.6	82.9	0.5	(2030)	
성별	남	23.4	76.3	0.3	(1017)	$\chi^2 = 69.46^{***}$
	여	9.7	89.5	0.8	(1013)	
교급	중	19.5	80.0	0.5	(1025)	$\chi^2 = 13.18^{**}$
	고	13.5	85.9	0.6	(1005)	
지역	대도시	24.4	74.9	0.7	(1131)	$\chi^2 = 113.24^{***}$
	시군부	6.7	93.0	0.3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IV-2. 문화 · 예술활동

1. 공연과 전시물 감상

1)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을

연극, 무용 등 공연장을 찾거나 미술전시장 등을 찾는 일은 현대인의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84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공연장을 일년에 한번 이라도 찾아가는 사람이 절반도 안되고(42.6%), 전시장을 찾는 사람은 1/5(22%) 조금 넘는다(〈표 4-16〉). 5년후의 통계는 이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공연이나 전시물을 감상했다.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조금 더 많이 감상했고, 영화감상을 제일 많이하고(40.4%), 그 다음으로 박물관을(17.7%) 많이 찾아갔다. 음악, 연극, 무용보다 영화관에 더 많이 찾아간 것은 공연횟수도 더 많고 비용도 덜 들기 때문인 것 같다.

〈표 4-16〉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율

(단위 : %)

		공연장 입장율					전시장 입장율		
		계	음	악	연	극	무	용	영
	계	42.8	8.7	9.0	-	40.4	22.0	17.7	10.4
1984	남	45.2	7.5	7.9	-	43.4	21.9	18.1	9.7
	여	40.2	9.7	10.0	-	37.8	22.1	17.3	11.0
	계	36.8	7.1	7.9	1.4	34.4	16.3	12.4	7.8
1989	남	38.3	5.8	6.8	0.9	36.1	16.4	12.8	7.4
	여	35.4	8.3	9.2	2.0	32.7	16.2	12.0	8.2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2) 문화예술 행사 향수 장애요인

문화예술 행사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45.0%)와 경제적 여유(28.1%)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에도(10대-20대) 시간적 여유가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제적 여유(27.3%), 정신적 여유(13.1%)의 순이었다. 노년(60대)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27.4%)보다는 경제적 여유(37.3%) 때문에 문화예술 행사를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표 4-17〉 문화예술 행사 향수 장애요인

(단위 : 명, %)

	전체 평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4,940)	(591)	(1,922)	(1,217)	(602)	(426)	(102)
정신적 여유	14.2 (700)	11.0 (65)	15.1 (291)	12.3 (129)	15.7 (107)	16.0 (63)	19.6 (20)
지리적 여건	7.9 (390)	7.6 (45)	9.4 (181)	8.6 (104)	4.3 (29)	5.2 (22)	8.3 (9)
행사의 부족	2.8 (237)	9.0 (53)	5.3 (101)	3.5 (43)	2.9 (20)	3.0 (13)	6.9 (7)
경제적 이유	28.1 (1,388)	25.5 (151)	29.0 (557)	25.6 (312)	29.9 (204)	29.6 (126)	37.3 (38)
시간적 여유	45.0 (2,225)	46.9 (277)	41.2 (792)	50.0 (609)	47.2 (322)	46.2 (197)	27.4 (28)

주 : * () 안은 별도(응답수)임. 표본수는 5,008(명).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1988)

2. 문화예술 활동의 만족도

1)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만족도

1988년도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연구(표본은 5,088명)에 의하면 문화예술 공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61.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계층(10대-20대)은 70.3%가 불만족하다고 한 반면에 성인들은 48.8%만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하여 훨씬 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표 4-18〉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사례수)	매우만족	만족 하는편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 (관심없음)
계		(4,878)	1.1	3.6	16.1	37.4	24.2	17.6
성 별	남	(2,559)	1.2	3.5	16.5	37.0	25.3	16.5
	여	(2,311)	3.9	3.7	15.6	37.9	23.1	18.8
연 령 별	10 대	(589)	0.9	3.2	14.6	42.4	28.9	10.0
	20 대	(1,900)	1.3	3.7	14.2	43.0	26.3	11.5
	30 대	(1,205)	0.8	3.7	17.8	35.7	22.2	19.8
	40 대	(668)	0.6	3.7	18.6	30.5	21.7	24.9
	50 대	(422)	1.6	3.1	19.0	24.4	19.0	32.9
	60대이상	(94)	2.1	3.2	12.8	21.3	20.2	40.4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1988)

2) 지역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만족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88)의 연구에서 조사된 지역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표 4-19>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 5,088명중 매우 만족하는 사람이 1.1%, 만족하는 편이 4.3%, 보통이 20.0%, 불만족이 33.1%, 매우 불만족이

19.2%로 나타나 반수이상의 사람들이 불만족(52.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의 청소년층은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10대 : 62.1%, 20대 : 62.2%), 장년과 노년층은 보통이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9〉 지역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사례수)	매우만족	만족 하는편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 (관심없음)
계		(4,821)	1.1	4.3	20.0	33.1	19.2	22.3
성 별	남	(2,539)	1.2	4.7	20.8	31.2	19.6	22.5
	여	(2,273)	1.0	4.0	19.0	35.1	18.7	22.2
연 령 별	10 대	(589)	0.9	4.3	17.1	37.5	24.6	15.6
	20 대	(1,877)	1.2	4.3	17.0	39.2	23.0	15.3
	30 대	(1,186)	0.9	4.0	22.6	31.0	15.4	26.1
	40 대	(658)	0.9	4.9	23.7	25.1	15.6	29.8
	50 대	(415)	1.9	4.6	24.3	20.5	11.6	37.1
	60대이상	(96)	2.1	7.3	18.8	19.8	13.5	38.5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연구」(1988)

3) 요구되는 행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88)의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선호한 문화행사는 28가지의 행사중 연극공연(언어극)이 31.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마당극(20.5%), 판소리·창(20.1%), 민속놀이(19.6%), 농악(15.2%)의 순서였다. 연극 공연에 뮤지컬, 마당극, 인형극, 창극, 무언극 등을 포함시킨다면 모두 69.1%로 많은 사람들이 연극계통의 문화행사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좋아하는 것으로 나

〈표 4-20〉 해당지역 필요행사에 대한 선호도

(단위: 전)

	전체평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회 화 전 시 회	14.1	15.8	13.9	15.0	13.7	10.1	3.1
서 예 전 시 회	12.5	7.8	8.9	14.5	19.6	19.2	23.1
조 각 전 시 회	6.7	7.2	8.1	5.6	6.7	4.2	4.6
공 예 전 시 회	6.2	2.7	5.9	7.0	0.3	7.5	10.8
사 진 전 시 회	12.8	15.4	13.0	14.4	11.1	8.1	1.5
건축디자인전시회	8.8	6.2	9.2	9.3	9.3	9.4	4.6
산업디자인전시회	8.3	7.6	9.8	8.2	6.5	6.2	3.1
의상디자인전시회	10.8	10.9	12.7	11.3	8.3	5.5	3.1
성 악 회	10.3	10.1	10.5	11.4	9.7	9.4	1.5
기 악 연 주 회	9.3	13.1	10.3	8.4	6.0	6.2	6.2
오 페 라 공 연	6.6	7.6	8.2	5.7	4.2	4.5	-
관 소 리 · 창	20.1	10.3	17.1	19.4	22.2	31.8	44.6
아 악 · 경악연주회	2.0	1.2	2.0	1.5	3.2	2.7	3.1
한 국 무 용 공 연	10.8	12.5	8.7	11.0	11.3	14.6	15.4
현 대 무 용 공 연	4.3	5.3	5.2	3.8	2.4	2.6	4.6
발 레 공 연	5.1	7.4	5.7	4.7	4.0	1.7	-
연 극 공 연(언어극)	31.9	40.9	39.8	26.5	22.2	13.3	12.3
뮤 지 켈	10.6	12.1	13.0	9.2	9.1	4.5	1.5
마 당 극	20.5	17.2	22.3	20.7	19.2	19.8	12.3
인 형 극	2.7	3.3	2.7	4.6	1.2	1.3	-
창 극	3.1	3.7	1.7	2.1	4.2	8.1	13.8
무 연 극	0.3	0.2	0.3	0.2	-	0.6	-
쇼 공 연	13.5	17.0	11.9	14.8	15.1	11.7	6.2
씨 커 스	6.5	6.0	3.8	7.5	10.3	11.4	10.8
민 속 놀 이	19.6	16.6	16.3	19.7	24.2	28.7	36.7
시 화 전	6.2	9.9	7.1	4.4	4.4	3.2	10.8
탈 춤	12.6	9.4	13.9	11.9	11.9	13.6	15.4
농 악	15.2	10.1	10.7	20.8	20.8	31.2	32.3

주: *()안은 빈도(응답수)임. 표본수는 5,008(명). 3개 항목씩 선택.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1988)

타났다.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연극공연(언어극)이 40.9%, 마당극 17.2%, 쇼공연 17.0%, 민속놀이 16.6%, 회화전시회 15.8%, 사진전시회 15.4%의 순이었으며 2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연극공연(언어극)이 39.8%, 마당극 22.3%, 판소리·창 17.1%, 민속놀이 16.3%, 회화전시회와 탈춤 13.9%의 순이었다<표 4-20>.

3. 문화예술 교육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88)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자 5,088명중 문

<표 4-21> 문화예술 교육의 장소, 경험, 만족도

(단위 : %, 명)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교 육 경험	있다	16.2	11.7	21.2	24.2	22.3	11.3	8.3	6.9	4.8
	없다	83.8	88.3	78.8	75.8	77.7	88.7	91.7	93.1	95.2
	(사례수)	(4,852)	(2,544)	(2,299)	(586)	(1,889)	(1,185)	(666)	(422)	(104)
교 육 장소	학 교	32.7	39.0	29.1	28.4	39.2	21.8	28.2	19.1	-
	학 원	41.2	24.3	51.2	58.2	38.3	37.1	32.6	28.6	50.0
	씨 클	4.9	8.4	2.8	1.5	6.9	4.0	2.2	-	-
	개인지도	3.3	2.9	3.5	3.7	2.7	5.7	2.2	-	-
	공공단체	7.4	9.6	6.1	2.2	6.2	12.9	10.9	19.0	25.0
	직 장	2.2	4.4	0.8	0.8	1.5	2.4	8.7	9.5	-
	기 타	8.3	11.4	6.5	5.2	5.2	16.1	15.2	23.8	25.0
	(사례수)	(734)	(272)	(451)	(134)	(405)	(124)	(46)	(21)	(4)
교 육 만족 도	매우도움	41.1	42.7	40.3	35.0	41.3	43.8	54.7	23.1	80.0
	도움된 편	39.3	34.6	42.1	41.9	39.6	40.1	26.4	46.2	20.0
	보 통	15.7	20.0	13.1	16.8	15.8	13.9	13.2	26.9	-
	도움못된편	2.7	0.7	3.9	4.9	2.1	2.2	3.8	-	-
	거의 도움 못된편	1.2	2.0	0.6	1.4	1.2	-	1.8	3.8	-
	(사례수)	(783)	(295)	(487)	(143)	(419)	(137)	(53)	(26)	(5)

주 : 표본수는 5,008(명)

자료 :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연구」(1988)

화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6.2%, 없는 사람은 83.8%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예술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장소는 대부분이 학원(41.2%)과 학교(32.7%)였으며 그들은 이러한 교육에 도움이 된다(80.4%)고 만족해 하였다.

성별로 보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남자가 88.3%, 여자가 78.8%로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문화예술 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학원(24.3%)보다는 학교(39.0%)에서 교육을 더 받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학교(29.1%)보다는 학원(51.2%)에서 더 많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10대-20대)은 23.3%가 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7.8%)에 비해 교육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

IV-3. 여가활동

1. 여가시간 배분

우리국민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우리국민은 여가시간에 주로 잠을 자거나 가사잡일(44.0%)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TV를 보거나(24.5%), 스포츠 및 여행(12.3%)을 하는 것으로 나

〈표 4-22〉 여가활동 방법

(단위 : %)

	계	감 관	상 람	TV시청	창 작	적 잡기 및 취미오락 승부놀이	스포츠및 여행	수면 및 가사잡일	기 타
계	100.0	29.1	-	5.1	6.1	11.1	44.4	4.2	
1984 남	100.0	30.2	-	4.4	11.9	16.1	33.5	3.9	
여	100.0	28.1	-	5.7	1.2	6.9	53.7	4.4	
계	100.0	5.3	24.5	5.8	5.7	12.3	44.0	2.4	
1990 남	100.0	4.5	22.4	5.0	10.8	18.3	37.0	2.0	
여	100.0	6.0	26.6	6.5	1.0	6.7	50.5	2.7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1984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1984년에는 수면 및 가사잡일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감상·관람(29.1%), 스포츠 및 여행(11.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984년에 TV시청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표 4-22).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1990년의 경우 여자는 수면 및 가사잡일(50.5%)을 남자보다(37.0%) 더 많이 하는데 비해 남자는 잡기 및 승부놀이(남 : 10.8%, 여 : 1.0%), 스포츠 및 여행(남 : 18.3%, 여 : 6.7%)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서 볼 때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여가시간을 집밖에서 보내는 경향이 많고 여자는 수면 및 가사잡일, TV시청 등 집안에서 여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다.

전국민의 경우 여가시간을 주로 집에서 보내는데 반하여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이란 주로 일요일 혹은 공휴일이므로 휴일날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를 살펴본다. 한국갤럽이 1991년에 18세~24세 청소년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와 함께” “텔레비전·잡지보기” “독서 또는 음악감상” “가족과 함께” “연극, 영화, 스포츠 관람” “하는 일 없이 편히 보낸다”는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들은 “친구와 함께(60.2%)” “텔레비전·잡지를 보며(53.4%)”의 순이었으나 여자는 “텔레비전·잡지를 보며(61.7%)” “친구와 함께(56.3%)”의 순이었다. “가족과 함께”는 남자(29.3%) 보다는 여자(50.8%)가 더 많았고, “쇼핑이나 원도우쇼핑” 역시 남자(4.0%) 보다 여자(26.2%)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악기연주, 운동, 하이킹, 여행 등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별에 따라 여가활용 방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악기연주의 경우에는 20~22세 연령집단(11.8%)이 다른 집단(18~19세 : 8.5%, 23~24세 : 7.6%)보다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일 없이 편히 쉰다”고 응답한 학생이 29.7%나 되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과 그외의 생활에 지쳐 있거나 여가선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적절한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표 4-23).

이러한 휴일을 보내는 방법을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 누구와 함께 휴일을 보내는가에 있어서는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친구와 함께” 보낸다는 응답이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률을 보면, 미국, 스웨덴 등을 비롯한 구미제국에서 그 응답률이 높는데 비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낮은 편이었다.

〈표 4-23〉 청소년들이 휴일을 보내는 방법 (중복응답)

(단위 : %)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8-19세	20-22세	23-24세
하 는 일 없 이 편히	29.7	29.7	29.8	27.9	31.6	29.2
T V, 잡 지 를 보며	57.6	53.4	61.7	55.8	56.1	62.7
친 구 와 함 께	58.3	60.2	56.3	57.3	62.7	52.1
가 족 과 함 께	40.1	29.3	50.8	35.6	38.8	49.2
독서나 음악감상	47.7	42.0	53.4	54.4	46.0	40.7
악 기 연 주	9.7	11.8	7.5	8.5	11.8	7.6
취 미 생 활	14.3	13.5	15.1	13.7	14.7	14.4
쇼 핑, 원도우쇼 핑	15.2	4.0	26.2	8.5	17.8	20.3
영화, 연극, 스포츠관람	33.9	32.1	35.7	33.0	38.8	26.7
운 동	20.9	34.9	6.9	23.9	21.2	15.7
하이킹 드라이브등 근 거 리 여 행	10.8	11.6	9.9	6.0	13.5	13.1
기 타	7.7	8.0	7.3	8.5	8.2	5.5
무 응 답	0.1	0.0	0.2	0.3	0.0	0.0
(사 례 수)	(1002)	(498)	(504)	(351)	(415)	(236)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p.421-422.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에 있어서는 각국에서 “TV·잡지 등을 보며 편안히 보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영화·연극·스포츠관람” “독서”도 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국은 독서에서는 가장 높은 지적률을 보였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대체로 지적률이 낮았으며 특히 “운동” “쇼핑” “하이킹 드라이브” 항목에서 지적률이 낮았다(〈표 4-24〉).

지난 1년간 청소년들이 영화관람, 연극공연관람, 미술전시회, 음악회, 무용공연, 운동경기 참관, 박물관, 여행 등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영화관람은 5.8회, 연극공연은 0.4회, 미술전시회 0.5회, 음악회 0.6회, 무용공연 0.2회, 운동경기 관람 1.3회, 박물관 1.0회, 여행은 2.0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미술전시회(남 : 0.4회, 여 : 0.6회), 음악회(남 : 0.5, 여 : 0.8회), 그리고 무용공연(남 : 0.1회,

〈표 4-24〉 국가별 휴일을 보내는 방법(중복응답)

(단위 : %)

	1위	2위	3위	4위	5위
한 국	친구와(58.3)	T V(57.6)	독 서(47.7)	가 족 과(40.1)	영화 등(33.9)
일 본	친구와(60.5)	T V(58.7)	쇼 핑(44.3)	독 서(36.4)	하이킹 등(32.0)
중 국*	친구와(30.4)	T V(18.4)	가 족 과(17.9)	독 서(9.9)	쇼 핑(2.6)
싱가폴	친구와(76.9)	T V(59.7)	영화 등(58.5)	독 서(56.9)	가 족 과(53.4)
브라질	가족과(47.1)	친구와(44.1)	영화 등(33.6)	T V(33.1)	독 서(28.8)
미 국	친구와(71.7)	가족과(59.8)	T V(50.5)	영화 등(45.1)	쇼 핑(38.8)
영 국	친구와(59.9)	가족과 · TV(40.7)		쇼 핑(35.6)	독 서(30.1)
서 독	친구와(74.9)	T V(46.1)	영화 등(43.9)	가 족 과(39.0)	독 서(37.4)
프랑스	친구와(73.5)	가족과(47.1)	영화 등(42.9)	독 서(36.5)	운 동(35.5)
스웨덴	친구와(89.3)	가족과(58.4)	영화 등(56.9)	하이킹 등(48.4)	운 동(43.7)
호 주	친구와(78.1)	가족과(54.5)	T V(53.9)	독 서(42.6)	운 동(40.6)

주 : 중국은 하나만 응답한 결과임.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p. 276~277.

여 : 0.3회)에 있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영화관람(남 : 6.3회, 여 : 5.3회), 운동경기 관람(남 : 2.0회, 여 : 0.5회) 그리고 여행(남 : 2.3회, 여 : 1.8회)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여가선용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라서는 영화관람(중 : 4.4회, 고 : 7.2회), 연극공연(중 : 0.3회, 고 : 0.4회) 그리고 음악회(중 : 0.5회, 고 : 0.7회)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무용공연(중 : 0.2회, 고 : 0.1회), 박물관(중 : 1.2회, 고 : 0.7회) 그리고 여행(중 : 2.2회, 고 : 1.9회)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급에 따라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미술전시회(대도시 : 0.7회, 시군부 : 0.4회), 음악회(대도시 : 0.7회, 시군부 : 0.5회), 운동경기(대도시 : 1.8회, 시군부 : 0.6회)는 시군부보다는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5〉). 지역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가 이용방식이 다른 것은 미술전시회, 음악회 그리고 운동경기 등이 시군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편중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4-25〉 최근 1년간 문화활동에 참여한 회수

(단위: 회)

		영화 관람	연극 공연	미 술 전시회	음악회	무용 공연	운동 경기	박물관	여 행
	전 체	5.8	0.4	0.5	0.6	0.2	1.3	1.0	2.0
성별	남	6.3	0.4	0.4	0.5	0.1	2.0	1.0	2.3
	여	5.3	0.4	0.6	0.8	0.3	0.5	1.0	1.8
교급	중	4.4	0.3	0.5	0.5	0.2	1.3	1.2	2.2
	고	7.2	0.4	0.5	0.7	0.1	1.2	0.7	1.9
지역	대도시	5.6	0.5	0.7	0.7	0.2	1.8	0.9	2.0
	시군부	6.1	0.4	0.4	0.5	0.1	0.6	1.1	2.1

자료: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2. 여가활동비

여가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면 1989년 현재 도시가구의 교양오락비는 332,940원으로 교양오락비의 비율은 4.7%였다. 도시가구 교양오락비는 1965년 이후 25년간 331,656원의 증가를 이루었으며 교양오락비의 비율도 1975년에서 1980년의 5년간만 0.3% 하락을 이루었을 뿐 지난 25년간 3.5%의 증가율을 보였다. 농가의 교양오락비 역시 지난 1965년 558원에서 53,841원 증가하여 1989년에는 54,399원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의 교양오락비의 비율은 1980년에는 1.7%까지 되었으나 1989년에는 오히려 0.8까지 낮아졌다(〈표 4-26〉).

도시가구와 농가간의 교양오락비를 비교해보면 1965년에는 도시가구의 교양오락비에 비하여 농가의 교양오락비가 크게 뒤지지 않은 43.5%였으며 1980년에는 64.1%까지 육박하였으나 그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하여 1989년에는 16.3%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도시가구에 비하여 농가의 교양오락비가 너무도 적은 것은 소득의 격차, 생활여건 등 여러가지 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사회 제일의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한달 용돈을 알아보는 것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형태를 추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시 한달용돈을 알아 보았다.

〈표 4-26〉 여가활용비 지출률

(단위: 원)

	도 시 가 구		농 가		B/A(%)
	교양오락비(A)	교양오락비 비 율(%)	교양오락비(B)	교양오락비 비 율(%)	
1965	1,284	1.2	558	0.6	43.5
1970	9,156	2.9	1,246	0.6	13.6
1975	20,196	2.9	7,170	1.2	35.5
1980	55,800	2.6	35,755	1.7	64.1
1985	126,468	3.3	41,222	0.9	32.6
1989	332,940	4.7	54,399	0.8	16.3

주: 농가의 경우 1983년 이후 문방구비는 제외되었음

자료: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조사」;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그 결과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의 한달 용돈은 평균 16,300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6,400원, 여학생이 16,100원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11,800원, 고등학생은 20,400원으로 고등학생이 한달에 8,600원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나이가 많아 더 많은 용돈이 필요하고 부모들이 인정하기 때문이며, 또한 고등학생들이 그만큼 생활의 폭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지역은 18,600원, 시군부는 13,400원으로 대도시지역 청소년들이 시군지역의 청소년에 비해 5,200원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7). 이러한 사실은 도시지역이 시군지역에 비해 소득이 높으며 도시지역이 시군지역에 비해 다양한 소비형태로서 돈을 써야할 곳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4-27〉 한달용돈

(단위: 천원)

전 체	성 별		교 급 별		지 역 별	
	남	여	중	고	대도시	시군부
16.3	16.4	16.1	11.8	20.4	18.6	13.4

자료: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위에서 제시한 여가·문화활동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사용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문화·여가활동 형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월평균 문화비 지출분포는〈표 4-28〉에 제시되어 있다.

〈표 4-28〉 월평균 문화비 지출 분포

(단위 : %)

	(사례수)	도서 구입	전시 회	영화 관람	연극 관람	여행	무용 관람	음악 회	비디오 테이프	음반· 테이프	기타
전체	(4,871)	29.2	0.8	9.9	0.7	16.7	0.3	0.7	3.0	7.3	31.4
성별	남	(2,567)	28.9	0.9	8.3	0.6	20.3	0.2	0.5	2.9	30.3
	여	(2,297)	29.6	0.7	11.6	0.9	12.7	0.5	0.8	3.0	32.7
연령	10 대	(594)	32.7	0.7	19.0	1.0	5.2	0.5	1.0	11.1	27.6
	20 대	(1,906)	32.0	0.4	14.2	1.1	14.2	0.3	0.8	6.2	28.9
	30 대	(1,195)	29.9	0.8	5.3	0.3	17.7	0.2	0.4	7.0	31.6
	40 대	(662)	26.0	1.8	3.6	0.3	22.0	0.4	0.8	8.2	34.9
	50 대	(413)	18.7	0.5	2.4	0.3	28.8	0.2	0.5	6.5	40.2
	60대이상	(101)	12.9	3.0	-	1.0	35.6	-	-	4.9	41.6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1988)

전체 국민들의 31.4%가 기타에 지출하며 다음으로 도서구입(29.2%), 여행(16.7%), 영화관람(9.9%), 테이프·음반(7.3%), 비디오테이프(3.0%)의 순이었다. 기타를 제외한다면 도서구입, 여행, 음반·테이프 등 비교적 건전한 방향으로 문화소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다만 여행의 경우 남자는 20.3%, 여자는 12.7%로서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았으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여가활동 경험에 관한 조사에서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10대, 20대의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기타 보다는 도서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이 많았으며 영화관람은 10대가 19.0%, 20대가 14.2%로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10대는 20대에 비하여 영화관람(10대 : 19.0%, 20대 : 14.2%), 음반·테이프구입(10대 : 11.1%, 20대 : 6.2%)이 많았으며 20대는 10대에 비하여 여행(10대 : 5.2%, 20대 : 14.2%)이 많았다.

〈표 4-29〉 도서 및 음반·테이프 소유

(단위 : %)

		학습 참고서	일반 교양서적	음반·테이프
전 체		12.2	30.4	25.0
성별	남	12.2	28.7	27.4
	여	12.2	32.0	22.7
교급	중	12.0	31.1	17.6
	고	12.6	30.4	33.1
지역	대도시	14.9	42.2	32.7
	시군부	8.8	15.5	15.3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청소년들이 문화비로 많이 지출하는 항목인 도서와 음반·테이프에 대한 보유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학습참고서, 일반교양서적 그리고 음반·테이프에 대한 소유정도를 알아 보았다.

조사 청소년들은 학습참고서는 평균 12.2권, 일반교양서적은 30.4권, 음반·테이프는 25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일반교양서적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음반·테이프의 경우에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표 4-29).

교급별로는 도서류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음반·테이프에 있어서는 중학생 17.6매, 고등학생 33.1매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서류와 음반·테이프 모두에서 시군보다는 대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것은 시군보다는 도시지역의 소득이 높으며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이 시군지역 청소년보다 용돈이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3.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1990년 현재 그저 그렇다가 43.1%, 만족하지 않는다가 45%로서 전체인구의 88.1%가 여가활용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84년에 “그저 그렇다” 38.9%, “만족하지 않는다” 40%로 만족하지 않

은 계층이 78.9%인 것에 비해 9.2%나 증가한 것을 보면 6년간에 상당히 국민들이 여가활용에 대해 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여가활용방안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만족하는 비율이 10.6%인데 비해 남자가 만족하는 비율은 13.2%로서,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매우만족	약간만족	그저그렇다	별로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하지 않음
1984	계	6.3	14.8	38.9	32.3	7.7
	남	6.8	16.6	37.2	31.8	7.6
	여	5.8	13.4	40.3	32.7	7.8
1990	계	3.1	8.8	43.1	35.6	9.4
	남	3.5	9.7	42.3	35.6	8.9
	여	2.7	7.9	43.9	35.6	9.9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1)

〈표 4-31〉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

		불만	그저그렇다	만족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47.7	32.6	19.2	0.4	(2,030)	
성별	남	44.2	32.9	22.2	0.6	(1,017)	$\chi^2 = 23.05^{***}$
	여	51.3	32.3	16.2	0.2	(1,013)	
교급	중	41.6	36.4	21.6	0.5	(1,025)	$\chi^2 = 34.71^{***}$
	고	54.1	28.8	16.8	0.3	(1,005)	
지역	대도시	50.2	30.2	19.3	0.4	(1,131)	$\chi^2 = 16.48$
	시군부	44.9	35.7	19.1	0.3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청소년

년의 19.2%가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매우 불만” 16.7%, “불만”이 31.0%,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32.6%로 80.3%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전국민과 같이 청소년들도 남자의 “만족”이 22.2%인데 비해 여자는 16.2%밖에 되지않아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여가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1>).

교육별로는 중학생의 41.6%, 고등학생의 54.1%가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에는 중학생의 36.4%, 고등학생의 28.8%가 응답하여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들이 여가활동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놓여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이들을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시군부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32〉 여가활용에 대한 불만요인

(단위 : %)

	경제적부담	시간부족	교통불편	시설부족	정보부족	취미·의욕없음	기타
계	41.3	37.0	2.7	6.2	2.5	8.6	1.7
남	38.6	40.7	2.9	6.8	2.3	7.3	1.4
여	43.8	33.6	2.5	5.6	2.7	9.8	2.0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국민들의 여가활용에 대한 불만요인을 보면 1990년 현재 “경제적 부담때문”에가 41.3%, “시간이 부족하다”가 37.0%로 78.3%가 경제적 문제와 시간 때문에 제대로 여가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38.6%이고 시간부족이 40.7%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43.8%, 시간부족이 33.6%로 나타나 남성은 직장생활 관계로 경제부담보다는 시간부족이 주원인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직접 집안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경제적 문제로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2>).

4. 여행경험

여행은 우리국민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의 하나이다. 1989년의 경우 우리국민의 65.0%가 관광여행을 하여 국민 1인당 2.9회의 관광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평균 여행회수 및 해외여행 경험률(1989)

(단위: %, 횟수)

	연 간 관광여행 경험률	국 민 1인당 평균 횟수	숙박여행 경험률	국 민 1인당 평균 횟수	비숙박 여행 평균 횟수	국 민 1인당 평균 횟수	해 외 여행 경험률	1년간 경험률 (’89)
계	65.0	(2.9)	38.8	(0.8)	54.1	(2.1)	3.3	2.0
성별								
남	66.7	(3.3)	41.4	(1.0)	56.0	(2.3)	4.7	2.8
여	63.4	(2.5)	36.4	(0.7)	52.3	(1.8)	2.0	1.3
연령								
15~19세	64.3	(2.2)	41.3	(0.7)	49.0	(1.5)	0.4	0.2
20~29세	73.8	(4.0)	49.6	(1.2)	63.0	(2.8)	1.8	1.2
30~39세	67.5	(3.3)	39.0	(0.8)	57.0	(2.5)	4.0	2.5
40~49세	63.7	(2.7)	33.8	(0.7)	54.4	(2.0)	5.4	3.3
50~59세	62.3	(2.2)	33.7	(0.6)	51.8	(1.5)	4.4	2.8
60+	48.1	(1.6)	26.5	(0.5)	39.1	(1.1)	4.0	2.3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이중 38.8%가 숙박여행을 하였고 이것은 국민 1인당 평균 0.8회에 해당된다. 반면에 비숙박 경험률은 54.1%로 국민 1인당 평균 2.1회였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은 1989년 현재 3.3%였으며 국민 1인당 연간 2.0회의 비숙박 경험회수를 나타내고 있다(〈표 4-33〉).

성별에 따르면 남자의 연간 관광여행 경험률은 66.7%로 63.4%인 여자보다 3.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보다는 남자가 여행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4~19세의 청소년들의 연간 관광여행 경험률은 64.3%이고 국민 1인당 평균 2.2회로서 20세~29세와 30세~39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세~29세의 여행 경험률은 가장 높은 73.8%였는데 이 시기는 대학시절 등 인생에서 가장 여유있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해외여행은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청소년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이 여행지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에 대한 주요 요인별을 보면 여행자의 84.7%가 여행지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그중에서 바가지 요금이 2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불편 21.3%, 질서문란 11.5%, 화장실 10.4%, 숙박시설

부족 10.3%의 순으로 나타나 요금과 숙박, 교통, 질서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34〉).

〈표 4-34〉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1989)

(단위 : %)

		계	교통 불편	숙박 시설 부족	화장실	음식· 식수	바가지 요금	질서 문란	오락· 스포츠 시설부족	기타
계		84.7	21.3	10.3	10.4	7.4	21.5	11.5	2.1	0.2
성별	남	85.7	22.6	11.0	6.9	7.3	21.4	13.4	2.8	0.3
	여	83.7	19.9	9.6	13.8	7.6	21.5	9.7	1.4	0.2
연령	15~19세	85.5	14.3	13.9	12.8	10.6	15.1	13.6	5.0	0.2
	20~29세	91.1	23.9	11.7	11.6	6.7	24.5	9.9	2.6	0.2
	30~39세	87.6	24.7	9.2	11.1	6.6	23.3	10.7	1.7	0.3
	40~49세	83.3	21.1	8.9	9.9	7.0	21.5	13.5	1.2	0.2
	50~59세	77.0	18.9	8.3	7.4	7.6	21.7	12.2	0.7	0.2
	60이상	69.3	19.1	8.0	6.0	7.7	17.4	10.5	0.4	0.2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1990)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더 크게 호소한 반면에 남성은 교통불편, 숙박시설, 질서문란 등에 대하여 여성에 비해 더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숙박여행의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5~19세의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에 비하여 숙박시설 부족(13.9%), 화장실(12.8%), 질서문란(13.6%) 등에 불만을 더 크게 갖고 있으며 교통문제나 바가지 요금에 대하여는 다른 연령보다 불만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IV-4. 대중매체

1. 전파매체

1) TV

우리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은 연속극(37.5%)이며 다음이 뉴스(32.0%), 오락(11.2%), 스포츠프로(11.1%)의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3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3년에는 연속극(37.4%), 뉴스(22.8%), 스포츠(19.6%), 오락(9.1%)프로의 순으로 7년사이에 오락프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성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남자는 뉴스

〈표 4-35〉 TV선호 프로그램

(단위 : %)

		뉴스	연속극	스포츠	오락	영화	교양
1983	계	22.8	37.4	19.6	9.1	7.7	3.3
	남	35.0	12.5	37.0	7.0	6.1	2.4
	여	12.3	59.0	4.5	11.0	9.1	4.1
1990	계	32.0	37.5	11.1	11.2	6.7	1.5
	남	52.3	8.2	21.5	10.2	6.3	1.6
	여	12.9	65.1	1.3	12.1	7.1	1.5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52.3%), 스포츠(21.5%), 오락(10.2%), 연속극(8.2%)의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여자는 연속극(65.1%), 뉴스(12.9%), 오락(12.1%), 영화(7.1%)의 순이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뉴스와 스포츠프로를 선호하는 반면에 여자는 연속극을 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5〉 참조).

10대 청소년들은 성인들과는 달리 영화(44.4%), 쇼(14.6%), 코메디(10.0%)등 오락성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20대 청소년들은 영화(30.9%), 뉴스(18.8%), 쇼(10.5%)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뉴스는 10대는 6.0%, 20대 18.8%, 30대 34.3%, 40대 34.3%, 50대, 31.7%, 60대이상 33.3%로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뉴스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생활을 하게됨에 따라 뉴스등의 시사성 정보가 필요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영화, 코메디, 쇼 등 오락성 프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6〉 참조).

〈표 4-36〉 연령별 TV 선호 프로그램

(단위 : %)

	사 례 수	연 속 극	영 화	뉴 스	토 론	쇼	코 메 디	특 집 물	생활 정보	강 습	교 양	스 포츠	기 타
10대	(588)	9.2	44.4	6.0	0.2	14.6	10.0	6.5	0.3	0.8	0.7	7.0	0.3
20대	(1,894)	9.0	30.9	18.8	2.3	10.5	8.1	8.1	0.7	1.0	0.8	9.1	0.7
30대	(1,216)	17.0	13.6	34.3	3.0	3.7	6.1	7.6	2.1	1.1	0.6	10.5	0.4
40대	(679)	29.0	9.7	34.3	2.9	2.1	3.7	6.5	1.5	0.6	0.7	9.0	-
50대	(429)	40.3	5.1	31.7	2.3	2.1	4.2	3.5	2.3	0.5	1.0	5.8	1.2
60대이상	(105)	43.8	3.8	33.3	4.7	1.0	1.0	1.0	-	1.9	1.0	6.6	1.9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1988)

2) 라디오

우리국민이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국내 대중가요(38.5%), 팝송(19.1%), 클래식음악(13.3%), 뉴스(11.4%)의 순으로 주로 음악방송을 즐겨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클래식음악(남 : 10.2%, 여 : 16.6%)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여자보다 뉴스(남 : 16.9%, 여 : 5.3%)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청소년들은 국내 대중가요(49.6%)와 팝송(30.8%)을 대단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의 선호도 경우에는 10대 청소년은 1.0%, 20대에는

3.9%이던 것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60대 이상에는 36.9%에 달했다.

라디오 프로그램 선호도는 TV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TV의 경우 주로 연속극과 뉴스 등을 선호하는 반면에 라디오는 주로 음악방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라디오는 청각적 요소가 강하여 청각위주인 음악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며 TV는 영상매체이므로 영상요소가 큰 연속극과 뉴스 등을 선호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뉴스의 경우 라디오 뉴스에 비해 TV의 뉴스가 훨씬 선호도가 높은 것은 TV의 뉴스는 현장감과 생동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뉴스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로 라디오 세대이기 때문에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청소년들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4-37〉).

〈표 4-37〉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단위 : %)

	사 례 수	클래식 음악	국내 팝송 대중 가요	국내 국악	연 속 극	코 메 디	스 토론 포 츠	토론 및 해설	생활 정보	교양 날씨	날씨	
전체 (4,520)	13.3	19.1	38.5	0.7	2.0	1.1	11.4	2.1	2.2	6.0	2.3	1.3
성 남 (2,344)	10.2	18.5	37.1	1.0	1.2	1.3	16.9	3.6	2.7	4.7	1.6	1.2
별 여 (2,168)	16.6	19.7	39.9	0.6	3.0	0.9	5.3	0.6	1.6	7.4	3.1	1.3
연 10대 (594)	9.8	30.8	49.6	0.2	2.0	2.0	1.0	1.0	0.3	1.7	0.8	0.8
20대 (1,850)	17.7	25.2	44.8	0.3	0.4	0.3	3.9	1.8	0.9	2.7	1.6	0.4
30대 (1,084)	13.3	16.3	30.7	0.7	1.3	1.1	16.2	3.6	3.9	9.6	2.6	0.7
령 40대 (562)	9.1	5.0	30.2	0.9	5.2	2.1	23.3	2.5	3.5	11.6	4.1	2.5
50대 (354)	5.4	2.5	26.6	3.4	6.2	1.7	28.8	0.8	4.0	11.0	4.2	5.4
별 60대												
이 상 (76)	-	-	25.0	7.9	7.9	1.3	36.9	1.3	6.6	5.3	3.9	3.9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1988)

2. 인쇄매체

1) 신문

1987년 6·29선언 이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언론 부문에 대한 통제도 많이 완화되어 신문사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신문에

대한 구독율은 1990년 현재 66.6%로 1985년 62.2%에 비하여 4.4%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신문을 매일보는 사람은 36.3%, 주3~4회 정도가 14.2%로 나타났다. 그러나 2주에 1회 정도 보는 계층은 85년 2.6%에서 90년에는 3.9%로 1.3%의 증가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79.3%, 여자는 54.8%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24.5%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50.2%가 거의 매일 보며 이에 비해 여자는 2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38〉).

〈표 4-38〉 신문구독 빈도

(단위 : %)

	구독율	신문구독빈도			
		매 일	주3~4회정도	주1~2회정도	2주1회 정도
계	62.2	34.7	16.3	8.6	2.6
1985 남	74.9	47.6	16.8	8.1	2.4
여	50.8	23.2	15.8	9.0	2.8
계	66.6	36.3	14.2	12.2	3.9
1990 남	79.3	50.2	14.9	10.9	3.3
여	54.8	23.3	13.6	13.4	4.5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표 4-39〉 청소년의 신문·잡지 구독율

(단위 : 매, 권)

		일반신문 (일주일)	스포츠신문 (일주일)	성인용 주간지(한달)	성인용 월간지(일년)	청소년용 잡지(일년)
전체		2.7	1.1	0.3	0.6	2.9
성별	남	2.7	1.3	0.5	0.9	2.8
	여	2.7	0.8	0.2	0.4	2.9
교급	중	2.7	0.8	0.2	0.3	2.9
	고	2.7	1.3	0.4	1.0	2.8
지역	대도시	3.4	1.2	0.3	0.6	3.3
	시군부	1.9	0.9	0.4	0.7	2.4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청소년의 신문구독율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1987년의 경우 10대가 71.3%, 20대가 79.5%로 나타났다(〈표 4-41〉). 또한 청소년의 신문과 잡지 구독 빈도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신문은 일주일에 2.7회, 스포츠신문은 1.1회, 성인용 주간지는 한달에 0.3회, 성인용 월간지는 한달에 0.6회, 청소년용 잡지는 1년 2.9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9〉).

스포츠신문, 성인용 주간지, 월간지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스포츠신문, 성인용 주간지, 월간지를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부보다는 대도시 학생이 신문과 청소년잡지를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신문의 관심부분

(단위 :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해외소식	기타
계	23.2	16.1	30.5	11.8	15.7	1.9	0.8
1985 남	33.5	19.0	20.9	2.9	22.1	1.3	0.3
여	9.7	12.3	43.2	23.5	7.2	2.8	1.3
계	27.2	19.1	28.4	11.2	12.6	1.1	0.4
1990 남	39.4	18.8	19.9	2.8	18.0	0.8	0.3
여	10.6	19.4	40.0	22.6	5.3	1.4	0.7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1990년 현재 신문기사에 대한 관심영역으로 사회기사에 가장 관심이 높으며(28.4%) 그 다음으로 정치기사(27.2%), 경제기사(19.1%), 문화기사(11.2%)의 순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기사(74.4%)에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85년부터 지난 5년간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15.7%에서 12.6%로 3.1%로 낮아졌으며 사회부분에 대한 관심도 30.5%에서 28.4%로 2.1%로 낮아졌다. 성별로 보면 여자에 비하여 남자는 정치(남 : 39.4%, 여 : 10.6%)와 스포츠(남 : 18.0%, 여 : 5.3%)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에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사회(남 : 19.9%, : 여 : 40.0%), 문화(남 : 2.8%, 여 : 22.6%)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표 4-30〉). 청소년들은 1987년 현재 10대

의 경우에는 사회면(22.6%), 스포츠면(20.7%), 정치면(18.3%), 문화면(11.0%), 여가 및 오락면(10.5%)의 순이었고, 20대의 경우에는 정치면(37.3%), 사회면(27.5%), 스포츠면(10.1%)의 순으로 나타나 10대와 20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4-41〉). 이러한 현상은 20대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조사시기인 87년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표 4-41〉 청소년의 관심기사(신문)

(단위 : %)

	구독률	계(사례수)	정치면	사회면	스포츠면	여가 및 오락면	외신면	경제면	문화면	가정란	광고란	해설란
전체	80.3 (4,908)	100.0 (4,757)	36.8	26.7	9.2	3.7	1.6	7.6	7.0	2.5	2.3	2.6
10대	71.3 (580)	100.0 (580)	18.3	22.6	20.7	10.5	4.5	4.0	11.0	1.0	6.4	1.0
20대	79.5 (1,879)	100.0 (1,879)	37.3	27.5	10.1	2.1	1.4	6.5	8.7	1.4	2.3	2.7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1988)

2) 잡지

잡지 역시 1987년 이후 자율화에 따라 새로운 잡지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 현재 잡지 구독율은 27.5%, 월간잡지 구독율 20.8%, 주간잡지 구독율 9.3%, 기타잡지 구독율은 4.1%로 나타났다. 잡지 구독율은 최근 5년간을 보면 1985년에 37.2%에서 1990년에 27.5%로 9.7%나 떨어졌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잡지를 더 많이 보고 있으며 월간잡지의 경우에만 남자가 20.7%, 여자가 20.9%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4-42〉).

〈표 4-42〉 잡지 구독율

(단위 : %)

		잡지 구독율	주간잡지 구독율	월간잡지 구독율	기타잡지 구독율
1985	계	37.2	17.9	25.5	15.8
	남	39.2	20.4	24.7	18.6
	여	35.4	15.6	26.3	13.4
1990	계	27.5	9.3	20.8	4.1
	남	29.1	11.6	20.7	4.9
	여	26.1	7.1	20.9	3.5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표 4-43〉 연령별 잡지 구독율(1987)

(단위 : %, 명)

	구독률 (사례수)	시사잡지	여성종합지	문학잡지	교양종합지	진문지	연예오락지	스포츠지	만화지	취미잡지	외국잡지	종교지	기타
전체	25.6 (4,851)	42.4	19.3	2.5	16.3	10.0	25.8	4.8	2.1	7.5	2.0	1.8	5.1
연령별													
10대	19.0 (630)	10.4	7.4	0.9	17.4	10.7	32.5	4.9	3.7	20.0	2.3	0.5	35.5
20대	26.7 (2,194)	43.3	14.7	2.9	20.7	12.1	30.1	5.3	3.2	8.0	3.3	1.1	1.3
30대	29.7 (1,172)	52.3	30.5	2.6	11.5	6.8	19.1	4.5	0.6	3.6	0.7	2.2	0.2
40대	25.6 (502)	47.4	24.4	2.3	11.6	7.8	20.7	3.5	0.5	5.0	-	3.5	0.3
50대	21.3 (227)	51.4	23.5	2.2	9.0	9.8	19.7	3.3	-	0.5	-	4.7	-
60대													
이상	13.0 (40)	50.0	6.3	6.3	18.8	15.6	6.3	9.4	-	-	-	7.4	3.1

주 : 1) 구독여부 응답수 : 4,831(명).

2) ()안은 빈도(응답수)임. 표본수는 5,008(명), 개량형으로 설문.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1988)

3) 도 서

가. 도서보유 및 구입율

한 시대의 문화적도인 도서는 문화부의 발표에 의하면, 1989년 현재 38,837종, 197,

224,979부가 발행되었다. 도서의 가구별 보유량은 1990년 현재 평균 81.1권으로 1985년의 75.5권에 비해 5.6권 증가하였으며 전가구의 91.4%가 보유하여 85년의 90.1%에 비해 1.3%의 증가를 보였다(〈표 4-44〉).

1990년 현재 1~20권을 보유한 가구가 25.2%, 21~50권이 24.5%, 51~100권 19.0%, 101~200권 13.7%, 201~500권 11.5%, 500권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시지역의 보유가구 비율이 94.6%, 군지역이 82.4%로 나타났으며 평균 보유량은 시지역이 96.5권, 군지역 37.2권으로 시·군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문화의 편중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4-44〉 서적보유가구 비율

(단위 : %, 권)

	보유가구 비율	보유량						평균보유 량(권)
		1~20권	21~50권	51~ 100권	101~ 200권	201~ 500권	501권 이 상	
전국	90.1	29.3	23.7	17.5	11.6	6.3	1.7	75.5
'85 시부	92.9	23.0	23.5	20.5	14.8	8.7	2.4	96.3
군부	85.2	40.2	24.1	12.4	6.0	2.0	0.5	39.1
전국	91.4	25.2	24.5	19.0	13.7	7.5	1.5	81.1
'90 시부	94.6	20.8	24.4	21.7	16.4	9.3	2.0	96.5
군부	82.4	37.8	24.7	11.4	5.8	2.4	0.3	37.2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1989년 한해동안 도서를 구입한 인구비율은 32.8%이며 남자가 35.1%, 여자가 30.7%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도서구입 비율을 도서의 종류별로 보면 문학관계 서적이 가장 많아 22.8%였으며 다음이 종교, 사회과학 서적의 순이었다. 남자는 문학서적이 21.3%, 사회과학이 9.4%인 반면에 여자는 문학서적이 24.3%, 종교서적이 8.1%로 남자는 사회과학 서적을 더 많이 보며 반면에 여자는 종교관계 서적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5〉). 도서구입이 너무 문학위주로 치우쳐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민은 다양한 서적을 구입하여 폭넓은 교양을 쌓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도서를 만드는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드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겠다.

〈표 4-45〉 교양서적 구입 비율(1989)

(단위 : %)

	구입 인구 비율	종류별 구입인구 비율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문학	예술	어학	역사· 지리
계	32.8	5.4	7.4	6.3	1.9	4.3	22.8	2.9	5.4	5.4
남	35.1	6.4	6.7	9.4	2.6	6.7	21.3	3.4	6.9	6.7
여	30.7	4.4	8.1	3.4	1.2	2.1	24.3	2.5	4.0	4.2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나. 독서인구

독서인구는 1989년 61.3%로 1984년의 56.1%보다 5.2% 증가하였으며 평균 독서권수는 1984년의 6.9권보다 2.6권 증가한 9.5권으로 나타났다. 도서 종류별로는 교양서적이 1989년 현재 38.8%로서 1984년의 47.3%보다 8.5%나 줄어들었으며 평균 독서권수는 2.7권으로 나타났고 직업관련 서적은 15.6%로 1984년의 18.6%에 비하여 3.0%가 줄어들었고 평균 독서권수는 0.9권으로 나타났다. 84년에는 조사되지 않은 잡지는 45.5%로 평균 4.8권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도서류는 13.6%로 평균 1.1권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독서인구가 65.7%, 여자는 57.1%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적의 유형에 따라서도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관련 서적에서는 남자의 독서인구는 23.8%인데 반해 여자의 독서인구는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업한 여성의 수가

〈표 4-46〉 독서 인구비율

(단위 : %, 권)

	독서인구		교양서적비율		직업관련 서적비율		잡 지		기 타	
	비율	평균 권수	비율	평균 권수	비율	평균 권수	비율	평균 권수	비율	평균 권수
계	56.1	6.9	47.3	3.8	18.6	1.2	-	-	25.0	1.9
'84 남	63.4	8.6	51.5	4.3	30.1	1.9	-	-	25.7	2.5
여	49.6	5.4	43.6	3.4	8.3	0.5	-	-	24.3	1.5
계	61.3	9.5	38.8	2.7	15.6	0.9	45.5	4.8	13.6	1.1
'89 남	65.7	10.8	39.2	2.7	23.8	1.4	47.5	5.3	14.1	1.5
여	57.1	8.2	38.5	2.8	7.9	0.4	43.7	4.2	13.2	0.8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0)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표 4-46〉).

연령별 독서율을 보면 청소년기인 10대와 20대의 경우, 10대는 소설류 61.9%, 수필류 13.9%, 교과서 7.9%, 전문서적 5.2%, 시집류 5.1%의 순이었으며 20대는 소설류 48.7%, 전문서적 19.4%, 수필류 8.9%의 순으로 청소년들은 주로 소설, 수필 등의 문학류와 학업과 관련된 전공서적과 교과서 위주의 책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7〉).

〈표 4-47〉 연령별 독서율

(단위: %)

	연령	보유 장서 수	연간 독서 권수	주로 읽는 책 종류							
				(사 례 수)	소설류	교과서	전기류	시집류	수필류	전문 서적	기 타
	전체 평균	298.8	17.0	(3,686)	48.6	2.3	2.4	3.9	15.9	18.8	8.1
연 령 별	10대	232.0	...	(504)	61.9	7.9	2.4	5.1	13.9	5.2	3.6
	20대	379.4	...	(1,664)	48.7	1.6	1.0	4.6	18.9	19.4	5.8
	30대	273.1	...	(882)	49.1	0.9	2.6	2.4	13.8	22.3	8.9
	40대	281.1	...	(387)	39.0	2.1	5.7	2.3	13.4	24.6	12.9
	50대	173.1	...	(203)	32.0	0.5	7.9	1.5	12.3	22.7	23.1
	60대 이상	139.4	...	(46)	41.3	4.4	2.2	15.2	4.3	17.4	15.2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1988)

Ⅳ-5. 교우관계 및 고민거리

1. 교우관계

1) 친구수

인생에 진실한 친구를 하나만 얻어도 인생을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친구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친구를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1991년 한국갤럽과 본 연구에서 조사하였다. 친구를 갖고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18세~24세의 청소년의 경우 동성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55.3%, 이성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4%, 동성·이성친구가 모두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0.3%로 나타났다. 친구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1.8%였다.

〈표 4-48〉 친구의 유무

(단위 : %)

	(사례수)	동성친구	이성친구	동성· 이성모두	친구가 없 다	무응답
전 체	(1002)	55.3	2.4	40.3	1.8	0.2
성 남	(498)	53.0	3.2	41.6	2.0	0.2
별 여	(504)	57.5	1.6	39.1	1.6	0.2
연 18-19세	(351)	61.5	2.8	34.2	1.1	0.3
령 20-22세	(415)	49.6	1.9	46.3	1.9	0.2
별 23-24세	(236)	55.9	2.5	39.0	2.5	0.0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동성친구는 53.0%, 이성친구 3.2%, 동성·이성 모두 41.6%, 친구없음이 2.0%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동성친구 57.5%, 이성친구 1.6%, 동성·이성 모두 39.1%, 친구없음이 1.6%로 남자는 여자보다 이성친구와 동성·이성친구 모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또한 친구가 없는 경우도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았다. 여자는 남자보다 동성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세 사이에 동성친구나 이성친구 한쪽보다는 동성·이성친구 모두를 더 많이 사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8〉).

이상의 연구가 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본 연구의 조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의 유무보다는 친구의 수를 물어보았는데 전체 응답자들은 동성친구는 11.9명, 이성친구는 2.1명으로 이성친구보다 동성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아직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르면 남자는

동성친구는 14.0명, 이성친구는 2.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동성친구 9.7명, 이성친구는 1.8명으로 나타나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동성과 이성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별로는 중학생은 동성친구가 14.5명, 이성친구는 2.1명이었으며 고등학생은 동성친구 10.2명, 이성친구는 2.0명으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동성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입시문제에 덜 압박을 받아 친구를 사귄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 보면 시군청소년의 이성친구는 1.5명인데 반해 대도시의 이성친구는 2.5명으로 시군보다는 대도시지역의 청소년이 이성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아마도 시군보다는 대도시가 덜 보수적인 문화이므로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에 좀 더 개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우리청소년들은 주로 동성친구를 많이 사귀며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친구가 많고 대도시지역의 청소년이 시군청소년보다 이성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9〉).

〈표 4-49〉 친구의 수

(단위 : 명)

	전 체	성 별		교 급		지 역	
		남	여	중	고	대도시	시군부
동성친구	11.9	14.0	9.7	14.5	10.2	12.4	11.2
이성친구	2.1	2.3	1.8	2.1	2.0	2.5	1.5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2) 친구를 만난 장소

친구를 만나게 된 장소는 학교에서가 8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클럽이나 그룹으로 32.2%, 이웃에서 24.7%,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24.2%, 직장에서 18.2%의 순으로 주로 물리적 혹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는 여자보다는 이웃에서(10.8% 차이)나 클럽이나 그룹에서(4.6% 차이) 그리고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6.5% 차이)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자는 남자보다 직장에서(10.5% 차이) 더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향이나 직장이 같은 경우엔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길거리, 친척관계 그리고 이웃사이에 친구가 되는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줄어들어 이웃간에 정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50〉).

〈표 4-50〉 친구를 만나게 된 장소

(단위 : %)

	사 례 수	학교 에서	직장 에서	길거리 에서	여행 도중	이웃 에서	학교이외의 클럽이나 그룹에서	같은 고향이기 때문	친척 관계로	이중에 없다
전 체	(982)	88.3	18.2	6.6	3.7	24.7	32.2	24.2	6.9	0.5
성 남	(487)	86.9	12.9	7.2	4.5	30.2	34.5	27.5	6.8	0.6
별 여	(495)	89.7	23.4	6.1	2.8	19.4	29.9	21.0	7.1	0.4
연 18-19세	(346)	91.9	6.4	7.8	2.6	29.5	29.8	21.4	9.2	0.0
령 20-22세	(406)	88.4	21.4	6.9	4.9	24.4	35.0	24.1	6.2	0.7
별 23-24세	(230)	82.6	30.4	4.3	3.0	18.3	30.9	28.7	4.8	0.9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구조」(1991)

3) 친구관계의 만족도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만족이 64.8%, 약간 만족 25.2%, 약간 불만 7.8%, 불만 1.4%로 90%의 청소년들이 친구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란 서로가 어울리고 맞는다고 생각하는 관계이므로 불만족이 높다면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51〉).

〈표 4-51〉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사례수)	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불만	무응답
전 체	(1002)	64.8	25.2	7.8	1.4	0.8
성 남	(498)	66.3	25.1	7.0	1.2	0.4
별 여	(504)	63.3	25.4	8.5	1.6	1.2
연 18-19세	(351)	68.7	22.2	7.1	1.4	0.6
령 20-22세	(415)	63.4	26.7	7.7	1.7	0.5
별 23-24세	(236)	61.4	27.1	8.9	0.8	1.7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구조」(1991)

18~19세에는 만족이 68.7%, 20~22세에는 63.4%, 23~24세는 61.4%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구관계는 만족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민과 상담

1) 고민거리

우리 청소년들이 갖는 주요 걱정거리에 대한 설문 결과 <표 4-52>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의 중고생들은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고 학업과 가정의 문제를 자살과 비행 행동으로 자신들의 불안과 욕구를 분출하고 있다. 본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공부, 성적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6.3%). 그 다음으로 진학·진로문제(25.7%)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가지 고민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적은 퍼센트를 보여 학업과 진로에 관한 고민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52> 고민·걱정거리

(단위 : %)

	전 체	성 별		교 급		지 역	
		남	여	중	고	대도시	시군부
고민·걱정없다	4.5	5.5	3.5	6.5	2.4	4.4	4.6
진학·진로문제	25.7	26.0	25.5	21.8	29.8	23.3	28.7
학교공부, 성적	36.3	31.9	40.8	39.7	32.8	40.0	31.7
가족 간 불화	3.4	4.0	2.9	3.4	3.5	2.6	4.6
집안경제사정	2.4	2.6	2.3	2.0	2.9	1.9	3.1
이성문제	5.7	7.5	3.8	6.2	5.1	5.0	6.6
친구문제	5.1	3.2	6.9	4.9	5.3	5.3	4.8
돈문제	2.8	4.1	1.4	2.5	3.0	2.7	2.9
성문제	2.2	3.9	0.4	2.0	2.3	2.5	1.8
종교문제	1.0	0.9	1.1	1.0	1.0	0.6	1.4
정치, 사회문제	0.6	1.0	0.3	0.5	0.8	0.9	0.3
자신의 외모	3.3	1.9	4.8	3.6	3.1	3.2	3.6
자신의 성격	6.4	6.7	6.1	5.6	7.3	6.8	5.9
무응답	0.6	0.9	0.3	0.3	0.9	1.0	0.1
(사 례 수)	(2,030)	(1,017)	(1,013)	(1,025)	(1,005)	(1,131)	(899)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여자보다 진학·진로문제에 더 고민하며(남 : 26.0%, 여 : 25.5%), 여자는 남자보다 학교공부와 성적 등에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은 학교공부와 성적에 대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며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진학·진로의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생들은 대입과 취업 그리고 대입과정에서의 학과선택 등 앞으로의 진로문제가 바로 눈앞에 놓여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은 시군청소년에 비하여 학교공부나 성적에 의한 고민을 더 많이하며 시군청소년들은 대도시청소년보다 진학·진로의 문제에 더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진로와 학교성적에 고민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좀 더 바람직한 입시와 인간평가의 교육이 절실하다 하겠다(표 4-52).

2) 고민상담자

우리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담은 대체로 누구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본 연구에서 설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우리 청

〈표 4-53〉 고민·걱정 상의자

(단위 : %)

전 체	성 별		교 급		지 역	
	남	여	중	고	대도시	시군부
무 응 답	0.3	0.5	0.2	0.4	0.3	0.2
상의할 사람 없다	22.5	26.6	18.3	23.8	21.1	23.5
아버지	3.3	5.5	1.0	4.4	2.1	2.7
어머니	12.3	12.1	12.5	14.3	10.2	9.6
형제, 자매	9.4	8.8	9.9	10.3	8.4	11.5
선생님	1.0	1.0	1.0	1.0	0.9	1.1
친구	46.4	39.5	53.2	41.1	51.7	46.7
선배	1.1	1.2	1.1	1.1	1.2	0.9
그 밖의 사람	3.8	4.7	2.9	3.6	4.0	3.3
사 례 수	(2,030)	(1,017)	(1,013)	(1,025)	(1,005)	(1,131)
						(899)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가장 많이 상담하는 사람은 자기 또래의 친구(4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상의 할 사람이 없다(22.5%), 어머니(12.3%), 형제자매(9.4%)의 순이었다(<표 4-53>).

성별로 보면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은 상의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아버지와 문제를 상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급별로 보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친구와 고민거리를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형제에게 상의하거나 혼자 고민하기 보다 친구와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들은 어머니에게 상담하는 경우 14.5%였으나 시군청소년들은 9.6%로 나타나 대도시 청소년들이 시군청소년에 비해 어머니와 문제를 상의하는 경향이 컸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친구와 가장 많이 나누는데 자신의 또래 집단 역시 비슷한 경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상담비율도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어머니와의 대화의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청소년들의 상담의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형제자매의 상담 역할 역시 한가정에 형제자매 수가 적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사회적 기관의 확산이 필요하다 하겠다.

소 결

우리의 문화환경은 지난 30년간에 많은 발전을 하여 도서관, 박물관, 전시장, 체육시설, 공원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대표적인 문화예술환경인 문화제는 1989년 현재 총 2,188개이며 시도지정문화제도 1987년 현재 2,235개에 이르고 있다. 박물관 역시 종합, 문예, 역사, 과학박물관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는데 1987년 현재 총 164개에 이른다. 지역 문화보급의 첨병역할을 하는 문화원 및 마을문고는 1987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학문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은 1970년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여 1990년 현재 574개소에 이른다. 1989년 현재 전국의 도시공원은 4,019개이며 1인당 면적은 21.8㎡이다. 1985년에 2,558개소이던 도시공원이 1989년에는 4,019개로

1,461개나 증가했으나 1인당 면적은 1985년의 21.4㎡로 0.4㎡의 미약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도시공원이 도시인들의 바쁜 생활속에서 정신적 안정과 내일의 힘을 충전시킬 수 있는 쉼터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개인 문화시설로 보면 TV보급율은 99%가 넘으며 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 독방을 사용하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만이 쓰는 라디오, 카메라, TV, 컴퓨터 등을 가지고 있다.

많은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 중에서 우리국민은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역시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비용도 적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행사에 대하여 반수이상의 사람들이 불만족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불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보고 싶어하는 행사는 주로 연극 제통의 언어극, 마당극, 판소리, 창 등의 행사였다. 문화예술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83.8%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알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여가시간을 집에서 잠을 자거나 가사일 하면서 보내는 경향이 많았다(44.0%). 그러나 청소년들은 친구와 함께나 TV등을 보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여가 문화가 성인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가생활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오락활동비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어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 격차가 커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요인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의 문제로 나타났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의 마당과 거리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 뿐 아니라 우리국민 대다수가 여가와 문화생활의 대부분을 대중매체와 보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TV의 경우 주로 연속극을 보며 라디오를 통해서도 음악프로를 듣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의 경우에는 TV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았다. 신문과 잡지 등의 여타 언론매체들이 1987년의 6·29 선언이후에 언론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신문의 경우 1988년 현재 청소년의 79%가 구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사회와 정치 경제기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11.9명의 동성친구와 평균 2.1의 이성친구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이성친구에 대한 보수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를 주로 학교와 씨클 등에서 사귀며 사귀고 있는 친구와 대부분 만족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주로 학업과 관계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고민을 자신의 친구와 의논하며 혼자 해결하거나 부모님과 상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문화와 여가라는 방대한 부분을 다루려 하였지만 모든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였으며 앞으로 본 연구의 목적의 하나인 지표연구를 통하여 보다 완벽한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에 대한 실태 파악의 지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연령인 19세부터 24세의 연령에 대한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부분에 관한 계속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져 앞으로의 많은 연구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V. 청소년의 건강과 보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 및 보건상태가 전반적으로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 선진국의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고도성장의 역효과로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와 도시·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 문제가 청소년의 건강 및 보건상태에도 반영되고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한편에서는 과소비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 지난 몇 년간의 청소년 건강 및 보건 통계자료를 통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및 보건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V-1. 체력과 체위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급격하게 발달하는 단계이며 그들의 신장·체중·흉위 등 신체적 발달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1. 체 중

〈표 5-1〉은 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세부터 17세까지의 학생청소년들의 체중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1990년 현재 체중은 17세의 경우 남자가 61.3kg, 여자가 53.5kg으로 성인에 가까운 수치에 이르며 11세부터 13세에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5년 이전에 비하여 1985~1990년의 5년사이에 9~15세의 청소년들은 평균 약 2kg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발육상태가 급격히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신 장

청소년들의 신장은 17세가 되면 남자가 평균 170.1cm, 여자가 평균 158.6cm로 성인에 가까운 수치에 이른다. 1990년 현재 남자의 경우에는 10세에서 11세 사이에 키가 7.5cm나 증가하여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키가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12세에

〈표 5-1〉 초·중·고등학생의 체중

(단위 : kg)

	9		11		13		15		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65	24.1	23.9	28.3	27.5	36.9	38.7	49.1	47.9	54.3	51.0
1970	24.8	24.3	29.6	29.2	40.1	41.0	51.1	48.7	56.6	52.2
1975	25.5	24.9	31.0	31.2	38.9	41.2	51.1	49.0	57.5	52.1
1980	26.8	26.3	32.3	32.9	40.0	42.7	51.9	49.4	58.5	52.4
1985	27.9	27.2	33.9	34.8	43.0	44.2	53.9	50.2	59.8	52.9
1990	30.1	29.7	37.3	37.9	47.1	46.9	56.3	51.5	61.3	53.5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서 13세 사이에 가장 많이 자라는 것(6.9cm)으로 나타났다. 1965년에 비해 청소년의 신장은 평균 7~10cm의 증가를 보여 청소년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졌다는 간접지표가 된다고 하겠다(〈표 5-2〉).

〈표 5-2〉 초·중·고등학생의 신장

(단위 : cm)

	연 령 / 성 별									
	9		11		13		15		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65	124.1	125.2	132.0	131.1	145.2	145.4	158.7	154.0	163.7	156.9
1970	126.3	124.8	134.4	133.2	148.2	148.8	160.8	153.4	165.9	156.5
1975	127.8	127.3	136.8	137.6	148.7	150.5	161.6	154.9	166.8	156.8
1980	129.9	129.4	139.3	140.3	150.4	150.7	162.2	155.7	167.4	157.2
1985	135.9	131.2	141.4	143.2	154.1	153.1	164.8	156.7	169.1	157.7
1990	133.8	133.6	144.1	145.8	157.0	154.6	166.8	157.6	170.1	158.6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3. 가슴둘레

청소년의 가슴둘레는 체중·신장과 비교할 때 비교적 큰 성장을 보이지 않아 1965년에 비하여 평균 1~4cm정도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12세부터, 남자의 경우는 15세 이후에 급격히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표 5-3〉 초·중·고등학생의 가슴둘레

(단위 : cm)

	9세		11세		13세		15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65	61.9	61.9	66.7	64.9	71.3	72.2	80.1	79.0	85.2	82.3
1970	63.3	61.2	66.1	65.2	73.1	73.2	81.6	79.5	86.7	83.1
1975	62.3	61.7	66.4	66.3	72.0	73.8	80.9	80.3	86.4	82.8
1980	63.1	61.4	67.1	66.9	72.4	75.1	80.9	79.4	86.6	82.3
1985	63.8	62.4	68.2	68.5	73.9	75.9	81.4	80.0	86.4	82.2
1990	65.1	63.9	70.3	70.5	76.2	77.6	82.7	81.3	87.4	83.1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88년 현재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신장, 체중, 가슴둘레에 대한 비교가 〈표 5-4〉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청소년들이 한국청소년들에 비하여 체격조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경우에는 일본청소년에 비하여 한국청소년들이 체격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V-2. 사고와 질병

1. 주요 사망원인

〈표 5-5〉에는 연도별 주요사망원인 구성비가 나타나있다. 결핵등의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원인은 1984년 9,225명에서 1989년에는 5,58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순환기계의 질환에 의한 사망원인 역시 줄어들고 있으나 악성신생물과

〈표 5-4〉 한·일 학생 체격비교(1988)

			국교 6	중학교 3	고교 3
신 장	남	한 국	142.9	161.4	169.7
		일 본	144.1	164.1	170.3
	여	한 국	144.5	156.6	158.3
		일 본	145.9	156.3	157.6
체 중	남	한 국	35.7	50.1	60.8
		일 본	37.4	53.6	61.8
	여	한 국	36.5	49.1	53.5
		일 본	38.5	49.9	52.7
가슴둘레	남	한 국	69.2	79.0	87.0
		일 본	70.2	80.3	86.3
	여	한 국	69.5	79.2	83.0
		일 본	70.9	79.7	82.1

자료: (한국)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일본) 문부성, 「學校保健統計調査」

〈표 5-5〉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

(단위: 명, %)

		1984		1989					
		계	%	계	%	남	%	여	%
사 망 자 총 수		217,918	100.0	188,993	100.0	112,868	100.0	76,125	100.0
감 염 성 및 기 환		9,225	4.2	5,583	3.0	3,820	3.4	1,763	2.3
악 성 신 생 물		28,243	13.0	36,595	19.4	23,558	20.9	13,037	17.1
순환기계 의 질 환		64,814	29.7	56,188	29.7	30,135	26.7	26,053	34.2
호흡기계 의 질 환		9,556	4.4	8,244	4.4	4,743	4.2	3,501	4.6
소화기계 의 질 환		18,073	8.3	16,405	8.7	12,332	10.9	4,073	5.4
증 상 · 징 후 및 불 명 확 한 병 태		54,775	25.1	27,319	14.5	11,538	10.2	15,781	20.7
손 상 및 중 독		22,313	10.2	28,088	14.9	21,067	18.7	7,021	9.2
기 타		10,919	5.0	10,571	5.6	5,675	5.0	4,896	6.4

자료: 경제기획원, 「사망원인통계」

손상 및 중독에 의한 사망원인은 1984년에 비해 1989년에는 증가하였다. 순환기계통의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청소년들의 질병에 의한 사망율은 <표 5-6>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 연령층에 속하는 5~14세와 15~24세의 연령층은 순환기계의 질환(약 13%)에 의한 사망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생물, 호흡기계의 질환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분류한 것과 비슷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다(남 : 112,868명, 여 : 76,125명). 5~24세의 경우 남자의 사망인원은 7,821명, 여자의 사망인원은 3,855명으로 남자청소년의 사망인원이 여자의 2배에 달하였다.

<표 5-6> 17대분류에 의한 성·연령계층별 사망자수(분류가능)(1989)

(단위 : %)

계	0	1~4	5~14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	
사망의모든원인	188,993	1,783	2,475	3,772	7,904	11,775	15,155	28,258	31,325	40,002	46,544
－ 남 자	112,868	948	1,375	2,288	5,533	8,486	11,156	20,613	20,782	23,451	18,236
－ 여 자	76,125	835	1,100	1,484	2,371	3,289	3,999	7,645	10,543	16,551	28,308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	5,583	137	88	146	292	548	684	1,071	1,006	962	649
신 생 물	38,599	42	148	413	661	1,534	3,315	8,341	10,032	8,485	3,628
내분비,영양대사 질환과면역장애	3,745	17	11	15	50	138	241	671	916	991	695
혈 액 및 조 혈 기 질 환	325	16	8	37	50	46	23	30	42	39	34
정 신 장 애	590	1	4	10	57	70	97	92	66	76	117
신 경 계 및 감각기의질환	1,935	128	156	225	237	207	156	213	208	205	200
순환기계의질환	56,188	32	206	411	1,101	1,705	3,202	7,775	10,961	14,695	16,100
호흡기계의질환	8,244	197	215	259	213	231	339	738	1,171	1,987	2,894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통계과

2. 전 염 병

전염병에 의한 사망률은 <표 5-7>에 제시되어 있다. 전염병은 법에 1종전염병과 2종전염병으로 나누어 진다. 1종전염병의 발생은 1989년에 와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종전염병의 발생인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발생율에 비하여 사망원인은 현격히 적은바 이것은 의료시설의 발달에 그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종전염병의

〈표 5-7〉 전염병 발생 및 사망

(단위 : 명)

제 1 종 전염병													
계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파라티푸스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1985	263	—	—	41	—	208	—	2	—	12	—		
1986	349	1	—	57	—	278	1	—	—	14	—		
1987	242	1	—	37	—	184	1	1	—	20	—		
1988	492	—	—	50	—	419	—	—	—	23	—		
1989	156	1	—	11	—	133	1	—	—	12	—		

제 2 종 전염병													
계		백일해		폴리오		홍역		일본뇌염		유행성 이하선염		기타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1985	3,301	2	479	—	—	1,283	—	—	—	1,237	—	302	2
1986	3,402	2	188	—	—	1,818	—	—	—	939	—	457	2
1987	4,416	10	808	—	—	1,880	—	3	—	824	—	901	10
1988	3,367	6	565	—	—	1,579	—	1	—	759	—	463	6
1989	3,790	1	168	—	—	2,394	—	—	—	878	—	350	1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1990)

〈표 5-8〉 주요전염병 예방접종

(단위 : 명)

	홍역	장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디피티	소아마비	B형간염	일본뇌염
1985	462,841	1,702,183	1,521,283	730,665	1,936,512	2,193,789	4,450,403	2,227,958
1986	434,435	1,258,708	1,012,764	751,947	1,904,678	2,213,421	3,974,802	2,330,732
1987	783,089	1,356,170	932,616	792,199	2,131,432	2,561,326	5,064,307	11,372,315
1988	623,274	1,778,535	918,810	787,590	2,034,702	2,457,864	5,217,527	11,294,111
1989	701,543	1,580,599	284,331	769,849	2,071,580	2,454,608	5,141,967	10,942,520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1990)

경우 수인성전염병인 장티푸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하절기에 식수 등을 반드시

끓여먹는 생활습관을 갖는 개인위생교육이 필요하겠다. 2종전염병의 경우에는 홍역에 의한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은 예방이 중요한데 1987년부터 예방 접종인원이 급증하였으며 일본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이 10,942,520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5-8〉).

3. 기생충

건강상태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기생충감염은 1989년 현재 검사실시자 13,571,084명중 1.1%인 153,548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5년 이후 최근 5년간 그 감염율은 4.2%에서 1.1%로 줄어들어 건강보전상태가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국민이 좀더 청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정부의 꾸준한 기생충증 박멸을 위한 홍보와 구충사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국민은 여러 기생충중 회충(0.4%), 편충(0.4%) 그리고 요충(0.27%)에 의한 감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9〉).

〈표 5-9〉 기생충 감염

(단위 : 명, %)

검사 실시 인원					기 생 충						
계	감염자	감염율	회충	십 이 지장충	편충	요충	동양모 양선충	간디스 토 마	조충	기타	
1985	21,111,437	881,647	4.2	2.1	0.0	1.8	0.23	0.0	0.1	0.1	0.05
1989	13,571,084	153,548	1.1	0.4	0.0	0.4	0.27	0.0	0.1	0.0	0.03

주 : 검사실시 인원중 양성반응자의 비율임.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4. 결 핵

결핵은 크리스마스 썰이 판매되는 등 계속적으로 그 퇴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질병이다. 결핵감염율은 1970년 46.9%에서 1985년에는 38.7%로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38.7%란 감염율은 보여 다른 질병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표 5-10〉). 청소년의 결핵유병율은 1970년 11.0%에서 1985년 3%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다른 질병보다 상당히 높은 감염율을 보이고 있는 결핵의 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결핵감염율을 줄이는 가능한 하나의 방법은 결핵에 대

한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퇴치정책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결핵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성인·노인기에 결핵감염을 줄이는 보다 적극적인 예방교육이라 하겠다.

〈표 5-10〉 결핵감염율 및 연령층별 결핵유병율

(단위 : %)

	1970	1975	1980	1985
결 핵 감 염 률	46.9	46.9	41.7	38.7
결 핵 균 양 성 폐 결 핵 유 병 률	0.74	0.76	0.54	0.44
X선 상 활 동 성 폐 결 핵 유 병 률	4.2	3.3	2.5	2.2
5 ~ 9세	2.8	2.1	0.7	0.8
10 ~ 14세	1.9	1.4	0.5	0.4
15 ~ 19세	2.5	1.8	1.5	0.1
20 ~ 24세	3.8	2.7	2.1	1.7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통계연보」

V-3. 의료시설과 건강

1.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현황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에 대한 현황이 〈표 5-11〉과 〈표 5-12〉에 나타나 있다. 의료기관은 계속적인 급격한 성장을 보여 1989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의원이 10,740개소, 특수병원이 25개소, 치과 4,543개소, 한의원 4,021개소, 부설의원 257개소, 그리고 조산소 394개소로서 총 19,980개소의 의료기관에 93,80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병상당 인구수는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1,001명에서 549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1989년 현재 병상당 인구수는 452명으로 우리나라의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역시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 1989년 현재 의사 39,769명, 치과의사 8,630명, 간호사 211,524명, 한의사 5,435명, 약사 35,756명으로 의사 1인당 담당하는 인구는 1989년 현재 1,006명, 치과의사 4,911명, 간호사 200명, 한의사 7,798명, 약사 1,18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1〉 의료기관 및 병상수

(단위: 개소)

	총 계	병 · 의원			특 수 병 원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결 핵	나 병	정신병
1970	10,301	12	228	5,402	4	1	—
1975	11,188	37	133	6,087	4	1	—
1980	11,781	82	240	6,344	4	1	—
1985	15,154	183	317	8,069	4	1	8
1989	19,980	218	322	10,200	5	5	15
	치 과 병 · 의원	한 방 병 · 의원	부설의원	조 산 소	병 상 수	병상당인구	
1970	1,344	2,443	111	756	16,538	1,949	
1975	1,614	2,382	203	727	21,242	1,661	
1980	2,028	2,328	266	488	38,096	1,001	
1985	2,998	2,791	279	504	74,365	549	
1989	4,543	4,021	257	394	93,800	452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표 5-12〉 의료인력 현황

(단위: 명)

	의 사		치 과 의 사		간 호 사*	
	계	1인당인구	계	1인당인구	계	1인당인구
1965	10,854	2,645	1,762	16,291	8,898	3,226
1970	14,932	2,159	2,122	15,194	17,958	1,795
1975	16,800	2,100	2,595	13,596	57,065	618
1980	22,564	1,690	3,260	10,531	101,445	376
1985	29,596	1,379	5,436	7,507	165,444	247
1989	39,769	1,066	8,630	4,911	211,524	200
	한 의 사		약 사			
	계	1인당인구	계	1인당인구		
1965	2,849	10,075	10,028	2,862		
1970	3,252	9,914	14,648	2,201		
1975	2,788	12,654	19,750	1,786		
1980	3,015	12,645	24,366	1,565		
1985	3,789	10,770	29,866	1,366		
1989	5,435	7,798	35,756	1,185		

주: *간호조무사 포함.

자료: 보건사회부, 「보건통계연보」

2. 의료시설 접근 소요시간

〈표 5-11〉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1975년 11,188개소에서 1986년 16,095개소로, 4,907(69%)개소의 증가를 보였으며 1977년에 의료시설까지 가는데 15분 미만인 곳이 29.9%에서 1986년에는 43.5%로 증가하여 훨씬 의료시설의 접근이 용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부지역은 86년 현재 43.0%가 6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의료시설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의료시설의 도시집중화 현상의 결과라 하겠다(〈표 5-13〉).

〈표 5-13〉 의료시설 접근 소요시간별 가구분포

(단위 : %)

		계	15분 미만	15~29	30~44	45~59	60분 이상
1977	전 국	100.0	29.9	20.0	17.9	6.2	26.0
	시 부	100.0	39.9	25.1	20.6	6.2	8.2
	군 부	100.0	19.4	14.6	15.0	6.4	44.6
1986	전 국	100.0	43.5	21.7	10.7	3.9	20.2
	시 부	100.0	55.0	22.9	12.3	3.4	6.4
	군 부	100.0	24.4	19.6	8.2	4.8	43.0

자료 : 경제기획원, 「사회통계조사」.

3. 의료비 지출율

국민의 의료비 지출율은 매년 증가하여 1989년 현재 도시가구가 연간 387,888원, 농가가 409,772원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의료비는 398,830원으로 나타났으며 농가는 58%, 도시가구는 5.4%의 의료비 지출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 의료기관의 증가에 기인한다 하겠다. 1982년까지는 농가에 비하여 도시가구가 의료비 지출이 많았으나 1983년부터는 농가가 도시가구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1989년 현재 105.6%(농가/도시)로서 농촌이 도시에 비하여 21,884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4〉).

〈표 5-14〉 의료비 지출율

(단위 : 원, %)

	도 시 가 구		농 가		B/A
	연간의료비	의료비비율	연간의료비	의료비비율	
	(A)	(%)	(B)	(%)	
1965	2,484	2.4	2,962	2.9	119.2
1970	11,136	3.6	6,966	3.4	62.6
1975	31,572	4.5	23,101	3.7	73.2
1980	137,016	6.3	95,895	4.5	70.0
1985	208,704	5.5	246,098	5.2	117.9
1989	387,888	5.4	409,772	5.8	105.6

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조사」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

4. 의사 진료자수와 치료일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난 1년동안 병원에 방문한 회수”를 물어본 결과가 〈표 5-1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설문 중고생이 3.2회 정도 병원에 간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남 : 2.9회, 여 : 3.6회) 더 많이 병원에 갔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F=4.25$, $P<0.5$). 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3.6회, 고등학생이 2.8회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병원에 가는 회수가 적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8.81$, $P<0.01$). 지역별로 보면 시·군부보다는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더 많이 병원에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대도시 : 3.7회, 시·군부 : 2.7회; $F=8.92$, $P<0.01$).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중 의사진료자수가 1,000명당 1983년에는 36.2명에서 1989년에는 80.9명으로 늘어나 의사의 수가 증가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 : 76.9명, 여 : 84.6명). 또한 시부가 군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6〉). 청소년의 경우 5~9세의 아동이 1983년 37.6명에서 1989년에 88.7명으로 급격한 신장을 보였다.

1인당 치료일수는 1983년에는 3.9일에서 1989년에는 4.5일로 증가하였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치료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는 덜 병원에 가지만 치료일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5~24세)의 평균 치료일수는 1983년 3.7일

에서 1989년 4.0일로 증가하여 치료일수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진료자수의 증가로 볼 때 앞에서 우리의 의료기관과 인력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우리 국민의 소득증가와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기관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간 및 인력의 증가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 5-15〉 지난 일년간 병원 방문회수

(단위 : 회)

전 체	성	별	교 급 별		지 역 별	
	남	여	중	고	대도시	시군부
3.2	2.9	3.6	3.6	2.8	3.7	2.7

자료 : 청소년 생활·의식조사(1991)

〈표 5-16〉 의사진료수 및 치료일수

(단위 : 명, 일)

		진료자수(1,000명당)			1인당 치료일수		
		1983	1986	1989	1983	1986	1989
성 별	계	36.2	57.5	80.9	3.9	4.5	4.5
	남	36.2	55.9	76.9	4.1	4.7	4.6
	여	36.3	59.0	84.6	3.8	4.4	4.5
지역별	시 부	46.5	65.9	84.9	4.0	4.6	4.6
	군 부	19.7	42.2	70.6	3.6	4.2	4.2
연령별	10~14	14.6	30.8	43.1	3.5	3.6	3.3
	15~19	11.6	19.9	29.5	4.1	4.7	4.5
	20~24	15.6	34.2	42.7	4.3	4.8	4.7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5. 병원이용

병원의 이용율은 총환자수, 이환율, 활동제한일수, 외병일수, 입원환자비율, 평균입원일수, 병상이용율 등을 통해알 수 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총환자의 수는 1971년에서 1972년, 1985년과 198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89년 현재 입

원환자 27,005,908명, 외래환자 55,541,984명으로 총환자 수는 82,547,892명이며 입원환자 비율은 32.7%이고 평균 입원일수는 14일이였다. 그리고 병상이용율 78.8%였다(〈표 5-17〉).

〈표 5-17〉 입원환자 비율 및 평균입원일수

(단위 : 명, %)

	총 환 자 수			입원환자비율 (%)	평균입원일수 (일)
	계	입원환자 연 인 원	외래환자 연 인 원		
1960	5,620,533	2,057,060	3,563,473	36.6	259
1965	7,589,172	2,356,971	5,232,201	31.1	17
1970	10,656,531	3,525,396	7,131,135	33.1	14
1975	13,768,262	4,708,660	9,059,602	34.2	15
1980	30,296,303	8,446,024	21,850,279	27.9	11
1985	60,187,908	16,358,225	43,829,683	27.2	12
1989	82,547,892	27,005,908	55,541,984	32.7	14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통계연보」

〈표 5-18〉 이환율, 활동제한일수 및 와병일수(2주간)

(단위 : 일, %)

		이 환 율			활동제한일수			와 병 일 수		
		1983	1986	1989	1983	1986	1989	1983	1986	1989
성별	전 체	7.6	12.5	16.6	6.0	6.2	6.4	2.2	2.0	1.1
	남	7.1	11.5	15.0	6.0	6.2	6.3	2.3	2.0	1.0
	여	8.1	13.4	18.1	5.9	6.2	6.4	2.1	1.9	1.1
지역	시 부	9.3	14.1	17.9	6.1	6.1	6.2	2.0	1.7	0.9
	군 부	4.9	9.5	13.2	5.6	6.5	6.9	2.6	2.6	1.4
연령	10~19	3.2	6.4	8.9	4.8	5.0	4.7	1.2	1.0	0.4
	20~29	4.5	8.9	11.1	6.1	5.9	6.0	2.1	1.8	0.9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이환율은 1983년에 7.6%, 1986년에 12.5%, 1989년에는 16.6%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10세~29세)에도 1983년 3.9%, 1986년에 7.7%, 1989년에 10.8%로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 활동제한일수는 1983년에서 1989년 사이에 6.0~6.4일로 큰 변화는 없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도 5.5~5.4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와병일수는 1983년에는 2.3일 1986년에는 2.0일, 1989년에는 1.1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도 1983년에 1.7일, 1986년에 1.4일, 1989년에 0.7일로 역시 감소추세를 보였다(<표 5-18>).

6. 의료관련 의식

의료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표 5-19>에 제시되어 있다. 1986년 현재 의료인을 신뢰하는 사람이 67.5%로서 많은 국민이 의료인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1980년의 75.7%에 비해 상당히 신뢰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자세히 보면 1980년에 비교한다면 “매우 믿을만 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3%에서 7.5%로 0.8% 감소하였고 “믿을만하다”는 67.4%에서 60.0%로 7.4% 줄어들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가 2.6%에서 3.1%로 0.5% 증가하였으며 “전혀 믿을 수 없다”가 0.1%에서 0.4%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시·군보다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매우믿을 만 하 다	믿을만하다	보통이다	믿을수없다	전혀믿지 못 한 다
1980	전 국		8.3	67.4	21.6	2.6	0.1
	시 부		9.4	68.2	19.5	2.7	0.2
	군 부		6.9	66.4	24.1	2.5	0.1
1983	전 국		8.3	55.4	31.9	3.9	0.5
	시 부		7.5	55.0	33.2	3.8	0.5
	군 부		9.8	56.2	29.6	3.9	0.5
1986	전 국		7.5	60.0	29.0	3.1	0.4
	시 부		6.0	60.1	30.5	3.0	0.4
	군 부		10.1	60.0	26.3	3.3	0.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불만족의 정도와 이유가 <표 5-20>에 제시되어 있다. 1989년 현재 우리국민은 보통이 46.4% 불만(약간불만+매우불만)이 38.3%로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이 84.7%로 대다수의 국민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별, 지역에 따라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의료서비스의 과다한 비용(32.2%)과 불친절(31.5%)에 주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에서는 시부의 경우에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군부의 경우에는 지역편재(33.8%)가 상당한 부분을 보여 의료시설의 편중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상당한 국민이 의료인과 의료시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인 자신의 노력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5-20>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1989)

(단위 : %)

		만		족		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	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성별	전 체	2.9	12.4	46.4		31.2	7.1		
	남	2.9	12.5	46.8		30.4	7.4		
	여	3.0	12.3	46.0		32.0	6.7		
지역	시 부	2.5	11.1	47.8		31.3	7.3		
	군 부	4.0	15.9	42.7		31.1	6.3		
		불		만		이		유	
		계	지역편재	시설미비	불친절	비용과다	치료미흡	기	타
성별	전 체	100.0	11.3	7.3	31.5	32.2	16.1	1.6	
	남	100.0	10.4	8.2	31.6	31.2	16.8	1.8	
	여	100.0	12.1	6.4	31.4	33.1	15.4	1.6	
지역	시 부	100.0	3.3	5.3	35.0	36.9	17.7	1.8	
	군 부	100.0	33.8	12.8	21.5	19.1	11.5	1.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V-4. 건강관리

1.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가〈표 5-2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설문학생의 42%가 건강하다, 38.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약 80%의 학생들이 자신이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19.6%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야하겠다. 성별, 교급, 지역에서 모두 비교적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1989년 현재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82.2%에 달하였다(〈표 5-22〉). 청소년들(15~29세) 역시 93.2%가 자신들이 보통 이상의 건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6년에 비하여 1989년에는 16.3%에서 20.0%로 3.7% 증가하여 건강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20대와 30대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우리국민의 건강상태가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개인의 건강평가

(단위 : %)

	허약한편	보 통	건강한편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19.0	38.3	42.0	0.1	(2030)	
성별	남	20.3	35.2	44.4	0.1	(1017)
	여	18.9	41.4	39.6	0.2	(1013)
교급	중	17.6	35.8	43.4	0.2	(1025)
	고	21.6	40.8	37.6	0.1	(1005)
지역	대도시	20.3	38.2	41.3	0.3	(1131)
	시군부	18.8	38.4	42.8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표 5-22〉 개인의 건강평가

(단위 : %)

	매우건강함	건강한편	보통	건강치못함	매우나쁨
계	8.9	39.8	34.7	14.5	2.1
14~19	16.3	51.7	27.1	4.5	0.4
20~29	10.5	45.9	34.4	8.3	0.9
1986 30~39	7.5	39.1	38.8	13.2	1.4
40~49	5.9	34.3	37.6	19.1	3.1
50~59	3.8	29.3	37.5	25.5	3.9
60+	4.7	26.1	32.6	30.7	5.9
계	11.2	43.6	27.4	15.6	2.2
15~19	20.0	53.3	21.7	4.5	0.5
20~29	15.0	50.8	25.6	7.8	0.8
1989 30~39	10.5	45.4	29.5	13.5	1.1
40~49	7.9	40.2	30.1	19.6	2.2
50~59	5.9	34.9	29.4	25.8	4.0
60+	3.7	27.6	28.4	33.0	7.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 식생활 행태

1) 영양 섭취량

밥을 잘먹는 것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는 말처럼 적당한 양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1988년 경우 우리나라인이 하루동안에 섭취한 영양소 섭취량은 소요량은 2,075cal 93%에 해당하는 1,935cal이며 곡물에 의한 섭취비율은 67%였다. 그러나 단백질의 경우는 섭취량이 92g으로 소요량인 66g의 139%였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45g으로 50%정도가 동물성단백질에 의한 섭취였다(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0, p.357).

2) 식생활 행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식생활 행태에 대한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청소년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정도의 식사(89.8%)를 하며 세번 이상

의 식사(81.2%)를 하고 한끼의 식사량은 알맞게 먹는 것(62.9%)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골고루 음식을 먹는” 청소년도 46.5%가 되지만 편식을 하는 청소년들도 42.1%나 되어 청소년들의 식습관에 대한 부모들의 지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식생활 행태는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 하루 2번 먹는 청소년이 남자는 12.1%를 보인 반면 여자는 25.8%나 되어 여성들의 다이어트 습관을 보여준다 하겠다(〈표 5-23〉).

〈표 5-23〉 식생활 행태

(단위 : %)

	계	성		지 역 ¹⁾			학 교		
		남	여	서울	시부	군부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명)	14,539	7,198	7,341	6,436	3,772	4,170	5,209	5,209	4,677
(%)	100.0	49.5	50.5	44.8	25.9	28.7	35.8	35.8	32.2
식 사 량									
— 매번 일정량을 섭취함	26.4	29.3	23.4	26.6	27.7	25.1	39.4	22.7	17.4
— 매번 약간의 차이있음	61.4	58.9	63.9	60.8	61.5	62.6	52.2	65.4	66.1
— 매번 큰폭의 차이있음	12.2	11.7	12.7	12.7	10.8	12.7	8.4	11.8	16.5
하루 식사 회수									
— 두 번	18.9	12.1	25.8	22.7	15.3	16.1	15.9	17.1	23.9
— 세 번	72.0	75.0	68.8	67.2	76.2	75.6	76.5	72.0	67.3
— 네 번 이상	9.2	12.9	5.7	10.2	8.4	8.3	7.5	10.9	8.8
한끼 식사량									
— 많이 먹는 편이다	20.3	23.3	17.1	21.3	19.4	19.3	16.4	20.8	23.1
— 적게 먹는 편이다	16.8	15.7	18.0	16.8	17.0	16.8	18.5	16.7	15.4
— 알맞게 먹는 편이다	62.9	61.0	65.0	61.8	63.6	63.9	64.0	62.5	61.5
식 습 관									
— 좋아하는 음식만	42.1	41.0	43.2	43.1	43.5	39.2	42.1	42.8	41.1
— 먹는 편임									
— 모든음식은 골고루	46.5	46.7	46.4	45.0	45.3	50.2	40.5	46.4	53.0
— 먹는 편임									
— 부모님이 권유하는 음식은 모두 먹는 편임	11.4	12.3	10.4	11.9	11.2	10.6	17.4	10.8	5.9

주 : 1) 시부와 군부는 충북, 전북지역에 한함.

자료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학교 보건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Ⅱ)」(1989)

3) 식사시간

청소년들의 식생활 행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식사시간에 소비하는 시간을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식사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5-24>에 제시되어 있다. 식사시간은 1990년 현재 평일과 토요일에는 1시간 41분, 일요일에는 1시간 49분으로 나타나있으며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 일 : 60대 (2.01) > 70세 이상 (1.58) > 50대 (1.53) > 40대 (1.50) > 30대 (1.47) > 20대 (1.38) > 16~19세 (1.29) ≒ 10~15세 (1.28)
 토요일 : 60대 (2.11) > 70세 이상 (2.02) > 50대 (1.56) > 30대 (1.51) ≒ 40대 (1.50) > 20대 (1.38) > 10~15세 (1.22) ≒ 16~19세 (1.21)
 일요일 : 60대 (2.13) > 70세 이상 (2.06) > 50대 (1.57) > 40대 (1.53) ≒ 30대 (1.51) > 20대 (1.43) ≒ 10~15세 (1.42) ≒ 16~19세 (1.40)

연령별로 볼 때 식사시간이 가장 긴 연령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60대이며 가장 짧은 연령은 평일 10~15세, 토요일과 일요일은 16~19세이다. 연령이 많을수록 식사시간량이 많으며 식사시간이 가장 긴 연령과 가장 짧은 연령간의 차이는 평일 33분, 토요일 50분, 일요일 33분이나 된다. 남녀 연령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항은 식사시간량이 가장 긴 연령은 남녀 모두 10~15세이며, 가장 짧은 연령층은 남자가 16~19세인데 반해 여자는 10~15세라는 점이다. 청소년연령층의 식사시간이 요일에 관계없이 가장 짧은 것은 그들이 입시등으로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KBS, 「국민생활시간조사」 1991, p.34).

<표 5-24> 식사시간 변화

	1981	1983	1985	1987	1990
평 일	1.35	1.38	1.35	1.37	1.41
토 요 일	1.34	1.38	1.37	1.37	1.41
일 요 일	1.42	1.47	1.44	1.45	1.49

자료 : KBS, 「국민생활시간조사」(1991)

4) 아침식사

현대인은 아침을 거르는 수가 많다. 청소년들 역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찍 등교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침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일주일중 2~3일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5〉).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남 : 2.0회, 여 : 2.7회),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표 5-25〉 일주일에 아침을 거르는 회수

(단위 : 회)

전 체	성 별		교 급		지 역	
	남	여	중	고	대도시	시군부
2.4	2.0	2.7	2.1	2.7	2.6	2.0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표 5-26〉 아침식사 여부 및 못먹을시 그 이유

(단위 : %)

	계	성		지 역			학 교		
		남	여	서울	시부	군부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명)	14,539	7,198	7,341	6,436	6,597	3,772	4,170	5,209	4,677
(%)	100.0	49.5	50.5	44.8	45.4	25.9	28.7	36.3	32.2
아침식사									
— 매일 꼭 먹는다	46.9	55.1	38.4	42.9	47.3	52.5	54.0	47.2	39.1
— 거의 먹는 편이다	31.6	29.1	34.1	29.4	34.7	32.3	32.3	30.7	32.1
— 거의 안먹는다	21.5	15.8	27.4	27.7	18.0	15.2	13.9	22.1	28.8
못먹는 이유*									
— 시간이 없어서	45.9	43.9	47.4	47.6	46.9	41.6	33.4	49.4	52.1
— 입맛이 없어서	31.7	35.4	28.9	27.3	32.8	38.8	44.0	29.0	24.8
— 습관적으로	15.2	13.5	16.6	18.8	12.6	11.4	13.3	14.2	17.9
— 반찬이 마음에	3.2	3.1	3.3	2.1	4.1	4.2	4.0	2.8	2.2
— 안돌아서									
— 기 타	3.0	3.1	3.9	4.2	3.7	4.0	4.3	4.6	3.0

주 : * 조사대상자수는 “매일 꼭 먹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을 제외한 7,620명임.

자료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학교 보건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Ⅱ)」(1989)

(중 : 2.0회, 고 : 2.7회), 그리고 시·군보다는 도시지역의 청소년이(시·군 : 2.0회, 도시 : 2.6회) 더 자주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학생이 21.6%를 차지했으며 남자보다 여자가(남 : 15.8%, 여 : 27.4%), 서울이 군지역보다(서울 : 27.7%, 군 : 15.2%)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표 5-26〉).

아침을 먹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45.9%) “입맛이 없어서”(31.7%)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른 아침시간에 쫓기고 일찍 일어나 밥맛이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 건강관리 방법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70.3%가 건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운동 9.1%, 식사조절 7.0%, 보약·영양제 복용 6.5%, 기타 3.6%, 담배·술절제 3.5%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14.5%)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표 5-27〉 건강관리 방법

(단위 : %)

		계	운 동	식사 조절	담배· 술절제	보약·영 양제복용	기 타	아무것도 하지않음
	계	100.0	9.1	7.0	3.5	6.5	3.6	70.3
성별	남	100.0	14.5	4.9	7.0	6.5	3.9	63.2
	여	100.0	4.3	8.9	0.3	6.6	3.3	76.6
지역	시 부	100.0	10.9	8.7	4.1	6.8	4.6	64.9
	군 부	100.0	4.6	2.6	2.1	5.8	0.9	84.0
연령	15~19	100.0	13.1	6.4	0.4	2.1	1.3	76.7
	20~24	100.0	12.9	10.2	2.4	2.5	3.6	68.4
	25~29	100.0	10.7	7.7	4.3	4.6	4.5	68.2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여자는 식사조절(8.9%)에 의한 건강관리 하는 사람 많았다. 지역별로는 군부보다는 시부가 운동과 식사조절에 의한 건강관리하는 사람이 많아 지역적 특성을 보였다. 청소년

년들(15~29세)은 운동(12.2%), 식사조절(8.1%)에 의한 건강관리 방법을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보약·영양제 복용(11.9%)에 의한 건강관리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연령에 따라 건강관리의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5-27〉).

〈표 5-28〉 일주일에 운동하는 회수 (단위: 회)

전 체	성	별	교 급 별		지 역 별	
	남	여	중	고	대도시	시군부
2.3	3.0	1.7	2.6	2.1	2.3	2.3

자료: 청소년 생활·의식조사(1991)

〈표 5-29〉 운동실시 빈도 및 비실시 이유 (단위: %)

	계	성		지 역			학 교		
		남	여	서울	시부	군부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명)	14,539	7,198	7,341	6,597	3,772	4,170	4,653	5,209	4,677
(%)	100.0	49.5	50.5	45.4	25.9	28.7	32.0	35.8	32.2
운동빈도 ¹⁾									
— 매일한다	19.4	26.4	12.1	22.1	16.3	18.0	25.1	17.2	16.0
— 1주일에 4~6회한다	26.2	31.5	20.6	26.8	24.8	26.5	28.0	29.0	20.9
— 1주일에 2~3회한다	29.8	24.7	35.1	28.9	30.5	30.6	23.9	32.7	32.5
— 1주일에 1회한다	14.4	10.6	18.4	12.0	17.4	15.3	13.4	12.4	17.7
—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10.3	6.8	13.8	10.3	11.0	10.6	9.6	8.6	12.8
운동을 하지않는 이유 ²⁾									
— 피곤해져서 공부하는데	20.2	23.1	17.3	19.9	20.4	20.6	23.1	19.0	18.7
— 지장있다									
— 운동에 관심이 전혀 없다	10.8	8.6	13.1	10.1	10.6	12.1	12.3	11.0	3.0
— 적당한운동종류를 모른다	9.4	8.4	10.4	9.3	8.5	10.3	9.6	9.3	9.2
— 운동할 장소가 없다	12.9	15.7	10.1	14.5	12.0	11.3	9.1	15.2	14.3
— 운동할 시간이 없다	25.4	24.3	26.6	24.1	29.9	23.5	24.2	23.6	28.7
— 운동을 싫어한다	11.9	7.7	16.2	10.5	11.7	14.2	12.8	11.6	11.3
— 기 타	9.3	12.3	6.5	11.7	6.8	8.0	8.9	10.3	8.7

주: 1) 운동 20분정도의 땀흘리는 숨가쁜 신체운동을 말함.
 2) 조사대상자수는 매일운동을 하는 2,778명을 제외한 11,583명임.
 자료: 한국 인구보건 연구원, 「학교 보건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Ⅱ)」(1989)

1) 운 동

건강관리 방법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운동을 청소년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운동하는 회수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가 <표 5-2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2~3회 운동을 하고 있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남 : 3.0회, 여 : 1.7회),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중 : 2.6회, 고 : 2.1회) 더 많이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보건연구원(198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일주일에 2~3회가 29.8%, 1주일에 4~6회가 26.2%를 차지하였다(<표 5-29>).

운동을 자주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25.4%, “피곤해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가 20.2%로 주로 학업에 관련된 문제였다. “운동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10.8%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 체육교육을 보다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하겠다.

2) 음주와 흡연

우리국민의 60.7%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그중 5.9%는 담배를 피우다 담배를 끊

<표 5-30> 흡연 인구비율

(단위 : %)

		흡 연 여 부			흡 연 량			
		안피움	끊었음*	피움	반갑이나	한갑	한갑반	두갑이상
성별	계	60.7	5.9	39.3	29.8	58.1	9.4	2.7
	남	24.6	27.2	75.4	25.9	61.0	10.1	3.0
	여	92.4	1.0	7.6	63.3	32.9	3.0	0.8
지역	시 부	61.8	6.1	38.2	32.0	56.4	8.7	2.9
	군 부	58.1	5.5	41.9	24.8	61.7	11.0	2.5
연령	20~24	67.8	1.8	32.2	42.3	53.3	3.6	0.9
	25~29	59.3	3.7	40.7	30.9	60.8	7.0	1.4

주 : * 안피운 사람중 끊은 사람의 비율임.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30>).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중 87.9%는 한갑이하로 피우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남자는 75.4%가 담배를 피우며 여자는 92.4%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 담배가 성별에 따른 기호품인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20~24세)의 경우에는 67.8%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인구는 1986년에는 48.3%에서 1989년 현재 57.0%로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1989년 경우 53.2%나 더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담배와 함께 술도 남성들이 훨씬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20~29세)은 1986년 49.2%의 음주인구에서 1989년에는 60.9%로 11.7%나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에 비하여 가장 높은 음주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5-31>).

<표 5-31> 음주인구 비율

(단위 : %)

	음주인구	음 주 횟 수			
		월1회미만	월2~4회	주2~4회	거의매일
계	48.3	13.6	18.3	10.6	5.8
1986 남	80.1	14.4	33.2	21.1	11.4
여	20.6	12.8	5.4	1.4	1.0
계	57.0	16.6	22.2	12.4	5.8
1989 남	85.3	12.2	37.1	24.6	11.4
여	32.1	20.4	9.1	1.8	0.8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소 결

우리 국민 및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보건관련시설 등은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여 점차 선진국의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은 지난 25년간에 많이 향상되어 신장은 1965년에 비하여 평균 7~10cm의 증가를 보였다. 체중에 있어서 9~15세의 청소년층은 1985년과 1990년의 5년사이에 2kg의 증가를 보였다. 몸무게와 신장 그리고 얇은 키는 일본에 여전히 뒤지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여 그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지속적인 질병예방의 노력으로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주요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순환기계통의 질환이었다. 전염병의 발병 역시 방역과 예방으로 많이 줄었다.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의 발병이 가장 많으므로 하절기에는 반드시 물을 끓여 먹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다. 결핵의 전염은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다른 질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적인 청소년 대상의 예방교육이 요청된다.

의료시설은 1989년 현재 전국에 19,980개소의 의료기관에 93,80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 39,769명, 치과의사 8,630명, 간호사 211,524명, 한의사 5,435명, 약사 35,756명으로 의사 1인당 담당하는 인구는 1989년 현재 1,066명, 치과의사, 4,911명, 간호사 200명, 한의사 7,798명, 약사 1,18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은 계속 증가하였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과다한 비용과 불친절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의료시설이 많아지기는 하였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시설 분포의 불균형으로 농촌의 의료서비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80%가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했으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대다수의 국민은 특별한 것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연령에 비하여 청소년층은 운동과 식사조절을 통한 건강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식사시간은 모든 연령 중에서 가장 짧으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21.6%로 나타났다. 음주와 흡연의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본연구에서 실시한 중고생 대상의 자료와 국가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신뢰성을 가진 기관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중심의 자료를 많이 발견하지 못하여 건강과 보전에 관한 전연령층의 자료가 많다는 약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통계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청소년 연령에 맞는(9~24세)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VI. 소년비행

오늘날 우리사회의 소년비행은 양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점차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소년비행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소년비행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고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소년비행의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와 공식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비행의 현황과 동향을 개관하기로 한다.

본문의 구성은 크게 소년비행의 현황, 소년범죄의 동향, 청소년의 범죄피해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VI-1. 소년비행의 현황

우리나라의 소년비행이 어떠한 양태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사회에서 소년비행의 온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각종 유해환경의 종류와 청소년의 접촉실태 및 소년비행의 구체적인 행위유형별 경험정도를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개관하기로 한다.

1. 유해환경과 소년비행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는 생활주변의 환경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유해환경은 고정적·실체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가변적·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해환경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유해환경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들 유해환경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또한 유해환경과 소년비행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도종수 외 3인, 1990)는 앞서 제시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연구사례로 평가된다.

여기서는 위의 연구에서 설정한 유해환경의 유형구분(시설 및 장소, 물품·악물류, 대중매체)에 따라 각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실태, 유해도 평가, 비행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시설 및 장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각종 시설·업소 및 장소를 제시하고 지난 1년동안 이용경험 여부와 유해성의 여부를 판단하여 응답케 한 결과는 〈표 6-1〉과 같다.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학생보다는 고교생이, 학생보다는 근로청소년들이 생활주변의 각종 시설·업소에 대한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또한 이들 시설·업소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이용경험의 정도, 유해도의 평가수준을 기준으로 응답결과를 유형화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일년동안 청소년들의 이용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시설·업소는 분식점, 제과점, 공원으로써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시설·업소가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이용율이 높은 시설·업소는 경양식점, 패스트푸드점, 전자오락실, 소극장, 롤라스케이트장, 만화가게, 비디오가게로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 전자오락실, 비디오가게, 만화가게, 소극장은 30~50% 내외의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평가한 반면, 경양식점, 패스트푸드점은 별로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0% 내외의 청소년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설·업소로는 포장마차, 음악감상실, 카페, 사설독서실, 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업소를 들 수 있다. 이들 중 카페, 숙박업소는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평가하였고, 포장마차는 대체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25.5%), 사설독서실(15.8%)은 별로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유흥가, 심야만화가게, 음란물 노점상, 사창가, 성인오락실, 퇴폐이발소는 남자 고교생, 근로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소수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었

〈표 6-1〉 시설 및 장소의 이용율과 유해도 평가

(단위 : %, 명)

	이 용 경 험				유해도 평가			
	계	중	고	근로	계	중	고	근로
공 원*	80.0	73.9	75.8	92.0	4.6	7.4	4.2	2.4
숙 박 업 소	22.9	16.3	17.3	41.3	56.8	61.8	54.7	50.2
전자오락실*	64.1	66.0	76.3	63.6	49.1	49.6	33.2	35.4
성인오락실	6.7	2.8	6.2	13.7	86.2	92.9	86.0	75.9
롤라스케이트장*	59.0	57.4	56.3	62.9	22.3	28.6	22.6	9.9
퇴폐이발소	4.0	3.7	2.4	6.6	89.3	90.7	91.6	83.6
경양식 집	71.0	55.0	77.7	87.6	12.7	22.6	6.2	5.7
카 페	32.0	8.7	32.8	68.1	55.8	74.1	51.1	32.8
포장마차	39.8	24.6	35.6	70.0	25.5	33.6	20.5	19.1
음악감상실	34.7	22.8	24.5	68.2	6.5	8.4	5.5	5.0
만화가게*	56.6	56.7	74.9	62.1	39.4	42.0	23.3	28.0
심야 만화가게	10.0	4.7	10.5	17.8	84.1	88.5	84.2	76.8
사설 독서실*	26.4	38.4	57.8	54.2	15.8	23.4	11.7	12.1
제과점*	91.1	88.2	92.0	94.9	2.2	2.6	1.5	1.7
분식점*	92.5	90.6	95.6	96.0	5.2	4.7	1.6	2.5
패스트푸드점*	69.8	67.5	72.2	73.5	8.2	9.2	5.1	5.9
비디오가게*	50.6	50.2	53.7	43.4	41.4	43.4	36.4	40.1
음란물노점상*	9.5	6.6	14.4	13.2	83.4	90.2	87.3	83.6
사창가	7.8	3.6	7.1	15.5	82.9	84.1	86.1	76.8
유흥가	15.1	5.8	17.3	27.1	84.7	88.2	86.8	76.3
소극장	62.1	44.7	67.7	74.3	30.5	40.9	25.3	21.1

주 : 1) 유해도는 “해롭다” 또는 “아주 해롭다”고 응답한 비율임.

2) *표시 항목은 국민학생들에게도 질문하였으나 그 응답결과는 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1990)

다. 그러나 각 시설·업소에 대해서 유해하다고 평가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모두 80% 이상에 달하여 이들 시설·업소가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시설·업소의 이용경험과 비행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면, 대체적으로

소수의 특정 청소년들(남자 고교생, 근로청소년) 사이에서만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업소일수록 비행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카페, 숙박업소, 유흥가, 심야만화가게, 음란물 노점상, 사창가, 성인오락실, 퇴폐이발소 등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들 시설·업소는 청소년 자신들의 평가나 비행과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매우 유해한 시설·업소로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물품·약물류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약물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율과 유해도의 평가는 <표 6-2>와 같다.

각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검토해 볼 때 주목되는 점은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제와 히로폰, 마리화나 등 마약류의 이용경험과 유해도에 대한 평가에서 중학생과 고교생간에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 약물류가 극히 소수이기 는 하지만 연령에 구분없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급히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6-2> 물품·약품류의 이용 경험과 유해도 평가

(단위 : %)

	이 용 경 험				유해도 평가			
	계	중학생	고교생	근로청소년	계	중학생	고교생	근로청소년
담배자판기	11.7	5.6	10.9	19.5	65.3	41.8	84.2	76.9
환각제 (본드, 부탄가스 등)	6.2	3.3	2.8	7.7	95.0	96.2	96.4	91.8
마약류 (히로폰, 마리화나 등)	1.0	0.9	0.7	2.3	96.8	97.2	97.1	94.1
각성제 (안정제, 수면제 등)	11.4	8.0	15.3	18.8	91.0	92.6	89.9	87.1
전자오락·컴퓨터 게임	70.6	73.4	77.1	59.4	35.8	35.5	24.8	39.4
인기인 사진	60.7	64.9	71.9	59.5	29.3	24.5	17.0	25.2

주 : 1) 유해도는 “해롭다” 또는 “아주 해롭다”고 응답한 비율임.

2) *표시 항목은 국민학생용 질문지에서는 제외되었음.

자료 :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1990)

이들 물품·약물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율(지난 1년간)을 보면 전체 청소년중 70.6%가 전자오락 및 컴퓨터게임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인기인 사진을 소지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과반수를 상회하는 60.7%에 이른다. 반면에 각종 약물류에 대한 이용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담배자판기, 안정제·수면제 등 각성제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0% 남짓하였고,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제, 히로폰, 마리화나 등 마약류는 10% 미만의 극히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유해도에 대한 평가는 이용율과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마약류, 환각제, 각성제에 대해서는 90% 이상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보고 있으며, 반면에 전자오락 및 컴퓨터게임과 인기인 사진에 대해서는 40%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비행과 관련하여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된 것은 담배자판기, 환각제, 마약류, 각성제 등으로서 이들 약물류는 비록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함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대중매체

청소년들의 지난 1년동안 대중매체 접촉율과 유해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TV, 인쇄매체, 비디오·영화의 순으로 많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해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비디오·영화의 유해도가 TV나 인쇄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응답결과를 각 매체별로 검토해 보면, 먼저 청소년들이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의 경우 쇼·코미디프로, 연속극 및 수사물, 만화영화는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시청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프로그램들이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10%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AFKN, 유선방송에 대한 시청경험은 40% 내외의 수준이었으며 비슷한 비율의 청소년들이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본방송에 대한 시청경험은 11.6%에 불과한 반면,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평가하여 AFKN이나 유선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각심을 나타내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스포츠신문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81.2%에 달하고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포츠신문이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스포츠신문 구독을 우려하고 있는 성인들과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잡

지류에 있어서는 주간지보다는 월간지의 접촉율이 높은 반면, 유해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주간지가 유해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9.6%임에 비해 여성, 청소년 월간지는 30% 안팎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인만화는 접촉율이 인쇄매체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8.4%),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비디오·영화는 각종 대중매체 중에서 가장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음란 비디오, 성인영화는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유해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음란비디오와 성인영화를 관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각각

〈표 6-3〉 대중매체의 접촉율과 유해도 평가

(단위: %)

	접촉율				유해도 평가			
	계	중학생	고교생	근로청소년	계	중학생	고교생	근로청소년
1. TV								
쇼·코미디 프로	92.4	88.0	94.6	91.6	6.1	5.6	6.2	3.6
연속극 및 수사물	94.0	92.3	96.6	93.8	11.4	11.7	7.3	6.5
만화영화	93.7	94.1	93.3	89.3	7.9	7.9	7.7	8.0
AFKN	39.4	38.1	41.5	32.6	35.0	36.4	29.2	32.7
일본방송	11.6	8.2	11.2	13.2	55.6	58.4	55.7	48.3
유선방송	47.2	43.4	44.4	51.1	39.6	42.5	40.4	37.6
2. 인쇄매체								
스포츠신문	81.2	75.0	87.8	93.5	13.8	18.0	12.3	6.2
여성월간지	53.5	44.1	67.4	77.2	33.8	40.4	23.6	15.2
청소년월간지	66.5	63.2	83.4	80.9	26.2	26.3	17.4	11.0
일반 주간지	44.9	28.1	59.1	75.5	59.2	66.9	61.9	38.7
성인만화	28.4	20.7	38.1	40.6	84.6	89.0	85.4	73.2
3. 비디오·영화								
음란 비디오	24.5	18.8	34.7	34.5	87.3	90.0	84.0	78.8
미성년관람불가영화	34.2	21.4	40.9	56.1	82.8	88.3	78.9	67.8
폭력 영화·비디오	64.2	61.7	75.1	66.9	59.8	63.4	49.4	51.1

주: 1) 접촉율: 지난 일년동안 한번이라도 접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유해도: “해롭다” 또는 “아주 해롭다”고 응답한 비율.

3) 국민학생들의 응답결과는 표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1990)

24.5%, 34.2%) 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매체의 접촉율과 비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V의 경우에는 국내방송, 국외방송을 불문하고 모두 청소년비행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쇄매체중 성인만화와 주간지 또한 음란·폭력 비디오·영화류는 모두 비행과의 상관관계에 큰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소년비행의 실태

앞서의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촉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특히 남자 고교생, 근로청소년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전국 6대도시의 남자 고교생 2,365명을 대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김준호 외 3인, 1989)의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비행의 실태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모두 30개의 비행을 요인분석의 방법을 통해 다섯가지의 비행군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중에서 21개의 비행을 선정, 4가지의 비행군으로 유형화하여 각 비행의 경험율, 최초의 비행시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절에서 다룰 비행의 유형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위비행: 흡연, 음주, 당구장 출입, 디스코장 출입, 음란서적 소지, 음란비디오 관람,
돈내기 도박, 등록금 유용

폭력비행: 패싸움, 폭행(타인을 심하게 때린 경우), 금품탈취, 총기소지

재산비행: 소액절도(5,000원 이하), 절도(5,000원 이상), 주거침입, 공공기물 파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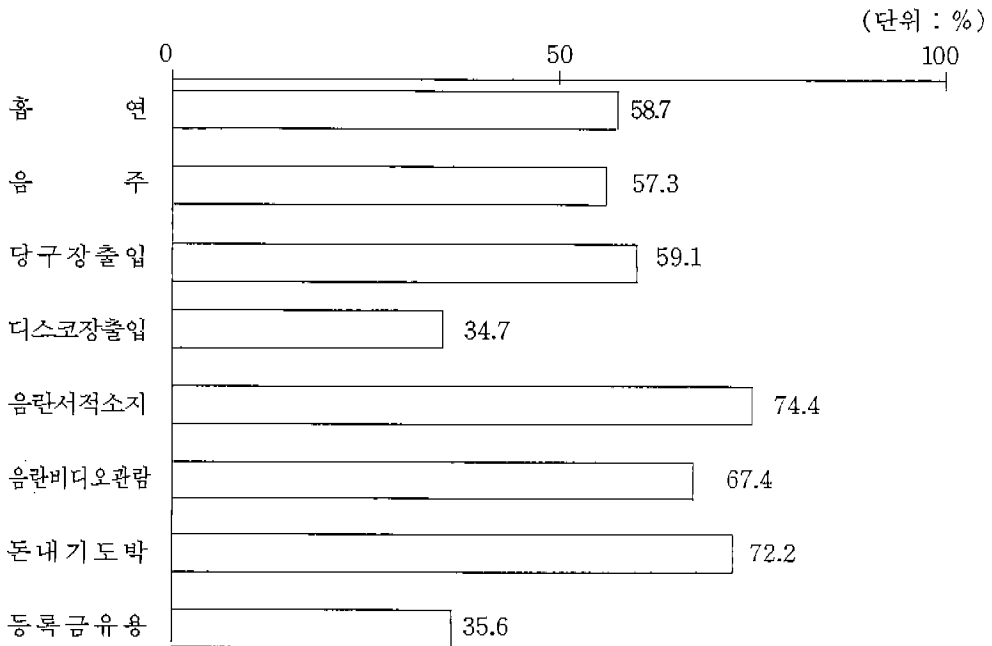
성 비행: 음란전화걸기, 사창가 출입, 여성희롱(길가는 여성에 대한 희롱), 여성추행
(버스·지하철에서 몸을 만지거나 고의로 밀착하는 행위)

1) 지위비행

지위비행은 성인들의 경우 비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청소년들이기에 비행으로 규정되는 행위유형으로서, 다른 유형의 비행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으로 인식되며 적발이 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디스코장 출입과 등록금 유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걸쳐서

[그림 6-1] 지위비행의 경험율 : 남고생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1989)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비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율을 기준으로 지위비행군의 8개항목을 유형화하면, 음란서적 소지, 음란비디오 관람, 돈내기 도박은 70% 내외의 청소년들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경험율이 가장 높은 유형에 속한다.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험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한창 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어 성에 대한 관심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음란서적의 경우에는 그 구입과 소지가 용이하고 친구들끼리 돌려가며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으로 경험율이 높은 항목으로는 흡연, 음주, 당구장 출입으로서 모두 60%에 조금 못미치는 청소년들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흡연과 음주의 경우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한두번 경험해 본 청소년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디스코장 출입과 등록금 유용은 35% 내외의 청소년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위비행 항목중에서 경험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디스코장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이처럼 낮게 나타난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욕구는 갖고 있지만, 여타의 오락시설에 비해 청소년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상대적으로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초의 비행시기를 살펴보면 흡연, 음란서적 소지, 음란비디오 관람, 돈내기 도박은 중학교 때 처음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음주, 당구장 출입, 디스코장 출입, 등록금 유용은 고등학교 때 처음 경험한 비율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은밀히 할 수 있는 행동(음란서적 소지, 음란 비디오 관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행해지고,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는 행동(당구장, 디스코장 출입)은 외모상으로 성인과 구분이 어려운 늦은 시기에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비행시기를 점수화하여 얻은 평균을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 남자 고교생들의 지위비행은 음란서적 소지, 돈내기 도박, 음란비디오 관람, 흡연, 음주, 당구장 출입, 등록금 유용, 디스코장 출입의 순서로 빨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 폭력·재산비행

지위비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심한 비행으로 간주되는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의 경험율을 보면, 비행항목으로 제시한 8개의 행동 모두에 걸쳐서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표 6-4〉 최초의 비행시기 - 지위비행 : 남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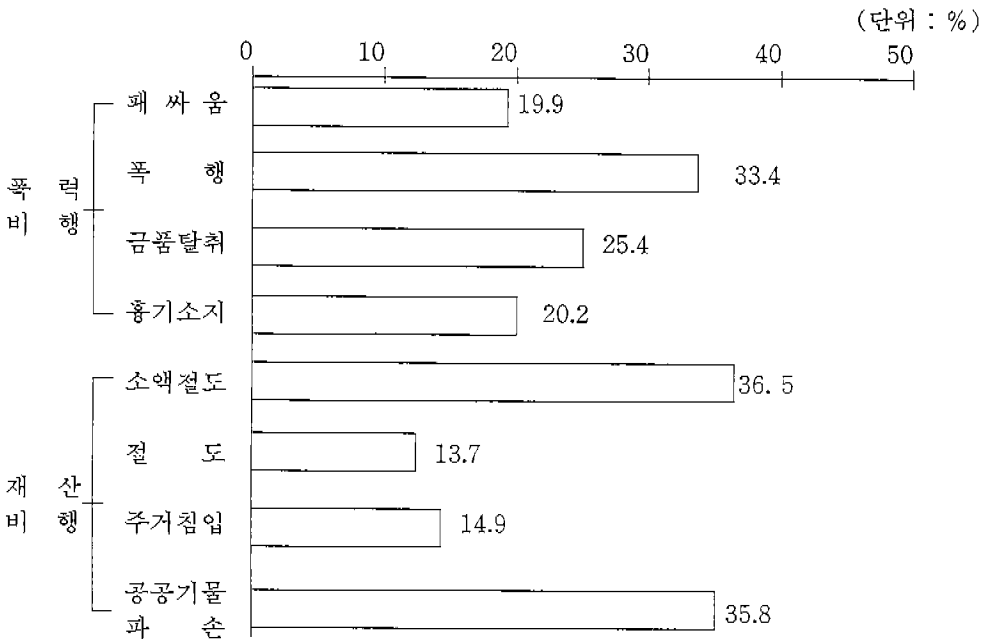
(단위 : %, 명)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경험없다	평균	(사례수)
흡 연	33.0	27.9	38.1	2,061	(2,362)
음 주	18.7	39.9	41.4	2,227	(2,362)
당구장 출입	12.6	48.2	39.2	2,266	(2,360)
디스코장 출입	10.5	24.6	39.2	2,543	(2,361)
음란서적 소지	48.1	26.4	25.6	1,775	(2,359)
음란비디오 관람	36.4	30.8	32.7	1,963	(2,358)
돈내기 도박	46.5	24.5	29.0	1,825	(2,361)
등록금 유용	16.9	19.2	63.9	2,469	(2,360)

주 : 평균은 “중학교”에 1점, “고등학교”에 2점, “없다”에 3점을 부여했을 때 합산 점수의 평균값임.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1989)

[그림 6-2] 폭력·재산비행의 경험율 : 남고생



자료 :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1989)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행동은 공공기물파손, 소액절도, 폭행의 세가지 항목으로서 35% 내외의 청소년들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험율이 높은 항목은 금품탈취, 흉기소지, 패싸움으로서 약 20% 내외의 청소년들이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비행은 최근에 특히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교내외 폭력과 관계있는 것으로서 전체 남고생의 1/5 이상이 비행의 가해자가 된 경험이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학생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절도와 주거침입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5% 미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재산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최초 비행시기는 모든 항목에 걸쳐서 중학교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고등학교 때라고 응답한 비율을 앞서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년범죄가 점차 연소화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행시기를 점수화하여 그 평균값을 구해보면, 폭력·재산비행 중에서 5,000원 이하의 소액절도가 가장 이른 시기에 시작되고, 그 다음이 폭행, 공공기물 파손, 금품탈취, 패싸움, 흉기소지의 순서이며, 절도와 주거침입이 가장 늦게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5〉 최초의 비행시기-폭력·재산범: 남고생

(단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경험없다	평균	(사례수)
폭력비행	패싸움	10.8	9.7	79.5	2,687	(2,365)
	폭행	23.6	12.3	64.1	2,405	(2,357)
	금품탈취	15.8	9.3	74.9	2,591	(2,354)
	총기소지	9.8	11.3	78.9	2,691	(2,356)
재산비행	소액절도	28.8	8.2	63.0	2,343	(2,357)
	절도	9.4	4.8	85.7	2,763	(2,357)
	주거침입	8.3	6.9	84.8	2,764	(2,355)
	공공기물 파손	21.6	14.0	64.4	2,428	(2,359)

주: 평균은 “중학교”에 1점, “고등학교”에 2점, “없다”에 3점을 부여했을 때 합산 점수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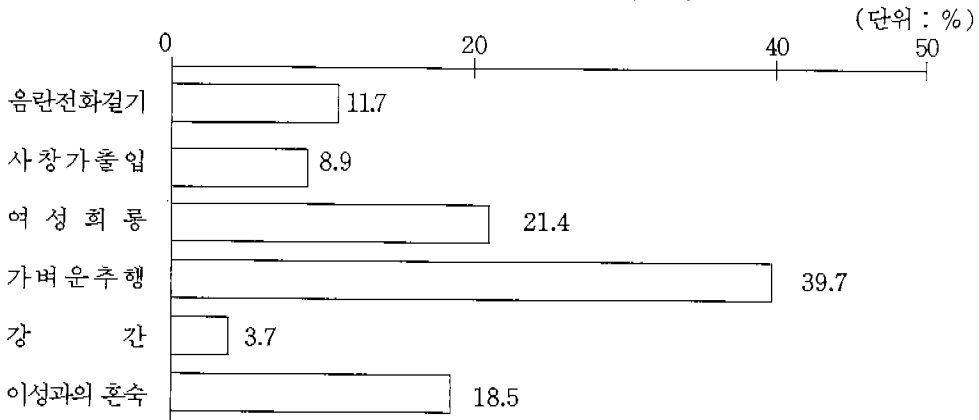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1989)

3) 성비행

성비행은 특히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이 유발되기 시작하는 사춘기에 자주 발생하는 비행유형으로서, 이 조사에서는 음란전화걸기, 사창가 출입, 길가는 여성 희롱하기, 버스나 전철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고의로 밀착하기, 강간, 이성과의 혼숙의 여섯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경험유무와 최초로 그와 같은 비행을 한 시기를 질문하였다.

먼저 경험율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여성에 대한 가벼운 추행이 39.7%로서 모든 성비행의 유형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학생의 증가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경험율이 높은 항목이 길가는 여성 희롱하기와 이성과의 혼숙으로서 20% 내외의 청소년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과의 혼숙을 경험한 비율이 18.5%에 달하는 것은 예상밖의 결과인데 여기에는 등산활동 등을 통해 집단야영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란전화걸기와 사창가 출입은 10% 내외의 청소년이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고, 성 비행의 유형중 가장 심한 형태인 강간은 3.7%의 청소년들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6-3] 성비행의 경험율 : 남고생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1989)

성비행의 최초의 비행시기를 보면 음란전화걸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걸쳐 고등학교 때 처음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앞서의 폭력·재산비행의 최초비행시기와는 대조적인 응답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성비행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뒤에야 이성에 대한 성충동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비행이 유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6〉 최초의 비행시기—성비행 : 남고생

(단위 : %, 명)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경험없음	평 균	(사례수)
음란전화 걸기	6.4	5.9	87.8	2,813	(2,358)
사창가 출입	3.6	5.5	91.0	2,874	(2,358)
여성 희롱하기	8.7	12.5	78.8	2,701	(2,358)
가벼운 추행	16.6	22.8	60.6	2,441	(2,358)
강 간	2.0	2.6	95.4	2,934	(2,355)
이성과의 혼숙	7.7	11.7	80.4	2,729	(2,354)

주 : 평균은 “중학교”에 1점, “고등학교”에 2점, “없다”에 3점을 부여하여 얻은 합산점수의 평균값임.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1989)

최초의 비행시기를 순서대로 보면, 가벼운 추행이 가장 이른 시기에 시작되고 그 다음이 여성 희롱하기, 이성과의 혼숙, 음란전화걸기, 사창가 출입의 순이며, 강간이 가장 늦게 시작되는 비행유형으로 나타나 있다.

VI-2. 소년범죄의 동향

소년비행은 청소년들의 가벼운 문제행동에서부터 범죄행위에 이르기까지 사회통념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논의를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에 국한하여 정부의 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동향과 범죄소년의 특징을 개관하기로 한다.

1. 소년범죄의 동향

1) 전체동향

가. 형법범

소년형법범의 인원은 1980년의 83,959명에서 1985년의 88,298명으로 약 2% 증가한 뒤,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가 1989년에 85,428명으로 다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989~1989년 기간동안 2%정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전체 형법범 중에서 차지하는 소년의 비율(소년비)은 1980년의 17.2%에서 1989년에는 18.1%로서 같은 기간 동안 0.9% 증가하였다.

이처럼 전체 소년형법범 인원의 증가율과 전체 형법범중에서 차지하는 소년범의 비율만 놓고 보면 소년범의 증가율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추세에 있어 20세 미만의 청소년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소년 범죄인원의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년인구중에서 차지하는 소년범의 비율을 산출해낸 뒤, 이것을 성인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1만명당 소년범죄자(12세 이상 20세 미만)와 성인범죄자(20세 이상)의 수를 산출해 보면, 먼저 소년의 경우에는 1980~1989년 기간동안 117.9명에서 122.5명으로 3.9%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성인범죄자는 195.5명에서 145.5명으로 2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수치는 성인 범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년 범죄인원은 정체 내지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소년범죄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논자들이 단순히 소년범죄자의 인원만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소

〈표 6-7〉 소년·성인별 형법범 인원 및 인구비

(단위 : 명, %)

	소 년				성 인		
	인 원	(증감율)	소년비	인구비	인 원	(지수)	인구비
1980	83,959	(100)	17.2	117.9	403,783	(100)	195.5
1985	88,298	(105)	16.8	122.8	438,016	(108)	181.8
1987	80,025	(495)	14.9	111.4	456,011	(113)	180.2
1988	80,641	(96)	16.1	113.5	419,444	(104)	161.8
1989	85,428	(102)	18.1	122.5	386,503	(96)	145.5

주 : 1) 소년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이며, 성인 인구비는 20세 이상의 성인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

2) 소년비는($\frac{\text{소년범}}{\text{소년범} + \text{성인범}} \times 100$)임.

3)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법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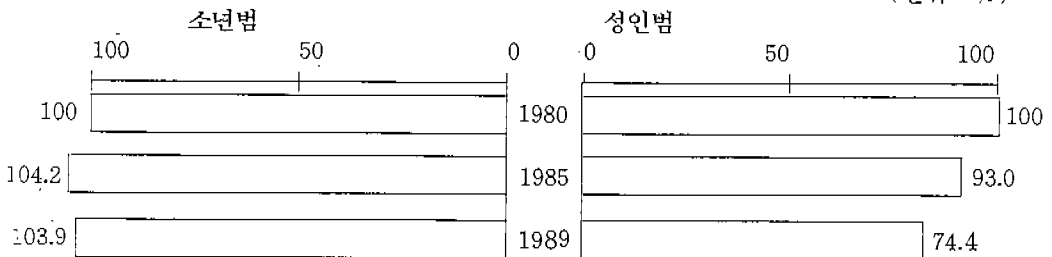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0), p.77

년범죄의 증가율은 아직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구비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소년형법범의 죄질 내지 죄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89년 전체 형법범중 폭력범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여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9.4%에 달하고 그 다음이 재산범(31.7%), 강력범(6.5%), 과실범(0.4%)의 순이다. 이중에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재산범(그중 절도범이 약 89%)은 계속 감소해 가고 있는 반면, 강력범과 폭력범은 증가추세에 있어 소년범죄는 그 증가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 있어서도 점차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4] 소년·성인별 형법범 인구비의 증감율

(단위 :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0)

〈표 6-8〉 소년형법범의 죄질별 구성비(1989)

(단위 : 명, %)

	계	재산범	폭력범	강력범	과실범	기타
인 원	85,428	27,085	50,737	5,588	333	1,685
구성비	100.0	31.7	59.4	6.5	0.4	2.0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0), p.80

나. 특별법범

소년특별법범의 인원은 1980년의 4,766명에서 1989년의 22,587명으로 급증하여 이 기간동안 무려 374% 증가하였다. 이것은 성인범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동안 성인범은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의 증가율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특별법범 중에서 차지하는 소년범의 비율도 1980년의 2.0%에서 1989년의 2.9%로 10년동안 0.9%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소년특별법범의 죄명별 구성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33.8%,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 28.8%로서 전체 소년범중 교통관계사범이 62.6%에 달하고 있으며 기타 죄종의 구성비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소년특별법범의 급증현상은 상당부분 교통관계사범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9〉 소년·성인별 특별법범 인원 및 소년비

(단위 : 명, %)

	소 년			성 인	
	인 원	(지수)	소년비		(지수)
1980	4,766	(100)	2.0	232,776	(100)
1985	13,927	(292)	2.9	465,651	(200)
1987	17,824	(374)	3.1	559,752	(240)
1988	23,411	(491)	3.8	621,306	(267)
1989	2,587	(474)	2.9	766,060	(329)

주 : 폭력행위등 처벌법위반 제외.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0)

〈표 6-10〉 소년특별법법 죄명별 인원 및 구성비(1989)

(단위 : 명, %)

	계	교통사고 특별법	도로 교통법	향군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특가법	민방위 기본법	기타
인 원	22,587	6,510	7,642	730	672	546	425	6,062
구성비	100.0	28.8	33.8	3.2	3.0	2.4	1.9	26.9

주 : 폭력행위등 처벌법위반 제외.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1990)

2) 연령층별 동향

앞에서의 통계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년범의 증가율이 성인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각 연령층별 소년범의 증가율을 살펴봄으로써 소년인구 중에서 어떤 연령층이 이와 같은 소년범의 증가현상

〈표 6-11〉 소년범 연령층별 인원 및 인구비

(단위 : 명, %)

		1980	1985	1987	1988	1989
14세 미 만	인 원	2,643	1,584	1,793	1,711	1,737
	인구비	2.23	1.42	1.66	6.62	1.67
	(지수)	(100.0)	(63.7)	(74.4)	(72.6)	(74.9)
14~15세	인 원	12,322	16,075	14,626	14,283	15,666
	인구비	72.35	85.19	79.63	80.32	91.90
	(지수)	(100.0)	(117.7)	(110.1)	(111.0)	(127.0)
16~17세	인 원	27,083	34,201	30,097	30,416	31,732
	인구비	158.23	188.46	161.39	163.05	173.10
	(지수)	(100.0)	(119.1)	(102.0)	(103.0)	(109.4)
17~18세	인 원	45,914	50,365	51,333	57,642	58,880
	인구비	273.89	321.30	289.24	315.53	316.48
	(지수)	(100.0)	(117.3)	(105.6)	(115.2)	(115.6)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을 주도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로 한다.

〈표 6-11〉을 통해 소년범의 연령층별 인구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1989년 기간 동안, 14세 미만은 25.1% 감소한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같은 기간 동안 14~15세는 27.0%, 16~17세는 9.4%, 17~18세는 15.6% 각각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의 증가율이 가장 현저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년범죄가 점차 연소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죄종별 동향

가. 강력범죄

소년강력범의 인원은 1980년에 4,216명에서 1985년에는 5,689명으로 대폭 증가한 후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가 1989년에는 5,588명으로 다시 1985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인구 10만명당 소년강력범의 인원을 보면 1980년의 59.2명을 기준으로 1985년 79.1명으로 33.6%, 1989년에는 80.9명으로 86.7% 증가하여, 범죄인원과는 달리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1980~1989년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36.7%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강력범죄는 타범죄에 비해 소년범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서, 1989년 전체 강력범 인원중 소년이 4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도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52.2%)이 소년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지고 있다. 죄명별로는 1980~1989년 기간 동안 살

〈표 6-12〉 소년강력범 인원 및 인구비

(단위 : 명)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인원	인구비				
1980	4,216	59.2	88	1,822	2,278	28
1985	5,689	79.1	88	2,287	3,266	48
1987	4,195	58.4	112	1,973	2,073	37
1988	4,771	67.2	138	2,529	2,036	68
1989	5,588	80.9	109	3,000	2,427	52

주 : 인구비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인이 23.9%, 강도가 64.7%, 강간이 6.5%, 방화가 85.7% 증가하여, 방화와 강도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소년강력범의 연령층별 현황을 보면, 1989년의 경우 18~19세가 48.2%, 16~17세가 38.6%, 14~15세가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해의 연령층별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6-13〉 소년강력범의 연령층별 현황

(단위 : 명)

	계	14세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1980	4,216	44	556	1,626	1,990
1985	5,689	24	648	2,410	2,607
1987	4,195	36	443	1,702	2,014
1988	4,771	49	478	1,932	2,312
1989	5,588	27	711	2,155	2,695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나. 폭력범죄

소년폭력범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0년에 42,014명이었다가 1985년에 약 10.2% 증가한 뒤 1989년에는 50,737명으로서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2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1만명당 소년폭력범의 비율에 있어서는 1980~1989년 기간 동안 59.0명에서 72.8명으로 약 23.4% 증가하여 소년강력범의 증가율에는 다소 못미치고 있다. 전체 폭력범죄인원중에서 소년폭력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16.5%(1989)로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그다지 높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죄명별로는 1989년의 경우 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이 전체의 96.0%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고 상해 2.6%, 폭력 0.9%, 공갈 0.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폭력행위등 처벌법위반이 1980년을 기준으로 큰 폭(22.5%)으로 증가한 이외에 상해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폭행, 공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소년폭력범의 연령층별 분포를 보면 1989년의 경우 14~15세가 10.8%, 16~17세가 32.2%, 18~19세가 56.7%를 차지하고 있는데, 1980년과 비교하여 그 증감율을

〈표 6-14〉 소년폭력범 인원 및 인구비

(단위 : 명)

	계		상 해	폭 행	공 갈	폭력행위등 처벌법위반
	인 원	인구비				
1980	42,014	59.0	1,278	683	290	39,763
1985	46,309	64.4	1,454	503	311	44,041
1987	42,567	59.2	1,209	432	291	40,635
1988	45,087	63.5	1,281	407	239	43,160
1989	50,737	72.8	1,330	432	251	48,724

주 : 인구비는 12세이상 20세미만이 소년인구 만명당 범죄자수.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보면, 14세~15세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18~19세의 비율은 낮아짐으로써 점차 연소화해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5〉 소년 폭력범 연령층별 현황

(단위 : 명)

	계	14세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1980	42,014	278	3,505	13,480	24,751
1985	46,309	243	4,810	16,514	24,742
1987	42,567	181	4,112	14,035	24,239
1988	45,087	254	4,466	14,597	25,770
1989	50,737	257	5,484	16,216	28,780

주 : 폭력범은 폭행, 상해,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범임.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다. 재산범죄

소년재산범죄의 인원은 1980년에 29,206명에서 1985년에는 34,160명으로 대폭 증가한 뒤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는 1980년보다 2,121명 감소한 27,085명이었다. 인구 1만명당 소년재산범죄의 인원을 보면 1980~1989년 기간 동안 약 5.1%가 감소하였다.

〈표 6-16〉 소년재산범 인원 및 인구비

(단위 : 명)

	계		절도	사기	장물	기타
	인	인구비				
원						
1980	29,206	41.0	26,929	714	842	721
1985	34,160	47.5	30,566	1,847	825	922
1987	31,547	43.9	28,241	1,844	656	806
1988	28,803	40.5	25,101	2,112	606	984
1989	27,085	38.9	24,097	1,479	626	883

주 : 인구비는 12세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만명당 범죄자수임.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죄명별로는 1980~1989년 기간 동안 절도가 10.5%, 장물이 26.7% 감소한 반면, 사기는 107.1%나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소년재산범의 범죄유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7〉 소년재산범의 연령층별 현황

	계	14세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1980	29,206	1,970	7,666	9,701	9,869
1985	34,160	1,060	9,696	11,916	11,488
1987	31,547	1,308	8,764	10,555	10,910
1989	27,085	1,160	7,872	8,937	9,116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소년재산범의 연령층별 분포를 보면 1989년의 경우 14세 미만이 4.3%, 14~15세가 29.1%, 16~17세가 33.0%, 18~19세가 33.7%로서 18~19세가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이것을 1980년의 연령층별 분포와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14세 미만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반면 14~15세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세가지의 최종별 소년범죄의 동향을 정리하면, 재산범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폭력범과 강력범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무거운 강력범의 증가율이 현저하여 1980~1989년 기간 동안 소년인구비에 있어서 36.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강력범중에서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의 경우 40.2%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년범죄가 앞에서 살펴본대로 성인범죄의 증가율을 훨씬 앞서고 있고, 연령구조에 있어서 점차 연소화하고 있음과 아울러 그 죄질에 있어서도 흉포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소년범죄의 국제비교

앞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동향을 각종 통계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개관해 보았다.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년범죄가 여타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각국의 범죄·사법통계는 나라에 따라 법률상의 범죄구성요건 및 통계분류상의 차이, 소년연령의 법률상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소년범죄의 동향을 통일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소년범의 연령층을 편의상 10세 이상 18세 미만(단, 영국은 17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범죄구성요건이 국가마다 거의 공통되는 몇가지 죄종의 소년범죄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또한 나라마다 소년인구의 비율이 상이하여 단순히 소년범죄인원만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국별로 소년인구(10세 이상 18세 미만) 1,000명당 범죄자수를 산출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각국의 소년범죄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비교의 대상이 된 죄종은 전체 소년형법범과 살인, 강도, 상해, 절도, 강간, 방화 등이고, 비교대상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미국의 6개국이다.

먼저 소년형법범의 인구비를 살펴보면 독일이 33.0명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영국(30.0명), 미국(21.9명), 프랑스(14.2명), 일본(13.5명)의 순이며 한국은 5.9명으로서 비교대상 6개국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비교대상이 된 국가들이 모두 산업발달이나 국민 복지수준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월등히 앞서고 있는 선진국임을 감안하면 국민복지수준의 향상이 곧 범죄율의 저하를 가져오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이러한 통계비교를 통해 시사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죄종별 소년인구비를 비교해 보면, 강간을 제외한 모든 죄종에 있어서 우리나라 소년범의 인구비는 극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즉, 살인, 상해, 절도, 방화

〈표 6-18〉 각국의 소년법 최종별 인구비(1988)

(단위: 명)

	한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미국
형법범	5.9	13.3	33.0	14.2	30.0	21.9
살 인	0.8	0.3	2.2	1.9	1.5	6.5
강 도	18.3	2.4	63.2	53.2	44.3	88.9
상 해	6.7	52.3	302.9	45.2	275.6	140.8
절 도	251.1	1033.8	2159.7	942.7	2209.1	1914.0
강 간	16.5	1.7	5.0	7.0	14.7	15.1
방 화	0.5	1.6	45.0	11.5	41.2	22.7

주: 1) 10세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의 비율임.

2) 소년형법범 인원에서 영국은 정식기소범죄 검거인원, 미국은 지표범죄 검거인원임.

자료: 한국 범죄백서

일본 범죄백서

서독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프랑스 *La Criminalite en France*

영국 *Criminal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미국 *Crime in the United States*

의 인구비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으며 특히 절도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가 매우 현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강도의 소년인구비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장 낮아서 우리나라가 프랑스에 이어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최종에서 우리나라의 소년법 인구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강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년인구비가 16.5명으로서 미국(15.1명), 영국(14.7명), 프랑스(7.0명), 독일(15.1명) 등 구미 선진제국보다 앞서고 있고,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인 일본(1.7명)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비교대상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폐쇄적인 성문화를 가진 국가임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욕구를 정상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사회환경이 그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전체적으로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그다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년범죄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비슷한 발전수준에 있는 국가들의 소년범죄 현황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강간 범의 소년인구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도 증명되듯이 우리가 소년비행·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언제라도 선진국수준에 육박할 수 있는 개연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범죄소년의 특징

1) 가정환경

소년범죄자들 중 미혼인 자의 보호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1989년의 경우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80.9%로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어머니(계부는 제외)만

〈표 6-19〉 소년범죄자의 보호자별 현황

(단위 : 명, %)

	계	실부모	편 부	편 모	무부모
1985	93,962(100.0)	76,559(81.5)	3,767(4.0)	10,607(11.3)	3,029(3.2)
1987	83,613(100.0)	67,645(80.9)	3,709(4.4)	9,611(11.5)	2,648(3.2)
1988	84,209(100.0)	66,854(79.4)	3,727(4.4)	10,511(12.5)	3,077(3.7)
1989	99,189(100.0)	80,330(80.9)	3,982(4.0)	10,685(10.8)	4,192(4.3)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율.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있는 경우의 10.8%, 아버지(계모는 제외)만 있는 경우는 4.0%이고, 양친이 모두 없는 경우는 4.3%였다. 이와 같은 구성비율은 연도별로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일수록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위의 통계에서 범죄소년중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부모의 결손여부 못지 않게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가정의 분위기 등도 범죄소년의 가정환경으로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한편 범죄소년의 생활정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89년의 경우 압도적인 다수(85.8

%)가 하류층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류가 13.6%이며 상류는 극소수(0.6%)에 불과하다. 1985년과 비교해보면 하류층의 비율이 다소 감소한 반면 중류층의 비율이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에서 절도 등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재산범죄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표 6-20〉 소년범죄자의 생활정도별 구성비

(단위 : 명, %)

	계	하 류	중 류	상 류
1985	102,225(100.0)	91,559(89.6)	10,192(10.0)	474(0.5)
1987	97,849(100.0)	86,788(88.7)	10,615(10.8)	446(0.5)
1988	104,052(100.0)	90,607(87.1)	12,883(12.4)	562(0.5)
1989	108,015(100.0)	92,721(85.8)	14,714(13.6)	560(0.6)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율.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 학력 및 직업

범죄소년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1989년의 경우 무직이 28.4%, 학생이 24.0%를 차지하며 나머지가 근로청소년들로서 전체 청소년인구비를 감안할 때 학생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1985년 이후의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범죄소년 중 학생청소년의 비율은 1985년의 31.3%에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가 다시 반전하여 1989년에는 1985년보다 다소 증가하고 있다. 한편 무직청소년의 비율은 1985년의 36.6%에서 계속 감소하여 1989년에는 1985년에 비해 약 8.2%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취업기회의 확대로 말미암아 청소년 실업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1985~1989년 기간 동안 전체 범죄소년 중 학생청소년의 증가율이 매우 미약한 수준(2.7%)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1988년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학생인구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을 감안하면 보다 정확하게 학생청소년의 범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인구 중 범죄소년이 차지하는 비율(학생인구비)을 산출해 봐야 할 것이다. 〈표 6-22〉는 학생인구 1만명당 범죄소년의 인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1985~1989년 기간 동안 학생인구비는 67.0명에서 85.8명으로 약 28.1%나 증

〈표 6-21〉 소년범죄자의 직업별 구성비

(단위 : 명, %)

	계	무	직	학	생	근로청소년				기타
						농업	직공	노동	종업원	
1985	101,997	37,344	31,897	2,027	5,371	2,195	7,605	15,558		
	(100.0)	(36.6)	(31.3)	(2.0)	(5.3)	(2.2)	(7.5)	(15.3)		
1987	97,660	32,539	29,254	1,378	6,014	2,278	8,253	17,944		
	(100.0)	(33.3)	(29.9)	(1.4)	(6.2)	(2.3)	(8.5)	(18.4)		
1988	103,736	31,394	30,628	1,249	5,838	2,512	9,378	22,737		
	(100.0)	(30.3)	(29.5)	(1.2)	(5.6)	(2.4)	(9.0)	(21.9)		
1989	108,015	30,630	36,720	1,132	5,587	2,495	10,576	20,875		
	(100.0)	(28.4)	(34.0)	(1.0)	(5.2)	(2.3)	(9.8)	(19.3)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청소년들은 동일한 연배의 무직, 근로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정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범죄의 증가율이 이토록 높게 나타나는 것은 최근의 소년범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소년의 가정환경 못지 않게 그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범죄소년의 교육정도별 통계를 검토해보면 우리나라의 범죄소년들이 교육수준

〈표 6-22〉 학생범죄자의 총학생수에 대한 비율

(단위 : 명)

	재학생 총수	범죄자 총수	학생인구비
1985	6,226,941	41,732	67.0
1987	6,279,814	39,931	63.6
1988	6,231,228	42,011	67.4
1989	6,118,326	52,404	85.8

주 : 1) 재학생총수는 중학교 이상 대학까지 각급학교 학생 포함.

2) 학생 인구비는 학생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임.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표 6-23〉 소년범죄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

(단위 : 명, %)

	계	불취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1980	87,962 (100.0)	816 (0.9)	24,720 (28.1)	29,254 (33.3)	27,812 (31.6)	1,644 (1.9)	3,716 (4.2)
1985	102,225 (100.0)	660 (0.6)	11,548 (11.3)	33,049 (32.3)	43,492 (42.5)	3,729 (3.6)	9,747 (9.5)
1987	97,849 (100.0)	441 (0.5)	6,353 (6.5)	30,427 (31.1)	42,242 (43.1)	3,608 (3.7)	14,778 (15.1)
1988	104,052 (100.0)	468 (0.4)	5,986 (5.8)	30,321 (29.1)	40,140 (44.3)	4,141 (4.0)	16,996 (16.3)
1989	108,105 (100.0)	454 (0.4)	5,766 (5.3)	31,872 (29.5)	52,033 (48.2)	4,368 (4.1)	13,522 (12.5)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율.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에 있어서 점차 고학력화하는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1985년 기간 동안 국민학교, 중학교 학력의 범죄소년의 구성비는 각각 22.8%, 3.8%씩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학력은 16.6%, 대학학력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학력자의 증가율이 현저한 점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고교생의 증가라는 원인과 아울러 전체 학생중에서 고교생들이 입시, 취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전과별 구성

소년범죄자의 전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초범자는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1987년 이후로 점차 그 비율이 낮아져서 1989년에는 77.8%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전과 1범, 3범의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범 이상자의 비율은 1985년의 4.3%에서 1989년에는 5.2%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재범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범죄원인

통상 범죄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그 원인을 어느 한 요

〈표 6-24〉 소년범죄자의 전과현황

(단위 : 명, %)

	계	초범	재범		
			2범	3범	4범
1985	102,225(100.0)	80,819(79.0)	12,000(11.7)	5,038(4.9)	4,368(4.3)
1987	97,849(100.0)	77,463(79.2)	11,251(11.5)	4,732(4.8)	4,403(4.5)
1988	104,052(100.0)	81,405(78.2)	12,203(11.7)	5,247(5.0)	5,197(5.0)
1989	108,015(100.0)	84,011(77.8)	12,921(12.0)	5,473(5.0)	5,610(5.2)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율.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소로 특정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이 되는 소년범죄자에 대해서 경찰단계에서 모두 14가지에 이르는 항목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범죄원인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범죄원인에 대한 공식 행정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원인으로서는 “기타”의 비율이 매년 약 40%에 달하고 항목분류의 기준이 애매한 점 등 공식통계자료로서는 부적절한 몇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1980~1989년 기간 동안 소년범죄의 원인별 구성비를 개관해 보면, 먼저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범죄(“이욕”)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

〈표 6-25〉 전제 소년범죄 원인별 구성비

(단위 : %, 명)

	계	이욕	사행심	원한 분노	가정 불화	유혹	우연	마약 각성제 중독	취중	기타
1980	100.0	14.0	2.2	4.1	0.3	1.2	11.7	0.0	5.6	60.8
1985	100.0	17.7	3.2	5.4	0.2	1.8	24.4	0.1	5.9	41.3
1987	100.0	16.4	2.7	4.7	0.2	1.3	21.1	0.2	6.4	47.0
1988	100.0	13.6	2.6	4.9	0.2	1.5	27.0	0.3	6.8	43.1
1989	100.0	12.8	2.9	4.7	0.1	1.7	31.3	0.3	7.3	38.9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면, 총동적인 범죄(“우연”, “취중”)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다. 아울러 매우 근소하게나마 마약·각성제 중독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3. 청소년의 범죄피해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에 의한 비행과 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음은 다양한 행정통계자료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범죄나 비행사건은 숨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통계자료만으로는 진실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실상에 보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공식통계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방법과 아울러 범죄나 비행의 피해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해실태의 조사가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가 몇차례 실시된 적이 있으나 조사방법이나 대상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범죄피해실태에 대한 조사(김준호 외 3인,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1991)는 조사표본이 서울지역의 중·고교생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다양한 피해의 유형을 망라하여 조사하였고 표본추출, 질문지구성 등의 면에서 매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범죄피해실태를 개관하고 부분적으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기로 한다.

1. 전체 범죄의 피해정도

먼저 표본이 된 학생청소년들(서울지역의 중·고교생 5,587명)이 지난 1년동안

〈표 6-26〉 전체 범죄피해율

(단위 : %)

	전체	중학생			고교생		
		계	남	여	계	남	여
전체 피해	58.3	60.9	75.7	42.3	54.5	71.3	34.3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1991), p.97.

(1989년 9월~1990년 9월, 이하 본 조사의 대상이 된 범죄피해는 모두 이 기간중에 이루어진 것임) 어느 정도 범죄의 피해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피해란 성적인 피해를 제외한 금품갈취, 폭행, 협박의 폭력범죄와 절도, 사기, 소매치기의 재산범죄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6-26〉의 전체 범죄의 피해율을 보면 전체 표본의 58.3%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한가지의 피해라도 당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사소한 절도 피해까지도 포함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비율에 있어서는 매우 우려할만한 수

〈표 6-27〉 가구별 범죄피해율(전 가구원)
(단위 : %, 전, 명)

	발생		피 해		
	당한적 있음	천가구당 발생건수	천가구당 피해건수	천가구당 피해액(천원)	인구 10만명당 피해자수
1988	12.8	187	150	45,506	—
1991	11.3	166	129	39,819	694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준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1년동안(1990. 5. 1~1991. 4. 30) 주요범죄(강도, 절도, 소매치기, 폭행·상해)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사대상이 된 범죄유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고 조사지역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두가지 통계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성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 하위집단별 피해율의 차이를 보면 고교생보다는 중학생, 여자보다는 남자의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범죄피해비율이 높은 남자중학생의 피해율은 75.7%에 이르는 반면, 여자고교생은 34.3%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성적인 피해가 제외되었고 주로 여고생들이 성적인 범죄의 피해대상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여고생의 범죄피해율도 실제로는 이 수치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는 각 범죄유형별 피해의 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6-28〉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를 당한 비율

(단위 : %, 명)

	전체	중학생			고교생		
		계	남	여	계	남	여
폭력범죄 전체	36.1	38.8	56.8	17.0	32.1	50.1	10.5
금 품 갈 취	22.6	25.9	40.7	8.4	17.6	28.7	4.2
폭 행	14.1	13.4	21.1	4.2	15.1	24.9	3.1
협 박	15.8	16.3	21.5	10.0	15.2	23.2	5.5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1991), p.88.

2. 범죄유형별 피해의 정도

1) 폭력범죄

폭력범죄의 피해는 금품갈취, 폭행, 협박의 세가지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는데, 이 세 가지중 어느 한가지라도 당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 응답학생의 36.1%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 학급에서 20명 이상이 지난 1년동안 신체적인 피해를 당한 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위집단별로는 중학생은 38.8%, 고교생은 32.1%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중학생들이 고교생보다 신체적 피해를 많이 당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피해율이 여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경우에는 남녀의 피해율이 56.8%와 17.0%, 고교생은 각각 50.1%, 10.5%로서 남자의 피해율이 여자의 3배 이상에 달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학교안과 학교주변의 폭력비행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으며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폭력범죄의 각 유형별 피해정도를 보면 금품갈취를 당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22.6%에 이르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25.9%, 고교생의 17.6%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중학생의 피해율이 더 높았는데, 이것은 중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리고 왜소하여 저항능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즉, 중학생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4배 이상(40.

7%:8.4%), 고교생은 남자가 여자보다 7배 정도 (28.7%:4.2%)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히 남자중학생에 대해서 금품갈취에 대한 사전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폭행은 지난 1년동안 전체 학생의 14.1%가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폭행범죄의 세가지 유형중에서 가장 피해율이 낮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피해율(15.1%)이 중학생(13.4%)보다 다소 높아서 금품갈취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별로는 역시 남자의 피해율이 월등하게 높아서 중학생의 피해율은 남녀가 각각 21.1%, 4.2%이며 고교생은 24.9%, 3.1%이다. 전체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집단은 남고생이며 다음이 남중생, 여중, 여고생의 순이다.

협박의 피해율은 15.8%로서 폭행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16.3%, 고교생의 15.2%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별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별로는 남녀간의 차이가 현격하여 중학생은 남녀의 피해율이 각각 21.5%와 10.0%, 고교생은 23.2%와 5.5%로서 남자의 피해율이 여자의 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성별, 교급별 하위집단의 피해율의 순서는 남자 고교생,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여자 고교생으로 나타났다.

2) 재산범죄

재산범죄의 전체적인 피해율, 즉 지난 일년동안 절도, 소매치기, 사기의 세가지중 어느 한가지라도 당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42.5%로서 폭력범죄의 피해율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에 있다.

〈표 6-29〉 재산범죄 유형별 피해를 당한 비율

(단위 : %)

	전체	중학생			고교생		
		계	남	여	계	남	여
재산범죄 전체	42.5	43.9	52.9	32.8	40.5	50.5	28.4
절 도	39.9	41.1	50.1	30.2	38.1	48.6	25.3
소 매 치 기	6.1	6.6	7.6	5.4	5.3	5.0	5.8
사 기	4.8	4.8	6.3	3.0	4.8	7.6	1.3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1991), p.92.

그러나 전체 재산범죄 피해중 절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절도는 사소한 물품의 도난사건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율의 수치만을 놓고 재산범죄가 폭력범죄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각 유형별 피해율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중 절도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39.9%에 달하여 액수의 많고적음을 떠나서 학생들 사이에서 도난사고가 매우 빈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피해율이 41.1%, 고교생의 피해율이 38.1%로서 양집단간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성별로는 중학생의 경우 남자가 50.1%, 여자가 30.2%의 피해율을 나타냈고 고교생도 남자가 48.6%, 여자가 25.3%로서 남자의 피해율이 여자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소매치기의 피해율은 6.1%에 불과하여 절도 피해율의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소매치기의 주된 범죄대상이 학생들보다는 성인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매치기의 피해율에 있어서는 성별, 교급별로 모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이 특징적이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피해율이 다소 높은 편(7.6%:5.0%)이나, 성별로는 중학생은 남자, 고교생은 여자의 피해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도 소매치기와 동일하게 학생층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어서인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4.8%에 불과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6.3%, 고교생의 7.6%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별로는 중학생, 고교생 모두 남자의 피해율이 여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3) 성적 피해의 정도

성적인 범죄나 비행은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는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먼저 전체 피해의 정도, 즉 지난 1년동안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강간의 네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비율은 17.8%에 달한다. 이것은 학급당 인원을 60명으로 설정했을 때, 한 학급에서 약 23명이 성적인 피해의 경험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유형별 피해실태를 보면, 먼저 성적 희롱(말이나 몸짓으로 성적인 희롱을 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1.2%로서 전체 여학생의 1/5을 상회하고 있다. 중학생(19.2%)보다는 고교생(24.7%)의 피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

〈표 6-30〉 성적 피해의 유형별 비율

(단위 : %)

	전 체	중학생	고교생
성 피해 전체	37.8	32.8	45.8
성 적 회 롱	21.2	19.2	24.7
가벼운 추행	31.5	25.3	40.8
심 한 추 행	2.5	2.2	3.1
강 간	0.6	0.7	0.5

주 :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1991), p.95.

났는데, 이는 육체적인 성숙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벼운 추행(고의로 신체의 일부분을 건드리거나 밀착시키는 행위)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31.5%로서 네가지 유형의 성적인 피해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적 회롱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교생의 피해율이 중학생보다 높았는데 특히 여고생 중 40.8%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중생의 피해율(25.3%)보다 월등히 높았다.

심한 추행(강제로 키스하거나 애무하는 행위)과 강간은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2.5%와 0.6%로서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고려할 때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범죄피해에 대한 태도

앞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범죄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언제 범죄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전국의 15~19세 연령층의 청소년들중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60.3%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8.3%에 불과했다. 이것을 전체 연령층의 응답결과

〈표 6-3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1991)

(단위 : %)

	많이 느낀다	약간 느낀다	보통	별로 못느낀다	전혀 못느낀다
전 체	19.3	38.3	19.9	17.2	5.3
15-19세	17.9	42.4	21.3	14.8	3.5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1991)

와 비교해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율은 48.4%에서 60.3%로 크게 늘어난 반면, 두려움을 못느낀다는 응답율은 23.1%에서 18.3%로 감소하여 청소년들이 느끼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비행과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유형별 범죄피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앞서 논의했던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다시 인용해보면 〈표 6-32〉와 같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범죄 피해에 대해서 자주 또는 가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63.2%로서 전체의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로는 중학생과 고교생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남녀간의 차이가 현격하여 중학생의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율이 남자 59.4%, 여자 68.0%였고, 고교생은 남자 56.5%, 여자 70.7%였다. 특히 여고생의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반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아울러 이 또래의 집단이 성적인 비행이나 범죄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그에 대한 대응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야간보행의 안전도에 대한 응답결과(통계청, 사회통계 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즉, “밤에 외출 또는 귀가하는 경우 집근처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청소년(15~19세)의 57.1%가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바로 자신의 생활주변에서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려운 곳이 있다는 응답비율에서 청소년들은 전체 평균치(48.9)를 약 10% 가까이 상회하여 우리사회에서 성인보다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심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32〉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

(단위 : %)

	중학생			고교생			전 체
	계	남	여	계	남	여	
자주 느낀다	5.5	4.8	6.2	5.3	3.3	7.8	5.4
가끔 느낀다	57.9	54.6	61.8	57.5	53.2	62.9	57.8
거의 느끼지 않는다	22.7	24.2	21.0	25.4	29.7	20.3	23.8
전혀 느끼지 않는다	13.9	16.4	10.9	11.7	13.9	9.0	13.0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1991), p.254.

〈표 6-33〉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단위 : %)

		두려운 곳 있음						
		계	아는사람 동 행	택시 이용	두려운곳 피해다님	그냥 다님	호신도구 휴 대	기타
전 체	51.1	48.9	8.3	9.4	14.0	16.7	0.2	0.3
15~19세	42.9	57.1	13.0	4.0	17.2	22.2	0.3	0.4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1991)

집근처에 혼자 걷기에 두려운 곳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대상 청소년의 17.2%가 두려운 곳을 피해다닌다고 응답하였고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는 응답은 13.0%였다. 그러나 아무런 대처없이 그냥 다닌다는 응답율이 22.2%로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여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 결

청소년들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업소, 물품 및 약물류, 대중매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년비행을 조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비행과 상관관계가 높은 시설·업소로는 카페, 숙박업소, 유흥가, 심야만화가게, 음란물 노점

상, 사창가, 성인오락실, 퇴폐이발소 등을 들 수 있고 불품 및 약물류로는 담배자판기, 환각제, 마약류, 각성제 등이 있고, 대중매체로는 성인만화, 주간지, 성인용 비디오 및 영화류를 들 수 있다.

소년비행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고교생의 과반수 이상이 흡연, 음주, 당구장 출입, 음란서적 소지, 음란비디오 관람, 돈내기 도박의 경험이 있으며, 약 1/3 이상이 디스코장 출입, 등록금 유용, 폭행, 공공기물 파손, 소액절도, 가벼운 추행을 경험했으며, 약 1/5 이상이 여성희롱, 금품탈취, 흥기소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의 인구비는 성인범죄 인구비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계속 증가 또는 정체에 있고, 범죄연령에 있어서는 점차 저연령층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성인에 비해 강력범의 증가추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범죄소년의 특징으로는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는 정상가정 출신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학생범죄의 비율이 무직, 근로청소년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서울시내 중고교생중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58.3%에 달한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 피해경험자가 36.1%, 재산범죄의 피해경험자가 42.5%, 성적인 피해경험자(여자의 경우)가 37.8%이다.

이에 따라 전체 청소년중 과반수 이상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II. 청소년의 사회 · 국가의식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현황파악을 위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연구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소년의 의식세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공식 통계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청소년 생활 · 의식조사”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겔럽에서 실시한 세계 청소년의 의식조사 결과도 부분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본문의 구성은 크게 사회의식과 국가의식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사회의식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국가의식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및 국가에 대한 공헌의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VII-1. 사회의식

1. 사회에 대한 인식

1)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우리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개인의 능력” “개인의 노력” “집안의 배경” “학력이나 학벌” “요행이나 운수”의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케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개인의 노력을 지적한 청소년이 전체의 과반수에 가까운 49.6%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개인의 능력(24.5%), 학력이나 학벌(17.2%)의 순이었으며 집안의 배경(6.3%), 요행이나 운수(2.0%)를 지적한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응답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집안이나 학벌과 같은 배경적

요인보다는 자신의 힘과 노력을 더욱 중요시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7-1〉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

(단위 : %, 명)

		개인 능력	개인 노력	집안 배경	학력 학벌	요행 운수	무응답 (사례수)	비 고
계		24.5	49.6	6.3	17.2	2.0	0.4 (2030)	
성별	남	23.1	52.9	5.9	14.9	2.7	0.5 (1017)	$\chi^2 = 17.46^{**}$
	여	26.0	46.2	6.6	19.5	1.4	0.3 (1013)	
교급	중	19.6	56.0	5.1	17.4	1.7	0.3 (1025)	$\chi^2 = 44.32^{***}$
	고	29.6	43.0	7.5	17.1	2.4	0.5 (1005)	
지역	대도시	25.1	44.9	6.7	20.5	2.4	0.4 (1131)	$\chi^2 = 27.61^{***}$
	시군부	23.8	55.4	5.7	13.1	1.6	0.4 (899)	

자료: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2)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

가. 사회현실 만족도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에 이르는 5점 척도를 제시하여 그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청소년중에서 우리사회 현실에 만족은 느끼고 있는 청소년은 5.1%에 불과한 반면 대다수가 불만(70.5%)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응답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사회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비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한국갤럽의 국제비교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대상국가중에서 가장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즉, 비교대상 11

개국중에서 “만족”(약간 만족은 제외)하다는 응답율에서는 최하위, 불만(약간 불만은 제외)스럽다는 응답율에서는 9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거나(싱가폴, 중국, 일본),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단계에 있는 국가(싱가폴, 브라질)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불만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문화적인 요인 이외에 것 예컨대, 정치적 상황, 사회제도, 교육환경 등—일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7-2〉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명)

		불 만	그저 그렇다	만 족	(사례수)	비 고
계		70.5	24.0	5.1	(2030)	
성별	남	67.0	25.9	6.4	(1017)	$\chi^2 = 21.83^{***}$
	여	74.1	22.2	3.8	(1013)	
교급	중	64.8	28.1	6.8	(1025)	$\chi^2 = 41.28^{***}$
	고	76.5	19.9	3.4	(1005)	
지역	대도시	74.9	19.9	4.9	(1131)	$\chi^2 = 32.60^{***}$
	시군부	65.1	29.3	5.2	(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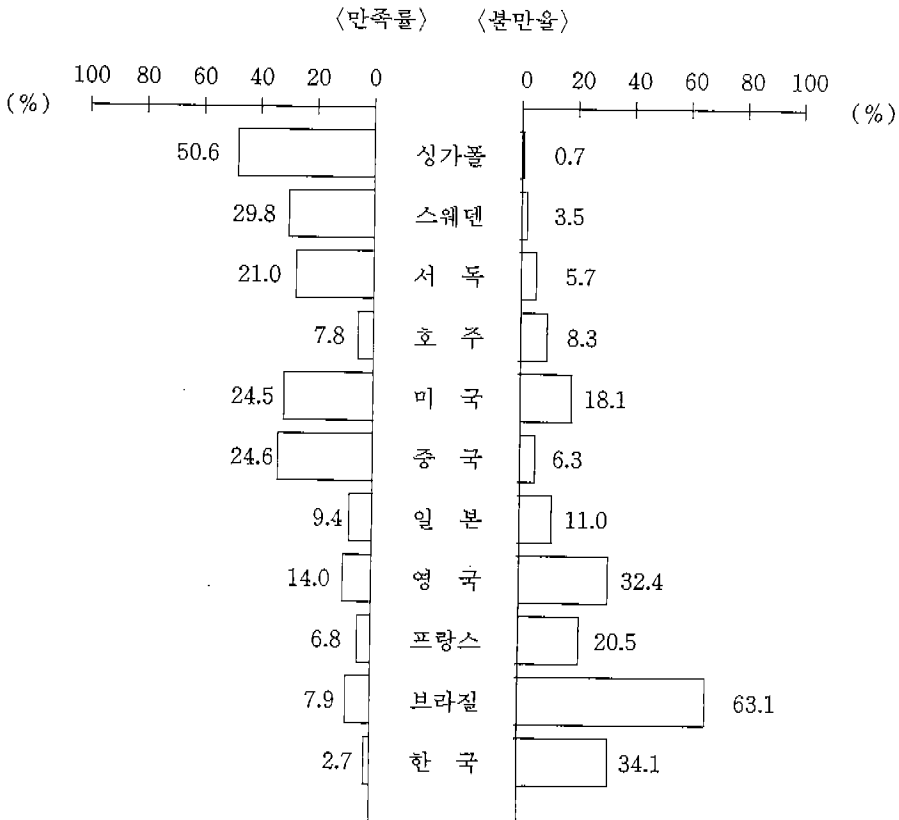
주: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나. 사회불만의 표출방식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를 표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응답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합법적 범위내에서만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다수(55.6%)인 점은 다른 나라와 동일하나 “비합법적인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응답율(7.8%)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상관없고 지내겠다”는 응답(17.8%)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싱가폴에 이어서 2위). 이것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사회행동양식이 비합법적인 적극과와 무관심 또는 방관과로 양극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1] 국가별 사회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 308.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0.8%에 달하여 비교 대상 11개국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중 사회현실에 대한 무관심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치체제가 그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두 11가지의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케 하였다. 설문 대상이 된 사회문제들은 교통문제, 환경 공해문제, 빈부격차, 노사분규, 대

〈표 7-3〉 국가별 사회불만시 행동방법

(단위 : %)

	비합법적 수단도 불사	합법적 범위에서 적극 행동	투표권만 행 사	무관심	무응답
한 국	7.8	55.6	17.6	17.8	1.3
스웨덴	2.6	54.9	35.6	3.1	3.8
미 국	2.0	55.0	38.7	2.9	1.4
호 주	3.7	50.4	39.3	4.1	2.5
브라질	5.5	48.1	40.1	1.7	4.7
서 독	4.1	39.1	39.0	6.6	11.2
프랑스	3.6	38.0	40.1	15.8	2.6
영 국	2.2	35.6	50.5	5.9	5.8
싱가폴	2.0	34.1	37.5	18.0	8.5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p.317.

학생시위, 세대갈등, 지역감정, 남녀차별, 학력차별, 범죄문제, 청소년 비행 등이다.

각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 “별로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심각한 수준이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의 다섯개의 응답항목은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항분석의 편의상 앞의 세항목의 응답비율을 합산하여 “심각하지 않다”로 포괄하여 표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될 표에서는 응답결과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한 수준이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의 세가지 척도로 재정리되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각 사회문제에 대한 응답결과를 간결하게 요약하고 각 하위집단간의 차이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문에 제시한 다섯개의 응답항목에 대해서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0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즉, “전혀 문제가 없다” 0점, “별로 문제가 없다” 1점,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2점, 심각한 수준이다” 3점,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4점) 그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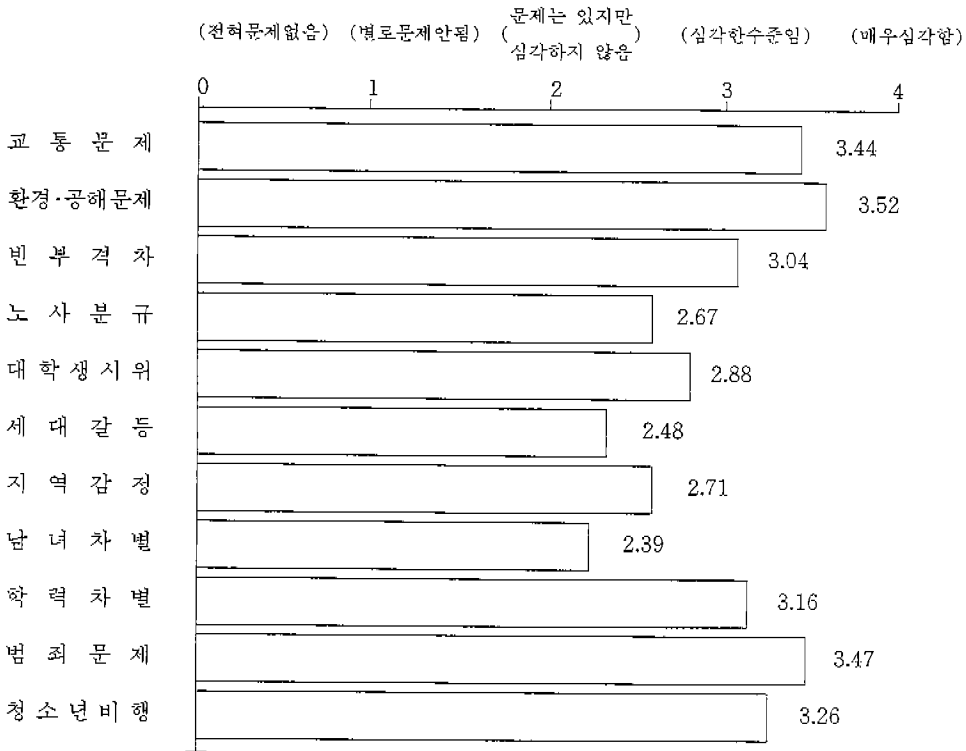
1) 전체비교

먼저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부여한 평균값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그림 7-2]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2에서 4점 사이에 위치해 있고 2점 이하의 평균값을 나타낸 항목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림 7-2] 사회문제의 인식-전체비교

(단위 : %)



자료: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이것은 청소년들이 설문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들이 평가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3점(“심각한 수준임”)을 기준으로 두가지의 그룹으로 유별될 수 있다. 먼저 3점 이상 4점 미만, 즉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는 문제들로서 모두 6가지의 사회문제가 이 그룹에 속한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공해문제가 평균값인 3.52로서 전체 사회문제중 최고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공해문제에 이어서 범죄문제(3.47), 교통문제(3.44)가 비슷한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비행(3.26), 학력차별(3.16), 빈부격차(3.04)의 순서이다.

“심각한 수준”이하로 평가된 사회문제로는 먼저 대학생시위가 2.88점으로 심각한 수

준에 근접해 있다. 그 다음이 지역감정(2.71), 노사분규(2.67)의 순이며, 세대갈등(2.48), 남녀차별(2.39)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응답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청소년들이 평가하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서열화 하면 ① 환경·공해문제 ② 범죄문제 ③ 교통문제 ④ 청소년비행 ⑤ 학력차별 ⑥ 빈부격차 ⑦ 대학생시위 ⑧ 지역감정 ⑨ 노사분규 ⑩ 세대갈등 ⑪ 남녀차별의 순서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응답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체험하거나(환경·공해문제, 교통문제),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는 문제(범죄문제, 청소년비행)일수록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비롯된 정치·경제적인 문제(학력차별, 빈부격차, 대학생시위, 지역감정, 노사분규)와 전통적인 사회관습이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세대갈등, 남녀차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이 와해되면서 점차 개별화·다원화되어가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표 7-4〉 사회문제인식－교통문제

(단위 : %, 명)

		(평 균)	심각하지 않 음	심각한 수 준	매 우 심각함	(사례수)	비 고
계		(3.44)	9.7	30.0	60.1	(2030)	
성별	남	(3.38)	11.5	30.6	57.6	(1017)	$\chi^2 = 9.37$
	여	(3.50)	7.8	29.3	62.7	(1013)	
교급	중	(3.39)	11.8	29.0	59.0	(1025)	$\chi^2 = 15.28^{**}$
	고	(3.49)	7.6	30.9	61.3	(1005)	
지역	대도시	(3.52)	7.4	29.0	63.5	(1131)	$\chi^2 = 18.18^{***}$
	시군부	(3.35)	12.4	31.1	56.0	(899)	

주: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다음으로 이상의 전체 응답경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회문제를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뒤 각 유형별로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생활환경문제 : 교통문제, 환경·공해문제

범죄문제 : 범죄문제, 청소년비행

경제·사회구조적인 문제 : 빈부격차, 대학생시위, 지역감정, 노사분규, 학력차별

사회인습상의 문제 : 남녀차별, 세대갈등

2) 문제유형별 응답결과

가. 생활환경문제

－교통문제

교통문제는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가장 비근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청소년들은 일상적으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체험하게 되고 교통사고율도 성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대한 평가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교통문제에 대한 전체 청소년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율이 60.1%로서 전체의 과반수 이상에 달하는 반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할 청소년은 전체의 1/10에 못 미치고 있다.

각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욱 불편을 느끼는 것이 그 요인으로 생각된다. 교급별로는 심각하다는 응답율에서 중학생보다는 고교생이 다소 앞서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적인 조건은 고교생이 유리하지만 중학생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응답결과는 세 변인중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율에서 대도시 청소년들이 63.5%에 이르는 반면, 시군부의 청소년들은 56.0%에 불과하였다.

〈표 7-5〉 교통문제의 심각도 - 하위집단별 평균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44	3.56	3.51	3.55	3.15	3.38	3.41	3.48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을 교차하여 얻은 8개의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대도시의 여자 중학생 (3.56)과 여자 고교생(3.55)이 교통문제의 심각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시군부의 남자 중학생(3.15)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 공해문제

환경·공해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지만, 식수오염 등 그 피해가 매스컴등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에 의해서 모든 사회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7-6〉 사회문제인식 - 환경·공해문제

(단위 : %, 명)

		(평균)	심각하지 않음	심각한 수준	매우 심각함	(사례수)	비고
계		(3.52)	7.5	28.0	64.1	(2030)	
성별	남	(3.46)	9.6	28.7	61.2	(1017)	$\chi^2 = 16.12^{***}$
	여	(3.57)	5.4	27.2	67.0	(1013)	
교급	중	(3.48)	9.6	25.4	64.5	(1025)	$\chi^2 = 18.11^{**}$
	고	(3.55)	5.4	30.6	63.7	(1005)	
지역	대도시	(3.61)	4.8	26.6	68.3	(1131)	$\chi^2 = 32.85^{***}$
	시군부	(3.39)	10.8	29.7	58.8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전체 응답결과를 보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4.1%로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고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머물렀다.

세 변인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여자의 67%가 매우 심각하다고 본 반면 남자는 61.2%로서 여자가 환경·공해문제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대체로 중학생보다는 고교생이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의 68.8%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시군부 청소년은 그보다 약 10% 뒤진 응답율(58.8%)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도시지역의 생활

환경 오염도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에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8개의 하위집단중에서는 대도시의 여자 중학생(3.64)이 가장 심각하게 평가하였고, 교통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군부 남자중학생(3.22)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표 7-7〉 환경·공해문제의 심각도 - 하위집단별 평균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60	3.66	3.56	3.64	3.22	3.42	3.38	3.56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나. 범죄문제

—범죄문제

범죄문제는 환경·공해문제와 더불어 최근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어지고 있는 사회문제로서 청소년들의 심각도 평가에서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응답결과를 보면 과반수를 상회하는 58.3%의 청소년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7-8〉 사회문제인식 - 범죄문제

(단위 : %, 명)

		(평 균)	심각하지 않 음	심각한 수 준	매 우 심각함	(사례수)	비 고
계		(3.47)	7.7	33.7	58.3	(2030)	
성별	남	(3.32)	11.3	38.8	49.6	(1017)	$\chi^2 = 76.87^{***}$
	여	(3.61)	4.2	28.5	67.0	(1013)	
교급	중	(3.44)	9.6	30.0	59.8	(1025)	$\chi^2 = 30.27^{***}$
	고	(3.49)	5.7	37.5	56.7	(1005)	
지역	대도시	(3.56)	5.6	31.2	63.0	(1131)	$\chi^2 = 38.05^{***}$
	시군부	(3.35)	10.3	36.8	52.4	(899)	

주: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각 변인별로는 특히 성별 차이가 두드러져서 여자의 67.0%가 매우 심각하다고 본 반면, 남자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49.6%만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약하고, 최근에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급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대체로 고교생이 더욱 심각하게 평가하였고, 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심각하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의 범죄율이 농촌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그 요인으로 생각된다.

각 하위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지역간, 교급간 차이보다는 성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4개의 남자집단중 가장 평균이 높은 대도시 남자중학생(3.46)도 여자집단중 가장 평균이 낮은 시군의 여자중학생(3.49)의 평균값에 못미치고 있다.

〈표 7-9〉 범죄문제의 심각도-하위집단별 평균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46	3.71	3.42	3.65	3.09	3.49	3.28	3.57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 청소년 비행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비행은 앞의 장에서 살펴봤듯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흉포화 · 연소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시급히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면 청소년 자신들은 최근의 청소년비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 범죄문제의 응답결과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비행은 그 심각도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즉,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율에 있어서 범죄문제가 58.3%에 달하는 반면, 청소년 비행은 45.6%로서 과반수에 다소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여타의 사회문제와 비교할 때 청소년비행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은 편으로서 교통문제에 이어서 4위를 점하고 있다.

〈표 7-10〉 사회문제인식－청소년비행

(단위 : %, 명)

		(평 균)	심각하지 않 음	심각한 수 준	매 우 심각함	(사례수)	비 고
계		(3.26)	13.8	40.1	45.6	(2030)	
성별	남	(3.15)	17.8	40.7	41.1	(1017)	$\chi^2 = 39.10^{***}$
	여	(3.38)	9.8	39.5	50.1	(1013)	
교급	중	(3.20)	16.4	38.9	43.8	(1025)	$\chi^2 = 17.68^{**}$
	고	(3.32)	11.1	41.3	47.5	(1005)	
지역	대도시	(3.38)	10.8	36.8	52.1	(1131)	$\chi^2 = 47.01^{***}$
	시군부	(3.11)	17.6	44.3	37.5	(899)	

주: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변인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검토해 보면, 범죄문제에 대한 응답경향과 동일하게 성별 차이가 두드러져서 여자의 50.1%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남자는 41.1%에 불과하였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도 17.8%로서 적지 않은 수에 달하였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지역별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 대도시 청소년의 52.1%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시군부 청소년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37.5%만이 같은 응답을 하였다. 이것은 특히 대도시지역일수록 청소년 비행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11〉 청소년비행의 심각도－하위집단별 평균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29	3.46	3.28	3.49	2.88	3.14	3.06	3.39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하위집단중에서는 대도시 여자고교생(3.49)이 청소년비행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생각하였고, 시군부 남자중학생은(2.88)은 8개의 집단중에서 유일하게 심각한 수준(3점)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응답결과를 검토해 보면 “나쁜 친구의 영향”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30.1%),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자각 부족”(18.5%), “TV,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의 영향”(17.2%)이 비슷한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나 어른들이 나쁘기 때문”(12.7%),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11.0%)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부모에 문제가 있기 때문”(9.9%)이라는 응답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교급별 차이가 특히 주목되는데,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율에서 고교생(15.1%)이 중학생(6.9%)에 배이상에 달하여 고교생중 상당수가 입시위주의 현행 교육제도가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12〉 청소년비행의 원인

(단위 : %)

		부모에 문제	학교 교육에 문제	본인 자각 부족	나쁜 친구 영향	사회나 어른들 영향	매스컴 영향	무응답(사례수)	비고
계		9.9	11.0	18.5	30.1	12.7	17.2	0.5 (2030)	
성별	남	8.0	11.9	17.2	37.8	9.9	14.3	1.0 (1017)	$\chi^2 = 78.16^{***}$
	여	11.8	10.1	19.8	22.5	15.4	20.2	0.1 (1013)	
교급	중	9.4	6.9	13.4	35.1	12.7	22.0	0.6 (1025)	$\chi^2 = 105.06^{***}$
	고	10.4	15.1	23.8	25.1	12.6	12.4	0.5 (1005)	
지역	대도시	11.7	11.5	19.6	28.6	15.4	12.8	0.4 (1131)	$\chi^2 = 58.46^{***}$
	시군부	7.7	10.3	17.1	32.0	9.2	22.8	0.8 (89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다. 경제 · 사회구조적인 문제

－ 빈부격차

우리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으나 분배구조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빈곤, 즉 빈부의 격차는 아직도 중요한 사회문

제의 하나로 남아있다.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중 39.1%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여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율(36.7%)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도 23.9%로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여타의 경제·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비교해 보면 빈부격차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편이다.

〈표 7-13〉 사회문제인식 - 빈부격차

(단위 : %, 명)

	(평 균)	심각하지 안 음	심각한 수 준	매 우 심각함	(사례수)	비 고
계	(3.04)	23.9	39.1	36.7	(2030)	
성별	남	(3.01)	25.3	37.0	(1017)	$\chi^2 = 7.18$
	여	(3.06)	22.4	41.2	(1013)	
교급	중	(2.90)	29.4	37.1	(1025)	$\chi^2 = 48.77^{***}$
	고	(3.17)	18.1	41.1	(1005)	
지역	대도시	(3.10)	21.4	38.7	(1131)	$\chi^2 = 13.08^*$
	시군부	(2.95)	26.8	39.5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세 변인중에서 성별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급별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현저하여 고교생들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중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율이 시군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빈부간의 격차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위집단 중에서는 대도시의 여자고교생(3.24)이 빈부격차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시군부의 남자중학생(2.73)이 그 심각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표 7-14〉 빈부격차의 심각도—하위집단별 평균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89	3.03	3.22	3.24	2.75	2.93	3.14	3.01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대학생 시위

80년대에 비해 학원가의 분규나 시위는 점차 감소해가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아직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학생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학생시위의 심각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를 다른 사회문제에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중간수준(11개의 사회문제중 7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의 응답결과를 보면 심각한 수준이 있다는 응답이 41.7%로서 가장 다수로서 매우 심각하다(28.1%)는 응답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29.9%)도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7-15〉 사회문제인식—대학생시위

(단위 : %, 명)

		(평균)	심각하지 않음	심각한 수준	매우 심각함	(사례수)	비고
계		(2.88)	29.9	41.7	28.1	(2030)	
성별	남	(2.79)	35.9	35.7	28.2	(1017)	$\chi^2 = 48.93^{***}$
	여	(2.98)	23.8	47.8	28.0	(1013)	
교급	중	(2.89)	29.1	40.7	29.9	(1025)	$\chi^2 = 15.58^{**}$
	고	(2.88)	30.7	42.8	26.4	(1005)	
지역	대도시	(3.00)	26.4	40.6	32.9	(1131)	$\chi^2 = 42.64^{***}$
	시군부	(2.73)	34.3	43.2	22.1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변인별로는 성별, 고·급별, 지역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 고교생보다는 중학생, 시군부보다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도시의 청소년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의 시위를 보다 자주 접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위집단별 평균값을 보면, 대도시의 남녀 중학생(각각 3.01, 3.12)만이 3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시군부의 남자중학생은 2.49로서 대학생시위의 심각도에 대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7-16〉 대학생 시위의 심각도—하위집단별 평균

대 도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01	3.12	2.94	2.94	2.49	2.91	2.60	2.95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지역감정

불합리한 지역적 편견에서 비롯된 지역감정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국민적 일체감의 형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감정은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무의식적인 언행이나 태도 의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주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지역감정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체적인 응답결과를 보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6%로서 전체의 1/5 남짓하고,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한 청소년도 39.0%로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변인별 응답결과와의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대부분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여자들이 보다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감정에 대해서는 남자들 사이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여성보다는 남자들 사

이에서 지역감정으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는 고교생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시군부의 청소년들보다 심각하다는 응답율에서 다소 앞서고 있는데, 이것은 대도시에서는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의 빈도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역감정으로 인한 갈등이 보다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17〉 사회문제인식 - 지역갈등

(단위 : %, 명)

		(평 균)	심각하지 않 음	심각한 수 준	매 우 심각함	(사례수)	비 고
계		(2.71)	39.0	38.7	21.6	(2030)	
성별	남	(2.77)	37.6	35.8	26.0	(1017)	$\chi^2 = 23.81^{***}$
	여	(2.66)	40.5	41.7	17.3	(1013)	
교급	중	(2.59)	44.8	35.0	19.2	(1025)	$\chi^2 = 56.24^{***}$
	고	(2.85)	33.2	42.5	24.1	(1005)	
지역	대도시	(2.75)	37.7	39.9	22.0	(1131)	$\chi^2 = 3.91$
	시군부	(2.68)	40.8	37.3	21.1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청소년의 유형별 하위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 시군부지역 모두에서 성별 차이보다는 교급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감정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평가하는 집단은 시군부의 남자고교생(3.03)으로서 8개의 하위집단 중 유일하게 3점을 상회하고 있으며, 시군부의 남자중학생(2.41)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노사분규

노사분규는 설문에서 제시한 경제·사회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사회문제 다섯가지 중에서 그 심각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노사관계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지만, 무엇보다도

〈표 7-18〉 지역감정의 심각도—하위집단별 평균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76	2.62	2.89	2.69	2.41	2.53	3.03	2.81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여타의 사회문제들에 비해 청소년들이 쉽게 실감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인 응답결과를 보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9.1%에 달하는 반면, 심각하다는 응답은 17.9%에 머물고 있다.

변인별 응답결과를 검토해 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17.4%로서 차이가 없으나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율에서는 남자(45.0%)가 여자(33.0%)보다 훨씬 앞서 있어, 여자가 상대적으로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에서 고교생이 중학생을 앞서고 있다. 지역별 차이는 세 변인중 가장 현격하게 나타나 대도시 청소년들이 시군부의 청소년보다 노사분규를 더욱 심각하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노

〈표 7-19〉 사회문제인식—노사분규

(단위 : %, 명)

		(평균)	심각하지 않음	심각한 수준	매우 심각함	(사례수)	비고
계		(2.67)	39.1	42.7	17.9	(2030)	
성별	남	(2.58)	45.0	36.8	17.9	(1017)	$\chi^2 = 38.08^{***}$
	여	(2.77)	33.0	48.6	17.9	(1013)	
교급	중	(2.65)	39.9	41.0	18.5	(1025)	$\chi^2 = 12.61^*$
	고	(2.70)	38.2	44.4	17.2	(1005)	
지역	대도시	(2.74)	36.9	43.5	19.4	(1131)	$\chi^2 = 14.15$
	시군부	(2.59)	41.8	41.6	16.0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사분류가 빈발하는 지역이 주로 공장, 기업체가 밀집된 도시지역임을 감안하면 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일수록 노사분류의 폐해를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하위집단의 평가를 비교해 보면 시군부의 여자고교생(2.89)과 대도시의 여자중학생(2.81)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시군부의 남자중학생(2.39)이 가장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7-20〉 노사분류의 심각도－하위집단별 평균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70	2.81	2.71	2.74	2.39	2.65	2.45	2.8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학력차별

학력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11개의 사회문제들 중에서 제5위로서 생활환경문제, 범죄문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 자신이 입시준비, 학과공부에 시달리면서 학력위주의 사회풍조의 폐단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21〉 사회문제인식－학력차별

(단위 : %, 명)

	(평 균)	심각하지 않 음	심각한 수 준	매 우 심각함	(사례수)	비 고
계	(3.16)	19.7	37.0	42.8	(2030)	
성별	남 (3.05)	24.4	35.5	39.8	(1017)	$\chi^2 = 38.63^{***}$
	여 (3.27)	15.2	38.6	45.8	(1013)	
교급	중 (3.08)	22.4	36.2	40.9	(1025)	$\chi^2 = 26.02^{***}$
	고 (3.23)	17.1	37.9	44.8	(1005)	
지역	대도시 (3.26)	16.2	36.6	47.0	(1131)	$\chi^2 = 25.71^{***}$
	시군부 (3.03)	24.5	37.6	37.5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전체적인 응답결과를 보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2.8%에 이른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율은 그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주요변인별 응답결과에서는 성, 교급, 지역의 세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여자가 45.8%로서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반면 남자는 39.8%에 머물렀고,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47.0%임에 비해 시군부는 37.5%로서 약 10%정도의 격차가 있었다. 교급별로는 이와 같은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학력차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력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중학생보다는 고교생이, 시군부보다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인별 응답경향은 다소의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유형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보면 대도시의 여자고교생(3.37)과 여자중학생(3.36)이 학력차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집단으로 밝혀졌으며, 시군부의 남자중학생(2.70)은 여타의 사회문제들에 대한 응답결과와 동일하게 학력차별의 심각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7-22〉 학력차별의 심각도—하위집단별 평균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12	3.36	3.19	3.37	2.70	3.13	3.16	3.19

자료 : 청소년 생활 · 의식조사(1991)

라. 사회인습상의 문제

—세대갈등

세대갈등은 청소년들이 생활주변, 특히 가정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심각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잠재적으로는 갈등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나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현재화되는 경

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체 청소년들 중 과반수에 가까운 49.9%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10%를 다소 상회하는 정도였다.

응답결과에 있어서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급별 차이는 현저한 편으로서 고교생들이 중학생보다 심각하다는 응답율에서 앞서 있어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세대갈등이 보다 빈번하게 현재화됨을 짐작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시군부의 청소년들보다 심각하다는 반응이 더 많이 나왔다.

유형별 하위집단에 있어서는 대도시의 여자고교생(2.61)이 세대갈등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시군부의 남자중학생(2.28)이 그 심각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7-23〉 사회문제인식－세대갈등

(단위 : %, 명)

		(평균)	심각하지 않음	심각한 수준	매우 심각함	(사례수)	비고
계		(2.48)	49.9	38.1	11.4	(2030)	
성별	남	(2.44)	51.5	36.0	11.8	(1017)	$\chi^2 = 8.74$
	여	(2.51)	48.2	40.3	11.0	(1013)	
교급	중	(2.43)	51.2	35.6	12.0	(1025)	$\chi^2 = 37.97^{**}$
	고	(2.53)	48.5	40.7	10.7	(1005)	
지역	대도시	(2.54)	47.9	38.4	13.1	(1131)	$\chi^2 = 13.62^*$
	시군부	(2.40)	52.2	37.8	9.2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남녀차별

남녀차별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문화가 빚어낸 산물로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잔존해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남녀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예상외로 매우 낮은 편으로서 설문에

〈표 7-24〉 세대갈등의 심각도－하위집단별 평균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47	2.53	2.55	2.61	2.28	2.41	2.45	2.47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서 제시한 모두 11가지의 사회문제중에서 그 심각성이 가장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즉 과반수 이상(54.5%)의 청소년들이 심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심각하다(29.6%), 매우 심각하다(15.2%)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남아선호사상, 취업 임금상의 성별 격차가 아직도 우리사회에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설문대상 청소년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자들의 응답이 심각하지 않다는 데에 집중된 결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응답결과를 검토해 보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남자의 비율은 71.0%로서 여자(37.9%)의 2배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반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에서는 여자가 22.0%로서 남자(8.5%)의 거의 세배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표 7-25〉 사회문제인식－남녀차별

(단위 : %, 명)

(평 균)		심각하지 안	심각한 수 준	매 우 심각함	(사례수)	비 고
계	(2.39)	54.5	29.6	15.2	(2030)	
성별	남	(2.02)	71.0	19.8	(1017)	$\chi^2 = 283.07^{***}$
	여	(2.76)	37.9	39.5	(1013)	
교육	중	(2.38)	53.7	28.2	(1025)	$\chi^2 = 27.11^{***}$
	고	(2.40)	55.3	31.0	(1005)	
지역	대도시	(2.47)	50.9	30.9	(1131)	$\chi^2 = 20.65^{***}$
	시군부	(2.29)	58.9	27.9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교급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대체로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이 심각하다는 응답율이 시군부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검토해보면 지역간, 교급간 차이보다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평균값에 있어서 남자는 1.96에서 2.08사이에 머물러 있는 반면, 여자는 2.54에서 2.93까지 기록하였다. 남녀차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대도시의 여자고교생(2.93)이었고, 시군부의 남자고교생(1.96)이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7-26〉 남녀차별의 심각도－하위집단별 평균값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4	2.84	2.08	2.93	1.97	2.65	1.96	2.54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VII-2. 국가의식

1. 국가에 대한 인식

1) 국가에 대한 만족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만족한다는 비율이 44.8%로서 과반수에 못 미쳤으나 불만을 느끼는 비율(18.4%)의 두 배 이상에 달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는 성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시군부의 청소년이 대도시의 청소년보다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7〉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단위 : %)

		불만	그저그렇다	만족	(사례수)	비고
계		18.4	36.6	44.8	(2030)	
성별	남	15.7	30.9	52.9	(1017)	$\chi^2 = 76.82^{**}$
	여	21.1	42.3	36.5	(1013)	
교급	중	19.0	36.2	44.6	(1025)	$\chi^2 = 6.42$
	고	17.9	37.0	44.8	(1005)	
지역	대도시	20.3	38.9	40.6	(1131)	$\chi^2 = 19.74^{**}$
	시군부	16.1	33.7	49.9	(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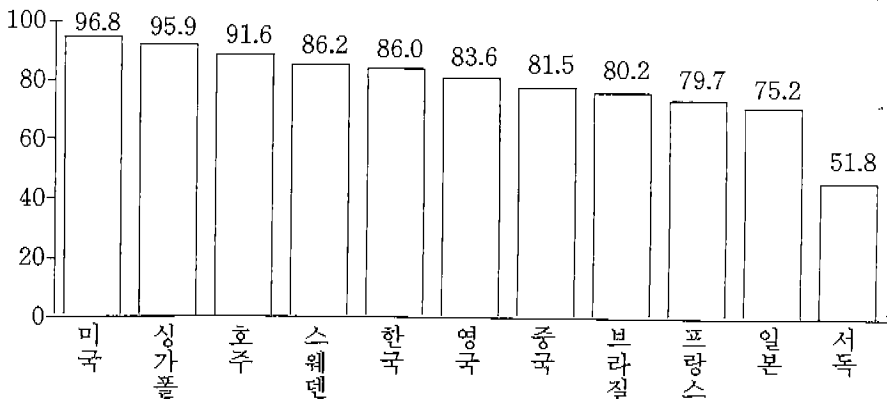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갤럽의 조사를 인용해 보면,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는 비율에 있어서 한국의 청소년은 86.0%로서 비교대상 11개국 5위를 차지하여 중간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비교적 건국의 역사가 일천한 신생국일수록 자국민으로서의 긍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96.8%), 싱가포르(95.9%), 호주(91.6%)가 각각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7-3] 국가별 자국민으로서의 만족도

(단위 : %)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1991)

2) 국가에 대한 공헌의사

다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கே럽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공헌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4%로서 압도적인 다수였고 없다는 응답은 8.7%의 소수에 불과했다.

변인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국가에 대한 공헌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별, 학력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7-28〉 국가에 대한 공헌의사

(단위 : %)

		있다	없다	무응답	(사례수)
계		87.4	8.7	3.9	(1002)
성별	남	90.4	6.6	3.0	(498)
	여	84.5	10.7	4.8	(504)
연령	18~19세	90.3	6.8	2.8	(351)
	20~22세	87.5	9.2	3.4	(415)
	23~24세	83.1	10.6	6.4	(236)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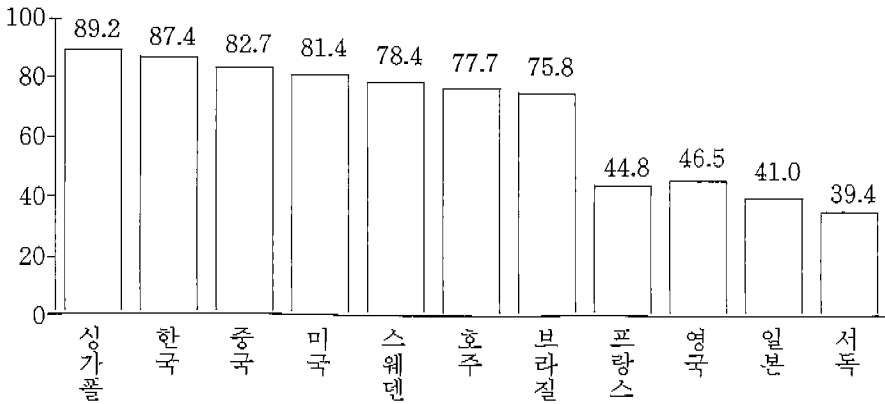
동일한 질문에 대한 각국의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국가를 위해 공헌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율이 싱가포르(89.2%)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3위인 중국(82.7%)을 포함하여 1~3위까지의 국가가 모두 유교적인 문화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인 점이 주목된다.

2.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한 평가

세계속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가를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의 함양을 위해서 불가결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속에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청소년들은 맹목적인 자국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

[그림 7-4] 국가별 국가에 대한 공헌의사

(단위 : %)



자료 : 한국갤럽,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1991)

인 국제시민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국가관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을 전체국가 차원과 국민생활 차원으로 양분하여 각각 3가지 부문의 조사항목을 제시한 뒤 그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설정된 여섯가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전체 국가 차원〉 〈국민생활 차원〉

경제부문 : 경제적인 발전수준—국민들의 복지수준

정치부문 : 정치적인 발전수준—국민인권의 복지수준

문화부문 : 문화적인 발전수준—국민들의 질서의식

본 조사에서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각 부문별로 전체국가 차원의 발전수준과 국민생활 차원의 발전수준을 동시에 측정한 것은 이 양자간의 괴리현상에 대한 파악도 매우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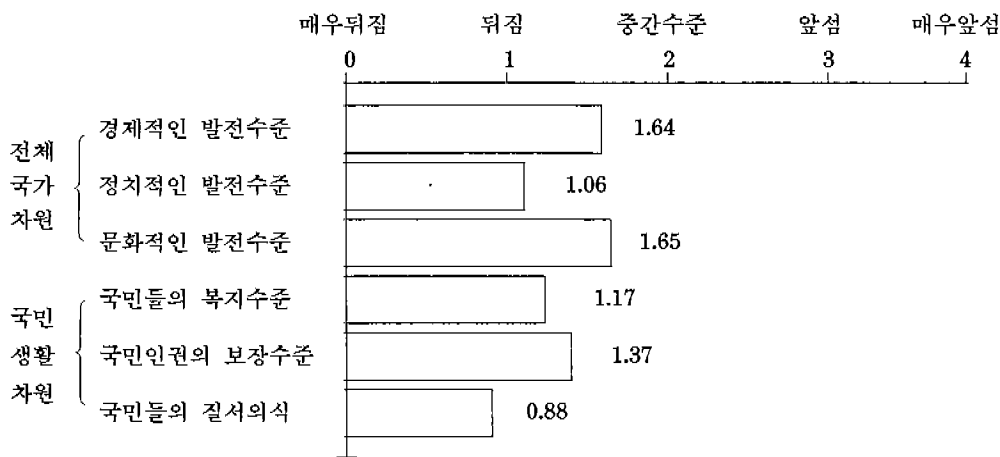
한편,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은 “매우 뒤져 있다” “뒤져 있다” “중간 수준이다” “앞서 있다” “매우 앞서 있다”의 5점척도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결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각 응답항목별 빈도(%)의 비교보다 아울러, 각 응답항목

을 수량화하여 얻은 평균값도 활용하였다. 즉 “매우 뒤져 있다”에 0점, “뒤져 있다”에 1점, “중간수준이다”에 2점, “앞서 있다”에 3점, “매우 앞서 있다”에 4점을 부여한 뒤 각 설문문항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문항별 응답결과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1) 전체비교

먼저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7-5]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전체비교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이 그림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청소년들은 우리나라가 설문에서 제시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중간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체국가 차원의 발전수준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발전수준(1.65)과 경제적인 (1.64)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본 반면, 정치적인 발전수준(1.06)은 매우 큰 폭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한 점이 주목된다. 국민생활 차원의 발전수준은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의 발전수준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중에서 국민 인권의 보장수준(1.37)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된 반면, 국민들의 복지수준(1.17)은 다소 낮게 평가되었고 국민들의 질서의식(0.88)은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항목을 평균점수에 따라 서열화하면 ① 문화적인 발전수준 ② 경제적인 발전수

준 ③ 국민인권의 보장수준 ④ 국민들의 복지수준 ⑤ 정치적인 발전수준 ⑥ 국민들의 질서의식의 순서이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청소년들이 맹목적인 애국심에 이끌리지 않고 세계속에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성세대가 이루어낸 우리의 발전성파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자기비하감에 빠져들 소지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일단 접어두고 다음으로는 각 부문별 발전수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경제부문

가.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수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수준에 대한 전체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중간수준에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는 53.0%로서 가장 많았고, 뒤져 있다(“매우 뒤져 있다”와 “뒤져 있다”)는 응답율이 37.3%로서 그 다음이었으며, 앞서 있다(“매우 앞서 있다”와 “앞서 있다”)는 응답율은 9.4%에 머물렀다.

〈표 7-29〉 우리나라의 발전수준—경제적인 발전 수준

(단위 : %, 명)

		(평 균)	뒤 져 있 다	중 간 수 준	앞 서 있 다	(사 례 수)	비 고
계		(1.64)	37.3	53.0	9.4	(2030)	
성별	남	(1.71)	34.5	51.5	13.5	(1017)	$\chi^2 = 45.31^{***}$
	여	(1.57)	40.2	54.4	5.2	(1013)	
교급	중	(1.72)	34.6	50.6	14.3	(1025)	$\chi^2 = 60.80^{***}$
	고	(1.56)	40.1	55.3	4.4	(1005)	
지역	대도시	(1.60)	39.5	52.2	8.1	(1131)	$\chi^2 = 8.99$
	시군부	(1.69)	34.7	53.9	10.9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주요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있다는 응답율이 2배 이상(13.5%:5.2%)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교급별로는 앞서 있다는 응답율에서 중학생(14.3%)이 고교생(4.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대체로 시군부의 청소년들이 대도시 청소년들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유형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에 있어서는 시군부 남자중학생의 평균값이 1.91로서 거의 중간수준에 가깝게 높이 평가한 반면, 대도시 여자고교생은 1.49로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표 7-30〉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수준—하위집단별 평균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70	1.59	1.63	1.49	1.91	1.71	1.61	1.48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나. 국민들의 복지수준

국민복지 수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매우 낮은 편으로서 과반수를 훨씬 넘는 청소년들(64.5%)이 뒤져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앞서 있다는 응답은 극히 소수(3.5%)

〈표 7-31〉 우리나라의 발전수준—국민들의 복지수준

(단위 : %, 명)

		(평 균)	뒤 져 있 다	중 간 수 준	앞 서 있 다	(사 례 수)	비 고
계		(1.17)	64.5	31.1	3.5	(2030)	
성별	남	(1.22)	61.2	32.4	5.6	(1017)	$\chi^2 = 33.18^{***}$
	여	(1.13)	67.9	29.7	1.5	(1013)	
교급	중	(1.30)	57.7	35.7	5.4	(1025)	$\chi^2 = 59.14^{***}$
	고	(1.05)	71.7	26.4	1.7	(1005)	
지역	대도시	(1.06)	70.9	25.5	3.1	(1131)	$\chi^2 = 59.13^{***}$
	시군부	(1.32)	56.6	38.2	4.2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에 불과했다.

앞의 문항의 응답결과와 평균값을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수준은 1.64점으로서 중간수준에(2)에 어느정도 근접해 가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1.17로서 현격하게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경제부문에서 국가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발전을 성취하였으나 그 발전의 성과가 국민생활차원에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응답결과와 현격한 차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분배구조가 왜곡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변인별 응답결과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고교생보다는 중학생이, 대도시보다는 시군부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국민복지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생활수준에 있어서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시군부의 청소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위집단별로는 시군부의 남자중학생 응답결과와 평균이 1.5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대도시의 고교생은 남녀 각각 0.97, 0.98로서 우리나라의 국민복지 수준이 매우 낙후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7-32〉 국민들의 복지수준 평가—하위집단별 평균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25	1.06	0.97	0.98	1.55	1.35	1.17	1.16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2) 정치부문

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발전수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발전수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청소년의 68.3%가 뒤져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앞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인 상

〈표 7-33〉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정치적인 발전수준

(단위 : %, 명)

		(평 균)	뒤 저 있 다	중 간 수 준	앞 서 있 다	(사례수)	비 고
계		(1.06)	68.3	28.5	2.6	(2030)	
성별	남	(1.04)	69.0	27.0	3.3	(1017)	$\chi^2 = 16.81^{**}$
	여	(1.09)	67.7	29.9	1.9	(1013)	
교급	중	(1.24)	58.1	36.7	4.3	(1025)	$\chi^2 = 113.59^{***}$
	고	(0.89)	78.9	20.1	0.8	(1005)	
지역	대도시	(0.98)	73.3	24.3	1.9	(1131)	$\chi^2 = 37.59^{***}$
	시군부	(1.17)	62.1	33.7	3.3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황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녀간에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교급에 있어서는 고교생보다는 중학생이,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시군부의 청소년이 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7-34〉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발전수준 평가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12	1.11	0.76	0.98	1.39	1.38	0.96	0.88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각 하위집단별 응답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시군부의 남녀중학생(각각 1.39, 1.38)이 비교적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발전수준을 높이 평가한 반면, 대도시의 남자고교생(0.76)이 다른 집단과 현격한 차이를 두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나. 국민들의 인권보장 수준

우리나라에서 국민인권에 대한 보장이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은 뒤져 있다가 52.7%로서 과반수를 다소 상회하고 있으며 중간수준이라는 응답도 40.7%로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

〈표 7-35〉 우리나라의 발전수준—국민의 인권보장 수준

(단위 : %, 명)

		(평 균)	뒤 저 있 다	중 간 수 준	앞 서 있 다	(사 례 수)	비 고
계		(1.37)	52.7	40.7	5.7	(2030)	
성별	남	(1.43)	49.7	40.3	9.0	(1017)	$\chi^2 = 47.47^{***}$
	여	(1.32)	55.7	41.1	2.5	(1013)	
교급	중	(1.49)	45.5	46.1	7.0	(1025)	$\chi^2 = 49.95^{***}$
	고	(1.26)	60.1	35.1	4.4	(1005)	
지역	대도시	(1.25)	59.2	36.3	3.7	(1131)	$\chi^2 = 64.34^{***}$
	시군부	(1.52)	44.5	46.2	8.3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의식조사(1991)

결과를 앞서의 문항과 비교해 보면, 평균값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발전수준은 1.06으로서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권의 보장수준은 1.37로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진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고교생보다는 중학생이 대도시보다는 시군부의 청소년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하위집단에 있어서는 시군부의 남자중학생(1.83)이 우리나라의 국민인권 보장수준이 중간수준(2)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대도시의 남자고교생(1.15)은 매우 뒤져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7-36〉 국민 인권의 보장수준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40	1.23	1.15	1.24	1.83	1.54	1.41	1.29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3) 문화부문

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발전수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발전수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정치, 경제적인 발전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전체 청소년중 43.2%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발전수준이 중간수준에 있다고 응답하여 뒤져 있다는 응답율(40.6%)을 근소하게나마 앞지르고 있었다.

변인별 응답결과를 보면 앞서 있다는 응답율에서 남자(20.4%)가 여자(10.9%)의

〈표 7-37〉 우리나라의 발전수준—문화적인 발전수준

(단위 : %, 명)

		(평 균)	뒤 저 있 다	중 간 수 준	앞 서 있 다	(사 례 수)	비 고
계		(1.65)	40.6	43.2	15.6	(2030)	
성별	남	(1.73)	38.2	40.7	20.4	(1017)	$\chi^2 = 38.94^{***}$
	여	(1.58)	43.1	45.5	10.9	(1013)	
교급	중	(1.79)	33.9	45.6	19.7	(1025)	$\chi^2 = 53.76^{***}$
	고	(1.52)	47.5	40.7	11.4	(1005)	
지역	대도시	(1.60)	44.5	39.6	15.4	(1131)	$\chi^2 = 24.20^{***}$
	시군부	(1.72)	35.8	47.6	15.8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거의 두배에 달하고 있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시군부의 청소년(15.8%)이 대도시의 청소년(15.4%)보다 중간수준 또는 앞서 있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문화적인 환경이 대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함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형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시군부의 경우 남녀 중학생, 남자 고교생은 모두 평균값이 1.80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여고생은 1.40으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다는 점이다.

〈표 7-38〉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발전수준

대 도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85	1.65	1.50	1.43	1.84	1.81	1.81	1.40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이러한 응답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시군부의 여자고교생들이 문화적인 욕구와 현실과의 괴리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국민들의 질서의식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서의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설문에서 제시한 6가지의 항목중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다. 즉, 뒤져 있다는 응답이 77.9%에 달하는 반면 앞서 있다는 응답은 2.3%로서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질서의식이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재는 중요한 척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응답결과는 앞서 문항의 응답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의외라고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발전수준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높은 점수(1.65)를 부여하였지만, 정작 문화발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질서의식(0.88)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이 주로 밖으로 드러나는 외관에만 치우쳐 왔고 국민들의 문화의식 · 가치관의 선진화로 연결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변인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보면 성별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교급별로는 고교생보다는 중학생,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시군부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

〈표 7-39〉 우리나라의 발전수준－국민들의 질서의식

(단위 : %, 명)

	(평 균)	뒤 져 있 다	중 간 수 준	앞 서 있 다	(사 례 수)	비 고
계	(0.88)	77.7	19.3	2.3	(2030)	
성별	남	(0.90)	76.1	19.5	3.7	(1017)
	여	(0.85)	79.2	19.1	1.1	(1013)
교급	중	(0.95)	73.6	21.7	3.6	(1025)
	고	(0.81)	81.8	16.8	1.1	(1005)
지역	대도시	(0.77)	83.1	14.8	1.6	(1131)
	시군부	(1.03)	70.9	24.9	3.3	(899)

주 : 무응답의 비율은 표에서 제외.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서의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역간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40〉 국민들의 질서의식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81	0.73	0.73	0.77	1.20	1.08	0.94	0.83

자료 : 청소년생활 · 의식조사(1991)

하위집단별 응답경향을 보면 시군부의 남녀중학생의 평균값이 모두 1점 이상으로서 국민들의 질서의식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 반면, 대도시의 남녀고교생은 각각 0.73, 0.77점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 결

우리의 사회현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대다수가 불만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와 같은 불만의 표출방식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합법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체험하거나,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는 문제일수록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정치·경제적인 문제, 사회인습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순위별로 보면 환경·공해문제, 범죄문제, 교통문제, 청소년비행, 학력차별, 빈부격차, 대학생시위, 지역감정, 노사분규, 세대갈등, 남녀차별의 순서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였고, 국가에 대한 공헌의사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적·문화적인 발전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었으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정도를 문화적인 발전수준, 경제적인 발전수준, 국민인권의 보장수준, 국민들의 복지수준, 정치적인 발전수준, 국민들의 질서의식의 순서대로 높이 평가하였다.

결 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에 관한 연구결과와 통계를 한데 모아 정리·분석해서 청소년지표를 만든다는 장기계획하에, 우선 그 준비작업으로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청소년에 관한 공식통계와 통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청소년생활·의식조사의 결과를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선택된 통계와 조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요점과 거기서 발견된 주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다음에 청소년지표를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행해야 할 연구사업의 계획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지표체계를 시안으로 제출하고자 한다.

1. 요약 및 문제점

1) 청소년인구와 가족

1989년 현재 청소년인구(9~24세)는 약 1,36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2.3%를 차지하는데, 남녀 비율은 약 52대 48로 남자가 상당히 더 많다. “자식을 한, 둘 나아서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 구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전체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킨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청소년정책을 세울 때는 이런 인구동태를 참작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세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은 점점 줄어들고(1985 : 14.4%) 부모와 자식들만 같이 사는 핵가족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67.0%),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많이 줄어 4.1명이 되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15~24세)의 기대 자녀수는(1988년) 1.6명으로서 앞으로도 가구원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가족의 소규모화와 더불어 가족해체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사회전체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인간생활에서는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최근에는(1989) 이혼전수가 9년 전보다 89%나 증가한 4만 5천건이 넘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불안정 가구수도 전체가

구수의 32%(1975)에서 46%(1985)로 증가했다. 그 결과, 요보호아동수(0~18세)가 64만명(1990)으로 전체아동인구의 3.6%가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1989)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늘어서 6,537가구에 13,633명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1985년보다 23%나 늘어난 숫자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 의견이 대립된 적이 있는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3분의 1이상(35%)이나 되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 약 40%나 되었다. 이것은 세계 11개국을 비교한 갤럽조사인데 서독(41%)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자식간의 의견대립은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조사대상자의 약 30%가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라고 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22%만이 엄격하다고 했다. 어머니 중에서도 취업여성보다도(20%) 가정주부가 더(23%) 엄격하다고 나타났다.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관대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서 요즘 청소년들이 질서의식도 모자라고 너무 이기적으로 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부모가 자식에게 엄격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데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다. 11개국을 비교한 갤럽조사에서 미국은 85%의 아버지가 자신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78%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11개국중 6위가 되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대화라고 하는데 조사대상 청소년의 절반이 자기 아버지가 대화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했고, 63%는 어머니가 대화 노력을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18%의 학생은 아버지가 대화 노력을 안한다고 말했고, 11%의 학생은 어머니가 대화 노력을 안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버지가 가족들과 자주 대화하는가”라는 설문에서 한국은 그렇다는 응답율에서 11개국중 최하위였다. 요즘,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문제와 직장에서 늦게 퇴근해서 자식들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아버지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재어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청소년이 58%, 불만이라는 사람은 12%이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만족이 78%, 불만이 6%였다. 대도시의 중학교 남학생은 77%나 만족한다고 했는데, 시·군의 고등학교 여학생은 46%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가정에서 불만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부모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40%, 둘째로 부모의 수입이 작다가 34%, 셋째로 식구끼리 자주 다툰다가 30%였다.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한국은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에서 최하위이며, 부모가 청소년을 이해 못한다는 항목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응답율이 높았다. 청소년의 건전한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터전인 가정에서 좀더 만족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도록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 같다.

2) 청소년과 교육

청소년의 대부분은 국민학교 상급반부터 대학졸업자의 일부까지 포함되는 학생이므로 학교교육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교육기회를 보면, 전체국민의 평균 교육년수는 8.6년인데 남자는 9.7년이고 여자는 7.6년으로, 여자는 남자의 79%밖에 안된다. 남녀간 교육기회의 차이는 고등교육에서 더 커지는데 남자의 16%가 대학졸업자이고 여자는 5%만 대학을 졸업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국민의 11%인데 일본은 14%이고 미국은 32%이다. 그동안 남녀간의 차이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고등교육에서의 남녀차이를 없애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진하자면 고등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해야하겠다.

1960년대 이후 각급학교의 학생수는 많이 변했다. 가족계획의 성공으로 출생율이 떨어지면서 국민학교 입학자수가 1975년 이후 많이 줄었고, 중학교 입학자수는 10년뒤인 1985년부터 줄기 시작했다. 반면에 농아, 맹아, 지체부자유아를 가르치는 특수학교 학생수는 196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공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다. 정부는 제7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에서 1996년까지 특수학교 19개와 특수학급 1,800개를 증설하겠다고니, 많은 장애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또 근로청소년을 위한 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이 늘어나서 요즘은 거기에 다니는 학생수가 정규대학생수의 19.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학교들은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율이 33%밖에 안되는 요즘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다.

지역적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에 초·중·고학생의 약 3분의 1이 모여있고, 대학생은 서울에만 28%나 집중되어 있다.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의 비율은 65대 35이고, 대학교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의 비율이 48대 52인데, 기능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을 생각하면 실업계와 자연계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다.

각급 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실태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생의 3분의 1이 취직되는데, 사무직에 제일 많이 취직하고(35%), 생산직에도 약 5분의 1이 취직하는데, 최근에는

전문·기술직에 취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생중에서 진학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 사람이 33%나 된다는 사실은 큰 걱정거리다. 대학졸업생은 절반도 안되는 48%만 취직이 되는데,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에 제일 많이 취직하고, 다음으로 제조업에 많이 취직한다.

전체 학교수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에서 28.5%, 고등학교에서 50.5%,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80.2%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사립학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학교규모는 농촌의 국민학교가 학생수 150인 이하의 소규모로 많이(45%) 변하고, 그밖의 학교는 대규모화되는 경향이 있다. 중학교는 1,500명 이상의 학교가 전체의 22%, 고등학교는 41%로 늘어서 학교당 평균 학생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많은 편이다. 반면에, 학급규모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 국민학교는 한번에 30명도 안되는 학급수가 많이 늘어 전체의 5분의 1이 넘게(22%) 되었고, 중·고등학교도 학급당 학생수가 조금씩 줄어 50내지 52명이 되었다. 그러나, 전문대학과 대학교는 코스당 학생수가 상당히 늘어서 평균 250명을 넘게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대학생수는 많이 늘었는데 그만큼 대학교 교수인원이 늘지 못했다는 표시인 것 같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하루에 2부제 이상으로 수업하는 국민학교 학급수가 8천개나 된다니 놀라운 일이다. 각급학교 교원수도 많이 늘었고, 특히 교원중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커졌다. 국민학교에서는 남녀교사의 비율이 1대 1이며 중·고등학교에서는 1.2대 1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대학에서는 남녀 교수비율이 2.8대 1이고, 대학교는 남녀 차이가 더 심해서 4.6대 1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과 한국의 여교사 비율이 제일 낮은 축에 든다. 교원 1인당 학생수도 1960년 이래 많이 줄어서 국민학교는 36명, 중·고등학교는 25명이 되었는데, 대학교는 오히려 20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도 한국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서 국민학교는 일본의 1.6배, 이태리의 2.5배나 되고, 중·고등학교는 일본의 1.4배, 이태리의 2.6배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은 일본의 3.4배, 서독의 3.9배가 된다. 청소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하자면 이미 질러진 교사들을 고용하는데 좀 더 투자를 해야겠다. 최근 대학원 교육이 확장되면서 석·박사학위를 가진 교원수도 상당히 늘어나서,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박사학위 가진 교원과 석사학위 가진 교원이 각각 41%나 되었다.

우리의 학교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학생 1인당 기본교지는 중·고등학교에서

는 1960년대의 80%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대학은 44% 수준으로 떨어져 사정이 매우 악화되었다. 도서관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어서 현재 중학교 92개교에 도서관 1개 꼴이 되었다. 또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중·고등학교에서 30%만큼 증가했으나 대학교는 반대로 36%나 감소했다. 대학교 도서관의 학생당 장서수도 1970년의 25.6권에서 현재 18.5권으로 줄어들었다. 청소년교육을 제대로 하자면 각급 학교 교육시설에 상당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재정을 보면, 문교예산이 국민총생산의 3.6%에 불과하고,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보조가 총학교예산의 6.6%밖에 안된다. 또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학교예산 중에서 시설비에 할당되는 비율이 아주 작기 때문인 것 같다. 국민학교는 경상비의 9.5%, 중학교는 7.4%, 고등학교는 6.1%, 그리고 대학은 좀 낫다고 하지만 13.6%만을 시설투자에 배정한다. 학교예산 자체가 넉넉하지 못한데다가 그중에서 시설에 투자하는 비율도 아주 작아 결국 학교시설 수준이 낙후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학생 1인에게 쓰는 공교육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국민학생은 일본학생의 36%, 중학생은 일본의 37%, 그리고 고등학생은 영국의 24%밖에 안된다. 특히 한국은 공교육비중 고등교육에 쓰는 비율이 9.5%밖에 안되어, 일본의 2.2분의 1, 미국의 4.1분의 1밖에 안된다.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급과학기술의 발달이 요구되는 요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가 상당히 증가해야 되겠다.

3) 청소년과 노동

1990년 현재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1,840만명중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260여만명으로 14.2%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여자가 40.4%인데, 청소년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여자가 62.2%가 되어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또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1주일에 돈버는 일을 1시간도 못한 사람)가 2.4%인데, 청소년중에서는 7%나 되어 청소년의 실업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여준다.

1960년대 이래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는 농·어업종사자가 제일 많이 줄어 최근에는(1989)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도 못되며(19.5%)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일 많이 늘어서 절반이 넘게(52.3%) 되었다. 직업별로는 생산·운수직이 제일 많이 늘어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이 넘게(34.5%) 되었다. 청소년취업자도(1990)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에 제일 많이 종사하여 절반이 넘고(56%) 이 산업

전체 종사자의 14%를 구성하고, 직업별로는 제조업에 제일 많이(41%) 종사하여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를 교육정도별로 구분하면, 고졸이 제일 많아 3분의 1이 훨씬 넘고(38%), 국졸 이하는 3분의 1도 안되는데(29%), 여자 취업자는 남자보다 학력이 낮아서 국졸 이하가 제일 많아 41%이며, 고졸은 3분의 1도 못된다(31%).

청소년 취업자의 학력을 보면(1989), 고졸이 3분의 2로(66%) 제일 많고 이들의 절반이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중졸 이하가 4분의 1도 안되는데(23%) 이들의 절반 이상이 광공업에 종사한다. 청소년 취업자중 금융·용역업에 여자가 제일 많아 전체의 79%나 되고, 청소년 취업자를 연령층별로 다시 나누면 20~24세 집단이 4분의 3이 넘고(76%), 15~19세 집단이 3분의 1도 안된다(24%).

취업경로를 보면, 친구나 학교의 알선이 제일 많아서 전체취업자의 절반 이상(51%)이 이용했고, 취직시험은 10%만이 이용했다. 청소년들은 5분의 3에 가까운(59%)사람들이 친구나 학교의 알선으로 취업했고, 취직시험을 통해 취업한 사람은 13%밖에 안되었다.

전체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1989), 임금근로직이 절반 이상(54%)을 차지하는데, 이들의 5분의 4이상(84%)이 상시고용인이고, 전문·행정직이 임금근로자 비율이 제일 높아 89%나 된다. 청소년 근로자도 91%가 임금근로자이고 이들의 94%가 상시고용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전체 취업자의 24%, 경기도에 13%가 모였는데, 청소년 취업자는 28%가 서울에, 13%가 경기도에 모였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 이상(37%), 청소년취업자의 5분의 2 이상(41%)이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전체 실업자를 교육정도별로 구분하면, 고졸이 53%, 대졸이 25%가 되고, 남녀별로 구분하면 여자가 30%를 차지한다. 전체실업자의 14%밖에 안되는 청소년 근로자가 전체실업자의 41%를 구성한다는 것은 청소년의 실업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표시한다. 청소년 실업자의 3분의 2이상이 고교졸업자이고(1989), 이들이 전체 실업자의 절반 이상(55%)를 구성한다. 실업동기로 보면, 보수가 적어서라는 이유가 제일 많고, 장래성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그 다음이다.

근로청소년의 임금수준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1989)을 기준으로 14~17세는 44%, 18~19세는 51%, 20~24세는 64%밖에 안되며, 일반적으로 성인근로자의 약 절반수준에 해당한다. 단, 여자의 임금은 남자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55.3%)형편이고,

행정·관리직의 임금수준이 제일 높아 평균임금의 2배가 넘고 생산직의 임금이 제일 낮아 평균임금의 83%밖에 안되어, 최고 임금은 최저임금의 3배에 가깝다. 또 학력별 임금차이도 심해서 중졸이하의 대졸 이상 근로자임금의 44%밖에 안된다.

전체 근로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1970년의 51.6시간에서 1989년의 49.2시간으로 줄었고, 금융·용역업의 근로시간이 제일 짧아 44.6시간이며 제조·운수업이 제일 길어 50.7시간이다. 제조업의 근로시간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근로시간이 제일 길어 일본의 41.4시간보다 7.8시간 더 길고 호주의 37.7시간보다는 11.5시간이나 더 긴 셈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 1965년부터 1987년에 이르는 동안 총재해자수는 14배 이상으로 늘었고,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2배, 그리고 신체장애자수는 무려 164배로 증가했다. 1989년 한 해만 보더라도 사망자가 1,724명이나 발생해서 하루 평균 4.7명이 일하다 죽었다는 얘기가 되고, 신체장애자는 2만 5천명이 발생해서 하루에 70명 꼴이 되었다. 특히 제조업에서 재해자가 제일 많이 발생해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사망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광업재해자는 전체의 7%밖에 안되는데 사망자 비율은 18%나 된다. 산업재해자를 나이별로 구분하면, 25~34세 집단이 전체의 36%를 차지해 제일 많고, 24세 이하의 청소년도 21%나 차지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도 청소년 재해자가 31%나 되고, 전기 운수업에서는 25%나 되었다. 1989년 한 해에 28,450명의 청소년이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그중에서 189명은 사망했다. 근로자 전체의 안전과 동시에 청소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전체 취업자중(1989) 현재의 일터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약 84%가 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이 약 11%가 된다. 전직의사를 가진 취업자를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제일 많아 13%나 되는데 그들의 전직이유중 장래성이 없다는 3분의 1이 넘고(34%), 소득수준이 낮다가 3분의 1이 조금 못된다(32%).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 산업종사자 중에 전직 희망자가 제일 많아 12%나 되고 그 이유로는 장래성이 없다는 제일 많다(40%)

청소년 근로자의 5분의 1이 직장을 옮기기를 원하고, 그 이유로는 장래성이 없다는 제일 많고(42%), 그 다음이 임금이 적다(26%)이다. 여자 청소년 근로자들은 좀 더 보수적이어서 전직 희망자가 14%이고, 그 이유로는 장래성이 없다는 3분의 1이 좀 못되고(32%), 임금이 적다가 28%이다. 특히 농·어업직의 청소년들은 절반 가까이

(46%)나 전직을 희망했다.

실제로 전직한 회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근속년수가 3년 미만인 취업자들 중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전직하지 않은 사람은 51%밖에 안되고, 조사대상자 전체의 28%가 1회, 11%가 2회, 그리고 3회나 전직한 사람은 9%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전직회수가 적었다. 직업별로는 생산 운수직의 전직율이 높아 지난 3년간 1회이상 전직한 사람이 58%나 되었다.

전직을 희망하거나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직을 하였나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3분의 1 이상(35%)이 실제로 구직을 했고, 전직·추가취업자의 3분의 2 이상(68%)이 새 직업으로 임금근로직을 원했다. 약 3분의 2가 좀 안되는(65%) 비구직자의 이유를 보면,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약 3분의 1(33%)이었고,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대답이 29%나 되었다. 여자는 실제로 구직한 사람의 수가 남자보다 조금 적은 31%였다. 청소년의 42%가 실제로 구직을 하고 여자 청소년 근로자도 40%나 실제로 구직을 해서, 전체근로자에 비해 청소년 근로자는 구직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중에서 구직활동을 안한 근로자들의 이유를 보면,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3분의 1이 좀 못되고(30%), 새일자리 찾아 다닐 시간이 없어서인 사람이 약 4분의 1(24%)이 되었다.

요즘 근로자들이 직업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정성이고(43%), 그 다음이 수입(25%)이며, 세번째가 발전성(15%)이라고 한다. 학력별로는 고졸근로자가 안정성을 제일 중요시 하고, 국졸 이하는 수입을, 그리고 대졸자는 발전성을 제일 중요시했다.

4)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

우리의 문화환경은 지난 30년간에 많은 발전을 하여 도서관, 박물관, 전시장, 체육시설, 공원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었다. 문화예술환경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총 2,188개이며 시도지정문화재도 1987년 현재 2,235개에 이르고 있다. 박물관 역시 종합, 문예, 역사, 과학박물관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는데 1987년 현재 총 164개에 이른다. 지역 문화보급의 첨병역할을 하는 지방문화원 및 마을문고는 1987년 이후 그 성장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하겠다. 도서관은 1970년에 비하여 3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여 1990년에는 574개소에 이른다. 1989년 현재 전국의 도시공원은 4,019개이며 1인당 면적은 21.8㎡

이다. 1985년에 2,558개소이던 도시공원이 1989년에는 4,019개로 1,461개나 증가했으나 1인당 면적은 1985년의 21.4㎡로 0.4㎡의 미약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도시공원이 도시인들의 바쁜 생활속에서 정신적 안정과 내일의 힘을 충전시킬수 있는 쉼터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개인 문화시설로 보면 T.V보급율은 99%가 넘으며, 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 독방을 사용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만이 쓰는 라디오, 카메라, T.V, 컴퓨터 등을 가지고 있다.

우리국민은 여러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 중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시 이와 같은 추세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비용도 적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행사에 대하여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불만족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불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보고 싶어하는 행사는 주로 연극계통의 언어극, 마당극, 판소리, 창 등의 행사였다.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83.8%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알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여가시간을 집에서 잠을 자거나 가사일을 하면서 보내는 경향이 있다(44.0%). 그러나 청소년들은 친구와 함께 지내거나 T.V 등을 보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성인들과 다른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다. 또한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여가생활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오락 활동비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어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격차가 커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요인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의 문제로 나타났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의 마당과 놀거리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국민 대다수가 여가와 문화생활의 대부분을 대중매체를 이용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T.V의 경우 주로 연속극을 보며 라디오는 음악프로를 듣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의 경우에는 T.V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았다. 신문과 잡지 등 언론매체들이 1987년의 6.29선언 이후에 언론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신문의 경우 1988년 현재 청소년의 79%가 구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사회와 정치 경제기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11.9명의 동성친구와 평균 2.1의 이성친구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이성친구에 대한 보수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친구를 주로 학교와 서클 등에서 사귀며, 사귀고 있는 친구와 만족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주로 학업과 관계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고민을 주로 자신의 친구와 의논하며, 혼자 해결하거나 부모님과 상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소년의 건강과 보건

과거 30여년동안에 우리국민 및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보건관련시설 등은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여 선진국의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은 과거 25년간에 많이 향상되어 신장은 1965년에 비하여 평균 7~10cm의 증가를 보였다. 체중에 있어서 9~15세의 청소년층은 1985년과 1990년의 5년 사이에 2kg의 증가를 보였다. 몸무게와 신장 그리고 앉은 키는 일본에 여전히 뒤지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여 그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지속적인 질병예방의 노력으로 질병에 의한 사망율이 줄어들었다. 주요사망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순환기계통의 질환이었다. 전염병의 발병 역시 방역과 예방으로 많이 줄었다.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의 발병이 가장 많으므로 하절기에는 반드시 물을 끓여 먹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다. 결핵의 전염은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다른 질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앞으로 계속적인 청소년 대상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의료시설은 1989년 현재 전국에 19,980개소의 의료기관에 93,80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 39,769명, 치과 의사 8,630명, 간호사 211,524명, 한의사 5,435명, 약사 35,756명으로, 의사 1인이 담당하는 인구는 1989년 현재 1,066명, 치과 의사 4,911명, 간호사 200명, 한의사 7,798명, 약사 1,18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은 증가하였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과다한 비용과 불친절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의료시설이 많아지기는 하였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시설 분포의 불균형으로 농촌의 의료서비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의 80%가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했으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대다수의 국민은 특별한 것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연령에 비하여 청소년 층은 운동과 식사조절을 통한 건강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식사시간은 모든 연령 중에서 가장 짧으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21.6%로 나타났다. 음주와 흡연의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로는 본연구원에서 실시한 중·고등학생 대상의 조사와 국가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신뢰성을 가진 기관의 통계와 조사만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중심의 자료를 많이 발견하지 못하여, 건강과 보건에 관한 전체연령층의 자료가 많다는 약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였다.

6) 소년비행

청소년들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업소나, 물품 및 약물류, 그리고 대중매체들이 직·간접으로 소년비행을 조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년비행과 상관관계가 높은 시설·업소로는 카페, 숙박업소, 유흥가, 심야만화가게, 음란물 노점상, 사창가, 성인오락실, 퇴폐 이발소 등을 들 수 있고, 물품 및 약물류로는 담배자판기, 환각제, 마약류, 각성제 등이 있고, 대중매체로는 성인만화, 주간지, 성인용 비디오 및 영화류를 들 수 있다.

소년비행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자 고교생의 반수 이상이 흡연, 음주, 당구장 출입, 음란서적 소지, 음란비디오 관람, 돈내기 도박의 경험이 있으며, 약 1/3이상이 디스코장 출입, 등록금 유용, 폭행, 공공기물 파손, 소액절도, 가벼운 추행을 경험했으며, 약 1/5이상이 여성희롱, 금품탈취, 흥기소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의 인구비는 성인범죄 인구비의 감소 추세와는 달리 계속 증가 또는 정체의 추세에 있고, 범죄연령에 있어서는 점차 저연령층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성인에 비해 강력범의 증가 추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범죄소년의 특징으로는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는 정상가정 출신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학생범죄의 비율이 무직자나 근로청소년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서울시내 중고교생중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58.3%에 달한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 피해경험자가 36.1%, 재산범죄의 피해경험자가 42.5%, 성적인 피해경험자(여자의 경우)가 37.8%이다. 이에 따라 전체 청소년중 반수 이상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청소년의 사회·국가의식

우리의 사회현실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불만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와 같은 불만의 표출방식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합리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체험하거나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는 문제일수록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정치·경제적인 문제, 사회인습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순위별로 보면, 환경·공해문제, 범죄문제, 교통문제, 청소년비행, 학력차별, 빈부격차, 대학생시위, 지역감정, 노사분규, 세대갈등, 남녀차별의 순서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였고, 국가에 대한 공헌의사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적·문화적인 발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었으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을 문화적인 발전수준, 경제적인 발전수준, 국민인권의 보장수준, 국민들의 복지수준, 정치적인 발전수준, 국민들의 질서의식의 순서대로 높이 평가하였다.

2. 후속 사업계획

현행 청소년관련 각종 통계조사 자료들은 표본집단의 선정이나 조사방법 등이 조사자와 조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져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 연령구분이 일정하지 않아서 자료간의 상호비교가 매우 어렵고, 동일항목에 대한 시계열적인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적인 변화양상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 또 조사분야가 특정주제에 편중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통계와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선정·분류하여 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반복 조사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그 변화양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청소년정책을 세우고 집

행하는데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청소년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조사결과를 한국사회의 전체 청소년의 실태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과학적인 방법으로 표본집단을 선정하고(표본집단의 대표성), 조사영역·항목 선정의 타당성과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관련 정부부처·단체·학계의 광범위한 의견과 제안들을 수렴하여 조사내용을 확정하며(조사내용의 타당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조사함으로써 시간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지표의 핵심내용은 청소년인구, 청소년과 가족, 청소년과 교육, 청소년과 노동, 청소년의 여가생활,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 건강, 그리고 청소년의 의식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조사하자면 사업규모가 너무 커져서 능률적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몇가지 세부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영역에서 매년 발표되는 정부통계를 수집·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그 일은 매년 시행하고, 특히 인구, 가족, 건강은 주로 통계청과 보건사회부에서 매년 나오는 통계를 수집·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짐작이 된다.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분된 사업 계획을 작성했다.

1) 청소년의식과 여가생활

공식통계를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청소년들을 성별, 지역별, 직업별, 연령 계층별로 구분해서 표본집단을 선정(약 3,000명)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의식조사에서는 사회일반에 대한 인식, 사회문제중 범죄, 경제구조, 사회인습, 윤리도덕, 사회환경등으로 하고, 여가생활 조사에서는 문화활동을 위한 환경, 만족도, 여가시간 배분, 여가활동비, 대중매체의 이용과 영향, 교우관계, 고민과상담, 국가의식, 조국에 대한 자부심, 국가발전에 대한 평가 등으로 한다. 이 조사를 통해서, 사회 기본구조의 산업화·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생기는 변화와 문제점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식상태가 어떻게 달라지고, 여가생활의 내용과 패턴,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고민과 그것의 해결방식 등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파악하고, 나아가 의식과 여가에 관련된 청소년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다.

2) 청소년 교육

청소년 교육에 관한 자료중,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시설, 문교예산 등 공식통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외에, 더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집단의 대표성과 조사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내용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수업시간과 교수방법에 대한 평가, 교육내용과 학교시설에 대한 의견, 친구·교사와의 인간관계,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평가, 취업지도와 진학지도의 적절성, 그리고 선생의 학생에 대한 의견 일반과 학부모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평가 등으로 한다.

이 조사를 통해서 지금의 입시위주 학교교육에서 생기는 문제를 학생, 교사, 학부모는 각기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생기는 사회문제가 청소년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우는 데 쓰일 기초자료를 얻게 된다.

3) 청소년과 노동

현재 노동부에서 나오는 통계는 근로자 일반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연령별로 구분된 통계에서만 청소년 부분을 떼어낼 수 있고, 청소년근로자에 관한 통계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이런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집단의 대표성과 조사내용의 타당성 확보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나서, 청소년근로자, 고용주, 청소년상당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내용은, 취업경향, 고용실태, 임금, 근로시간, 노동운동, 산업재해, 근로만족도, 직업선택 등으로 한다. 이 조사를 통해서 청소년근로자들이 지금 어떤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장차 청소년근로자에 관한 정책을 세울 때 이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기초자료를 얻는다.

4)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비행과 범죄에 관한 내무부와 법무부 통계외에 청소년비행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또 조사영역이나 항목선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비행청소년 자신들과 그들의 부모와 보호관찰자들, 그리고 그들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내용은, 비행청소년들의 과거생활, 가족배경, 비행의 동기, 학력과 직업, 비행에 대한 태도, 비행원인과 비행예방 대책 등으로 한다. 이 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원인, 동기, 계기와 비행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가족상황 등을 파악하고, 비행청소년들의 관리와 비행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다.

3. 청소년지표 체계(시안)

청소년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청소년에 관한 공식통계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청소년의식과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나서, 계속해야 할 조사사업계획을 세운 다음 이 통계분석과 설문조사, 그리고 후속 사업계획을 근거로 삼아 청소년 지표체계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 지표체계는 1. 청소년인구와 가족, 2. 교육, 3. 노동, 4. 문화와 여가, 5. 건강과 보건, 6. 소년비행, 7. 사회와 국가의식 이라는 주요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주요영역은 다시 세부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청소년인구와 가족 영역은, 1. 가족구조, 2. 가족관계, 3. 가족의식으로 구분되고, 교육영역은 1. 교육기회, 2. 교육인구, 3. 교육여건, 4. 교육재정, 5. 교육의식으로 구분되었다. 노동영역은 1. 고용구조, 2. 노동환경, 3. 근로의식으로 세분되고, 문화와 여가영역은 1. 문화환경, 2. 문화활동과 그 만족도, 3. 여가활동, 4. 대중매체, 5. 교우관계와 고민거리, 6. 여가생활 시간으로 세분되었다. 건강과 보건영역은 1. 체능과 체위, 2. 사고와 질병, 3. 의료시설과 그 이용, 4. 건강관리로 자세히 구분되고, 소년비행 영역은 1. 소년비행의 현황, 2. 소년범죄의 동향, 3. 청소년의 범죄피해로 구분되었다. 사회와 국가의식 영역은 1. 사회의식, 2. 국가의식으로 구분되었다. 이 세부영역은 다시 개별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지표체계 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청소년인구와 가족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I-1 가족구조	1. 청소년인구	1) 청소년 인구의 비율 2) 인구동태 3) 평균연령·기대수명
	2. 가족의 구성	1) 가족구성 2) 가족해체
	3. 불안정가구와 청소년	1) 불안정 가구 2) 어려운 청소년
I-2 가족관계	1. 가족관계의 만족도	1) 부모와의 관계 2) 아버지-어머니의 관계 3) 형제들간의 관계
		청소년인구 청소년인구 추이 인구동태율 인구분포 가족계획 실천율 연령별 출산율 국민평균연령 연령별 기대수명 평균 초혼연령 가족계획 실천율 가구구성 형태비율 맞벌이 가구 가구주의 세대구성 평균가구원수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 평균자녀수 이혼사유별구성비 이혼가정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재혼가정수 불안정 가구비율 공적 보호인구 요보호아동 인구 사회복지시설 및 수용자수 아동입양 현황 소년가장세대 현황 본인과 아버지와의 관계 본인과 어머니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부모와의 의견대립 여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본인과 형제들간의 관계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I-3 가족의식	2. 부모의 자녀 지도 방식	1) 자녀지도에 대한 태도 아버지의 태도 어머니의 태도 아버지의 자녀교육·훈련에 대한 자신감 아버지의 노력 어머니의 노력 3) 학과공부에 대한 태도 아버지의 관심표시 어머니의 관심표시 4) 사회생활에 관한 지도 아버지의 태도 어머니의 태도
	3. 바람직한 부모상	1) 바람직한 부친상 바람직한 부친상 2) 바람직한 모친상 바람직한 모친상
	1. 전통적인 가족관에 대한 태도	1) 핵가족 선호도 핵가족 선호도 2) 남아존중사상 아들선호도 3) 주부의 직장취업 어머니 취업 선호도
	2. 부모님 부양에 대한 태도	1)책임의식 아들 딸의 책임의식 2)노후 준비 부모의 노후준비 방법
	3. 가정내의 의사결정	1) 부모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 어머니 의견 존중도 2) 부모님과 의견이 다른 경우 자기의견 고집정도
	4. 가정생활 만족도	1) 전체적인 만족도 전체적인 가정생활의 만족도 2) 가정생활의 불만이유 가정생활의 불만이유

II. 교육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II-1. 교육기회	1. 국민의 교육 수준 2. 기대 교육 수준	1) 국민 평균 교육년수 국민의 학력구성 2) 국민의 학력구성 가구주의 자녀 기대 교육수준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II-2. 교육인구	3. 교육기회의 확대	1) 방송·개방대학 방송·통신 교육 수혜 비율 2) 검정고시 검정고시 실시 현황 3) 특수학교 특수학교 현황 4) 교육기회 충족도 교육기회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1. 입학자수 및 취학율	교급별 입학자수 교급별 취학율 교급별 취학율 국제비교
	2. 재학생수	1) 교급 및 시도별 학생수 교급별 학생수 시·도별 학생수 교육단계별 학생수 및 여학생 비율 2)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인구 10,000명당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학생수 계열별 고등학생 학생수
	3. 진학 및 졸업자수	1) 진학자수 및 진학율 교급별 진학자수 교급별 시·도별 진학자수 교급별 진학률 2) 졸업자수 및 졸업율 교급별 졸업자수 교급별 졸업률 3) 졸업자중 취업자 졸업자의 직종별 취업자 수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자 수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1. 학교수	1) 교급별 학교수 교급별 학교수 종류별 고등학교수 2) 시·도별 학교수 시·도별 학교수 3) 학생수별 학교수 학생수별 학교수
	2. 학급수	1) 교급별 학급수 교급별 학급(과)수 2) 학생수별 학급수 학생수별 학급수 3) 학급당 학생수 교급별 학급(과)당 학생수
II-3. 교육여건		

영 역	세 부 영 역	개 별 지 표
II-4. 교육재정	3. 교직원수	4) 2부제 수업학교 및 학급수 국민학교 2부제 이상 수업 학교수 및 학급수
		1) 교급별 교원수 교급별 교원수 교급별 여교원 비율 교육단계별 교원수 및 여교원 비율
		2) 출신학교별 교원수 출신학교별 교원수
		3) 전공과 학위별 교원수 전공학계별 교원수(고등교육기관) 학위별 교원수
	4. 학교시설	4) 교직원 1인당 학생수 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교급별 사무직원 1인당 학생수
		1) 학교교지 건물면적 교급별 학생 1인당 기본 교지 면적 교급별 학생 1인당 학교건물 면적
		2) 도서관과 장서수 교급별 도서관 수 교급별 도서실 좌석당 학생수 교급별 도서관 장서수
		1. 문교예산 국민총생산과 문교예산 국민총생산(GNP)과 정부예산대 문교예산의 비율 총 공교육비의 재원별 구성비 국민총생산(GNP)과 정부예산대 공교육비
	2. 교급별 교육비	교급별 공교육비 교급별 공교육비의 기능별 구성비 공교육비 중 경상비의 교육단계별 배분비 교급별 공·사 교육비의 비율
	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급별 학생 1인당 공 교육비 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도서 예산액(고등교육기관)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II-5. 교육의식	4. 가계 지출과 교육비	가계지출중 교육비의 비율
	1. 학교생활만족도	1) 교육내용 2) 학교시설 3) 학교생활
	2. 교육평가	1) 성적과 배운것 2) 대학진학
		연평균 가계 지출중 교육비의 비율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교육 인격향상을 위한 윤리 도덕 교육 정서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직업선택을 위한 진로교육 사회성원으로서의 시민교육 체력증진, 보건을 위한 건강 교육 성문제에 관한 교육 학교 운동장 학교건물, 시설 학교 도서관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주변 환경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총 수업시간 숙제의 분량 좋은성적 얻는데 가장중요한 요인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 대학진학 여부 대졸자에 대한 평가

III. 노동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III-1. 고용구조	1. 경제활동인구	1) 경제활동인구 2) 비경제활동인구
	2. 취업경향	취업자 구성비
		경제활동인구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3. 고용실태	1) 산업별 청소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청소년 연령 계급별 산업별 취업자-청소년 남녀별 사업체당 평균 근로자수 2) 취업경로별 취업자 취업경로별 산업별 취업자- 전체근로자 취업경로 및 산업별 취업자- 청소년 근로자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종사상의 지위 및 직업별 취 업자-전체근로자 종사상의 지위 및 직업별 취업자-청소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청소 년 연령계급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청소 년 남녀별 4) 교육정도별 취업자 교육정도 및 산업별 취업자- 전체근로자 교육정도 및 산업별 취업자- 청소년근로자 교육정도 및 직업별 취업자- 전체근로자 교육정도 및 직업별 취업자- 청소년근로자 5) 취업시간별 및 지역별 취 업자 취업시간 및 산업별 취업자 지역별 취업자 -청소년 연령별
	4. 직업교육 및 알선	직업훈련학교 현황 직업소개소 현황
	5. 실업자	교육정도별 실업자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Ⅲ-2. 노동환경	1. 임금	2) 청소년 실업자	실업이유별 실업자 청소년 실업자 교육정도별 실업자 구직경로별 실업자 실업동기별 실업자 생계유지수단별 실업자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평균, 명목, 실질 임금지수 성별 임금 및 근속연수 직종별 임금수준 기업규모별 임금수준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1) 임금	주당 평균 근로시간 노조조직율 및 노조등록수 총 파업 건수 단체 교섭건수
		2. 근로시간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비율 연도별 산업재해자수 업종별 산업재해자수 산업체 규모별 재해발생 비율 산업체 규모별 사망재해자 비율
		3. 노동조합	1) 노조 조직율
Ⅲ-3. 근로의식	4. 산업재해	1) 산업재해발생을	근로자 연령별 재해발생 비율 근로자 연령별 사망재해자수
		2) 청소년 재해자	전직의사 여부-교육정도별 취업자 전직의사여부-전직희망이유 전직회수 및 산업별 취업자 전직회수 및 직업별 취업자
		1) 전직희망	희망취업상태 및 구직여부 별 추가 및 전직희망 취업자-전체 희망취업상태 및 구직여부
		2) 구직여부	1) 희망취업 상태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2) 비구직 이유 3. 직업선택 4. 근로여건 만족도 5. 생활시간	별추가 및 전직희망 취업자-청소년 비구직 이유 및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 인구 비구직 이유별 청소년 비경제활동 인구 직업선택요인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일하는 시간 집과 일터사이의 통근시간

IV. 문화와 여가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IV-1. 문화환경	1. 공공문화시설 2. 개인 소유 문화기구·시설	1) 문화재 2) 지역문화시설 3) 도서관 4) 체육시설 5) 도시공원 국가지정문화재수 시·도지정문화재수 박물관 수 지방문화원과 마을문고 공공도서관 보급율 공공체육시설의 수 및 면적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문화시설 소유가구 비율 독방의 소유 여부 카세트라디오 소유여부 카메라 소유여부 T.V 소유여부 오디오 소유여부 전자오락기구 소유여부 컴퓨터 소유여부
IV-2. 문화활동과 만족도	1. 공연과 전시물 감상 2. 문화 활동 만족도	1)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 1) 문화 공간·행사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 문화 예술행사 향수 장애요인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만족도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IV-3. 여가활동	3. 문화예술 교육 1. 여가시간 배분	2) 지역행사	지역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만족도 해당지역 필요행사에 대한 선호도 문화예술 교육의 장소, 경험, 만족도 여가활동 방법 청소년들의 휴일을 보내는 방법 최근 1년간 여가활동에 참여한 회수 여가활동비 지출율 한달 용돈 월평균 문화비 지출 분포 도서 및 음반·테이프 소유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요인
		교육여전	
		여가활동시간	
IV-4. 대중매체	2. 여가활동비 3.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비	여가활동비 지출율 한달 용돈 월평균 문화비 지출 분포 도서 및 음반·테이프 소유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요인
		여가활동 만족도	
		1) T.V	T.V 선호 프로그램 연령별 T.V선호 프로그램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IV-5. 교우관계와 고민거리	1. 전파매체 2. 인쇄매체	2) 라디오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1) 신문	신문구독빈도 신문관심부분 청소년의 신문·잡지 구독률 청소년의 관심기사(신문)
		2) 잡지	잡지구독률 잡지구독률(연령별)
IV-5. 교우관계와 고민거리	1. 친구	3) 도서	서적보유가구 비율 교양서적 구입 비율 독서인구 비율
		1) 친구의 수	친구의 유무 친구의 수
		2) 친구를 만난 장소	친구를 만나게 된 장소
		3) 친구관계의 만족도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2. 고민과 상담 1) 고민거리 2) 고민 상담자	고민·걱정거리 고민·걱정 상의자

V. 건강과 보건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V-1. 체능과 체위	1. 체위 1) 체중 2) 신장 3) 가슴둘레	청소년의 체중 청소년의 신장 청소년의 가슴둘레
V-2. 사고와 질병	2. 체능 1. 질병 1) 사망원인 2) 전염병	중·고등학생 체능 검사 결과 성·연령 계급별 사망자수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 전염병 발생 및 사망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기생충 감염율 결핵 감염율
V-3. 의료시설과 이용	2. 사고 1.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2. 병원이용 3. 의료관련 의식	각종사고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의료비용과 진료회수 신뢰도·만족도
V-4. 건강관리	1.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	청소년과 각종사고 의료기관 및 병상수 의료인력현황 의료시설 접근 소요시간별 가구분포 의료비 지출율 의료보호수혜지원 병원 방문회수 의사진료수 및 치료일수 입원환자 비율 및 평균 입원일수 이환율, 활동제한 일수 및 외병일수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 개인의 건강평가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2. 식생활	1) 영양섭취량 육류 소비량 쌀 소비량 열량 섭취량 단백질 섭취량
		2) 식생활 행태 식사시간 일주일에 아침을 거르는 회수 아침식사 여부 및 못 먹을 시 그 이유
	3. 건강 관리방법	1) 운동 건강관리 방법 일주일에 운동하는 회수 운동실시 빈도 및 비실시시 그 이유
		2) 음주와 흡연 흡연 인구 비율 음주 인구 비율

VI. 소년비행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VI-1 소년비행의 현황	1. 유해환경과 소년비행	1) 시설 및 장소 시설 및 장소의 이용율과 유해도 평가
		2) 물품 및 악물류 물품·악물류의 이용경험과 유해도 평가
		3) 대중매체 대중매체의 접촉율과 유해도 평가
	2. 소년비행의 실태	1) 지위비행 지위비행의 경험율 최초의 비행시기-지위비행
		2) 폭력·재산비행 폭력·재산 비행의 경험율 최초의 비행시기-폭력·재산 비행
		3) 성비행 성 비행의 경험율 최초의 비행시기-성 비행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VI-2. 소년범죄의 동향	1. 소년범죄의 동향	1) 전체동향	소년·성인별 형법범 인원 및 인구비 소년 형법범의 죄질별 구성비 소년·성인별 특별법범 인원 및 소년비 소년 특별법범 죄명별 인원 및 구성비
		2) 연령층별 동향	소년범 연령층별 인원 및 인구비
		3) 죄종별 동향	소년 강력범 인원및 인구비 소년 강력범의 연령층별 현황 소년 폭력범 인원 및 인구비 소년 폭력범 연령층별 현황 소년 재산범 인원 및 인구비 소년 재산범의 연령층별 현황
	2. 범죄소년의 특징	1) 가정환경	소년범죄자의 보호자별 현황 소년범죄자의 생활정도별 구성비
		2) 학력 및 직업	소년범죄자의 직업별 구성비 소년범죄자의 총 학생수에 대한 비율 소년범죄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
		3) 전과별 구성	소년범죄자의 전과현황
		4) 범죄원인	전체 소년범죄 원인별 구성비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VI-3. 청소년의 범죄 피해	1. 전체 범죄의 피해정도 2. 범죄유형별 피해의 정도 3. 범죄피해에 대한 태도	전체범죄 피해율 가구별 범죄피해율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를 당 한 비율 재산범죄 유형별 피해를 당 한 비율 성적인 피해의 유형별 비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VII. 사회와 국가의식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VII-1. 사회의식	1. 사회에 대한 인식 2.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1) 사회에서의 성공요인 2)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 1) 생활환경 문제 2) 범죄문제 3) 경제·사회구조적 문제 4) 사회인습상의 문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 사회 불만시 행동방법 교통문제의 심각도 환경·공해문제의 심각도 범죄문제의 심각도 청소년비행의 심각도 청소년 비행의 원인 빈부격차의 심각도 대학생시위의 심각도 지역갈등의 심각도 노사분규의 심각도 학력차별의 심각도 세대갈등의 심각도 남녀차별의 심각도

영역	세부영역	개별지표	
VII-2. 국가의식	1. 국가에 대한 인식 2.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한 평가	1) 국가에 대한 만족도 1) 경제부문 2) 정치부문 3) 문화부문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국가에 대한 공헌의사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 수준 평가 국민들의 복지수준 평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발전 수준 평가 국민 인권의 보장수준평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발전 수준 평가 국민들의 질서의식 평가

참 고 문 헌

경제기획원

1990 「고용구조 통계조사 보고서」 서울 : 경제기획원

국립보건원

1988 「국립보건원보」 서울 : 국립보건원

교육부 중앙교육평가원

1991 「교육통계연보」 서울 : 교육부

김준호외 3인

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외 3인

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형배

1987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고등학교 학생의 가치의식에 대한 조사—」 중앙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농림수산부

1990 「농림수산통계연보」 서울 : 농림수산부

1991 「농가경제통계연보」 서울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농어촌진흥공사

1990 「농업기반 조성 사업통계연보」 서울 : 농림수산부

대한 YWCA 연합회

1987 「청소년의 생활 및 여가 실태조사—청소년문화의 지도육성을 위한 기초조사—」 서울 : 대한 YWCA 연합회

도종수와 3인

1991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

동아일보사

1990 「동아연감」 서울 : 동아일보사

문교부 중앙교육평가원

- 1990 「문교통계연보」 서울 : 문교부
- 문태성
- 1987 「청소년 실업의 실태와 원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환
- 1985 「청소년범죄와 대책 -근로청소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법무부
- 1990 「청소년 범죄연구」 제3집 서울 : 법무부
- 법무부 법무연수원
- 1989, 1990 「범죄백서」 서울 : 법무부
- 보건사회부
- 1990 「보건사회통계연보」 제36호 서울 : 보건사회부
- 사회과학연구소편
- 1986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울 YWCA 시민자구운동본부
- 1989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향락문화를 중심으로-」 서울 : 서울 YWCA 시민자구운동본부
- 서울 청소년 지도육성회
- 1988 「청소년의 생활태도와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 청소년지도육성회 청소년문제연구소
- 유길상
- 1991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계경제 분석」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장향희
- 1986 「청소년비행과 사회환경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국경제인연합회
- 1991 「한국경제연감」 서울 : 전국경제인연합회
- 청소년교육선교회
- 1989 「청소년 기사자료집」 III, IV 서울 : 청소년교육선교회
- 체육청소년부

1990 「체육청소년 통계연보」 서울:체육청소년부

1990 「청소년백서」 서울:체육청소년부

치안문제연구소

1987 「2000년대를 향한 청소년 지침서」 서울:치안문제연구소

통계청

1990 「한국통계연감」 서울:통계청

1991 「경제활동인구연보 1990」 서울:통계청

1991 「주요 경제지표」 서울:통계청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5, 1991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서울: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서울: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한국의 이동과 어머니」 서울: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1986 「한국의 교육지표」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7 「초·중등교육 국제비교」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90 「한국의 교육지표」 서울: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1990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 및 근로조건 국제비교」 서울: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1 「1990년도 사업보고(통계표)」 서울: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문예연감」 서울: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문예진흥원 자료집」 서울: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89 「문화예술통계 자료집」 서울: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방송공사

1985, 1987, 1990 「국민생활시간 조사」 서울:한국방송공사

한국여성개발원

1990 「남녀근로자 임금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학교보건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Ⅱ)－진단적 접근방법에 의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1988 「유용노동력의 실태와 고용정책과제」 서울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
연구소

한국출판연구소

1987 「청소년 독서환경 실태 및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출판연구소

부 록 : 청소년 생활·의식조사 집계표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다음은 당신의 가족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그렇다”, “아니다”중 하나의 응답항목을 택하여 그 번호에 O표하여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1)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다									
① 그렇다	92.7	96.6	96.6	90.5	95.6	92.7	94.0	82.6	89.7
② 아니다	7.3	3.0	3.4	9.5	4.4	7.3	6.0	17.4	10.3
③ 무응답	0.0	0.4	—	—	—	—	—	—	—
2)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다									
① 그렇다	98.2	98.5	99.2	98.0	99.0	96.3	96.8	99.0	98.5
② 아니다	1.7	1.5	0.8	1.6	1.0	3.7	2.8	1.0	1.5
③ 무응답	0.1	—	—	0.3	—	—	0.4	—	—
3) 조부모님(또는 두분 중의 한 분)과 함께 살고 있다.									
① 그렇다	23.8	28.7	15.0	21.6	15.3	29.8	31.3	26.4	25.5
② 아니다	75.1	70.6	83.8	76.8	83.7	68.6	67.9	72.6	73.5
③ 무응답	1.1	0.8	1.1	1.6	1.0	1.6	0.8	1.0	1.0
4) 손위의 남자형제(형 또는 오빠)가 있다									
① 그렇다	46.7	41.1	41.7	41.5	39.5	49.0	54.2	60.7	52.9
② 아니다	52.5	58.5	57.1	57.5	60.2	50.2	44.6	38.8	46.1
③ 무응답	0.8	0.4	1.1	1.0	0.3	0.8	1.2	0.5	1.0
5) 형제·자매가 없다									
① 그렇다	7.5	9.8	6.8	10.5	4.8	13.1	5.6	6.0	2.5
② 아니다	90.7	89.1	91.4	87.6	93.2	84.9	92.4	93.0	96.1
③ 무응답	1.7	1.1	1.9	2.0	2.0	2.0	2.0	1.0	1.5
2. 당신의 가족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몇명입니까? (—명)	(2026)	(265)	(264)	(305)	(294)	(245)	(249)	(200)	(204)
	5.23	4.69	4.86	4.82	4.95	5.45	6.02	5.75	5.74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 앞으로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어떻게 모실 생각입니까?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반드시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	30.6	44.2	19.5	43.8	16.7	46.1	16.1	40.8	17.2
②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37.4	32.1	32.7	35.0	41.2	30.2	46.2	41.8	42.2
③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9.6	2.3	15.0	7.8	18.0	3.3	8.8	5.0	15.2
④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21.9	21.1	32.0	12.7	23.8	20.4	27.7	12.4	24.5
⑤ 무응답	0.5	0.4	0.8	0.7	0.3	—	1.2	—	1.0
4. 당신의 어머니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집에서 가사일만 하신다	48.1	54.3	57.1	48.7	49.7	38.4	47.8	42.3	43.1
② 집에서 하는 부업이 있다	13.3	9.1	6.8	6.2	6.1	22.0	16.1	18.4	28.9
③ 밖에서 하는 부업이 있다	20.3	18.1	13.9	17.3	19.7	26.9	23.3	29.4	16.7
④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있다	16.6	16.6	20.7	25.8	24.1	9.0	10.4	9.5	10.3
⑤ 무응답	1.7	1.9	1.5	2.0	0.3	3.7	2.4	0.5	1.0
5. 아래의 글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오른쪽에서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1) 핵가족제도보다는 대가족 제도가 바람직하다									
① 전적으로 반대	6.1	9.1	10.2	7.8	6.5	4.1	3.2	2.5	3.4
② 반대	15.2	14.3	21.8	13.4	20.4	6.9	12.4	10.4	21.1
③ 중립	41.4	42.6	47.7	35.9	44.9	35.9	48.2	30.3	43.6
④ 찬성	26.0	22.3	12.0	32.7	20.7	33.1	26.5	37.8	25.5
⑤ 전적으로 찬성	11.2	11.7	8.3	10.1	7.1	20.0	9.6	18.4	6.4
⑥ 무응답	0.1	—	—	—	0.3	—	—	0.5	—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① 전적으로 반대	13.4	10.2	18.4	4.6	20.4	11.0	18.5	8.5	15.7
② 반대	30.8	19.2	38.3	21.2	38.1	23.3	36.9	27.9	44.1
③ 중립	30.4	37.7	28.9	37.6	29.3	23.7	24.9	30.8	28.4
④ 찬성	14.8	14.3	8.3	24.5	9.2	22.9	13.3	16.9	7.4
⑤ 전적으로 찬성	10.4	18.5	5.3	12.1	2.7	19.2	6.0	15.9	4.4
⑥ 무응답	0.2	—	0.8	—	0.3	—	0.4	—	—
3) 가정주부는 직장을 가져서 는 안된다									
① 전적으로 반대	41.2	23.8	71.8	16.7	62.9	16.3	61.0	18.4	57.4
② 반대	29.6	37.0	15.8	37.3	26.5	35.9	22.5	29.4	31.9
③ 중립	17.7	20.4	7.5	32.0	7.5	30.6	8.4	27.9	6.4
④ 찬성	6.8	8.7	3.4	10.5	1.4	9.0	4.0	14.9	3.9
⑤ 전적으로 찬성	4.0	9.1	0.8	3.6	1.4	6.9	2.4	8.5	—
⑥ 무응답	0.8	1.1	0.8	—	0.3	1.2	1.6	1.0	0.5
4) 딸보다 아들을 중하게 여 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① 전적으로 반대	47.2	23.8	83.8	20.3	73.8	18.4	75.9	18.4	59.8
② 반대	21.5	27.5	9.0	28.1	17.0	27.3	15.7	20.4	27.9
③ 중립	15.9	28.3	3.4	27.1	6.1	23.7	3.6	28.4	6.4
④ 찬성	8.1	7.2	1.1	15.4	2.4	15.1	2.0	18.4	4.4
⑤ 전적으로 찬성	6.6	12.1	1.9	8.8	0.7	13.9	1.2	13.9	1.5
⑥ 무응답	0.7	1.1	0.8	0.3	—	1.6	1.6	0.5	—
5)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									
① 전적으로 반대	17.0	16.2	16.9	24.2	10.2	20.4	12.4	28.9	6.9
② 반대	32.2	29.1	26.7	37.3	30.3	30.6	32.9	36.8	34.8
③ 중립	34.8	32.8	39.1	30.7	44.9	24.5	39.8	24.4	39.7
④ 찬성	10.5	11.3	11.3	6.2	11.9	15.1	10.0	4.0	14.7
⑤ 전적으로 찬성	5.4	10.2	6.0	1.6	2.7	9.0	4.8	5.5	3.9
⑥ 무응답	0.1	0.4	—	—	—	0.4	—	0.5	—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6) 부모님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① 전적으로 반대	21.2	17.7	30.8	16.3	25.5	16.7	24.5	14.4	22.5
② 반대	34.3	33.6	38.0	26.8	43.9	28.2	36.9	30.8	35.3
③ 중립	34.5	38.1	28.9	44.1	26.2	38.8	26.5	36.8	36.8
④ 찬성	6.7	4.5	1.9	10.5	2.7	10.6	10.4	9.5	3.9
⑤ 전적으로 찬성	3.0	5.7	0.4	1.6	1.7	5.3	1.6	7.5	1.5
⑥ 무응답	0.3	0.4	—	0.7	—	0.4	—	1.0	—
6. 현재 당신의 가족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래의 각 관계가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스러운 상태인지 오른쪽에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1) 본인과 아버지의 관계									
① 매우 불만족	3.3	1.5	3.4	5.9	2.4	1.6	2.4	3.5	5.9
② 불만족	8.3	3.8	8.6	13.1	12.2	6.9	6.8	5.0	7.8
③ 그저 그렇다	27.3	15.8	25.2	25.8	36.7	19.2	28.5	31.3	38.2
④ 만족	36.0	37.7	33.5	33.7	32.0	43.3	33.3	40.8	35.8
⑤ 매우 만족	21.9	39.6	28.2	13.7	14.6	26.9	25.3	14.9	9.8
⑥ 무응답	3.2	1.5	1.1	7.8	2.0	2.0	3.6	4.5	2.5
2) 본인과 어머니의 관계									
① 매우 불만족	1.4	1.1	0.8	1.3	1.4	1.6	1.6	2.5	1.5
② 불만족	4.3	1.1	6.4	4.2	6.5	3.3	4.8	4.0	3.4
③ 그저 그렇다	15.8	9.4	18.0	19.6	21.1	9.0	17.3	11.4	18.6
④ 만족	41.1	35.8	33.5	46.4	42.9	42.9	41.4	39.8	46.1
⑤ 매우 만족	36.6	52.1	40.6	27.1	28.2	41.6	33.7	41.8	29.4
⑥ 무응답	0.8	0.4	0.8	1.3	—	1.6	1.2	0.5	1.0
3)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① 매우 불만족	3.0	2.3	2.3	4.9	2.7	4.1	3.2	2.5	1.5
② 불만족	5.0	1.9	4.1	4.6	4.8	7.3	7.2	4.5	6.4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③ 그저 그렇다	21.6	16.2	16.5	20.9	25.2	20.0	20.5	24.9	30.9
④ 만족	37.5	32.1	32.3	39.9	37.8	38.0	40.2	41.8	39.2
⑤ 매우 만족	29.3	46.0	43.2	21.2	27.2	26.9	24.9	22.4	19.1
⑥ 무응답	3.6	1.5	1.5	8.5	2.4	3.7	4.0	4.0	2.9
4) 본인과 형제들간의 관계									
① 매우 불만족	2.3	4.5	2.6	1.3	1.0	2.9	2.4	2.5	1.0
② 불만족	5.8	6.8	9.4	3.9	5.1	9.0	5.6	3.0	2.9
③ 그저 그렇다	25.2	20.0	27.4	32.0	28.9	18.0	27.7	15.9	27.9
④ 만족	39.2	34.0	36.8	38.9	43.2	35.1	39.4	42.8	45.1
⑤ 매우 만족	25.6	31.3	21.8	21.2	21.1	31.4	23.7	34.8	22.1
⑥ 무응답	2.0	3.4	1.9	2.6	0.7	3.7	1.2	1.0	1.0
7.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 니까? 아래의 글을 읽고 오른쪽 에서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I. 먼저 당신의 아버지는?									
1) 자녀들을 엄격히 대하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9.7	8.3	14.7	6.2	12.9	8.6	13.7	4.0	7.4
② 그렇지 않다	28.3	26.4	26.7	26.5	32.7	25.3	30.1	27.4	31.4
③ 중립	28.9	29.4	33.5	28.4	25.5	30.2	30.1	28.9	25.0
④ 그렇다	22.9	23.4	19.5	24.5	21.8	25.3	16.5	27.9	25.5
⑤ 매우 그렇다	6.9	10.2	3.8	6.9	5.4	8.2	6.4	8.0	7.4
⑥ 무응답	3.3	2.3	1.9	7.5	1.7	2.4	3.2	4.0	3.4
2) 자녀와 대화하려고 노력하 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4.2	3.0	4.1	3.6	5.1	4.9	5.2	3.5	4.4
② 그렇지 않다	14.0	11.3	10.2	15.0	13.6	13.5	14.9	16.9	18.6
③ 중립	28.4	17.7	28.2	26.1	29.9	33.5	32.9	30.8	29.9
④ 그렇다	35.4	41.5	34.6	36.9	35.7	32.2	30.9	34.8	35.8
⑤ 매우 그렇다	14.4	24.2	21.1	10.8	13.6	13.5	12.9	9.0	7.8
⑥ 무응답	3.5	2.3	1.9	7.5	2.0	2.4	3.2	5.0	3.4
3) 자녀의 학과 공부나 성적 에 신경을 쓰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0	1.1	1.1	2.3	2.7	2.0	3.2	1.5	2.0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② 그렇지 않다	6.3	5.3	3.8	7.8	6.5	6.5	6.4	5.5	8.8
③ 중립	20.5	15.1	19.9	15.4	25.9	19.6	22.1	22.4	26.0
④ 그렇다	43.9	40.8	47.7	44.4	43.2	45.3	43.4	43.8	42.2
⑤ 매우 그렇다	23.6	35.5	25.2	22.5	19.7	23.7	21.7	21.9	17.6
⑥ 무응답	3.6	2.3	2.3	7.5	2.0	2.9	3.2	5.0	3.4
4) 집안일보다는 직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9.6	31.3	25.6	11.4	13.6	22.9	21.7	21.4	8.8
② 그렇지 않다	36.8	38.5	34.2	37.3	40.8	32.7	35.3	33.3	41.7
③ 중립	27.3	19.6	27.4	31.7	27.9	26.9	27.3	27.9	29.4
④ 그렇다	9.5	5.7	8.3	9.2	11.6	10.6	9.2	8.5	13.2
⑤ 매우 그렇다	3.3	2.6	2.6	2.6	4.1	4.1	2.8	4.0	3.4
⑥ 무응답	3.6	2.3	1.9	7.8	2.0	2.9	3.6	5.0	3.4
II. 당신의 어머니님은?									
1) 자녀들을 엄격하게 대하신 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4.0	8.7	13.9	13.4	19.4	11.4	18.1	10.4	15.7
② 그렇지 않다	37.6	37.0	36.8	43.8	40.1	31.0	33.7	34.8	42.2
③ 중립	25.2	23.0	30.8	26.5	22.1	26.5	25.3	23.9	23.0
④ 그렇다	16.9	18.5	14.3	12.7	14.3	24.1	16.5	20.9	16.2
⑤ 매우 그렇다	5.3	11.7	3.0	2.9	3.7	4.9	5.6	9.5	2.0
⑥ 무응답	0.9	1.1	1.1	0.7	0.3	2.0	0.8	0.5	1.0
2) 자녀와 대화하려고 노력하 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6	2.3	2.3	2.0	3.4	2.4	4.0	1.5	2.5
② 그렇지 않다	8.4	5.7	7.9	5.9	9.2	9.0	10.4	8.0	12.3
③ 중립	25.2	20.4	22.2	27.1	22.8	24.5	29.7	26.4	30.4
④ 그렇다	42.1	41.5	41.0	46.1	46.3	42.4	36.5	46.3	34.8
⑤ 매우 그렇다	20.8	29.1	25.9	18.3	18.4	19.2	18.1	17.4	19.1
⑥ 무응답	0.9	1.1	0.8	0.7	—	2.4	1.2	0.5	1.0
3) 자녀의 학과 공부나 성적 에 신경을 쓰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3	0.4	1.1	1.3	1.4	0.8	2.0	1.0	2.5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② 그렇지 않다	4.8	3.8	3.0	4.6	4.4	4.1	5.6	6.5	7.8
③ 중립	14.4	9.4	11.3	12.4	13.9	17.6	18.5	16.9	17.2
④ 그렇다	45.8	40.0	42.9	50.9	49.7	46.5	44.6	44.8	46.1
⑤ 매우 그렇다	32.7	45.3	41.0	30.4	30.3	28.6	27.7	30.3	25.5
⑥ 무응답	1.0	1.1	0.8	0.7	0.3	2.4	1.6	0.5	1.0
4) 자신의 생활에 보람을 느끼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3.3	3.0	3.0	4.6	3.1	2.0	3.6	3.5	3.4
② 그렇지 않다	16.0	9.4	11.7	15.0	24.1	15.5	12.9	17.4	22.5
③ 중립	39.3	29.8	42.1	43.5	36.1	37.6	42.2	39.8	44.6
④ 그렇다	28.6	33.2	23.7	28.4	28.6	34.7	31.3	24.4	23.0
⑤ 매우 그렇다	11.8	23.4	18.8	7.8	7.8	7.8	8.8	13.9	5.4
⑥ 무응답	1.0	1.1	0.8	0.7	0.3	2.4	1.2	1.0	1.0
8. 당신은 현재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까?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매우 불만이다	4.6	3.4	3.8	6.9	6.1	4.1	3.2	4.5	3.9
② 불만이다	14.0	6.0	17.7	17.6	18.4	10.6	14.9	8.0	17.2
③ 그저 그렇다	30.8	21.5	30.1	31.0	33.7	24.9	38.6	35.3	32.4
④ 만족한다	40.5	47.9	38.3	36.6	35.0	46.5	34.1	45.3	43.6
⑤ 매우 만족한다	9.2	20.0	9.4	7.5	6.8	12.2	7.2	6.0	2.5
⑥ 무응답	0.9	1.1	0.8	0.3	—	1.6	2.0	1.0	0.5
9. 현재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이 어느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른쪽에서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1)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교육									
① 너무 부족	12.7	7.5	10.2	19.9	21.1	3.7	6.8	11.4	19.1
② 부족	25.9	16.6	24.4	24.8	32.3	28.6	25.3	26.4	28.9
③ 적당	29.8	44.9	33.5	14.7	15.0	48.6	36.1	26.4	22.5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④ 과다	17.6	15.5	16.9	22.2	17.3	13.9	20.1	17.9	16.2
⑤ 너무 과다	13.7	14.7	14.3	18.3	13.9	5.3	11.2	17.9	13.2
⑥ 무응답	0.3	0.8	0.8	—	0.3	—	0.4	—	—
2) 인격향상을 위한 윤리·도 덕교육									
① 너무 부족	19.7	13.6	18.8	30.7	28.9	8.2	8.0	27.9	18.6
② 부족	41.4	33.2	45.5	45.8	49.7	42.0	37.3	30.3	43.6
③ 적당	33.4	44.5	30.5	21.6	19.4	42.9	45.4	33.8	34.8
④ 과다	4.0	6.4	4.1	1.0	2.0	6.5	5.2	5.5	2.5
⑤ 너무 과다	1.0	1.1	0.4	1.0	—	0.4	2.8	2.5	0.5
⑥ 무응답	0.4	1.1	0.8	—	—	—	1.2	—	—
3) 정서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① 너무 부족	30.3	23.0	28.9	47.4	39.1	10.2	18.1	38.3	34.8
② 부족	45.6	37.4	50.4	44.8	45.2	53.5	54.6	37.8	39.2
③ 적당	20.7	33.6	19.2	6.5	14.6	32.2	22.5	17.9	22.5
④ 과다	2.1	4.2	0.8	1.0	0.3	2.9	2.8	4.0	2.0
⑤ 너무 과다	0.8	0.8	0.4	0.3	0.3	0.8	1.2	2.0	1.5
⑥ 무응답	0.4	1.1	0.4	—	0.3	0.4	0.8	—	—
4) 앞으로의 직업선택을 위한 진로교육									
① 너무 부족	23.2	24.2	23.3	31.4	38.1	7.3	16.1	16.4	22.1
② 부족	44.3	40.4	54.1	39.9	41.8	42.0	52.2	40.8	43.1
③ 적당	25.5	26.8	16.5	23.2	17.0	43.7	26.1	28.9	25.0
④ 과다	4.9	4.9	3.8	3.3	2.4	5.7	3.6	10.0	7.8
⑤ 너무 과다	1.7	2.6	1.5	1.6	0.3	0.8	1.2	4.0	2.0
⑥ 무응답	0.5	1.1	0.8	0.7	0.3	0.4	0.8	—	—
5) 사회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시민교육									
① 너무 부족	19.8	17.0	21.1	30.1	33.3	8.6	12.4	14.4	14.7
② 부족	46.8	35.5	45.5	46.7	49.7	43.7	50.6	52.7	52.5
③ 적당	28.7	36.6	29.3	20.3	16.0	42.0	30.9	27.9	30.9
④ 과다	2.7	6.0	1.5	1.6	0.3	3.3	3.6	3.5	2.0
⑤ 너무 과다	0.9	3.0	0.4	0.7	0.7	0.4	0.8	1.0	—
⑥ 무응답	1.1	1.9	2.3	0.7	—	2.0	1.6	0.5	—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6) 체력증진·보건을 위한 건강교육									
① 너무 부족	13.9	10.2	15.8	19.9	26.2	6.5	6.8	10.9	10.3
② 부족	40.1	29.4	44.4	47.7	44.6	23.7	34.5	42.8	54.9
③ 적당	38.9	44.9	34.6	28.4	25.9	56.7	51.8	40.8	32.4
④ 과다	4.7	7.9	3.8	2.0	3.1	10.2	6.4	2.5	2.0
⑤ 너무 과다	1.9	6.4	1.1	2.0	0.3	2.4	—	2.5	—
⑥ 무응답	0.4	1.1	0.4	—	—	0.4	0.4	0.5	0.5
7) 성문제에 관한 교육									
① 너무 부족	39.7	41.5	30.8	61.8	48.0	35.1	18.5	45.3	29.9
② 부족	34.3	27.5	36.1	29.7	37.4	31.0	43.4	27.4	43.1
③ 적당	22.6	24.5	31.2	6.5	13.9	29.4	34.1	21.4	24.0
④ 과다	1.7	2.6	0.4	1.6	—	3.3	2.4	2.5	1.5
⑤ 너무 과다	1.3	3.0	1.1	0.3	0.7	0.8	1.2	3.5	0.5
⑥ 무응답	0.3	0.8	0.4	—	—	0.4	0.4	—	1.0
10. 다음의 학교시설·환경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른쪽에서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1) 학교 운동장									
① 매우 불만	18.8	20.8	30.5	12.4	33.3	9.0	14.1	11.9	13.7
② 불만	24.0	25.7	24.1	25.2	26.5	24.1	25.7	17.9	20.1
③ 그저 그렇다	32.8	35.5	36.1	32.4	28.2	37.1	38.2	30.8	22.5
④ 만족	20.9	15.1	8.3	26.8	11.2	27.3	19.3	35.8	29.4
⑤ 매우 만족	3.3	2.3	0.8	2.9	0.7	2.0	2.8	3.5	14.2
⑥ 무응답	0.2	0.8	0.4	0.3	—	0.4	—	—	—
2) 학교 건물·시설									
① 매우 불만	22.6	20.4	35.0	22.9	42.9	9.8	15.7	12.9	13.2
② 불만	35.0	29.8	31.2	36.9	33.7	40.4	41.8	33.3	32.8
③ 그저 그렇다	29.9	32.5	27.4	28.8	18.4	33.9	30.5	36.3	36.3
④ 만족	11.4	14.7	5.6	9.8	5.1	14.7	11.6	16.9	16.7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⑤ 매우 만족	0.7	1.5	—	1.3	—	1.2	0.4	0.5	1.0
⑥ 무응답	0.3	1.1	0.8	0.3	—	—	—	—	—
3) 학교 도서관(실)									
① 매우 불만	36.0	35.5	41.7	32.7	27.6	40.4	39.0	39.8	33.3
② 불만	27.6	28.7	24.1	28.1	31.3	20.0	29.3	35.3	24.0
③ 그저 그렇다	22.3	20.4	23.3	29.1	31.0	14.3	12.9	16.4	27.9
④ 만족	11.7	10.9	8.6	8.2	10.2	19.6	16.1	7.5	13.2
⑤ 매우 만족	1.5	2.3	1.1	1.0	—	3.3	2.8	0.5	1.5
⑥ 무응답	0.9	2.3	1.1	1.0	—	2.4	—	0.5	—
4) 학급당 학생수									
① 매우 불만	18.9	22.3	21.1	21.9	33.7	9.0	12.9	13.4	10.3
② 불만	23.1	21.1	26.7	31.4	28.2	11.4	17.3	17.4	27.9
③ 그저 그렇다	32.7	33.2	36.5	32.4	27.9	26.5	32.9	41.8	32.8
④ 만족	22.1	18.9	13.5	12.7	9.2	46.5	32.1	24.9	26.0
⑤ 매우 만족	2.8	3.8	0.8	1.0	1.0	6.1	4.8	2.5	2.9
⑥ 무응답	0.4	0.8	1.5	0.7	—	0.4	—	—	—
5) 학교 화장실									
① 매우 불만	37.2	50.2	50.4	41.8	47.3	18.4	29.3	29.4	22.1
② 불만	31.9	27.2	35.0	36.9	31.3	25.7	36.1	32.8	28.9
③ 그저 그렇다	18.2	15.1	12.8	16.3	17.7	21.2	22.1	19.4	23.5
④ 만족	10.3	5.3	1.5	4.2	3.4	29.0	10.8	13.4	21.6
⑤ 매우 만족	1.7	1.1	—	—	0.3	4.5	0.8	5.0	3.9
⑥ 무응답	0.5	1.1	0.4	0.7	—	1.2	0.8	—	—
6) 학교 주변의 환경									
① 매우 불만	17.1	21.5	22.2	20.6	25.9	11.4	7.2	14.4	8.8
② 불만	20.9	15.8	25.9	17.3	25.5	15.5	22.9	19.9	24.5
③ 그저 그렇다	35.5	30.2	35.7	36.3	36.1	33.5	41.8	32.8	37.7
④ 만족	20.4	20.8	13.5	20.6	11.6	31.8	22.5	26.9	18.6
⑤ 매우 만족	5.6	10.9	2.3	4.2	1.0	6.9	4.8	6.0	10.3
⑥ 무응답	0.5	0.8	0.4	1.0	—	0.8	0.8	—	—
11. 당신은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습 니까?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① 매우 불만이다	7.9	7.2	10.9	10.1	11.2	3.3	4.8	9.5	4.9
② 불만이다	20.1	17.0	19.2	23.2	22.4	14.3	17.7	27.9	20.1
③ 그저 그렇다	44.4	40.8	43.6	39.9	48.3	39.2	49.8	44.8	51.0
④ 만족한다	25.0	30.6	23.7	24.8	17.7	39.2	23.7	16.4	23.0
⑤ 매우 만족한다	2.1	3.4	2.3	1.3	0.3	3.3	4.0	1.5	0.5
⑥ 무응답	0.4	1.1	0.4	0.7	—	0.8	—	—	0.5
12.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본인이 타고난 지능	4.5	3.0	5.3	4.2	3.7	3.7	5.6	6.0	4.9
② 본인의 노력	88.6	88.7	84.6	88.9	93.2	91.4	85.1	87.1	88.7
③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	3.6	4.5	5.3	3.6	1.0	2.0	6.0	4.0	2.9
④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	3.0	2.3	4.1	2.9	2.0	2.9	3.2	3.0	3.4
⑤ 무응답	0.3	1.5	0.8	0.3	—	—	—	—	—
13. 당신은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통학하고 있습니까? 다음 중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걸어서만	37.7	63.4	61.3	27.1	24.8	15.9	39.4	35.3	34.3
② 자전거 이용	7.3	2.3	0.4	1.0	1.0	31.8	10.4	13.4	2.0
③ 자가용 승용차 이용	3.5	3.0	3.0	2.9	5.4	4.1	1.6	3.5	4.4
④ 대중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이용	51.1	29.8	34.6	68.6	68.7	48.2	48.2	47.8	59.3
⑤ 무응답	0.4	1.5	0.8	0.3	—	—	0.4	—	—
14. 당신은 앞으로 대학교에 진학할 생각입니까?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① 반드시 진학할 생각이다	50.9	60.0	63.5	52.0	60.9	38.8	39.0	41.8	44.6
② 여건이 허락하면 진학하겠다	27.1	16.2	18.4	34.3	23.1	24.1	32.1	29.9	42.2
③ 진학하지 않을 생각이다	9.7	3.8	4.9	8.2	9.9	14.7	12.9	16.9	8.3
④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11.9	18.5	12.4	4.9	5.8	22.4	16.1	11.4	4.9
⑤ 무응답	0.4	1.5	0.8	0.7	0.3	—	—	—	—
15. 당신은 현재 학교 이외의 곳에서 교습비를 내면서 별도로 배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없다	65.9	35.8	48.9	67.0	60.5	84.1	79.5	77.6	83.3
② 진학을 위한 과외공부	20.8	41.9	37.2	26.1	23.5	11.0	9.6	4.0	2.0
③ 취업 준비 교육	5.3	3.0	0.8	1.6	12.2	0.8	2.0	12.9	11.3
④ 취미·여가 교육	7.4	17.4	12.0	4.9	3.4	3.7	8.0	5.5	3.4
⑤ 무응답	0.6	1.9	1.1	0.3	0.3	0.4	0.8	—	—
16. 다음의 학교 생활의 각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른쪽에서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1)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① 매우 불만	2.7	5.3	3.0	2.6	0.7	4.1	1.2	4.0	1.0
② 불만	8.2	6.0	10.2	8.5	8.8	4.5	11.6	10.0	5.4
③ 그저 그렇다	33.6	30.2	34.6	32.0	40.5	22.4	34.9	34.3	40.7
④ 만족	45.3	38.1	38.0	51.3	43.5	57.6	38.2	47.3	50.0
⑤ 매우 만족	9.8	18.9	13.5	5.2	6.5	11.4	14.1	4.5	2.9
⑥ 무응답	0.3	1.5	0.8	0.3	—	—	—	—	—
2) 선생님들과의 관계									
① 매우 불만	7.5	6.0	9.0	7.5	10.2	2.9	10.0	10.0	3.4
② 불만	17.0	7.9	17.7	13.7	25.2	13.9	21.7	16.4	19.6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③ 그저 그렇다	47.1	43.8	47.7	52.6	51.0	40.4	43.4	43.8	52.5
④ 만족	23.9	29.4	20.3	24.5	12.9	39.6	18.1	25.9	23.0
⑤ 매우 만족	4.1	11.3	4.5	1.3	0.7	3.3	6.8	4.0	1.0
⑥ 무응답	0.4	1.5	0.8	0.3	—	—	—	—	0.5
3) 선생님의 교수 방법									
① 매우 불만	9.6	10.9	10.5	10.1	13.9	4.9	9.2	9.5	5.4
② 불만	22.1	14.7	25.9	23.2	39.1	11.8	18.9	13.9	25.0
③ 그저 그렇다	45.3	38.1	42.5	49.7	42.9	45.3	44.2	47.8	53.9
④ 만족	20.4	26.8	18.0	16.0	3.4	34.7	26.5	26.4	15.7
⑤ 매우 만족	1.9	7.2	1.5	0.7	0.3	2.4	1.2	2.0	—
⑥ 무응답	0.7	2.3	1.5	0.3	0.3	0.8	—	0.5	—
4) 학교의 총 수업시간(길이)									
① 매우 불만	18.3	20.8	15.8	26.1	16.3	13.9	13.7	28.4	10.3
② 불만	26.8	20.8	33.5	28.1	25.2	22.9	23.7	30.8	30.9
③ 그저 그렇다	30.9	29.1	33.5	26.5	41.8	26.9	35.3	19.9	31.4
④ 만족	21.2	21.1	15.0	18.3	16.0	32.7	24.5	18.4	26.0
⑤ 매우 만족	2.1	6.0	1.5	0.7	0.7	2.4	2.4	2.5	1.0
⑥ 무응답	0.7	2.3	0.8	0.3	—	1.2	0.4	—	0.5
5) 과제물(숙제)의 분량									
① 매우 불만	10.8	19.6	13.2	8.8	7.8	10.6	16.5	7.0	1.0
② 불만	17.5	14.3	23.3	12.7	13.3	19.2	28.1	15.9	14.2
③ 그저 그렇다	39.1	34.7	43.6	35.3	53.1	38.0	31.3	30.8	43.6
④ 만족	25.8	20.0	17.7	33.7	22.4	27.3	19.3	30.8	38.2
⑤ 매우 만족	62.	9.4	1.5	9.2	3.4	4.5	4.8	14.9	2.9
⑥ 무응답	0.5	1.9	0.8	0.3	—	0.4	—	0.5	—
17. 당신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직장을 갖기를 원합니까?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보수가 많은 직장	7.4	9.1	6.0	8.8	4.4	12.2	7.6	7.0	3.4
②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	12.7	15.5	6.8	14.1	10.5	9.8	7.6	21.9	18.6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③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	65.4	60.4	74.8	56.9	72.8	69.0	74.3	48.3	63.2
④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직장	13.9	13.6	11.3	19.9	12.2	7.8	10.0	22.4	14.7
⑤ 무응답	0.6	1.5	1.1	0.3	—	1.2	0.4	0.5	—
18.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돈을 벌기 위해	48.3	47.5	56.0	46.1	43.9	44.5	57.0	49.8	41.2
②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4.3	5.7	3.0	5.6	1.7	9.0	4.8	2.0	2.5
③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38.4	36.2	33.5	41.2	42.2	38.4	30.9	37.3	48.5
④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6.0	3.8	4.5	5.9	9.9	4.9	4.4	8.5	6.4
⑤ 무응답	3.0	6.8	3.0	1.3	2.4	3.3	2.8	2.5	1.5
19. 당신은 지난 1년동안 다음과 같은 문화 활동을 대략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그 횟수를 적어 주십시오.									
1) 영화관람	(2006)	(256)	(263)	(302)	(294)	(244)	(247)	(198)	(202)
	5.88	5.69	4.34	6.99	5.52	4.36	3.53	9.28	8.37
2) 연극공연 관람	(2019)	(260)	(263)	(304)	(294)	(245)	(249)	(200)	(204)
	0.43	0.45	0.41	0.40	0.55	0.49	0.15	0.30	0.69
3) 미술전시회 관람	(2017)	(261)	(263)	(302)	(294)	(245)	(249)	(200)	(203)
	0.55	0.68	0.83	0.41	0.79	0.33	0.22	0.34	0.73
4) 음악회 관람	(2017)	(261)	(263)	(303)	(294)	(245)	(249)	(199)	(203)
	0.61	0.47	0.56	0.47	1.34	0.60	0.40	0.27	0.59
5) 무용공연 관람	(2016)	(261)	(263)	(302)	(294)	(245)	(249)	(199)	(203)
	0.16	0.12	0.37	0.04	0.25	0.60	0.21	0.06	0.14
6) 운동경기 관람	(2018)	(261)	(263)	(303)	(294)	(245)	(248)	(200)	(204)
	1.28	3.44	0.63	2.50	0.80	0.94	0.28	0.82	0.27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7) 박물관 관람	(2015)	(261)	(263)	(302)	(293)	(244)	(249)	(200)	(203)
	1.00	1.14	1.09	0.76	0.85	1.49	1.20	0.79	0.66
8) 1박 이상의 여행	(2014)	(261)	(263)	(304)	(293)	(243)	(249)	(199)	(202)
	2.06	2.54	2.24	2.02	1.42	2.13	1.94	2.46	1.85
20. 당신은 다음과 같은 신문·잡지를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그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1) 일반신문(일주일에 약__일)	(2019)	(261)	(262)	(303)	(294)	(245)	(249)	(201)	(204)
	2.73	3.60	3.26	3.60	3.26	1.87	1.97	1.41	2.15
2) 스포츠 신문(일주일에 약__일)	(2018)	(260)	(263)	(303)	(293)	(245)	(249)	(201)	(204)
	1.06	1.21	0.66	1.59	1.13	0.88	0.71	1.45	0.74
3) 성인용 주간지(한달에 약__권)	(2013)	(260)	(263)	(300)	(291)	(245)	(249)	(201)	(204)
	0.34	0.40	0.07	0.61	0.19	0.14	0.28	0.96	0.10
4) 성인용 월간지(일년에 약__권)	(2011)	(260)	(263)	(299)	(291)	(245)	(249)	(201)	(203)
	0.63	0.41	0.29	1.21	0.45	0.17	0.21	1.94	0.54
5) 청소년용 잡지(일년에 약__권)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2.88	3.40	3.69	3.62	2.46	2.10	2.51	1.80	3.09
21. 현재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1) 학습참고서	(2011)	(260)	(260)	(303)	(292)	(245)	(249)	(200)	(202)
	12.32	14.46	15.23	16.73	14.07	8.93	9.23	6.88	10.01
2) 일반교양서적	(2001)	(259)	(254)	(303)	(289)	(244)	(249)	(201)	(202)
	30.79	49.17	46.52	38.79	39.84	12.18	15.20	8.34	26.56
3) 음악 테이프·레코드	(2008)	(260)	(258)	(303)	(289)	(245)	(249)	(201)	(203)
	25.30	28.04	20.91	46.21	36.01	10.73	10.15	19.57	22.80
22.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갖고 있습니까?(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제외) “갖고 있다”, “없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교		중		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다”중 하나의 응답항을 택하여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1) 카세트 라디오									
① 갖고 있다.	73.5	78.1	8.16	80.1	85.7	60.4	54.6	70.1	72.1
② 없다	26.0	21.9	17.3	19.0	13.9	39.2	45.0	29.9	27.9
③ 무응답	0.4	—	1.1	1.0	0.3	0.4	0.4	—	—
2) TV									
① 갖고 있다	27.4	40.4	24.8	25.5	23.8	29.0	26.5	24.9	24.0
② 없다	71.9	59.2	74.1	73.2	75.5	70.2	72.7	75.1	76.0
③ 무응답	0.7	0.4	1.1	1.3	0.7	0.8	0.8	—	—
3) 오디오시스템(전축)									
① 갖고 있다	19.4	27.2	22.9	25.5	23.5	13.9	10.8	11.9	14.2
② 없다	80.0	72.8	75.9	73.5	75.9	85.3	88.8	88.1	84.8
③ 무응답	0.6	—	1.1	1.0	0.7	0.8	0.4	—	1.0
4) 퍼스날 컴퓨터									
① 갖고 있다	16.6	41.1	18.8	28.4	10.2	12.7	4.0	5.5	3.9
② 없다	82.9	58.9	80.1	70.9	88.8	86.9	95.6	94.5	95.6
③ 무응답	0.5	—	1.1	0.7	1.0	0.4	0.4	—	0.5
5) 전자오락기구									
① 갖고 있다	17.1	41.1	21.1	19.3	13.6	18.4	5.6	8.5	3.4
② 없다	82.2	58.9	77.8	79.7	85.4	80.8	93.6	91.5	95.6
③ 무응답	0.7	—	1.1	1.0	1.0	0.8	0.8	—	1.0
6) 카메라									
① 갖고 있다	31.6	48.7	38.7	31.7	35.7	24.9	24.9	17.9	24.0
② 없다	67.3	50.9	60.2	67.0	62.9	73.5	74.3	81.1	75.0
③ 무응답	1.1	0.4	1.1	1.3	1.4	1.6	0.8	1.0	1.0
7) 자기 혼자 쓰는 방(독방)									
① 갖고 있다	56.7	62.3	57.9	54.2	56.5	54.3	48.6	64.2	56.9
② 없다	42.7	37.4	40.6	44.8	42.9	44.9	51.0	35.8	43.1
③ 무응답	0.6	0.4	1.5	1.0	0.7	0.8	0.4	—	—
23. 현재 당신이 친하게 사귀 고 있는 친구의 수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성의 친구,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이성의 친구로 나누어 각각 그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1) 동성의 친구 (_명) 2) 이성의 친구 (_명)									
24. 당신은 현재 자신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 느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 고 있습니까?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매우 불만이다	16.7	15.1	16.5	21.6	20.1	8.2	14.1	24.9	12.7
② 불만이다	31.0	21.1	35.7	31.7	37.4	27.3	27.7	26.9	40.2
③ 그저 그렇다	32.6	38.1	27.8	25.5	29.9	38.8	41.4	30.3	30.4
④ 만족한다	15.7	20.8	15.4	16.3	9.9	19.6	13.7	14.9	15.7
⑤ 매우 만족한다	3.5	4.2	4.1	4.2	2.7	5.7	2.8	2.5	1.0
⑥ 무응답	0.4	0.8	0.4	0.7	—	0.4	0.4	0.5	—
25. 당신의 한달 용돈은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한달에 약 _천원)	(2010)	(262)	(264)	(303)	(291)	(242)	(247)	(199)	(202)
	16.42	13.46	12.78	24.24	23.28	10.07	11.02	16.80	17.22
26. 현재 당신은 어떤 고민이 나 걱정거리를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주로 어떤 문 제로 고민하는지 가장 대표적 인 것을 하나만 골라서 그 번 호에 O표해 주십시오.									
①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	4.5								
② 학교에서의 공부·성적	36.3								
③ 진학·진로 문제	25.7								
④ 가족간의 불화	3.4								
⑤ 집안의 경제사정	2.4								
⑥ 이성문제	5.7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⑦ 친구문제	5.1								
⑧ 돈문제	2.8								
⑨ 성(sex)에 관한 문제	2.2								
⑩ 종교에 관한 문제	1.0								
⑪ 정치나 사회문제	0.6								
⑫ 자신의 외모	3.3								
⑬ 자신의 성격	6.4								
⑭ 무응답	0.6								
27. 당신에게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 누구와 상의하는지 다음 중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① 상의할 사람이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선생님									
⑥ 친구									
⑦ 선배									
⑧ 그밖의 사람									
⑨ 무응답									
28. 일주일에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는 대략 며칠 정도 됩니까?									
(일주일에 약 __일)	(2029)	(265)	(266)	(305)	(294)	(245)	(249)	(201)	(204)
	2.36	2.03	2.51	2.34	3.60	1.46	2.33	2.20	2.10
29. 일주일에 대략 며칠 정도 (20분 이상, 땀이 흐를 정도의 신체적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약 __일)	(2028)	(265)	(266)	(304)	(294)	(245)	(249)	(201)	(204)
	2.32	3.37	1.76	2.78	1.36	3.06	2.08	2.62	1.48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0. 지난 일년동안 몸이 아파서 병원(보건소 포함)을 방문한 횟수는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지난 일년동안 약 __회)	(2025) 3.25	(265) 4.54	(265) 4.20	(304) 2.11	(294) 4.05	(245) 2.28	(249) 3.27	(200) 2.82	(203) 2.46
31.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매우 허약하다	2.6	3.4	0.8	3.3	2.0	2.0	2.4	4.5	2.5
② 허약한 편이다	17.0	15.5	16.5	18.6	20.4	15.5	14.5	18.9	15.7
③ 보통이다	38.3	31.7	37.2	34.3	49.0	35.9	38.6	40.3	39.2
④ 건강한 편이다	31.7	30.6	34.2	32.4	23.8	35.1	33.7	28.4	36.8
⑤ 매우 건강하다	10.3	18.9	10.5	11.1	4.8	11.4	10.8	8.0	5.9
⑥ 무응답	0.1	—	0.8	0.3	—	—	—	—	—
32.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① 개인의 능력	24.5	19.6	21.4	27.8	30.6	17.1	20.1	27.9	32.4
② 개인의 노력	49.6	55.5	42.9	41.5	40.8	67.3	59.4	49.3	42.2
③ 집안의 배경	6.3	4.5	6.4	6.9	8.8	4.5	4.8	8.0	5.9
④ 학력이나 학벌	17.2	17.0	28.2	19.6	17.7	8.6	14.9	12.9	16.7
⑤ 요행이나 운수	2.0	3.0	1.1	3.6	1.7	1.6	0.8	2.0	2.0
⑥ 무응답	0.4	0.4	—	0.7	0.3	0.8	—	—	1.0
33. 당신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에서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빈부격차									
① 전혀 문제가 없다	1.7	3.0	0.8	1.3	1.0	3.3	2.8	1.0	0.5
② 별로 문제가 없다	5.5	8.3	5.6	1.6	2.0	11.4	6.8	5.5	3.4
③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16.7	19.6	17.7	13.7	12.6	20.0	18.9	12.9	18.6
④ 심각한 수준이다	39.1	34.3	41.7	39.2	39.5	35.5	36.5	38.8	48.5
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36.7	34.7	34.2	43.8	44.6	28.6	34.1	41.8	28.9
⑥ 무응답	0.3	—	—	0.3	0.3	1.2	0.8	—	—
2) 세대갈등									
① 전혀 문제가 없다	1.5	3.0	1.1	0.3	0.3	2.4	3.6	1.0	—
② 별로 문제가 없다	9.8	11.3	6.8	7.5	5.8	17.6	11.6	10.9	8.3
③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38.6	36.6	40.6	40.8	37.8	36.3	34.1	38.8	44.1
④ 심각한 수준이다	38.1	31.7	38.3	38.9	43.9	33.9	38.6	39.8	39.7
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1.4	16.2	12.0	12.1	12.2	8.6	10.8	9.5	7.8
⑥ 무응답	0.6	1.1	1.1	0.3	—	1.2	1.2	—	—
3) 교통문제									
① 전혀 문제가 없다	1.5	1.5	1.1	0.3	1.0	2.4	2.4	3.0	0.5
② 별로 문제가 없다	3.0	4.5	0.8	2.0	1.0	7.3	4.8	2.0	2.0
③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5.2	5.7	3.8	4.2	4.1	7.8	5.2	6.5	4.9
④ 심각한 수준이다	30.0	24.2	28.9	33.0	29.3	37.1	26.1	27.4	33.8
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60.1	64.2	65.4	60.1	64.6	44.9	60.6	60.7	58.8
⑥ 무응답	0.2	—	—	0.3	—	0.4	0.8	0.5	—
4) 환경과피·공해문제									
① 전혀 문제가 없다	1.1	—	0.8	—	0.3	2.4	2.8	3.0	—
② 별로 문제가 없다	2.7	1.9	0.8	1.6	0.7	6.1	5.2	4.5	1.5
③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3.7	5.7	3.4	3.3	1.0	7.3	2.4	4.5	2.9
④ 심각한 수준이다	28.0	21.9	21.4	31.7	30.3	33.9	24.9	26.9	33.3
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64.1	70.2	73.3	62.7	67.7	49.8	63.5	60.7	62.3
⑥ 무응답	0.4	0.4	0.4	0.7	—	0.4	1.2	0.5	—
5) 지역간 갈등(지역감정)									
① 전혀 문제가 없다	1.4	1.5	1.1	1.0	0.7	2.0	2.8	2.0	—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② 별로 문제가 없다	7.7	9.8	9.8	2.9	6.5	14.7	11.2	3.0	3.4
③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29.9	26.8	32.3	27.5	31.6	36.3	31.3	22.4	29.9
④ 심각한 수준이다	38.7	33.2	38.7	42.5	44.2	31.4	36.5	34.3	48.0
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1.6	27.9	17.7	25.8	16.7	14.3	16.5	37.8	18.6
⑥ 무응답	0.6	0.8	0.4	0.3	0.3	1.2	1.6	0.5	—
6) 노사분규									
① 전혀 문제가 없다	2.3	2.3	0.4	1.6	0.7	5.3	4.4	3.5	1.0
② 별로 문제가 없다	6.3	7.9	3.4	6.2	4.8	11.0	7.2	7.5	2.0
③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30.5	29.1	28.2	32.7	29.9	36.3	24.9	39.3	24.0
④ 심각한 수준이다	42.7	38.1	50.0	37.6	48.6	31.8	43.4	39.8	52.9
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7.9	22.6	17.7	21.6	15.6	14.7	18.9	10.0	20.1
⑥ 무응답	0.4	—	0.4	0.3	0.3	0.8	1.2	—	—
7) 대학생 시위									
① 전혀 문제가 없다	2.1	2.6	0.4	1.0	—	7.3	2.4	2.5	1.5
② 별로 문제가 없다	5.2	4.5	2.3	4.6	4.4	7.8	5.2	11.9	2.0
③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22.6	18.5	17.3	27.1	21.8	30.2	18.9	28.4	18.6
④ 심각한 수준이다	41.7	37.0	44.4	33.0	48.3	36.7	44.6	36.8	55.4
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8.1	37.4	35.7	34.0	25.2	17.6	27.7	20.4	22.5
⑥ 무응답	0.3	—	—	0.3	0.3	0.4	1.2	—	—
8) 범죄문제									
① 전혀 문제가 없다	1.2	1.1	0.4	—	—	4.9	2.0	2.0	—
② 별로 문제가 없다	1.1	1.1	0.4	0.7	—	4.1	0.8	2.0	—
③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5.4	7.2	2.6	6.5	2.4	9.8	4.8	6.5	3.4
④ 심각한 수준이다	33.7	31.3	20.3	41.8	29.9	38.8	30.1	44.3	35.3
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58.3	58.5	76.3	50.7	67.7	42.0	61.0	45.3	61.3
⑥ 무응답	0.3	0.8	—	0.3	—	0.4	1.2	—	—
9) 청소년 비행									
① 전혀 문제가 없다	1.6	1.5	—	1.3	0.3	5.3	2.0	2.5	—
② 별로 문제가 없다	2.3	1.9	0.8	3.3	—	4.5	3.6	3.5	1.5
③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9.9	12.5	7.9	9.2	4.8	14.3	12.4	12.9	6.4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준은 아니다									
④ 심각한 수준이다	40.1	33.6	35.7	37.9	39.5	46.9	40.2	46.8	43.6
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45.6	50.2	55.3	48.0	55.1	28.2	40.2	34.3	48.5
⑥ 무응답	0.5	0.4	0.4	0.3	0.3	0.8	1.6	—	—
10) 남녀간의 차별									
① 전혀 문제가 없다	3.7	9.1	0.4	4.2	0.3	6.5	2.0	7.5	—
② 별로 문제가 없다	13.5	21.9	6.4	17.6	3.1	23.7	10.8	20.9	4.4
③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	37.3	38.1	28.2	50.0	23.8	39.6	28.5	45.3	48.5
준은 아니다									
④ 심각한 수준이다	29.6	17.0	38.7	19.9	48.0	22.9	34.1	19.4	34.8
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5.2	13.6	26.3	7.5	24.5	5.7	22.5	6.5	12.3
⑥ 무응답	0.7	0.4	—	0.7	0.3	1.6	2.0	0.5	—
11) 학력에 따른 차별									
① 전혀 문제가 없다	1.5	3.0	—	1.0	—	4.5	0.8	3.5	—
② 별로 문제가 없다	3.6	5.3	2.3	1.6	1.7	9.4	5.2	2.5	1.5
③ 문제는 있지만 심각한 수	14.6	12.8	9.8	17.3	9.5	22.0	15.7	15.4	15.7
준은 아니다									
④ 심각한 수준이다	37.0	34.0	36.8	37.3	38.1	38.4	35.7	31.3	45.1
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42.8	44.5	51.1	42.5	50.3	25.3	41.4	47.3	37.7
⑥ 무응답	0.3	0.4	—	0.3	0.3	0.4	1.2	—	—
34.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까?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매우 불만이다	23.5	23.8	27.8	27.1	27.9	8.6	20.5	32.3	19.1
② 불만이다	47.0	44.2	49.6	48.7	50.0	40.4	43.0	42.3	57.8
③ 그저 그렇다	24.0	24.5	18.0	18.3	19.0	40.0	30.9	21.9	21.6
④ 만족한다	3.4	4.5	3.4	2.9	1.0	8.6	3.6	2.0	1.0
⑤ 매우 만족한다	1.7	2.6	1.1	2.3	2.0	1.2	2.0	1.0	0.5
⑥ 무응답	0.3	0.4	—	0.7	—	1.2	—	0.5	—
35.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일어									
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원인									
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까? 다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O표 해 주십시오. ① 부모에 문제가 있기 때문 ②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 ③ 본인의 자각 부족 ④ 나쁜 친구의 영향 ⑤ 사회나 어른들이 나쁘기 때문 ⑥ TV, 신문, 잡지 등 매스 컴의 영향 ⑦ 무응답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부모에 문제가 있기 때문	9.9	8.3	10.9	10.1	17.0	6.9	11.2	5.5	6.4
②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	11.0	8.7	7.9	16.7	11.9	6.1	4.8	15.9	16.7
③ 본인의 자각 부족	18.5	15.1	14.3	22.9	25.2	11.4	12.4	18.4	28.4
④ 나쁜 친구의 영향	30.1	40.4	29.7	27.8	18.0	45.3	25.3	40.3	16.2
⑤ 사회나 어른들이 나쁘기 때문	12.7	12.8	16.9	11.1	20.7	8.2	12.4	6.5	9.3
⑥ TV, 신문, 잡지 등 매스 컴의 영향	17.2	14.0	20.3	10.8	7.1	20.4	33.7	12.4	22.5
⑦ 무응답	0.5	0.8	—	0.7	—	1.6	—	1.0	0.5
36. 당신은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국가들과 비교하여 다음의 측면에서 어느정도 수준에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에 서 해당되는 응답항목을 골라 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1) 경제적인 발전수준 ① 매우 뒤져있다 ② 뒤져있다 ③ 중간수준이다 ④ 앞서있다 ⑤ 매우 앞서있다 ⑥ 무응답 2) 정치적인 발전수준 ① 매우 뒤져있다 ② 뒤져있다 ③ 중간수준이다 ④ 앞서있다 ⑤ 매우 앞서있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매우 뒤져있다	8.0	12.5	7.1	5.6	9.5	4.5	6.8	9.5	9.3
② 뒤져있다	29.3	23.4	34.2	31.7	33.7	24.1	25.3	26.4	34.8
③ 중간수준이다	53.0	46.0	52.3	55.9	53.7	46.5	57.8	58.2	53.9
④ 앞서있다	8.8	17.0	5.3	6.2	2.7	22.4	8.8	5.5	2.0
⑤ 매우 앞서있다	0.6	0.8	1.1	0.3	—	1.2	0.8	0.5	—
⑥ 무응답	0.3	0.4	—	0.3	0.3	1.2	0.4	—	—
① 매우 뒤져있다	26.9	29.1	22.9	39.5	27.2	15.9	16.9	31.8	30.9
② 뒤져있다	41.4	35.8	44.4	45.1	47.3	34.3	31.7	41.8	51.0
③ 중간수준이다	28.5	29.1	30.5	14.4	24.8	42.4	45.8	24.9	17.2
④ 앞서있다	2.3	3.8	1.9	0.3	0.3	5.3	4.4	1.5	1.0
⑤ 매우 앞서있다	0.3	1.5	—	0.3	—	0.4	—	—	—

	체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⑥ 무응답	0.6	0.8	0.4	0.3	0.3	1.6	1.2	—	—
3) 문화적인 발전수준									
① 매우 뒤져있다	10.5	12.1	9.4	15.4	12.9	6.1	8.4	7.5	9.8
② 뒤져있다	30.1	24.2	30.8	33.3	38.4	24.1	19.7	27.4	43.1
③ 중간수준이다	43.2	34.0	45.9	38.2	40.5	49.4	53.8	42.8	42.6
④ 앞서있다	14.0	24.2	12.0	11.1	7.5	16.7	16.1	21.4	3.9
⑤ 매우 앞서있다	1.6	4.9	1.5	1.6	0.3	2.0	1.2	1.0	—
⑥ 무응답	0.6	0.8	0.4	0.3	0.3	1.6	0.8	—	0.5
4) 국민들의 복지수준									
① 매우 뒤져있다	20.8	22.6	21.8	30.1	26.5	11.4	12.0	20.9	17.2
② 뒤져있다	43.7	37.0	51.1	44.1	49.3	31.8	41.4	44.8	50.5
③ 중간수준이다	31.1	31.7	24.4	24.2	22.1	44.9	43.0	30.8	31.4
④ 앞서있다	3.2	7.2	1.9	0.7	1.4	9.8	1.2	3.0	1.0
⑤ 매우 앞서있다	0.3	0.8	—	0.7	—	0.4	0.4	0.5	—
⑥ 무응답									
5) 국민 인권의 보장수준									
① 매우 뒤져있다	15.2	19.6	15.0	22.9	18.0	4.1	8.4	17.4	13.7
② 뒤져있다	37.5	29.4	47.4	41.8	41.8	24.1	32.1	36.8	45.6
③ 중간수준이다	40.7	41.5	35.0	32.0	37.4	55.1	54.2	33.3	38.2
④ 앞서있다	5.0	6.8	1.9	2.6	1.0	13.5	3.2	10.9	2.5
⑤ 매우 앞서있다	0.7	1.5	—	0.3	1.0	1.2	0.4	1.0	—
⑥ 무응답	0.9	1.1	0.8	0.3	0.7	2.0	1.6	0.5	—
6) 국민들의 질서 의식									
① 매우 뒤져있다	36.4	42.6	41.7	42.5	40.5	24.5	28.1	35.3	31.9
② 뒤져있다	41.3	36.6	43.6	42.8	41.8	39.2	36.9	37.8	52.5
③ 중간수준이다	19.3	16.2	13.5	13.1	16.3	26.9	30.9	24.4	15.7
④ 앞서있다	1.6	3.4	—	0.7	0.3	4.5	2.4	2.0	—
⑤ 매우 앞서있다	0.7	0.4	0.8	0.7	0.3	2.9	0.4	0.5	—
⑥ 무응답	0.7	0.8	0.4	0.3	0.7	2.0	1.2	—	—
37. 당신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까?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① 매우 불만이다	5.2	7.9	4.9	8.2	4.4	2.0	4.8	4.5	3.9
② 불만이다	13.2	9.8	19.9	8.8	17.3	11.4	14.5	9.5	13.1
③ 그저 그렇다	36.6	30.9	48.1	35.3	41.5	28.6	36.5	26.9	43.1
④ 만족한다	33.3	34.3	19.9	36.3	29.9	42.0	31.3	41.3	33.3
⑤ 매우 만족한다	11.5	16.6	7.1	10.8	6.8	15.1	12.9	17.9	5.9
⑥ 무응답	0.2	0.4	—	0.7	—	0.8	—	—	—
38. 당신의 성별은?							—		
① 남	50.1	13.1	—	15.1	—	12.1	—	9.9	—
② 여	49.9	—	13.1	—	14.5	—	12.3	—	10.0
③ 무응답	—	—	—	—	—	—		—	—
39. 현재 몇 학년입니까?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1학년	32.2	58.5	25.2	47.4	49.3	16.3	16.1	24.9	5.9
② 2학년	58.8	21.9	55.3	52.3	50.7	67.8	68.7	74.6	94.1
③ 3학년	9.0	19.6	19.5	0.3	—	15.9	15.3	0.5	—
④ 무응답	—	—	—	—	—	—	—	—	—
40. 지난 학기만 당신의 학급 성적은?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1-10등	24.7	24.2	22.2	21.9	23.5	29.4	28.1	24.9	25.0
② 11-20등	24.4	23.8	23.3	24.2	23.5	26.9	30.1	20.4	22.5
③ 21-30등	21.5	17.0	25.6	20.6	20.7	24.1	19.3	23.4	22.1
④ 31-40등	15.0	15.5	14.3	16.3	15.0	11.8	14.9	14.9	17.2
⑤ 41-50등	10.0	14.3	10.9	11.4	7.8	5.3	7.6	14.9	7.8
⑥ 51등 아래	1.8	4.5	1.9	2.6	1.0	0.8	—	1.5	1.5
⑦ 무응답	2.6	0.8	1.9	2.9	8.5	1.6	—	—	3.9
41.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오 른편의 보기에서 해당되는 응 답항목을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1) 아버지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① 국민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17.7	3.8	4.1	11.8	5.1	31.4	25.7	42.8	29.9
③ 고등학교 졸업	20.4	10.2	7.1	15.4	18.0	28.6	32.9	29.4	27.9
④ 대학교 졸업	29.0	26.0	30.1	30.7	38.8	27.8	26.1	20.4	28.4
⑤ 대학원 졸업	25.1	47.5	44.4	32.0	32.0	6.9	12.0	3.5	9.8
⑥ 무응답	5.9	11.7	13.9	6.9	5.4	1.6	1.6	0.5	2.9
	1.8	0.8	0.4	3.3	0.7	3.7	1.6	3.5	1.0
2) 어머니									
① 국민학교 졸업 이하	27.8	6.0	5.3	20.3	12.2	41.6	43.4	61.2	50.5
② 중학교 졸업	24.7	11.7	20.7	23.2	29.6	30.6	30.1	24.9	28.4
③ 고등학교 졸업	29.8	43.8	43.2	35.3	40.8	16.7	20.1	10.9	15.7
④ 대학교 졸업	14.6	32.8	28.6	17.3	16.0	4.9	4.4	1.0	3.9
⑤ 대학원 졸업	1.6	4.2	1.9	2.0	0.7	1.2	1.2	1.0	—
⑥ 무응답	1.6	1.5	0.4	2.0	0.7	4.9	0.8	1.0	1.5
42. 당신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중 어떤 것입니까?									
① 종교가 없다	38.0	32.1	25.6	41.8	37.4	43.7	36.5	47.8	42.6
② 기독교(교회)	34.4	35.5	35.3	32.0	36.7	20.0	45.0	33.8	36.8
③ 카톨릭(성당)	9.1	13.2	20.7	8.5	8.8	2.9	6.4	2.0	7.4
④ 불교	16.3	16.6	16.9	13.1	16.3	29.4	10.4	14.4	12.7
⑤ 기타 종교	1.7	2.3	1.1	3.6	0.7	2.0	1.6	2.0	—
⑥ 무응답	0.5	0.4	0.4	1.0	—	2.0	—	—	0.5
43. 당신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O표해 주십시오.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매우 잘 사는 편	1.3	2.6	1.1	1.6	0.7	0.4	1.2	1.0	2.0
② 그런대로 잘 사는 편	26.0	38.5	38.7	23.9	25.5	26.5	24.1	8.0	16.7
③ 중간정도	55.4	49.8	51.9	48.4	62.2	58.0	55.8	55.7	63.7
④ 중간보다 약간 못사는 편	14.5	7.5	7.5	20.3	9.9	11.8	16.9	29.4	16.2

	계	대 도 시				시 군 부			
		중		고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⑤ 중간보다 훨씬 못사는 편	2.4	1.1	0.4	5.6	1.7	1.6	1.6	6.0	1.5
⑥ 무응답	0.4	0.4	0.4	0.3	—	1.6	0.4	—	—
44. 현재 당신의 부친의 직업 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2030)	(265)	(266)	(306)	(294)	(245)	(249)	(201)	(204)
① 전문직	5.3	7.2	8.3	6.2	6.5	3.7	3.2	1.5	3.9
② 관리직	14.3	18.1	23.7	16.3	21.1	8.2	9.2	3.0	9.3
③ 전문기술직	10.2	16.6	10.5	9.2	16.0	6.1	10.0	6.5	3.9
④ 사무직	21.9	30.6	33.8	24.2	22.8	13.1	17.3	9.5	19.1
⑤ 생산직	5.4	3.4	3.8	11.8	8.2	4.9	2.4	3.5	2.9
⑥ 판매, 서비스직	13.7	15.1	13.5	16.3	20.1	10.2	11.2	11.4	8.8
⑦ 농업·어업	22.9	3.8	3.0	4.9	0.7	46.1	41.8	57.7	47.5
⑧ 무직	3.1	4.2	1.1	4.2	1.7	4.5	4.0	3.0	2.0
⑨ 무응답	3.1	1.1	2.3	6.9	3.1	3.3	0.8	4.0	2.5

